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19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02. 12. 20

<大韓中國學會>

회 장 : 류명희(부산대)

부 회 장 : 신홍철(동아대)

총무이사 : 남덕현(부산대)

학술이사 : 김용운(기획 및 총괄, 동아대)

김진영(고전문학 분과, 부산외대), 김희준(현대문학 분과, 부산대)

진광호(어학 분과, 부산외대), 이상도(중국어교육 분과, 울산대)

김영기(역사철학문화 분과, 동서대), 조광수(사회과학 분과, 영산대)

편집이사 : 서정희(부산대)

편집간사 : 박경송(영산대)

감 사 : 이재하(경성대), 정현철(경상대)

운영위원 : 고영근(부산외대), 김성문(진주간호보건대학), 김세환(부산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해양대), 김홍수(영산대), 류영표(경성대)

박경실(울산대), 박추현(경상대), 신석찬(부산여대), 심형철(신라대)

유병태(인제대), 이상규(영산대), 이웅길(동서대), 이철리(경남대)

임효섭(동아대), 정귀화(창원대), 정옥근(동의대), 최성경(경남정보대)

왕옥지(동명정보대), 박용래(부산경상대학)

편집위원 : 김광조(인제대), 김소현(동아대), 김양수(동국대), 김언하(동서대)

김용운(동아대), 김장환(연세대), 김해명(연세대), 김현철(연세대)

김홍수(영산대), 김희준(부산대), 박정구(성균관대), 변형우(성균관대)

서정희(부산대), 심우영(상명대), 양희석(전남대), 이강재(서울대)

이등연(전남대), 이상도(울산대), 이화범(영산대), 임춘성(목포대)

정해용(신라대), 조광수(영산대), 주성일(경주대), 한종호(동주대)

전홍철(우석대)

[題字] : 性坡스님 (通度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 19 輯

2002年 12月

目 次

중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이상도 · 오영식 · 오문의 · 박정구 ...	1
一·二等 重韻연구	박경송 ...	29
柳宗元 散文의 山水 이미지	林春英 ...	53
- 永州時期 山水記를 中心으로 -		
三袁의 사회성격 고찰	남덕현 ...	77
中唐 新興士大夫의 성장과 文壇의 변화	임효섭 ...	101
沈從文과 遊俠精神	안승웅 ...	143
中國詩歌會 簡介	김용운 ...	167
九葉派시 비평이론 탐원	藍棣之 ...	205
- 九葉派詩歌批評理論探源 -		
20世紀中國新詩史料工作述評	劉福春 ...	223
신시의 흐름을 논함	謝冕 · 원소윤 역 ...	249
中國現代詩歌中的傳統因子	蔣 寅 ...	283
“白洋淀 시 촌락”에 관한 小考	林 莽 ...	301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연구	許宗國 ...	323
- 1949년 이후 -		
會員住所錄, 會則 및 投稿要領		371

CHINESE STUDIES

Volume 19

December 2002

CONTENTS

- On the Selection of Primary Vocabulary in Chinese
Lee Sang-Doh · Oh Young-Sik · Oh Moon-Eui · Park Jung-Ku ... 1
- A Study of First and Second Divisions of
Double Rhymes Park Kyeng-Song ... 29
- Natural Imagery in Liu Zong Yuan's Prose ... Lim Chun-Young ... 53
- A Study on social character of San Yuan Nam Duk-Hyun ... 77
- The growth of newly rising class of
Scholar officials in the middle of Tang dynasty and
Changes in Literary circles Lim Hyo-Seop ... 101
- Shen Cong Wen and Chivalrous
Consciousness An Sung-Woong ... 143
- A Study of Zhongguoshigehui Kim Yong-Woon ... 167
- Profound Researches of Critic Theories about
Jiu Ye Poetic Sect Lan Di-Zhi ... 205
- Review works for Historical Materials over
Chinese New Poetry in 20th Century Liu Fu-Chun ... 223
- Discussing Streams of New Poetry Xie Mian ... 249
- Traditional Factor of Chinese Modern Poetry Jiang Yan ... 283
- Consideration over Countryside of
Bai Yang Dian's Poetry Lin Mang ... 301
- Han-ethnic Population Inflow in Xinjiang Uygur
Autonomous-Region and Its Relational Tie with Chinese
National Assimilation Policy: Since 1949 Hur Jong-Guk ... 323

중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이 상 도** · 오 영 식***
오 문 의**** · 박 정 구*****

<목 차>

1. 문제 제기
2. 어휘선정 원칙
 - 2.1 기존의 연구
 - 2.2 선정 원칙 및 방법
3. 선정 어휘 목록
 - 3.1 기초과정 기본어휘 (450개)
 - 3.2 초급과정 기본어휘 (815개)
 - 3.3 중급과정 확장 어휘 (3,258개)
4. 결론

1. 문제 제기

중국어가 2002년 수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제2외국어로 선택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에서도 이미 매주 특기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해 중국어교육학계의 준비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 중국어 교육의 첫 준비단계는 무엇보다도 기본어휘¹⁾ 선정이라고 할

* 이 논문은 2000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 한밭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 방송대학교 인문과학부 중어중문학과

***** 성균관대학교 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전공

수 있다. 기본어휘 선정이 이루어져야 수준별 교재를 만들 수 있고, 아울러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본어휘는 단계별로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대상에 따라 일반인·학생·전문분야 등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기본어휘 선정은 우리나라 중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의 중국어 학습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단계는 기초과정, 초급과정, 중급과정만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기초과정이나 초급과정의 어휘교육은 주어지는 어휘의 성격에 따라 학습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반해, 고급과정으로 갈수록 어휘의 양도 많아지고, 교육대상별 차이도 커지기 때문에 어휘 통제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어휘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학습효과이다. 한국인의 경우 모국어에 한자어휘가 많고, 음운구조가 중국어와 다르다는 점이 어휘선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이 이유 없이 한자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려면 이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어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문장의 어휘 또한 학습용 어휘 선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중국어 학습용 어휘를 선정하고자 한다. 어휘 선정 범위는 기본과정 기본어휘, 초급과정 기본어휘, 중급과정 기본어휘 선정을 연구범위로 한다.

어휘 선정은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며, 교육대상과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어휘의 모습 또한 차이가 많다. 따라서 한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여러 곳에서 활용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

1) 기본어휘란 평가를 전제로 한 어휘목록을 말한다. 학습 단계를 기초과정,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나눈다면, 가령 초급과정의 기본어휘는 초급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어휘를 의미한다. 단, 초급과정의 교재나 수업진행 시 제시하는 어휘의 범위는 이 기본어휘 범위보다 클 수 있다.

과과정의 특성과 교수자의 기호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어휘목록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어휘선정 원칙

2.1 기존의 연구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외 한어교육 방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비교적 중요한 어휘표를 거례하면 다음과 같다.

- 1959 普通话三千常用词表 (3000词) 文改会 汉字组
- 1960 两千双字词表 (2000词) 《文字改革》 발표
- 1964 外国学生用四千词表 (4000词) 北京语言学院
- 1981 外国人实用汉语常用词表 (3040词) 北京语言学院
- 1983 报刊词语三千六百条 (3600条) 北京语言学院
- 中小学文科教学七千词表 (7000词)
承德医学院,中国人民大学
- 现代汉语七千词表 (7000词) 中国人民大学
- 拟制文件六千词表 (6800词) 燕山计算机应用研究中心
- 1985 新息处理用现代汉语五千词表 (쌍음절어 이상 5639条)
现代汉语工程实用词库国家标准研制组
- 现代汉语频率词典 (상용 8548词) 北京语言学院
- 1986 对外汉语教学常用词表 (4000词) 北京语言学院
- 1988 汉语水平等级标准和等级大纲 (甲乙丙级 5168词)
中国对外汉语教学学会
- 1989 现代汉语常用词词频词典 (상용 9000词)
北京航空航天大学 등

- 1990 中小学汉语常用词表 (상용 8107词)
北京师范大学 现代教育技术研究所
—— 现代汉语常用词表 (상용 9000词) 山东大学
1991 北京口语调查 (상용 6966词) 北京语言学院
1992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
(1급 1033, 2급 2018, 3급 2202, 4급 3569/ 총 8822개 어휘)
中国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汉语水平考试部

위에서 중국이 선정한 외국인의 필수 어휘수는 약 3000개 정도²⁾이다. 이것은 바로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이하 'HSK 어휘')》의 1급·2급 상용단어를 합한 수(3051)에 상당한다.

대만의 경우는 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에서 1995년부터 어휘의 상용도 조사를 하여 연도별 《常用語詞調查報告書》를 제작해 오고 있다. 현재 1998까지 총 4년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1999년의 상용어휘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대륙의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가 중국어교육을 전제로 한 것과는 달리, 이 《常用語詞調查報告書(1998)(이하 '대만상용어휘')》는 중국어교육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지 어휘의 상용도를 조사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이 방면의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어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지난날의 중국어문학계 연구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도(1994)에서는 필수어휘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고, 92년 제 6차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국어 필수어휘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성·기본어휘의 고려, 구어단어 수록, 필수 單字 선정, 단계별 어휘표 작성 등을 들고 있다.

2)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때 대략 3,000개 단어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도 일단 중급과정까지 요구되는 어휘수를 약 3,000개 정도로 하고자 한다.

임연정(1998)은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 각 시기의 목표와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교과과정에 따라 선정된 어휘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누락 혹은 첨가된 어휘를 파악하고, 《現代漢語頻率詞典》을 중심으로 상용도 및 빈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주영(1999)은 현행 각 출판사별 중국어 교과서의 어휘를 조사하고, 교과서 별로 제 6차 교육부 기본어휘 반영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HSK어휘》의 어휘와 교과서에 출현한 어휘 그리고 6차 교육부 선정 기본어휘를 비교·분석하였고, 교과서 본문에서 사용된 어휘의 빈도와 분포 조사를 통하여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황미연(1999)은 「중국어 교과서 어휘의 분석」에서 제 6 차, 7차 교육부 기본어휘와 《HSK어휘》 어휘, 현행교과서의 어휘를 비교·분석하고 어휘의 빈도와 분포도를 비교, 분석하여 교과서 어휘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은숙(2001)은 《HSK어휘》와 《대만 상용어휘》를 비교하여 공통 상용어휘를 추출하고, 이 공통 상용어휘에 우리말 기본어휘에 대한 중국어 대응어휘를 다시 비교하여 공통된 어휘를 추출한 다음, 기능어 및 수업진행용 어휘 등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과정 중국어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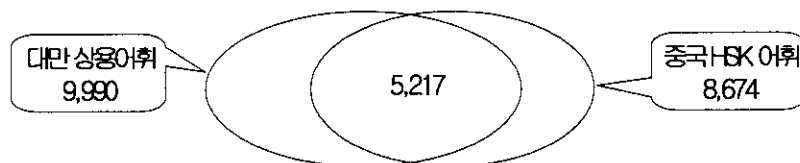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면 기존의 연구는 기존 어휘표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지적이 위주가 되고 있고, 실제 어휘 선정 시도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어휘선정은 개인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어느 학회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점에서 본고의 시도는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인 어휘표가 중국어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그 수정안이 나온다면 중국어교육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선정 원칙 및 방법

이은숙(2001)에서 선정된 어휘가 비교적 학습용 기본어휘 성격에 가까우며, 대만과 중국 상용어휘를 모두 다루었고 우리말 기본어휘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선정된 815개³⁾ 어휘를 기본어휘로 수용한다. 이 815개 어휘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 상용어휘는 《HSK어휘》甲급에서 丁급까지 8,822개 어휘를 말하며, 대만 상용어휘는 《대만 상용어휘》 14,469개 어휘 중에서 상용도 상위 10,000 순위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휘 비교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중복된 단어를 모두 제외하고 《대만 상용어휘》는 9,990개, 《HSK 어휘》는 8,674개를 비교한 결과, 5,217개 어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대만의 언어환경 차이가 있다고 해도 상용도가 높은 어휘는 대부분 공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중국과 대만의 공통 상용어휘

3) 이은숙(2001)에서 818개 어휘를 추출했다고 했으나, 실제 표에서 제시한 어휘는 816개이며 중복된 '張'자를 제외하면 모두 815개이다.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단 본고에서는 이은숙(2001)의 고등학교 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수는 815개로 한다.

<표 1> 《HSK 어휘》와 《대만 상용어휘》 일치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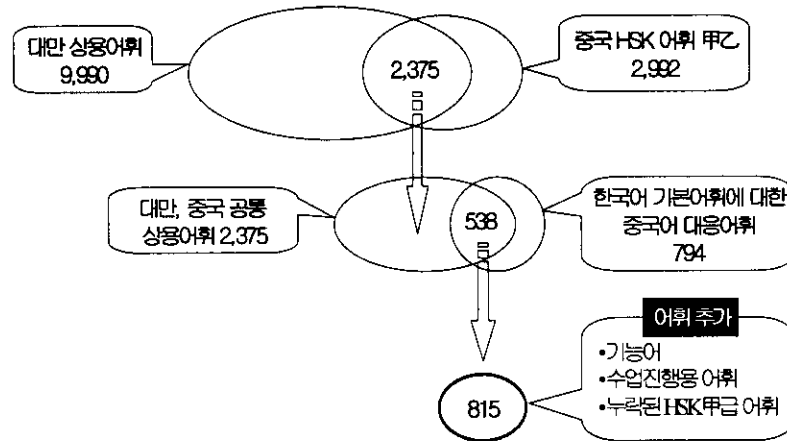
HSK 등급 및 어휘 총수	일치	불일치	일치율	
甲	1,007	852	155	84.60 %
乙	1,985	1,523	462	76.80 %
丙	2,127	1,310	817	61.58 %
丁	3,555	1,532	2,023	43.09 %
총계	8,674	5,217	3,457	60.14 %

<표 1>에 의하면 《HSK 어휘》 甲, 乙급 어휘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습용 기본어휘 추출을 위하여 범위를 《HSK 어휘》의 甲, 乙급 어휘로 국한하여 공통어휘 2,375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 기본어휘에 대한 중국어 대응어휘는 조현용(2000)에서 선정 제시한 한국어 기본어휘 725개를 대상으로 《진명 중한사전》의 대역어를 모두 수용하고 중복된 단어를 제외하여 794개 중국어 대응어휘를 만들었다.

중국 대만 공통어휘 2,375개와 한국어 기본어휘에 대한 중국어 대응어휘 794개를 비교하여 공통 출현한 538개 어휘를 추출하였다. 이 어휘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핵심어휘를 의미한다. 이 양상한 뼈대에 살을 붙일 필요가 있다.

우선 학습용 어휘이므로 내용어(content word)를 연결해 주는 기능어(function word)와 수업진행 시 자주 쓰이는 어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교 과정에서 누락된 《HSK 어휘》 甲급 어휘를 포함시키면 815개의 학습용 기본어휘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고등학교 과정 학습용 중국어 기본어휘 추출 과정

이 815개 어휘는 '무미건조한' 학습용 어휘이다. 즉 학습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어휘를 고려하지 않은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어휘를 《HSK 어휘》의甲级 어휘가 1,033개, 1997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공포한 고등학교 과정 중국어 기본어휘 802개⁴⁾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고등학교 기본어휘 802개는 『중국어 I』 교과서에서 약 350개가 사용되어야 하고, 『중국어 II』 교과서에서 약 561개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선정한 815개 어휘도 다시 그룹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다시 2분하여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의 기본어휘로 세분하고, 또 이 815개 어휘에 학습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4)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외국어과 교과과정(II)》의 별표2에 의하면, 고등학교 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수는 「기본어휘표」의 773개 어휘와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 43개를 포함하여 모두 816개이다. 교과서 제작 시,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 '숫자·계절 명칭·월명·방위·們으로 구성되는 낱말' 등은 기본어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어휘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류의 단어 14개를 제외하면 모두 802개가 된다.

어휘를 추가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학계, 영어교육학계 및 중국교육 관계 논문 등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원칙을 정하고 기본어휘를 추출하였다.

(1) 학습용 중국어 기본어휘는 이은숙(2001)의 815개 어휘(이하 초급어휘)를 수용하였다.

(2) 한국인 학습자의 학습용 필수어휘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의 여건(한국어 음운규칙, 한자어휘, 생활배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3) 서면어보다는 구어 위주로 선정하였다.

외국어 학습의 우선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다. 초급과정일수록 이 목표가 우선적으로 수립되고 달성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저단계 기본어휘일수록 구어 위주로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4) 내용어보다 기능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과정 이하 하위 과정 중국어 교육에서는 내용어가 위주로 되어야 하겠지만, 상위 과정 중국어 교육에서는 기능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어는 어순으로 문법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기능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HSK 어휘》의甲级과 乙급 상용단어에서 품사가 대체사, 전치사, 접속사, 조동사, 조사인 단어들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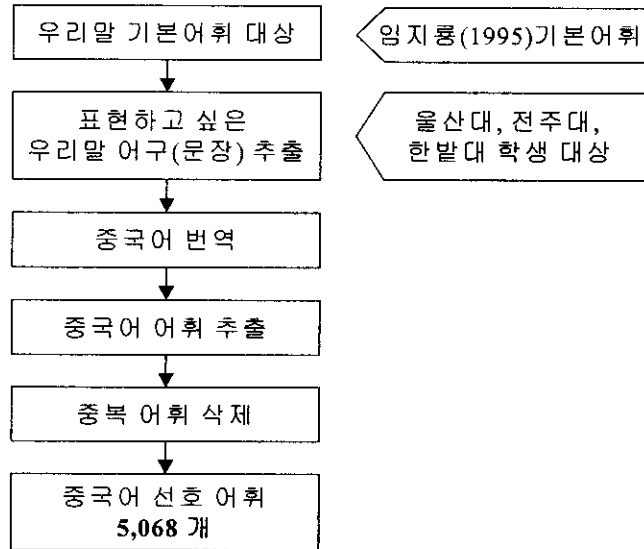
(5) 교과내용을 소개 유도하는 어휘나 교실수업에 필요한 어휘는 필수어휘에 포함하였다.

이런 어휘는 상용도와 무관하게 수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

를 선별해야 한다. 선정작업은 우선 우리말 단어를 선별하여 중국어 대역어로 바꾸고, 중국인 교사에게 중국에서 수업할 때 자주 쓰는 어휘를 선별하게 한 다음 이 두 그룹의 어휘를 비교하여 상용어휘를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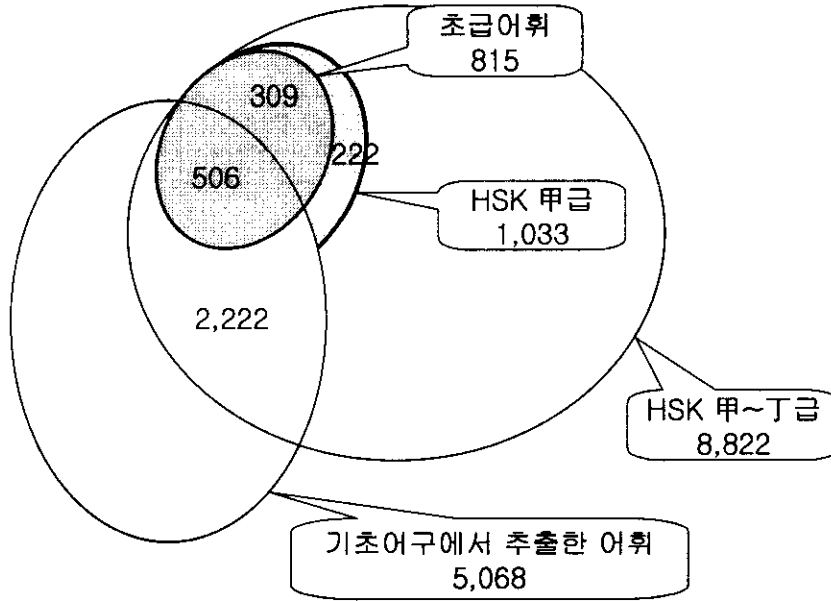
(6)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어하거나, 중국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휘를 포함시켰다.

한국 대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휘를 선별하여 기본어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3>과 같이 임지룡(1995:98-103)에서 선별한 한국어 기초어휘 목록 1,500개 어휘를 울산대, 전주대, 한밭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기초어휘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어구(절)을 만들게 하였다. 이렇게 만든 기초어구(문장 포함)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중국어에서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중국어 어휘 5,068개(이하 선호어휘)를 추출하였다. 우리말 기초어구에 사용된 어휘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부록에 부기한다.



<그림 3> 중국어 선호어휘 추출 과정

이 선호어휘 5,068개를 초급어휘 815개 어휘 및 《HSK 어휘》 8,822개 어휘와 대조하여 <그림 4>와 같이 3,258개 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3,258개 어휘는 중국에서 외국인 대상 필수어휘로 선정된 약 3,000개 정도 어휘목록과 어휘수가 근접되어 있다. 이 어휘목록은 선호어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어휘라고 하기 보다, 초급과정 기본어휘에 대한 확장어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4> 선호어휘, 초급어휘, 《HSK 어휘》 비교

3. 선정 어휘 목록

단계별 기본어휘 목록은 다음과 같다.

3.1 기초과정 기본어휘 (450개)

啊, 爱, 八, 吧, 爸爸, 白, 百, 班, 搬, 班长, 帮, 帮助, 杯, 被, 本, 本子, 比, 变, 别的, 别人, 病, 不, 不过, 擦, 菜, 餐厅, 操场, 茶, 长, 常, 常常, 唱, 车, 吃, 迟到, 出, 出来, 出去, 出租汽车, 穿, 窗, 窗户, 床,

春节, 春天, 词典, 从, 错, 打, 大, 大家, 大学, 戴, 带, 但是, 当, 到, 得, 得, 的, 得, 等, 低, 地, 弟弟, 地方, 地图, 第一, 点, 电话, 电视, 电影, 东西, 冬天, 懂, 都, 读, 肚子, 短, 对, 对不起, 多, 多少, 儿子, 耳朵, 二, 饭, 饭店, 放, 非常, 飞机, 风, 附近, 父亲, 复习, 干, 干净, 感谢, 高, 高兴, 告诉, 歌, 哥哥, 个, 给, 跟, 更, 公共汽车, 公司, 狗, 挂, 关, 贵, 国家, 过, 过去, 还, 还是, 孩子, 海, 汉字, 好, 好看, 号, 喝, 和, 河, 黑, 黑板, 很, 红, 后, 花, 画, 话, 坏, 还, 换, 黄, 回答, 回来, 回去, 会, 会话, 活, 火, 火车, 几, 家, 件, 见, 健康, 见面, 讲, 教, 脚, 叫, 教室, 接, 姐姐, 借, 介绍, 今年, 今天, 进, 近, 进去, 九, 就, 举, 咖啡, 开, 开始, 看, 看见, 可是, 可以, 课本, 客气, 课文, 空, 口, 苦, 快, 来, 老师, 了, 冷, 离, 里面, 脸, 练习, 两, 了解, 零, 六, 楼, 路, 旅行, 妈妈, 马路, 马上, 吗, 买, 卖, 慢, 忙, 帽子, 没有, 妹妹, 门, 面包, 明天, 名字, 母亲, 拿, 哪个, 哪里, 哪儿, 哪些, 那, 那边, 那个, 那里, 那么, 那儿, 那些, 那样, 奶奶, 男, 难, 呢, 内, 你, 你们, 年, 年级, 年纪, 念, 您, 牛, 努力, 女, 女儿, 怕, 旁边, 跑, 朋友, 漂亮, 票, 七, 起来, 气, 汽车, 铅笔, 钱, 前面, 敲, 桥, 秋天, 去, 千, 前, 轻, 清楚, 请, 去年, 人, 人民, 认识, 日, 容易, 三, 伞, 山, 上, 上课, 上面, 上去, 上午, 少, 谁, 深, 身体, 什么, 生词, 十, 食堂, 事, 是, 事情, 手, 书, 叔叔, 树, 水, 睡, 睡觉, 说, 四, 送, 算, 岁, 它, 他, 她, 它们, 他们, 她们, 太, 太阳, 谈, 讨厌, 疼, 提, 天, 天气, 甜, 听, 听见, 停, 同学, 头, 图书馆, 腿, 脱, 外国, 外面, 完, 碗, 晚, 晚上, 万, 往, 为, 喂, 为什么, 问, 问题, 我, 我们, 五, 喜欢, 洗, 系, 下, 下课, 下面, 下去, 下午, 夏天, 先, 现在, 想, 像, 向, 小, 笑, 鞋, 写, 谢谢, 信, 星期, 星期日, 星期天, 行李, 姓, 休息, 学, 学生, 学习, 学校, 颜色, 眼睛, 眼镜, 要, 爷爷, 也, 一, 一点儿, 一定, 衣服, 一会儿, 一起, 一样, 医院, 以后, 已经, 以前, 意思, 以为, 椅子, 音乐, 银行, 英语, 有, 有的, 有名, 有些, 又, 右边, 鱼, 愉快, 雨, 预习, 圆, 远, 愿意, 月, 月亮, 运动, 再, 在, 咱, 咱们, 脏, 早, 早晨, 早上, 怎么, 怎么样, 怎样, 站, 张, 找, 这, 这边, 这个, 这里, 这么, 这儿, 这些, 这样, 真, 正, 知道, 纸, 中间,

种, 重, 桌子, 字, 走, 嘴, 最, 昨天, 左边, 做, 作, 坐

3.2 초급과정 기본어휘 (815개)

啊, 爱, 安静, 暗, 按, 按照, 八, 吧, 拔, 爸爸, 白, 白天, 百, 班, 搬, 班长, 帮, 帮助, 包, 抱, 报纸, 杯, 被, 本, 本子, 比, 笔记, 比较, 必须, 便, 变, 表, 别的, 别人, 宾馆, 并, 并且, 病, 病人, 脖子, 补课, 不, 不但, 不管, 不过, 不仅, 不论, 不然, 不如, 不同, 擦, 菜, 餐厅, 操场, 朝, 层, 茶, 长, 常, 常常, 唱, 吵, 车, 趁, 成, 乘, 成绩, 城市, 吃, 迟到, 尺, 初, 出, 出来, 出去, 出席, 出租汽车, 厨房, 穿, 传, 船, 窗, 窗户, 床, 吹, 春节, 春天, 词典, 此, 此外, 从, 从此, 从而, 错, 错误, 答卷, 打, 大, 大家, 大伙儿, 大人, 大学, 大夫, 戴, 带, 担任, 蛋, 但, 但是, 当, 挡, 刀, 倒, 到, 到底, 得, 得, 的, 得, 等, 等待, 低, 的确, 地, 弟弟, 地点, 地方, 地图, 第一, 地址, 点, 店, 电, 电话, 电视, 电影, 掉, 东西, 冬天, 懂, 动, 都, 读, 肚子, 短, 断, 对, 对不起, 对话, 对于, 多, 多少, 而, 而且, 儿子, 耳朵, 二, 发, 发生, 饭, 饭店, 方面, 方式, 方向, 访问, 放, 放假, 放弃, 飞, 非常, 飞机, 费, 分, 分别, 分数, 粉笔, 份, 风, 否则, 浮, 附近, 父亲, 复习, 复杂, 该, 干, 干净, 感谢, 敢, 高, 高度, 高兴, 告诉, 歌, 哥哥, 各, 个, 各种, 给, 跟, 更, 工厂, 工作, 公共汽车, 公司, 狗, 古代, 故事, 故乡, 挂, 关, 关于, 贵, 国家, 过, 过去, 还, 还是, 孩子, 海, 海洋, 汗, 寒假, 汉字, 好, 好看, 号, 喝, 和, 河, 黑, 黑板, 很, 红, 后, 忽然, 护照, 花, 画, 话, 坏, 欢迎, 还, 换, 黄, 回答, 回来, 回去, 会, 会话, 活, 火, 火车, 或, 或者, 机场, 机器, 急, 挤, 及, 及格, 几, 既, 既然, 技术, 计算, 家, 加, 加以, 价格, 检查, 简单, 建, 件, 见, 健康, 建立, 见面, 江, 将, 讲, 教, 角, 脚, 叫, 较, 教材, 教室, 教授, 街, 接, 接着, 结果, 结婚, 结束, 姐姐, 借, 介绍, 今年, 今天, 尽管, 进, 近, 进去, 经过, 经济, 精神, 究竟, 久, 九, 旧, 就, 救, 卷,

举, 距离, 句子, 决定, 咖啡, 开, 开始, 看, 看见, 看来, 考试, 靠, 可, 可能, 可是, 可以, 客人, 课本, 客气, 课文, 肯, 空, 空气, 孔, 口, 哭, 苦, 快, 宽, 旷课, 啦, 来, 拦, 朗读, 老师, 了, 冷, 离, 离开, 礼物, 理由, 立, 力量, 历史, 例子, 哩, 脸, 练习, 两, 亮, 了不起, 了解, 零, 留, 六, 楼, 楼梯, 路, 落, 旅行, 录音机, 妈妈, 马路, 马上, 嘛, 吗, 埋, 买, 卖, 满, 慢, 忙, 帽子, 没有, 每, 美, 妹妹, 门, 面包, 明天, 名字, 摸, 某, 母亲, 拿, 哪, 哪个, 哪里, 哪怕, 哪儿, 哪些, 呐, 那, 那边, 那个, 那里, 那么, 那儿, 那些, 那样, 奶奶, 男, 难, 难过, 呢, 内, 内容, 能够, 你, 你们, 年, 年级, 年纪, 年轻, 念, 您, 牛, 努力, 女, 女儿, 怕, 拍, 派, 旁边, 跑, 陪, 朋友, 飘, 漂亮, 票, 苹果, 平静, 平原, 脾气, 七, 期间, 骑, 奇怪, 其它, 其他, 其余, 起, 起来, 气, 汽车, 铅笔, 钱, 前面, 敲, 桥, 切, 且, 秋天, 球, 去, 缺席, 千, 前, 轻, 清楚, 请, 全, 去年, 然而, 人, 人民, 任何, 忍, 认识, 认真, 扔, 日, 日子, 容易, 肉, 如, 如果, 如何, 弱, 三, 伞, 山, 伤, 商店, 上, 上课, 上面, 上去, 上午, 少, 谁, 伸, 深, 身体, 什么, 什么的, 生, 生词, 生活, 声调, 声音, 省, 十, 时候, 时间, 食堂, 使用, 事, 是, 市场, 适合, 世界, 事情, 收, 手, 首先, 受, 书, 书包, 舒服, 叔叔, 暑假, 树, 双, 水, 水果, 睡, 睡觉, 说, 说明, 四, 送, 算, 虽然, 随, 岁, 所, 所以, 它, 他, 她, 它们, 他们, 她们, 太, 太阳, 谈, 汤, 讨论, 讨厌, 套, 特别, 疼, 踢, 提, 替, 替换, 天, 天气, 甜, 听, 听见, 听写, 停, 停止, 挺, 通过, 通知, 同, 同学, 同样, 痛, 投, 头, 突然, 图书馆, 腿, 脱, 哇, 外国, 外面, 完, 完成, 碗, 晚, 晚上, 万, 往, 忘, 危险, 位, 为, 为, 喂, 味道, 为了, 为什么, 文化, 问, 问候, 问题, 我, 我们, 屋子, 无论, 五, 雾, 喜欢, 洗, 系, 下, 下课, 下面, 下去, 下午, 夏天, 先, 献, 线, 现在, 相似, 乡下, 想, 像, 向, 消息, 小, 小说, 小心, 笑, 校长, 校园, 鞋, 写, 谢谢, 新, 心, 信, 星期, 星期日, 星期天, 兴趣, 行李, 姓, 幸福, 性格, 胸, 兄弟, 修理, 休息, 需要, 许多, 选择, 学, 学期, 学生, 学习, 学校, 雪, 寻找, 压, 呀, 严重, 沿, 颜色, 眼睛, 眼镜, 眼泪, 要, 药, 要求, 要是, 爷爷, 也, 夜, 一, 一般, 一点儿, 一定, 衣服, 一会儿, 一起, 一切, 医生, 一样, 医院, 一直, 以, 以后, 以及, 已

经, 以来, 以前, 意思, 以为, 椅子, 亿, 因此, 因而, 因为, 音乐, 银行, 应, 应当, 英语, 用, 由, 由于, 邮票, 有, 有的, 有名, 有些, 又, 右边, 于, 鱼, 愉快, 于是, 与, 雨, 语法, 预备, 预习, 圆, 圆珠笔, 远, 愿意, 约, 月, 月亮, 云, 运动, 再, 在, 咱, 咱们, 脏, 早, 早晨, 早上, 造句, 则, 怎么, 怎么样, 怎样, 窄, 展开, 站, 张, 找, 照, 这, 这边, 这个, 这里, 这么, 这儿, 这些, 这样, 真, 正确, 正, 整理, 正好, 知道, 职业, 纸, 只是, 只要, 只有, 中间, 种, 重, 周, 主意, 转, 装, 准备, 准确, 桌子, 仔细, 字, 自, 自从, 自己, 自我, 总是, 走, 组织, 嘴, 最, 昨天, 左边, 左右, 做, 作, 坐, 作为, 座位, 作业

3.3 중급과정 확장 어휘 (3.258개)

啊, 挨, 癌, 矮, 爱, 爱戴, 爱好, 爱情, 爱人, 爱惜, 安, 安定, 安静, 安排, 安慰, 安装, 按, 按照, 案, 案件, 暗, 暗淡, 凹, 熬, 八, 扒, 吧, 拔, 把, 把握, 把戏, 爸爸, 白, 白菜, 白天, 百, 摆, 拜, 班, 班长, 般, 搬, 板, 办, 办法, 办公室, 办理, 半, 半天, 伴侣, 伴奏, 拌, 帮, 帮助, 绑, 榜样, 棒, 包, 包袱, 包裹, 包含, 包装, 宝贵, 宝石, 饱, 保持, 保存, 保管, 保护, 保守, 保卫, 保险, 保障, 保证, 报, 报答, 报到, 报道, 报告, 报纸, 抱, 暴露, 暴雨, 爆, 爆发, 杯, 杯子, 悲伤, 北, 北边, 背, 背叛, 背诵, 倍, 被, 被告, 被子, 奔, 奔驰, 奔跑, 本, 本领, 本事, 本质, 本子, 笨, 笨蛋, 笨拙, 崩溃, 绷带, 鼻涕, 鼻子, 比, 比较, 比赛, 笔, 笔记, 笔直, 必须, 毕业, 闭, 闭幕, 避, 边, 编, 便, 便宜, 变, 变成, 变化, 遍, 辨别, 辩护, 辫子, 标, 标题, 标准, 表, 表面, 表情, 表示, 表现, 表演, 表扬, 别, 别的, 别扭, 别人, 宾馆, 冰, 饼, 饼干, 并, 并且, 病, 病毒, 病情, 病人, 拨, 波浪, 波涛, 玻璃, 剥, 剥削, 脖子, 播送, 播音, 播种, 薄, 薄弱, 补, 补充, 补课, 捕, 不, 不安, 不错, 不但, 不得了, 不定, 不顾, 不管, 不过, 不好意思, 不见, 不仅, 不久, 不利, 不良, 不论, 不然,

不如, 不是, 不同, 不要, 不用, 不足, 布, 布置, 步, 步伐, 步子, 部长, 部分, 部件, 擦, 猜, 猜测, 才, 材料, 财产, 裁, 裁判, 采, 采访, 采集, 踩, 菜, 参, 参观, 参加, 参军, 参与, 餐厅, 残疾, 残酷, 惨, 苍白, 苍蝇, 藏, 操, 操场, 操纵, 操作, 草, 侧, 测, 测定, 测量, 策略, 层, 插, 插秧, 查, 茶, 岔, 差, 差错, 拆, 掺, 缠, 蝉, 产, 产品, 产生, 产业, 颤, 颤动, 颤抖, 昌盛, 长, 长, 长度, 长久, 长期, 肠, 尝, 偿还, 常, 常常, 场, 场面, 场所, 敞开, 唱, 抄, 超越, 朝, 嘲笑, 吵, 吵架, 吵闹, 炒, 车, 车站, 扯, 尘土, 沉, 沉默, 沉思, 沉重, 闯, 称, 称呼, 称赞, 趁, 撑, 成, 成长, 成功, 成果, 成绩, 成品, 成千上万, 成熟, 成为, 成效, 呈, 承包, 承认, 承受, 城, 城市, 城镇, 乘, 惩罚, 程度, 吃, 吃惊, 吃苦, 吃力, 迟到, 迟疑, 持续, 尺, 尺寸, 齿轮, 翅膀, 充分, 充满, 充沛, 充实, 冲, 冲锋, 冲突, 虫子, 抽, 抽屉, 筹备, 踌躇, 臭, 出, 出动, 出发, 出来, 出去, 出身, 出生, 出席, 出现, 出租, 出租汽车, 初, 除了…以外, 厨房, 锄, 储存, 储蓄, 处, 处理, 处于, 穿, 传, 传播, 传达, 传单, 传递, 传染, 传统, 传真, 船, 疮, 窗, 窗户, 窗帘, 床, 创, 创造, 创作, 吹, 捶, 春, 春节, 春天, 词, 词典, 辞职, 磁带, 此, 此外, 次, 次品, 次序, 刺, 刺激, 从, 从…到…, 从此, 从而, 从前, 从事, 从中, 葱, 聪明, 粗, 粗暴, 粗粮, 促进, 催, 脆, 脆弱, 村庄, 村子, 存, 存放, 存款, 搓, 错, 错误, 搭, 搭配, 达, 达成, 达到, 答, 答卷, 打, 打败, 打扮, 打架, 打破, 打扫, 打算, 打听, 打招呼, 大, 大便, 大夫, 大概, 大伙儿, 大家, 大街, 大理石, 大量, 大批, 大人, 大声, 大小, 大学, 大意, 呆, 代, 代表, 带, 带动, 带子(儿), 逮捕, 戴, 单纯, 单词, 单调, 单位, 担, 担保, 担任, 胆, 胆怯, 胆子, 但, 但是, 弹, 淡, 蛋, 当, 当然, 当选, 当中, 当做, 挡, 荡, 档案, 刀, 岛, 倒, 捣, 捣蛋, 到, 到处, 到底, 盗, 道, 道德, 道理, 道路, 稻子, 得, 得, 得, 得到, 得意, 的, 的确, 灯, 灯泡, 登, 等, 等待, 瞪, 低, 堤, 敌人, 底(儿), 抵, 地, 地板, 地道, 地点, 地方, 地面, 地球, 地毯, 地图, 地震, 地址, 弟弟, 递, 第(第一), 第一, 点, 点名, 点心, 点钟, 电, 电报, 电冰箱, 电车, 电灯, 电风扇, 电话, 电脑, 电视, 电梯, 电线, 电影, 电影院, 店, 垫, 雕刻, 雕塑, 吊, 钓, 调, 调查, 调动, 调换, 调皮, 调整,

掉, 叠, 钉, 钉子, 顶, 订婚, 订阅, 定, 丢, 丢失, 东, 东边, 东西, 冬, 冬天, 懂, 懂得, 懂事, 动, 动静, 动手, 动物, 动摇, 动作, 冻, 洞, 都, 都市, 兜, 抖, 陡, 豆腐, 逗, 读, 独特, 堵, 堵塞, 赌, 肚子, 度, 渡, 端正, 短, 段, 断, 断绝, 锻炼, 堆积, 对, 对不起, 对待, 对方, 对话, 对抗, 对象, 对于, 对照, 顿, 多, 多么, 多少, 哆嗦, 夺, 躲, 躲避, 堕落, 舵, 跺, 恶, 恶化, 恶劣, 恶心, 饿, 恩情, 儿女, 儿子, 而, 而且, 耳朵, 二, 发, 发出, 发达, 发抖, 发挥, 发火, 发起, 发热, 发烧, 发生, 发现, 发行, 发言, 发扬, 发展, 罚, 法, 法律, 法语(法文), 法院, 帆, 翻, 翻身, 翻译, 烦, 烦闷, 烦恼, 繁华, 繁忙, 繁荣, 反, 反对, 反复, 反抗, 反应, 反映, 返回, 犯, 犯人, 泛, 泛滥, 饭, 饭店, 范围, 方便, 方法, 方面, 方式, 方向, 房间, 房子, 访问, 放, 放假, 放弃, 放松, 放心, 飞, 飞机, 飞舞, 非常, 非法, 肥, 肥料, 肥皂, 诽谤, 沸腾, 费, 费力, 费用, 分, 分别, 分类, 分裂, 分明, 分配, 分数, 分外, 分析, 分钟, 粉, 粉笔, 份, 愤恨, 丰富, 丰收, 风, 风筝, 封, 封闭, 封锁, 疯, 锋利, 蜂蜜, 缝, 佛教, 否认, 否则, 夫人, 伏, 服, 服务, 服务员, 服装, 浮, 浮动, 幅度, 抚养, 斧子, 辅导, 父亲, 付, 负担, 负责, 附带, 附和, 附加, 附近, 复习, 复印, 复杂, 腹, 覆盖, 该, 改, 改变, 改建, 改良, 改造, 盖, 概括, 干, 干部, 干活儿, 干净, 干燥, 杆, 肝, 赶, 赶上, 敢, 感, 感到, 感觉, 感冒, 感情, 感染, 感受, 感谢, 刚, 刚才, 钢笔, 高, 高潮, 高度, 高空, 高明, 高兴, 高涨, 搞, 告诫, 告诉, 疙瘩, 哥哥, 胳膊, 鸽子, 割, 搁, 歌, 歌曲, 歌手, 格, 格外, 个, 个儿, 个人, 个性, 各, 各种, 给, 给豫, 根, 根本, 根据, 跟, 跟随, 更, 更改, 更换, 耕, 工, 工厂, 工钱, 工人, 工业, 工资, 工作, 公共, 公共汽车, 公斤, 公开, 公里, 公路, 公司, 公园, 功夫, 攻击, 供, 供应, 恭敬, 共同, 贡献, 沟, 狗, 构成, 构思, 构想, 购买, 够, 估计, 姑姑, 姑娘, 孤独, 孤立, 古代, 骨头, 鼓, 鼓励, 固定, 固执, 故事, 故乡, 故障, 雇用, 刮, 挂, 拐, 怪, 关, 关怀, 关系, 关心, 关于, 关照, 观测, 观察, 观看, 观念, 观赏, 馆, 管, 惯, 灌, 光, 光棍儿, 光滑, 光亮, 光芒, 光荣, 广播, 广告, 广阔, 逛, 规矩, 规则, 轨道, 贵, 贵姓, 跪, 滚, 滚动, 锅, 锅炉, 国, 国会, 国家, 国民, 国旗, 果实, 裹, 过, 过分, 过来,

过去, 过失, 哈哈, 孩子, 海, 海洋, 害怕, 含, 含糊, 含有, 寒假, 喊, 喊叫, 汉语, 汉字, 汗, 旱灾, 捍卫, 毫无, 好, 好吃, 好处, 好看, 好像, 号, 号召, 喝, 合, 合格, 合适, 合算, 合同, 和, 和蔼, 和解, 和睦, 和气, 和谐, 河, 河流, 核心, 黑, 黑板, 痕迹, 很, 哼, 横, 哄, 红, 猴子, 后, 后边, 后悔, 后面, 厚, 厚度, 呼, 呼吸, 忽然, 忽视, 胡乱, 胡说, 胡同, 胡子, 湖, 糊, 互相, 护照, 花, 华丽, 滑, 化, 化学, 化妆, 划, 画, 话, 话剧, 话题, 怀, 怀念, 怀疑, 怀孕, 坏, 欢迎, 还, 还, 还是, 环, 缓, 缓慢, 换, 患, 荒凉, 荒谬, 荒唐, 慌, 黄, 黄瓜, 黄金, 晃, 灰, 灰尘, 恢复, 挥, 回, 回答, 回来, 回去, 回收, 回想, 回忆, 汇, 会, 会话, 会议, 贿赂, 毁, 毁坏, 昏, 昏迷, 浑身, 混乱, 活, 活动, 活儿, 活该, 活泼, 火, 火柴, 火车, 或, 或者, 货物, 获, 获得, 获取, 祸, 击, 机场, 机会, 机器, 机械, 肌肉, 鸡, 鸡蛋, 积, 积累, 积压, 基本, 基础, 激动, 激发, 激烈, 及, 及格, 极, 极度, 极其, 极限, 急, 急躁, 疾病, 集合, 集市, 集体, 集邮, 几, 挤, 脊梁, 计划, 计算, 计算机, 记, 记号, 记号, 记性, 记忆, 纪念, 技巧, 技术, 季节, 既, 既然, 继承, 继续, 寂寞, 寄, 加, 加工, 加入, 加以, 加油, 加重, 夹, 夹子, 家, 家具, 家庭, 价, 价格, 价值, 架, 架子, 假, 假期, 假装, 嫁, 尖, 尖锐, 坚持, 坚定, 坚固, 坚强, 间, 肩, 肩膀, 艰险, 艰险, 监督, 煎, 捡, 减, 减少, 剪, 剪刀, 检测, 检查, 简单, 见, 见解, 见面, 件, 建, 建立, 建设, 建造, 建筑, 贱, 健康, 健全, 健壮, 溅, 鉴定, 键盘, 江, 将, 将来, 讲, 讲话, 讲解, 奖, 奖励, 奖状, 浆, 降, 降低, 降落, 酱, 酱油, 交, 交换, 交谈, 交通, 娇, 浇, 骄傲, 胶, 焦点, 角, 角度, 绞, 饺子, 脚, 脚步, 搅, 搅拌, 叫, 较, 教, 教材, 教会, 教师, 教室, 教授, 教堂, 教训, 教养, 教育, 接, 接触, 接待, 接受, 接着, 揭, 街, 街道, 街坊, 街头, 节, 节目, 节日, 节省, 节约, 节奏, 劫持, 洁白, 结, 结果, 结婚, 结实, 结束, 截, 她, 她们, 姐姐, 解, 解除, 解答, 解决, 解释, 介绍, 借, 借口, 今年, 今天, 斤, 金额, 金黄, 紧, 紧张, 尽, 尽管, 劲儿, 近, 进, 进军, 进来, 进去, 进入, 进行, 晋升, 浸, 禁止, 经常, 经过, 经济, 经历, 经验, 经营, 茎, 惊, 精彩, 精力, 精神, 井, 警察, 警戒, 警惕, 净, 竞选, 静悄悄, 镜头, 镜子, 纠纷, 纠正, 究竟, 揪, 九, 久, 酒, 旧,

救, 就, 就餐, 就是, 橘子(桔子), 举, 举办, 举动, 举行, 句, 句子, 拒绝, 具备, 具有, 剧场, 距离, 锯, 捐献, 捐赠, 卷, 决定, 决心, 觉, 觉察, 觉得, 嚼, 军, 军队, 军人, 均匀, 咖啡, 卡, 卡车, 开, 开采, 开动, 开发, 开关, 开课, 开朗, 开幕, 开始, 开水, 开玩笑, 开学, 开支, 刊登, 砍, 看, 看病, 看不起, 看待, 看见, 看来, 看起来, 看作, 扛, 炕, 考, 考取, 考试, 烤, 靠, 科学, 棵, 磕, 壳, 咳嗽, 可, 可爱, 可恶, 可贵, 可怜, 可能, 可怕, 可是, 可惜, 可以, 渴, 克, 克服, 刻, 客, 客气, 客人, 课, 课本, 课程, 课文, 肯, 肯定, 啃, 坑, 空, 空儿, 空间, 空气, 空隙, 空虚, 空中, 孔, 恐怖, 恐惧, 控制, 抠, 口, 口袋, 口气, 口语, 枯燥, 哭, 苦, 苦难, 苦恼, 裤子, 夸奖, 块, 快, 筷子, 宽, 宽敞, 宽广, 筐, 旷课, 亏损, 昆虫, 捆, 困, 困难, 扩充, 扩大, 扩展, 垃圾, 拉, 啦, 喇叭, 辣, 辣椒, 来, 来临, 赖, 拦, 蓝, 篮球, 懒, 烂, 狼, 朗读, 朗诵, 浪费, 捞, 劳动, 劳动力, 劳驾, 牢骚, 老, 老(老二), 老成, 老家, 老人, 老师, 潦草, 乐器, 勒, 雷, 垒, 累, 冷, 冷淡, 冷静, 离, 离婚, 离开, 黎明, 礼, 礼拜, 礼节, 礼貌, 礼物, 里, 里边, 里头, 哩, 理睬, 理发, 理解, 理想, 理由, 力量, 力气, 历史, 立, 立刻, 利润, 利用, 例如, 例子, 栗子, 粒, 俩, 连, 连…都(也)… , 连接, 联系, 镰刀, 脸, 脸色, 练习, 凉, 凉快, 粮食, 两, 亮, 辆, 晾, 量, 辽阔, 了, 了不起, 了解, 料, 烈火, 裂, 邻居, 临, 临近, 淋, 伶俐, 灵魂, 灵活, 岭, 铃, 零, 零(0), 领, 领导, 领子, 令, 另, 流, 流水, 流行, 留, 留恋, 留念, 留学, 留学生, 留意, 六, 龙, 笼罩, 拢, 楼, 楼梯, 漏, 露, 炉子, 录取, 录音, 录音机, 路, 路过, 旅行, 旅游, 律师, 率领, 绿, 乱, 乱七八糟, 略, 轮流, 轮子, 罗唆(罗嗦), 萝卜, 锣, 落, 落后, 落选, 妈妈, 麻, 麻烦, 麻木, 马, 马铃薯, 马路, 马上, 码头, 蚂蚁, 骂, 吗, 嘛, 嘛, 埋, 埋头, 埋怨, 买, 买卖, 卖, 瞒, 满, 满意, 满足, 慢, 忙, 猫, 毛, 毛笔, 毛病, 毛巾, 毛衣, 茂密, 茂盛, 冒, 贸易, 帽子, 没, 没关系, 没意思, 没用, 没有, 煤, 霉, 每, 美, 美丽, 妹妹, 门, 门口, 闷, 们(朋友们), 萌芽, 蒙, 梦, 梦想, 弥漫, 迷, 迷惑, 迷失, 谜语, 米, 米(公尺), 米饭, 秘密, 密切, 免, 勉强, 面, 面包, 面积, 面孔, 面临, 面貌, 面条儿, 面子, 苗, 妙, 灭, 灭亡, 蔑视, 民族, 敏感, 敏锐,

名, 名声, 名义, 名字, 明亮, 明年, 明确, 明天, 明信片, 明星, 命, 摸, 摸索, 模仿, 模糊, 磨, 蘑菇, 魔术, 抹, 抹布, 抹杀, 墨, 墨水儿, 谋求, 某, 母亲, 木, 目标, 目的, 目光, 目前, 牧场, 拿, 哪, 哪儿, 哪个, 哪里, 哪怕, 哪些, 内, 内容, 内心, 那, 那边, 那儿, 那个, 那里, 那里(那儿), 那么, 那些, 那样, 纳税, 奶奶, 耐烦, 男, 男, 男人, 南, 南边, 难, 难过, 难堪, 脑袋, 脑筋, 闹, 闹事, 呐, 呢, 嫩, 能, 能够, 能力, 嗯, 你, 你们, 年, 年级, 年纪, 年龄, 年青, 年轻, 念, 酿, 鸟, 尿, 捏, 您, 宁静, 拧, 凝视, 牛, 牛奶, 扭, 扭转, 农村, 农民, 农业, 弄, 努力, 女, 女儿, 女人, 女性, 女子, 暖, 暖和, 挪, 殴打, 呕吐, 爬, 怕, 拍, 拍摄, 拍照, 拍子, 徘徊, 排, 排斥, 排队, 排挤, 排球, 牌子, 派, 派遣, 判决, 盼望, 旁边, 胖, 抛, 刨, 跑, 跑步, 泡, 泡沫, 陪, 培养, 培育, 配, 配偶, 喷, 喷射, 烹饪, 朋友, 捧, 碰, 碰见, 批评, 披, 皮, 皮肤, 皮革, 疲倦, 啤酒, 脾气, 屁, 屁股, 片, 偏见, 篇, 骗, 漂亮, 飘, 飘扬, 票, 撇, 贫困, 频繁, 频率, 品质, 平衡, 平静, 平原, 评, 评定, 评价, 评论, 苹果, 瓶, 瓶子, 泼, 迫切, 破, 破产, 破坏, 破旧, 破裂, 破碎, 仆人, 扑, 铺, 谱, 七, 凄凉, 期待, 期间, 期望, 欺骗, 柒, 齐, 其他, 其它, 其余, 奇怪, 奇特, 骑, 企业, 起, 起床, 起飞, 起来, 起身, 气, 气氛, 气愤, 气力, 气势, 汽车, 汽水, 砌, 器具, 掐, 千, 牵, 铅, 铅笔, 签证, 前, 前边, 前面, 前往, 钱, 钳子, 浅, 谴责, 强, 强盗, 强烈, 墙, 抢, 敲, 锹, 桥, 桥梁, 瞧, 切, 且, 窃取, 亲, 亲切, 琴, 青, 青菜, 青年, 青蛙, 轻, 轻快, 轻视, 轻松, 倾听, 清楚, 清新, 清醒, 情, 情报, 情感, 情景, 情况, 情绪, 晴, 请, 请假, 请求, 请问, 秋, 秋季, 秋收, 秋天, 球, 区别, 区分, 曲折, 曲子, 屈服, 取, 取得, 取消, 娶, 去, 去年, 圈套, 全, 全部, 全力, 全体, 拳头, 劝, 劝告, 劝说, 缺, 缺乏, 缺口, 缺少, 缺席, 确认, 确实, 裙子, 然而, 然后, 燃, 燃料, 燃烧, 染, 染料, 嚷, 让, 绕, 热, 热闹, 热情, 人, 人格, 人口, 人力, 人们, 人民, 人群, 人心, 人员, 忍, 忍耐, 忍受, 认, 认可, 认识, 认为, 认真, 任何, 任命, 任务, 扔, 日, 日光, 日语(日文), 日子, 容易, 溶化, 溶解, 融化, 柔和, 柔软, 揉, 肉, 如, 如果, 如何, 如同, 入, 入学, 软件, 软弱, 锐利, 弱, 撒, 洒, 塞, 赛, 三, 伞, 散, 散步, 散发,

丧失, 扫, 色彩, 杀, 沙子, 刹车, 傻子, 筛, 晒, 山, 山谷, 山岭, 删, 闪烁, 闪耀, 扇子, 善于, 擅长, 伤, 伤害, 伤口, 伤心, 商店, 商议, 晌午, 赏, 上, 上班, 上边, 上当, 上课, 上来, 上面, 上去, 上升, 上午, 上学, 上衣, 烧, 勺子, 少, 舌头, 蛇, 设计, 设立, 设想, 设置, 社会, 摄影, 申请, 伸, 伸展, 身, 身材, 身分, 身体, 身子, 绅士, 深, 深刻, 深浅, 深切, 深情, 深远, 神, 神色, 神仙, 审理, 审判, 渗, 升, 生, 生产, 生长, 生词, 生活, 生气, 生日, 生疏, 生意, 声, 声调, 声音, 声誉, 牲口, 胜, 胜利, 绳子, 省, 省略, 盛, 盛开, 盛行, 剩, 失, 失败, 失掉, 失去, 失误, 失约, 师傅, 诗, 施, 狮子, 湿, 十, 十分, 什么, 什么的, 石头, 石油, 时, 时光, 时候, 时机, 时间, 时髦, 识, 实际, 实践, 实力, 实现, 实行, 实验, 拾, 食, 食堂, 食物, 使, 使得, 使用, 驶, 屎, 世界, 市, 市场, 事, 事故, 事情, 事业, 视, 视力, 试, 试验, 是, 是非, 是否, 适当, 适合, 收, 收藏, 收成, 收割, 收回, 收获, 收集, 收入, 收拾, 收音机, 收支, 手, 手表, 手段, 手法, 手巾, 手术, 手套, 手艺, 手指, 守, 守卫, 首都, 首先, 受, 受伤, 售, 瘦, 书, 书包, 书法, 叔叔, 梳, 梳子, 舒服, 舒适, 输, 蔬菜, 熟, 熟练, 熟悉, 暑假, 树, 树立, 树林, 竖, 数, 数据, 数量, 数学, 刷, 刷子, 耍, 衰退, 甩, 帅, 拴, 双, 霜, 爽快, 谁, 水, 水稻, 水分, 水果, 水泥, 水平, 水蒸气, 税, 睡, 睡觉, 睡眠, 顺序, 说, 说明, 思考, 思念, 思索, 思想, 斯文, 撕, 死, 四, 四肢, 四周, 伺候, 饲料, 饲养, 松, 送, 送行, 搜查, 搜集, 搜索, 苏醒, 俗话, 素质, 速度, 宿舍, 酸, 蒜, 算, 虽然, 随, 随便, 随意, 随着, 岁, 岁数, 岁月, 碎, 损害, 损失, 缩, 缩短, 缩小, 所, 所以, 所有, 锁, 他, 他们, 他人, 它, 它们, 塌, 踏, 台, 台风, 台阶, 抬, 太, 太太, 太阳, 态度, 贪, 贪污, 瘫痪, 谈, 谈话, 痰, 汤, 糖, 躺, 烫, 掏, 逃避, 淘气, 讨, 讨论, 讨厌, 套, 特, 特别, 特殊, 疼, 疼痛, 腾, 踢, 提, 提包, 提高, 提供, 提交, 提前, 提问, 提醒, 题, 题材, 题目, 体积, 体温, 体育, 体重, 剃, 替, 替换, 天, 天空, 天气, 天主教, 添, 田, 田地, 田野, 甜, 填, 挑, 挑选, 条, 条件, 跳, 跳动, 跳舞, 跳跃, 铁, 铁道, 铁路, 听, 听见, 听说, 听写, 停, 停泊, 停留, 停止, 挺, 通, 通过, 通行, 通知, 同, 同情, 同时, 同学, 同样, 同意, 同志, 铜, 捅, 痛,

痛苦, 痛快, 偷, 头, 头发, 头脑, 投, 投降, 投入, 投资, 透, 凸, 秃, 突出, 突然, 图书馆, 涂, 土豆, 吐, 兔子, 团, 团结, 团体, 推, 推迟, 推翻, 腿, 退, 托, 拖, 脱, 脱离, 脱落, 妥协, 唾沫, 哇, 挖掘, 袜子, 歪, 歪曲, 外, 外边, 外表, 外国, 外面, 外语(外文), 弯, 完, 完成, 完全, 玩儿, 玩具, 玩弄, 玩笑, 顽强, 挽, 晚, 晚饭, 晚会, 晚上, 惋惜, 碗, 万, 万岁, 亡, 网, 往, 往事, 忘, 忘记, 望, 危险, 威胁, 微笑, 为, 为, 为了, 为什么, 围, 围巾, 围棋, 违背, 违法, 违反, 维持, 维护, 维生素, 维修, 伟大, 尾, 尾巴, 委屈, 委托, 卫生, 未, 未来, 位, 位置, 味, 味道, 畏惧, 胃, 喂, 温, 温度, 温暖, 温柔, 文化, 文件, 文学, 文学家, 文艺, 文章, 闻, 蚊子, 吻, 稳定, 问, 问好, 问候, 问题, 我, 我们, 握, 握手, 污染, 屋子, 诬蔑, 无, 无从, 无法, 无可奈何, 无聊, 无论, 五, 午饭, 伍, 侮辱, 舞蹈, 舞台, 物理, 物品, 误差, 雾, 西, 西边, 西服, 西瓜, 吸, 吸收, 希望, 稀, 熄灭, 膝盖, 习惯, 媳妇, 洗, 洗衣机, 洗澡, 喜, 喜爱, 喜欢, 喜鹊, 戏, 戏剧, 系, 细, 瞎, 峡谷, 狭窄, 下, 下边, 下降, 下课, 下来, 下面, 下去, 下午, 吓, 夏, 夏天, 先, 先进, 先生, 掀起, 鲜明, 鲜艳, 闲, 闲话, 咸, 显, 显示, 险, 现代, 现象, 现在, 线, 限制, 陷入, 羡慕, 献, 乡村, 乡下, 相, 相等, 相互, 相似, 相通, 相同, 相信, 香, 香蕉, 香皂, 箱子, 镶, 享受, 享有, 响, 想, 想法, 想念, 想像, 向, 向往, 项链, 象, 象棋, 像, 橡皮, 削, 消, 消除, 消毒, 消费, 消化, 消灭, 消失, 消息, 小, 小便, 小孩儿, 小姐, 小时, 小说, 小提琴, 小心, 小组, 校长, 校园, 笑, 笑话, 些, 斜, 鞋, 写, 泄, 泻, 卸, 谢谢, 心, 心里, 心灵, 心情, 心思, 心疼, 心头, 心眼儿, 心意, 心愿, 心脏, 心中, 辛苦, 欣赏, 新, 新年, 新闻, 新鲜, 薪水, 信, 信封, 信号, 信件, 信念, 信息, 信心, 兴起, 兴趣, 星期, 星期日, 星期天, 星星, 腥, 行, 行动, 行李, 行列, 形成, 形象, 醒, 姓, 幸福, 性别, 性格, 性能, 凶, 兄弟, 汹涌, 胸, 胸怀, 休息, 修, 修改, 修建, 修理, 修养, 羞耻, 绣, 袖子, 锈, 虚, 虚弱, 需要, 许多, 酗酒, 宣布, 宣传, 旋转, 选, 选拔, 选举, 选手, 选择, 学, 学费, 学期, 学生, 学问, 学习, 学校, 学院, 雪, 血, 寻, 寻求, 寻找, 询问, 压, 压力, 压抑, 压制, 呀, 牙, 牙齿, 芽, 咽, 烟, 烟雾, 淹, 淹没, 延长, 严重, 岩

石, 沿, 炎热, 研究, 盐, 颜色, 掩盖, 眼, 眼光, 眼睛, 眼镜, 眼看, 眼泪, 眼色, 眼神, 眼下, 演, 演出, 演员, 演奏, 宴会, 扬, 羊, 阳光, 仰, 养, 养成, 养育, 养殖, 氧气, 痒, 样, 样子, 腰, 摇, 摇晃, 咬, 药, 药方, 药品, 药物, 要, 要求, 要是, 爷爷, 也, 也许, 野兽, 野心, 叶子, 页, 夜, 夜班, 夜晚, 一, 一…就…, 一般, 一半, 一边…一边…, 一点儿, 一定, 一共, 一会儿, 一块儿, 一起, 一切, 一下, 一些, 一行, 一样, 一直, 衣服, 医生, 医院, 依, 依据, 依赖, 移动, 疑问, 疑心, 已经, 以, 以后, 以及, 以来, 以前, 以为, 倚, 椅子, 亿, 艺术, 议员, 异常, 抑制, 意见, 意识, 意思, 意义, 意志, 因, 因此, 因而, 因为, 阴, 音, 音乐, 银行, 引导, 引进, 引起, 引诱, 饮料, 隐藏, 隐瞒, 印, 印象, 应, 应当, 应该, 英语, 樱花, 迎接, 营养, 赢, 影片, 影响, 影子, 硬, 拥抱, 拥挤, 拥有, 永远, 勇气, 涌, 用, 用心, 优越, 忧虑, 忧郁, 幽静, 尤其, 由, 由于, 犹豫, 邮包, 邮局, 邮票, 油, 游, 游戏, 游泳, 友好, 友谊, 有, 有的, 有害, 有名, 有趣, 有时候, 有些, 有意思, 又, 右, 右边, 幼儿园, 诱惑, 于, 于是, 鱼, 愉快, 舆论, 与, 宇宙, 雨, 雨水, 语法, 语言, 预备, 预防, 预见, 预习, 预约, 欲望, 遇到, 遇见, 冤枉, 元, 元旦, 原材料, 原来, 原理, 原谅, 圆, 圆珠笔, 援助, 远, 怨, 院, 院子, 愿望, 愿意, 愿意, 约, 约会, 月, 月光, 月亮, 月球, 钥匙, 越, 云, 云彩, 运, 运动, 运动会, 运行, 运用, 运转, 晕, 杂乱, 杂志, 砸, 灾害, 栽, 栽培, 再, 再见, 在, 咱, 咱们, 攢, 赞成, 脏, 葬礼, 遭, 遭遇, 糟, 凿, 早, 早晨, 早饭, 早上, 造, 造句, 噪音, 则, 责备, 责任, 贼, 怎么, 怎么样, 怎样, 增长, 增加, 赠送, 扎, 眨, 炸, 榨, 摘, 窄, 债, 债务, 粘, 展开, 展览, 展览会, 展望, 占, 战略, 战胜, 战争, 站, 张, 章, 掌, 掌握, 丈夫, 招, 招待会, 找, 沼泽, 照, 照顾, 照料, 照明, 照片, 照相, 照相机, 遮, 折, 折磨, 折腾, 这, 这边, 这儿, 这个, 这里, 这么, 这些, 这些, 这样, 针, 针对, 珍贵, 真, 真诚, 真心, 真正, 枕头, 争吵, 争论, 挣, 挣扎, 睁, 蒸, 整, 整个, 整理, 整齐, 整体, 正, 正好, 正确, 正在, 证, 政府, 政治, 之, 支, 支出, 支付, 支柱, 汁, 芝麻, 知道, 知识, 织, 执行, 执照, 侄子, 直, 直径, 值, 职业, 植物, 止, 只, 只好, 只是, 只要, 只有, 纸, 指, 指导, 指点, 指定, 指挥, 指甲,

指手划脚, 指引, 制, 制定, 制约, 制造, 制作, 治, 治疗, 质量, 秩序, 掷, 智慧, 中, 中断, 中间, 中秋, 中文, 中午, 中心, 中学, 忠实, 终, 钟, 钟头, 肿, 种, 重, 重复, 重量, 重心, 重新, 重要, 周, 周围, 粥, 皱, 皱纹, 猪, 主人, 主题, 主要, 主意, 主张, 煮, 住, 注视, 注意, 柱子, 祝, 祝贺, 筑, 抓, 抓紧, 爪子, 拽, 专长, 专利, 专心, 转, 转动, 转换, 转弯, 转向, 转移, 赚, 庄稼, 装, 状况, 状态, 撞, 追究, 追求, 追问, 准备, 准确, 准时, 准则, 捉, 桌子, 啄, 着, 着急, 仔细, 姿态, 资金, 资料, 子, 字, 自, 自从, 自豪, 自己, 自来水, 自然, 自我, 自行车, 自由, 宗教, 总是, 走, 揍, 租, 足, 足球, 阻碍, 阻拦, 组成, 组合, 组织, 祖国, 祖先, 钻, 嘴, 嘴巴, 嘴唇, 最, 最初, 最后, 最近, 罪, 醉, 尊敬, 尊重, 遵守, 昨天, 左, 左边, 左右, 作, 作品, 作为, 作文, 作业, 坐, 座, 座儿, 座位, 做, …得很, …分之…, …极了, …之间

4. 결론

사용어휘의 범위를, 평가를 전제로 한 기본어휘만으로 제한할 경우 교재를 편집하거나 교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교재나 교안에서는 제시어휘(사용하는 어휘)가 평가어휘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초급과정 중국어 학습용 기본어휘는 평가를 전제로 하나, 중급과정 확대어휘는 평가가 아닌 제시를 위한 어휘목록이다. 중급과정의 확대어휘는 중국어 학습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교육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이 확대어휘에서 기본어휘를 추출하거나 제시어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용 어휘의 선정 방법은 교육대상의 종류만큼 다양할 수 있다. 학습목표에 맞게 다양한 원칙으로 여러 가지 기본어휘가 선정될 수 있으며, 교육담당자가 수업 설계 시에 우선적으로 기본어휘 즉 평

가어휘의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본고에서 선정한 어휘목록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어휘목록이 결코 아니다. 여러 교육 일선에서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기본어휘를 정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련의 어휘 선정 원칙과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어휘선정에 머물지 않고, 선정된 어휘를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검토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여러 선학들의 가르침을 바란다.

<참고문헌>

각종 중국어 어휘집

한중이중언어 사전 다수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 1992 中國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 漢語水平考試部.

《常用語詞調查報告書》 1998 대만: 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

박종한(1996) 중국어: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비출판물.

이용백(1980) 국어사전 어휘의 유별구성비로 본 한자어의 중요도와 교육문제, 어문연구25.26.

이상도, 1994, 중국어 필수 어휘 선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중국언어연구 3.

이주영, 1999,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충우, 1994,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한국국어교육연구회:85-86.

임연정, 1998, 중국어 교육과정의 기본어휘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임지룡, 1995,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조현용, 2000, 어휘 중심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황미연, 1999, 중국어 교과서 어휘의 분석,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一二等 重韻연구

박 경 송*

<목 차>

1. 重韻이란 어떠한 현상인가
2. 이전 학자들의 重韻연구
3. 韓國漢字音에 나타난 重韻현상
4. 重韻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重韻이란 어떠한 현상인가

『切韻』의 韻母체계 가운데 ‘攝’, ‘等’, ‘開合’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韻類를 가지고 있을 때를 ‘重韻’이라고 한다. 等韻學에서 韻類를 네 가지 ‘等’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특히 三等韻이 그 字數가 가장 많으며, 重韻 또한 가장 많고, 아주 복잡한 ‘等’이다.¹⁾ 三等韻 이외에 『廣韻』의 韻目에서 一等과

* 영산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1) 『切韻』 음운체계와 등운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요 문제들은 거의 三等韻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董同龢(1985:164-165)는 三等 重韻을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甲·乙·丙·丁의 네 가지 類로 나누고 있다. 甲類는 純三等으로 唇音이 후에 輕唇音화된 微·廢·欣·文·元·嚴·凡韻을 가리키며, 주요모음은 중설모음에 가깝다. 乙類는 純三等으로 唇音이 후에 輕唇音化되지 않은 支·脂·眞·諄·祭·仙·宵韻의 唇牙喉音으로 韻圖에서 三等에 놓인 것이며, 주요모음은 甲類에 가깝다. 丙類는 보통 三等韻으로 東·鍾·之·魚·虞·麻·陽·庚·蒸·尤·戈·侵·鹽韻을 가리키며,

二等 重韻은 아래와 같다.

一等					二等						
哈(灰)	覃	合	東	屋	皆	咸	洽	山	黠	庚	陌
泰	談	盍	冬	沃	佳夬	銜	狎	刪	轄	耕	麥

본고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一二等 重韻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북방방언에서는 開口一等 重韻이 대부분 同攝 開口 二等韻에 합류되어버려 重韻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대한어방언에서 『切韻』 開口一等 重韻의 다양한 분화와 합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王洪君(1999)은 현대한어 방언에서 開口一等 重韻(哈·泰韻과 覃·談韻)의 分合을 크게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白讀²⁾층위에서 다섯 유형의 韻類 귀속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型3) : 哈白1 ≠ 泰 ≠ 皆佳 哈白2 → 皆佳 ≠ 泰 覃 ≠ 談 = 咸銜

주요모음은 보통 三等모음이다. 丁類는 脣牙喉音이 四等に 놓이는 支·脂·眞·諄·祭·仙·宵의 舌齒音과 韻圖에서 四等 脣牙喉音에 놓인 것과, 淸韻과 幽韻을 말하며, 주요모음의 성격이 대략 丙類와 같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三等 重韻의 운모체계를 정리하고 있다.

- 2) 文讀과 白讀은 한어에서 흔한 언어현상이다. 신어, 서면어, 및 비교적 정식적이고 장중한 교제상황에서 사용하는 어휘형식으로 문어한 어투를 이루는 것을 '文讀'이라고 하며, 그 방언의 토속어를 대표하는 것을 '白讀'이라고 한다. 이들은 音類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祁縣방언에서 '爬'字는 白讀은 /pa/, 文讀은 /p'a/로 단지 성모의 차이로 나타나며, 聞喜방언에서 '糠'字는 백독 /k'a/, 문독 /k'ʌŋ/으로 운모가 다르며, '步'字는 백독이 /p'u(陰平聲)/, 문독은 /p'u(陰去聲)/으로 성조가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文白異讀'이라고 부른다.(徐通鏞, 1991:348-349) 白讀은 일반적으로 이른 시기의 음류로 그 지역의 독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한 음류에 서로 다른 백독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다른 음운층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二型4) : 哈(見系, 非見系) = 泰(見系) ≠ 泰(非見系) = 皆佳
 覃(見系, 非見系) = 談(見系) ≠ 談(非見系) = 咸銜
- 三型5) : 哈(見系, 非見系) = 泰(見系) ≠ 泰(非見系) = 皆佳
 覃(見系) = 談(見系) ≠ 覃(非見系) = 談(非見系) = 咸銜
- 四型6) : 哈 = 泰 ≠ 皆佳
 覃(見系) = 談(見系) ≠ 覃(非見系) = 談(非見系) = 咸銜
- 五型7) : 哈(見系) = 泰(見系) = 哈(非見系) = 泰(非見系) = 皆佳(非見系) ≠ 皆佳(見系)
 覃(見系) = 談(見系) = 覃(非見系) = 談(非見系) = 咸銜(非見系) ≠ 咸銜(見系)

『切韻』開11一等 重韻이 현대한어로 오면서 각 韻類의 발전단계를 각 방언의 분화와 합류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王洪君(1999:74)은 현재 남방방언은 서로 다른 시기에 북방방언에서 분열되어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二型에서는 見系로 조건 분화하고, 泰·談韻 見系는 哈·覃韻에 귀속되고 非見系는 二等韻에 합류되고 있다. 다음으로 三型和 같이 覃談의 非見系는 二等韻으로 합류되고, 覃·談의 見系는 二等과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四型을 대표하는 晉語에서 蟹攝 韻類의 합류방향이 기타 유형과는 다르다. 宋代 漢西夏의 對音文獻을 참조할 수 있는데, 『文海研究』에 열거된 『文海』각운의 한어 표음자를 근거로 宋代 서북방언에서는 哈·泰韻이 合韻되고, 皆佳韻과는 分韻된 것과 일치한다. 五型에서 보듯이 현대 북방방언에서는 모두 一二 등이 합류되고, 一型인 閩方言 白讀層은 哈/泰, 覃/談이 모든 성모 뒤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 현대한어 방언에서 一等 重韻의 다양한 分合관계를 통하여 重韻이 어떠한 음운을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 3) 閩方言이 이 유형에 속하며, 『切韻』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第一층위에서 談韻이 咸銜韻으로 변화하고, 第二층위에서 哈韻이 皆佳韻으로 변화하고 있다.
- 4) 吳方言, 贛方言, 徽語가 이 유형에 속한다.
- 5) 粵方言, 湘方言, 客家方言이 이 유형에 속한다.
- 6) 晉中方言과 呂梁방언이 이 유형에 속한다.
- 7) 앞 유형에서 제시한 소수 방언이외의 北方方言이 이에 속한다.

위에서 宋代 對音자료를 이용하여 西北方言 重韻의 分合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본고에서는 한국한자음 譯音자료를 통하여 『切韻』 一二等 重韻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음운학자들의 重韻에 대한 연구내용을 검토해보고, 重韻을 『切韻』에 한정된 정태적인 연구방법보다는 역사적인 음운 변화과정에서 동태적으로 重韻이 무엇을 반영하는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이전 학자들의 重韻연구

一二等 重韻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重韻의 귀속문제, 둘째, 重韻의 음가문제, 셋째, 重韻의 來源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重韻의 귀속과 음가추정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현대음운학에서 칼그렌(高本漢, 1940:478-483)이 重韻에 대하여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一二等 重韻 가운데 東·冬韻, 庚·耕韻 사이에는 주요모음이 다르고, 그 밖의 重韻은 모두 주요모음의 長音과 短音의 차이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는 이들 重韻의 음가 재구에 한국한자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 문헌자료를 근거로 한 19세기 사전을 참고하여 한국한자음에서 蟹攝 一二等の 독음이 각각 /ai/와 /äi/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譯音에서의 구별은 중국고대 音類의 분류와 합치되며, 이에 一二等 重韻이 주요모음 長短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또한 현대한어 몇몇 방언을 방증으로 제시하며, 重韻의 長短說을 입증하

8) 칼그렌은 1897년의 한영사전을 참고하여 한국한자음을 표기하였는데, 이 사전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한자음을 주음하는 표기를 칼그렌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ä/가 哈韻字에 표기된 것이라면 국어음 /·/[ɨ]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당시 국어에서 한자음의 ㅈㅊ을 장단으로 변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모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려고 하였다. 이후 러시아 학자인 드라구노프(A.Dragunov, 龍果夫, 1928)는 칼그렌의 一二等 重韻에 대한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칼그렌이 灰韻을 [uai]로 설정하면 현대한어에서 灰韻字가 泰韻合口字와 微·脂·支·祭·廢·齊韻 合口字 등과 같은 음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切韻指掌圖』에서의 灰韻의 배치와 월남한자음, 한국한자음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灰韻의 주요모음이 청각적으로 [a]와 관계를 가진 [ə]로 설정하여, 重韻인 哈(灰)·皆·覃·威·山·耕韻과 泰·佳·談·銜·刪·庚韻은 음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前者의 주요모음은 [ə]類이고, 後者の 주요모음은 [a]類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上古 諧聲체계에서 前者는 주요모음 [ə]인 字와 서로 諧聲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후 대부분 학자들이 重韻이 음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드라구노프가 지적한 것처럼 重韻연구는 구체적인 음가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서 음운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重韻의 내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李方桂의 『切韻a的來源』이다. 그는 詩韻과 諧聲字를 이용하여 重韻이 서로 다른 상고음에서 유래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韻』의 重韻字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두 類로 나누었는데, 第一類는 전부 혹은 일부분 字가 [ə] 혹은 [e]와 協韻하거나 諧聲되는 것이고, 第二類는 전부 [a]와 協韻 혹은 諧聲되는 것이다. 그래서 重韻은 모음의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覃·談韻과 哈·泰韻이 『切韻』 시기에 각기 다른 어음이었는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두 類에서 [a]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하였다. 覃韻과 哈韻의 [a]는 상고시기에 다음과 같은 詩韻과 諧聲되고 있다.

	詩韻	諧聲
1.	哈, 灰 : 之 哈, 灰 : 尤	哈 : 之 灰 : 尤

	哈, 灰 : 德, 職	哈, 灰 : 德, 職
	哈, 灰 : 屋(三等)	灰 : 屋(三等)
2.	覃 : 侵	覃 : 侵
	覃 : 東(三等)	覃 : 東(三等)
3.	合 : 緝	合 : 緝
4.	豪(一部分) : 尤	豪 : 尤
	豪(一部分) : 肴(一部分)	豪 : 肴
	豪(一部分) : 屋(三等)	豪 : 屋

이상의 詩韻과 諧聲을 통해서 重韻 중에서 哈韻과 覃韻은 /-ə-/를 가진 운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중고의 /a/는 /*a/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李方桂, 1936:1-5)

이것으로 『切韻』 음운체계에서 重韻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겠다. 즉 상고음에서 /*a/와 /*a/ 내원을 가진 운들이 중고 /a/류韻에 와서 重韻을 형성한 것이다. 상고 /*a/류 운(寒, 曷, 唐, 鐸 등)이 중고에도 여전히 /a/운이면서, /ə/(痕 沒, 登, 德 등)운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切韻』 계통에서 重韻은 상고음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내원을 가진 것이 된다.

上古	談	盍	泰	豪	寒	曷	唐	鐸
*a	am	ap	a:i(ua:i)	au	an(uan)	at(uat)	aŋ(waŋ)	ak(wak)
上古	覃	合	哈	豪	痕	沒	登	德
*ə	am	ap	ai(uai)	au	aŋ(uəŋ)	ət(uət)	əŋ(wəŋ)	ək(wək)

李方桂는 위의 도표를 통해서 상고 /*a/운이 중고시기에 분화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고 /*a/가 /-n, -t, -ŋ, -k/운미 앞에서 『切韻』 시기까지 /ə/운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상고 /*a/가 /-m, -p, -i, -u/운미 앞에서 만약 개음 [-i-]가 없다면 『切韻』 시기에 /a/운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李方桂 연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드라그노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분석은 高本漢이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

했던 中古 重韻의 내원을 밝혀 낸 것이다.

다음은 上古 韻部와 一二等 重韻의 분포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之部 > 哈韻, 皆韻
 脂部 > 皆韻
 陽部 > 庚韻
 支部 > 佳韻
 耕部 > 耕韻, 庚韻
 寒部 > 刪韻, 山韻
 眞部 > 山韻(牙喉音)
 微部 > 灰韻, 皆韻
 文部 > 痕韻, 山韻
 侵部 > 覃韻, 咸韻, 冬韻
 談部 > 談韻, 銜韻, 咸韻
 月部 > 泰韻, 夫韻
 東部 > 東韻

일부학자들은 당시 문헌자료를 통하여 重韻 一等韻의 합류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通攝 一等 重韻인 東·冬韻은 상고음에서 서로 다른 韻部에 속해 있는데, 漢代 이후에 冬韻이 侵部에서 분화되어 나왔다. 周祖謨(1966)는 南朝의 『玉篇』이 지어졌을 당시 東·冬韻은 구별되어 있었고, 齊梁시기 운문에서 東韻 대부분은 獨用되고, 冬韻은 鍾韻과 同用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唐代 反切자료와 韻文 등을 통하여 이 시기에 東·冬韻이 혼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⁹⁾

泰韻은 去聲字만 있으며, 상고음 月部인 '入聲韻'에서 변화한 것이다. 南北朝시기 泰韻字가 대부분 夫·廢·怪韻字와 通押하는 시기(劉宋시기)와 이후 주로 廢·代韻字와 통합되는 시기(齊梁時期)로 나누어진다. 李新魁(1991:127)는 用韻을 분포로 분석한 결과, 中古 初期에는 泰韻이 아직 哈韻과 합류되지 않았으며, 唐代이후 泰韻이

9) 王力(1985:216)은 玄應의 『一切經音義』이나 『經典釋文』의 反切에서 두 韻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점차 哈韻이 가까워졌으며, 적어도 中唐 이후 두 韻이 합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覃·談韻은 상고음에서 각각 侵部和 談部に 속하여 있다. 이 두 韻 역시 남북조시기에 점차 각 部에서 떨어져 나와서 중고시기에 점차적으로 합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칼그렌의 重韻 장단설에 반박하면서 重韻이 語音의 차이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重韻의 구체적인 음가에 대한 추정보다는 각 韻이 어떤 類에 속하며, 重韻들 간에 어떠한 음운적인 특징을 가지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董同龢(1944:75-79)는 重韻이 칼그렌이 주장하는 長短說이 아닌 모음의 차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칼그렌이 重韻에서 이용한 한국한자음이란 역음자료는 방언자료와는 달리 음운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한자음의 모음에서 장단의 변별을 가진다고, 그 모태가 되는 漢語에서도 장단으로 변별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현대한어 방언 중 蘇州어와 廣州어에서 哈韻字와 泰韻字가 서로 다른 모음을 가진다.

	泰	哈
廣州	ai	oi
蘇州	a	e

소주어에서 哈韻은 [-e]이고 泰韻은 [-a]이며, 광주어에서 哈韻은 [-oi]이고, 泰韻은 [-ai]이다. 여기서 보듯이 두 韻은 어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혀 長短으로 구별을 하지 않는다.

셋째, 몇몇 吳方言은 舌頭音과 齒頭音에서 中古 覃·談韻字가 변별되고 있다. 이미 칼그렌이 오방언을 근거로 重韻 長短의 음운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¹⁰⁾, 전설모음화는 모음의 장단과 아무런 관계

10) 칼그렌(1940:481)은 覃·談韻字의 모음인 [a]가 吳方言 上海, 寧波, 溫州에서 中古 단모음 覃韻은 전설모음화([e], [ɛ], [æ])되는 것에 비해서, 中

가 없으며, 또한 다른 오방언에서는 위의 사실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

陸志韋(1947:27-28)는 칼그렌의 哈·泰韻, 皆·佳韻 장단설에 대하여 한어는 어음의 고저인 성조가 운소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동시에 장단이라는 운소와 함께 있을 수 없으며, 현대한어 방언에서 조차 長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한자음에서 哈韻과 泰韻에 표기된 /äi/와 /ai/만으로는 長短의 차이라고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ä/는 실제로 /a/의 음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泰韻은 /ai/, 哈韻은 /oi/로 설정하면 한국한자음과 현대한어방언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陸志韋가 정리한 一二等 重韻과 그 음가는 다음과 같다.

哈 oi 覃 om 合 op 皆 ei 威 em 洽 ep 刪 en 黠 et 耕 eq 麥 ek
 泰 ai 談 am 盍 ap 佳 æi 夬 ai 銜 am 狎 ap 山 an 銑 at 庚 aq 陌 ak

일반적으로 等韻圖에서 一等韻에 배치되어 있는 韻 중에서 歌韻, 泰韻, 豪韻, 唐韻, 寒韻, 談韻 등에 주요모음을 개구도가 크고, 원순성이 강한 [a]로 재구하고 있는 것이 음운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현대 한어방언에서 [ɔ] 혹은 [u][uo]로 변화된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刪韻과 山韻의 재구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陸志韋가 刪韻을 [e]로 山韻을 [a]로 설정한 근거는 諧聲 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寒韻은 刪韻과 通轉되고 山韻과는 거의 通轉되지 않는 것과, 山韻이 刪韻에 비하여 眞·先韻에 더 가깝다. 하지만 王力(1936)이 南北朝 詩韻에서 山韻은 仙·先韻과 通押하고, 刪韻은 寒韻과 通押하는 것으로, 寒韻이 泰·談韻과 같이 [a]인 것으로 보면, 山韻을 고모음 [æ]라고 설정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刪韻

古 장모음인 談韻은 저설모음([æ], [a])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은 [an]로 재구하고, 山韻은 刪韻보다 고모음으로 재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重韻의 성질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다. 漢語語音 발전과정에서 重韻이란 앞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韻部를 가진 상고음으로부터 중고음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서로 유사해지면서 합류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견해와 중고음에서 『切韻』과 等韻사이에 음운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견해이다.

우선 重韻의 출현은 당시 여러 방언의 韻類를 종합한 결과라는 견해이다.(李新魁, 1986:199-200) 당시 공통어 체계에서 이러한 韻部들이 반드시 모두 어음의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며, 다른 방언(당시 金陵방언)에서 구별하고 있어 『切韻』은 이러한 방언을 참조하여 分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고음의 흔적들이 당시 방언에 남겨진 모습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一等 重韻은 唐宋 실제 어음에서 동음이었고 어음 발전과정에서 보면 상고시기에 서로 다른 韻部에 속하던 운들이 남북조에 들어와 유사한 어음으로 通押되다가, 唐代에 들어와 합류된 것으로 중고의 운모체계를 설정할 때 이러한 一等 重韻은 모두 하나의 類로 합류된 것이다. 그래서 李新魁는 각각 다른 운부로 구분되어 있지만 주요모음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조건으로 一等韻 重韻은 [a]와 [ɔ]로 설정하고, 二等韻은 [a]와 [ɛ]로 설정하고 있다.

夫ai	庚ag	刪an	銜am
皆ei	耕ej	山en	威em

二等에서 佳韻은 晉宋시기에 支韻과 同部이었으므로 독음도 支韻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齊梁시기에 佳韻이 독립되면서 독음이 점차 支韻과 멀어지고(이 때 佳韻에 이미 [-i]운미가 생겨났던 것으로 본다), 그 주요모음만은 아직 支韻[ɛ]에 근접한 [æ]라고 추정하고 있다.(李新魁, 1991:125-133)

또 다른 견해로는 『切韻』 이후 等韻시대에 重韻이 나타난 현상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薛鳳生(1996:46-51)이 주장한 것으로 『切韻』의 음소체계를 설정하고 음소 대립의 관점에서 /-i/운미를 가진 “止·蟹攝”에서의 重紐와 重韻 현상을 해석한 것이다.¹¹⁾ 蟹攝은 三等韻이 극히 적고, 一二等에만 重韻이 많은 이유는 /e, a, o/ 중모음이 介音/i/와 결합하면 후에 고모음화하여 止攝의 重韻(支·脂·之·微韻)을 형성하게 되고, 介音 /i/가 없으면 후에 저모음화 되어, 이것에 대응되는 저모음과 합류하여 重韻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切韻』 시기가 변화하기 이전시기라면, 等韻에 이르러서 변화된 이후의 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重韻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상고에서 『切韻』 시기에 이르는 시기에 重韻字의 변화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상으로 上古音의 서로 다른 내원을 가진 重韻이 中古音에 와서는 서로 다른 음가로 변별된다는 것에는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음운학자들이 나름대로 추정한 重韻의 음가에 비추어 보면 咍韻이나 覃韻이 泰韻, 談韻에 비해서 고모음을 가지는 것이 공통적이다. 또한 重韻의 상고 내원과 현대한어 방언의 重韻혼적, 그리고 重韻의 역사적 分습과정을 통하여 상고에서 중고에 이르는 시기에 어느 지역 방언에 남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 중국음운학자들이 인용하였던 한국한자음에서는 重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3. 韓國漢字音에 나타난 重韻현상

앞장에서 우리는 칼그렌을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重韻의 음가를 재구하는데 있어서 한국한자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한자음을 『切韻』 체계의 음가로 보는가 하

11) 薛鳳生(1996:51)은 『切韻』 이전 단계, 『切韻』에서 等韻 단계, 等韻 이후 단계로 나누어 음운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면, 또 다른 학자들은 譯音으로서 한국한자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경향도 있었다.

한국한자음이 국어의 음운체계 안에서 국어의 음운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譯音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들 간의 접촉으로 생겨나는 차용어와는 다르게 한자음은 어휘의 단위가 아닌 음절을 단위로 하는 字音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한자음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漢字音을 분류해 놓은 中國의 韻書를 참고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한자음이 차용될 당시의 정확한 음가는 알려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각 音類간의 대립관계는 국어의 음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자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유창균(1984:258)이 지적하듯이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하여 문자언어, 학술적 언어, 문화적 언어, 지식 계급의 언어라는 인식 때문에 대개의 경우 한자의 교육을 기다려서 습득되고, 보급되는 것이어서, 고유어의 발달이 대체로 언어 일반의 변화 법칙에 지배되어 있는데 대하여 한자음의 발달은 고유어가 가진 음운체계 내에서 의도적인 운서의 체계에 지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한자음에서 중고 一等·二等韻字는 모두 동일한 표기로 역음되어 있어 이들 간의 대립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蟹攝과 威攝에서 동일한 等 안에서 重韻이 다른 字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한자음¹²⁾ 자료를 통해서 『切韻』 체계¹³⁾의 一二等 重韻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립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한자음에서 重韻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蟹攝의 표기상황이다.

12)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한자음은 당시 현실 한자음을 표기한 《訓蒙字會》(1527년 崔世珍편찬 총 3,360자, 초간본 觀山文庫本)를 근거하였고, 《訓蒙字會》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新增類合》(1576년 劉希春편찬 총 3,360자)를 참고하였다.

13) 《方言調查字表》에서 분류한 상용자 3,700여개와 한어음운 명칭에 근거한 것이다.

哈	타[t'ai]	戴/貸/臺待代袋	泰	패[p'ai]	貝/沛
	타[t'ai]	胎態/殆苔怠		대[tai]	帶
	내[nai]	乃耐		태[t'ai]	太泰
	리[lai]	來		뢰[loi]	賴
	지[ts'ai]	災裁宰載再/才材在			
	치[ts'ai]	彩採菜			
	시[s'ai]	賽			
	시[sii]	腮猜			
	기[k'ai]	改開		개[kai]	蓋丐
	개[kai]	概漑/慨		해[hai]	害
	히[h'ai]	該/海/孩		애[ai]	艾/藹
	악[ai]	哀埃愛			
	에[ai]	礙			

皆	비[p'ai]	拜排	佳	패[p'ai]	派牌稗
	미[m'ai]	埋		파[p'a]	罷
	지[ts'ai]	齋		매[mai]	賣
				미[m'ai]	買
				채[ts'ai]	債寨
	시[sii]	豺		차[ts'a]	釵
	기[k'ai]	皆稽		시[sii]	柴
	개[kai]	介芥		가[ka]	佳
	계[kiai]	階界戒械		개[kai]	街
	히[h'ai]	諧		히[h'ai]	懈懈蟹
	에[ai]	挨		혜[hiai]	鞋
				애[ai]	矮涯崖

또한 一二等合口音의 重韻은 다음과 같이 역음되고 있다.

灰	비[pai]	杯輩背胚配倍培	泰		
	패[p'ai]	佩			
	미[mɛi]	梅媒煤每妹			
	더[tɛi]	對堆			
	퇴[t'oi]	堆腿退			
	내[nɛi]	內			
	뢰[loi]	雷偏			
	죄[tsoi]	罪			
	최[ts'oi]	催		최[ts'oi]	最
	쇄[suai]	碎			
	괴[koi]	魁愧			
	회[hoi]	灰悔回匯		회[hoi]	會檜繪
외[oi]	煨	외[oi]	外		

皆	괴[koi]	乖怪槐壞	佳	괘[kuai]	掛拐
				화[hua]	畫
				와[ua]	蛙
				쾌[k'uai]	快
회[hoi]	懷		夫	화[hua]	話

위 표에서 보듯이 開口 一等과 二等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지만, 동일한 等 안에서 重韻字들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즉 中古 一二等인 咍韻과 皆韻은 /ɨ/[ɛi]로 표기되고, 泰韻과 佳夫韻은 /h/[ai]로 표기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음운학자들이 중고한어 重韻의 음가를 재구하는데 이용하던 부분이다. 合口 一等的 灰韻과 泰韻은 모두 /ɨ/[oi]로 표기되어 있어 開口 一等的 상황과는 다르다. 그런데 二等 重韻인 皆韻과 佳·夫韻이 각각 [oi]와 [uai] 혹은 [ua]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咸攝 一等 覃韻과 談韻은 精組의 일부 字이긴 하지만 각각 /ɨ/[ɛm]과 /ɨ/[am]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예로는 다음과 같다.

覃韻 : 簪 줌[tsɛm] 簪 줌[tsɛm]

談韻 : 暫 잠[tsam] 漸 잠[tsam] 三 삼[sam]

單韻에서 이렇게 다른 표기를 사용한 것이 어떠한 음운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앞으로 자세히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一·二等 重韻字에 대한 한국한자음의 표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蟹攝	威攝
開口 一等	哈 ɨ [ʌi] 泰 ʰ [ai]	覃(精組) ɔm [ʌm] 覃(精組이외) am [am] 談 am [am]
開口 二等	皆 ɨ [ʌi] 佳夬 ʰ [ai] / ㅍ [a]	
合口 一等	灰 ɨ [oi] 泰 ɨ [oi]	
合口 二等	皆 ɨ [oi] 佳夬 ɬ [uai] / ㅍ [ua]	

4. 重韻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中古 重韻字들이 한국한자음 독음에서 변별되고 있는데, 과연 한국한자음의 독음들이 중고시기의 重韻의 변별을 나타내는 것이지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에서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음운론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중세국어론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한자음 내부구조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河野六郎(1979:455-456)은 重韻 哈·泰韻字 역음 표기가 重韻의 잔류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음의 다른 음운 층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哈·泰韻字의 역음이 정연하지 않고, 더 확실한 근거는 哈韻과 泰韻에 대응되는 合口

音 灰韻과 泰韻의 역음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한자음과 일치하고 있는 慧琳의 『一切經音義』¹⁴⁾에서도 重韻의 구별이 없는 것을 들어 蟹攝에 역음된 한자음은 重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威攝에 표기된 /으/[ʌm]에 대해서, 河野六郎(1979:446)은 칼그렌이 재구한 覃韻 상고음 [ə]를 인용하여 한국한자음 ‘으’가 종종 중고음 [ə]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覃韻이 상고음의 흔적인 [-əm]단계의 음을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哈·泰韻의 重韻관계와 유사한 표기를 하고 있지만 河野六郎은 전혀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 즉 한자음에서 泰韻과 哈韻의 표기는 서로 다른 음운 층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覃韻에서의 표기는 상고음시기의 흔적이라고 하고 있다.

국내 한자음을 연구하는 음운학자들은 한국한자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重韻에 대한 견해보다는 蟹攝에 역음된 한자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兪昌均(1981:380-385)은 중국학자들이 재구한 음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東國正韻』에 표기된 蟹攝의 一二 등이 각각 /·|/~/나/와 /#/~/새/로 대립되며, 왜 이렇게 분립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一等韻 哈韻이 /·|/로 대역된 것이 기이한 현상이라 하며, 重韻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朴炳采(1986:128-134)는 蟹攝 一二 등이 /a/와 /·/로 반영된 것은 切韻음의 古層을 반영하는 것이며, 소수의 혼합된 반영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볼 수 있는 이들 重韻이 하나로 합류된 뒤의 새로운 층이 덮친 것이라고 하고 있다. 切韻音의 古層은 칼그렌의 장단설에 따라 분석하여 한자음에서 重韻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⁵⁾ 하지만 이러한 역음법에서 벗어나는 哈韻

14) 河野六郎(1979:509)은 한국한자음의 모태는 慧琳의 『一切經音義』에 의거한 唐代 長安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한자음은 唐代 長安음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近世音 층이 여러 곳에 덮쳐 있는 형태를 가진 한자음으로 규정하였다.

15) 蟹攝 一二等 長모음 계열인 泰·夬·佳韻는 주로 애/-ai/로 반영되고,

에서 애/-ai/와 泰韻에서 인/-ɿ/의 현상에 대해서는 중고음 시기에 이들 重韻이 하나로 합류된 뒤의 새로운 층인 重韻이 하나로 합류된 唐代 慧琳음이 뒷친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한자음의 重韻을 주장하기 위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泰韻 인/-ɿ/의 표기층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咸攝에서 覃·談韻 역시 중운의 대립이 한자음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상고음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986:141)

이상과 같은 기존의 분석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한자음에 보이는 역음의 차이를 중고음의 중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제2장에서 드라구노프(1928)가 一二等 重韻에 대하여 上古漢語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重韻은 상고시기에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진 운류이며, 이들 운류를 각각 주요모음이 -ə/a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切韻指掌圖』에서 灰韻이 微·脂·祭·廢·齊韻 ㅅㅍㅈㅊ음을 하나의 도표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韻圖와 동시대의 월남한자음 자료를 근거로 11세기에는 灰韻의 주요모음이 [ə]류에 속한다고 한다. 아래와 같이 월남한자음에서 灰韻字는 [-oi]로 역음되고 있으며, 中國古音에서 [-uən], [-uət]가 [-on]과 [-ot]으로 역음되고 있다.

	중국고음	월남한자음
敦	tuən	don
棍	kuən	kon
沒	muət	mot
卒	tsuət	tot
瑰	ku x	hoi

短母音 계열인 哈·皆韻은 주로 인/-ɿ/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른바 一二等 重韻에 대한 명확한 변별적 표기라고 하고 있다.

雷	lu x	loi
罪	dz'u x	toi
輩	b'u x	boi

또한 한국한자음에서 월남한자음과 같은 어음현상을 제시하여, 위에 상응하는 例字들을 열거하고 있다.

	중국고음	한국한자음
瑰	ku x	koi
雷	lu x	noi
罪	dz'u x	tsoi
敦	tuən	ton
棍	kuən	kon
沒	muət	mol
卒	tsuət	tsol

이것이 한국한자음에 관한 부분이 이 논술의 중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一二等 重韻과 관계되는 한국한자음과 중국음의 대응규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Δ]가 중고한어의 [ə]에 대응되는 것이다. 威攝, 山攝, 梗攝, 蟹攝 一等과 二等에는 각각 두 개의 韻을 가지는데, 상대적으로 深攝, 臻攝, 宕攝, 止攝에서는 一二 등이 비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

만약 x攝에 一等과 二等에서 한 韻만 있다면 상대적인 y攝에는 대응되는 韻이 하나이고, x攝이 一等 혹은 二等에서 각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되는 y攝에는 그 等に 해당되는 韻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威·山·梗·蟹攝의 重韻은 深·臻·宕·止攝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은 중고음의 운모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고음에서 중고음에 이르는 시기에 重韻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李方桂(1932) 또한 開韻尾와 脣音韻尾 앞 주요모음은 상고 [*a]음이 절운시기에 와서는 [a]類韻으로 변하여, 중고음에는 [a]류와 대응되는 [ə]류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咸·山·梗·蟹攝에서 重韻 중의 하나가 그에 대응되는 內轉¹⁶⁾의 深·臻·宕·止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重韻이 內·外轉의 분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羅常培(1933:92)가 일본학자 大島正健의 『韻鏡音韻考』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內轉은 一 등이 o(オ)모음이거나 혹은 一等 자리가 비어 있으며, 二等에 o(オ), u(ウ), i(イ) 등 모음이 있는 것을 말하며, 外轉은 一二 등이 a(ア)모음이고, 三四 등이 e(エ)모음인 것을 말한다”라는 학설로, 羅常培는 이를 근거로 하여 “內轉은 모두 후설모음 [u][o], 중설모음[ə] 및 전설고모음[i][e]를 가진 운이며; 外轉은 모두 전설모음[e][ɛ][æ][a], 중설모음 [ɐ] 및 후설저모음 [a][ɔ]를 가진 운을 말한다.”¹⁷⁾고 하였다. 이렇게 內轉과 外轉을 高低母音으로 구별하는 동시에 攝의 분포도 內轉 宕·

16) 內外轉에 대해서는 『四聲等子』의 <辨內外轉例>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內轉이란 脣舌牙喉音의 四音에 第二等字가 전혀 없고, 齒音에만 갖추어진 것이며, 外轉이란 五音에 四 등이 모두 다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지금 深·曾·止·宕·果·遇·流·通攝으로 內轉67韻을 묶고, 江·山·梗·假·效·蟹·咸·臻攝으로 外轉139韻을 묶는다.(內轉者, 脣舌牙喉四音更無第二等字, 唯齒音方具. 外轉者, 五音四等都具足, 今以深曾止宕果遇流通括內轉六十七韻, 江山梗假效蟹咸臻括外轉一百三十九韻)” 內轉과 外轉의 명칭에 대해서 徐通鏞(1997:162-163)은 성모류 庄組字의 음운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즉 庄組字가 원래 -i-개음을 가진 성모였는데, -i-개음이 소실되면서 獨立二等韻이 있는 韻攝에서는 庄組字가 二等으로 들어가 照二等字가 될 수 있지만 獨立二等韻의 韻攝이 없는 것에서는 三等자리에 놓이게 되어, 反切上字는 전혀 等を 구분한 흔적이 없는 庄組字가 일부분은 二等, 일부분은 三等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통 음운학자들은 이러한 구분에 의거하여 庄組字가 三等에 그대로 남겨진 것은 ‘內轉’으로, 二等으로 옮겨가 五音四 등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外轉’이라고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內轉者, 皆含有後元音[u][o], 中元音[ə]及前高元音[i][e]之韻; 外轉者, 皆含有前元音[e][ɛ][æ][a], 中元音[ɐ]及後低元音[a][ɔ]之韻.”

果攝을 外轉으로 옮겨놓고, 外轉에서 臻攝을 內轉으로 옮겨놓고 있다.¹⁸⁾ 日本學者들이 일본한자음을 이용하여 전통 內外轉의 분류를 고쳐서 果攝、宕攝을 外轉으로, 臻攝을 內轉으로 內7轉、外9轉으로 만든 것은 한국한자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전통 內外轉의 내용은 되지 않지만 같은 운미를 가지 ‘攝’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각 攝에 대한 한국한자음에서 대역음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一等	二等	三等(見系)	四等
蟹攝	ai (泰) ɿi (哈)	ai, a(佳夬) ɿi (皆)	əi	iəi
止攝			ii	i
咸攝	am (談) ɿm (覃)	am (銜) am (咸)	əm	iəm
深攝			im	im
山攝	an	an (刪) an (山)	ən	iən
臻攝	ɿn		in	
宕攝	aŋ		aŋ	
曾攝	ɿŋ		iŋ	
梗攝		ɿiŋ (耕) ɿiŋ (庚)	iəŋ	iəŋ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한국한자음에서 一二等に 대역될 수 있는 국어음은 /ㅏ/와 /ㅑ/ 둘 뿐이다. 그래서 外轉에 해당되는 攝에서는

18) 周法高(1984:11) 역시 음운적인 원리에 의해 內外轉을 羅常培와 같이 다음과 같이 배열하고 있다.

外轉 : a 類 果假攝 蟹攝 效攝 咸攝 山攝 宕梗攝 通攝
內轉 : ə, o 類 遇攝 止攝 流攝 深攝 臻攝 曾攝 江攝

모두 /ㅏ/로, 內轉에 해당되는 攝에는 모두 /ㅑ/로 대역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外轉 一·二等에 重韻이 출현하고, 그에 대응되는 內轉에 一·二等이 없다면 外轉의 重韻 가운데 하나는 어김없이 /ㅑ/모음으로 역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周法高(1984:13) 역시 내전과 외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외전에 二等韻에서 重韻이 있을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내전 攝에서는 독립된 二等韻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외전의 一等韻에 重韻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내전 攝에서는 一等韻이 없다는 위의 견해와 동일한 서술을 하고 있다.

한국한자음에서 哈韻과 皆韻은 止攝의 一·二等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埠韻은 深攝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다른 重韻들은 內轉에서 모두 /ㅑ/[ㅓ]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전에서 더 이상 대역음으로 重韻의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山攝은 二等韻에서 重韻이 나타나는데, 내전인 臻攝一等韻에서 이미 /ㅑ/로 대역하였기 때문에 山韻에 이 양성모음으로 대역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한자음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一·二等 重韻은 장단의 차이가 아닌 어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重韻의 표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음가는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들 두 韻은 고모음과 저모음으로 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고음의 외전과 내전 사이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고음으로부터 중고음의 음운체계로 발전하면서 상고음 내전의 ‘一·二等’字들이 중고음 외전의 一·二等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 重韻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한자음에서는 한자음이 국어음으로 대역되는 과정에 중고음의 이와 같은 음운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양성모음인 /ㅏ/는 외전의 一·二等을 양성모음 /ㅑ/로 내전의 一·二等을 역음하고 있으며, 重韻字에 이 두 양성모음으로 역음하는 것으로 중고음의 음운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訓蒙字會』(1988), 존경각본, 대제각.
- 羅常培, 『釋內外轉』, 『羅常培語言學論文選集』, 1933.
- 董同龢, 『上古音韻表稿』, 史語集刊第18本, 1944.
-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85.
- 朴炳采, 『古代國語의 연구』音韻篇, 高麗大學校出版部, 1986.
- 徐通鏘, 『歷史語言學』, 商務印書館, 1991.
- 薛鳳生, 『試論《切韻》音系的元音音位與“重紐、重韻”等現象』, 語言研究第1期, 1996.
- 王力, 『南北朝詩人用韻考』, 『王力文集』第十八卷, 3-731, 1936,
-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王洪君, 『從開口一等重韻的現代反映型式看漢語方言的歷史關係』, 語言研究, 第1期, 1999.
- 龍果夫(A. Dragunov), 『對於中國古音重訂的貢獻(A Contribution to the Reconstruction of Ancient Chinese)』, 唐虞試譯,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3本第2分, 1928.
- 俞昌均, 『東國正韻研究』(연구편), 형설출판사, 1981.
- 陸志韋, 『古音說略』, 1947, 中華書局, 1985.
- 李方桂, 『切韻a的來源』, 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3本第1分, 1932.
- 李新魁, 『中古音』, 商務印書館, 1991.
-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出版社, 1986.
- 周法高, 『論切韻音』, 中國音韻學論文集, 1984.
- 周祖謨, 『萬象名義中之]原本玉篇音系』, 問學集 七, 中華書局, 1966.
- 갈그렌, 『中國音韻學研究』, 趙元任·羅常培·李方桂 共譯, 商務印書館, 1940.
-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2, 平凡社, 1979.

〈中文提要〉

所謂重韻，是指《廣韻》系統的一等韻和二等韻中，在攝、等、開合都相同的情況下，存在着兩個或三個韻類。這些韻的上古來源不同，中古在元音的音色上有區別，這是各家對這種重韻現象比較一致的看法。我們重新根據韓國漢字音的讀音考察重韻的長短區別不成立，進而從這些韻的不同來源探討它們的性質。

中古開口一二等在韓國漢字音里讀音大概不分，但中古一二等台和皆兩韻讀/·l/[ɿ]，與泰佳夬三韻的/·h/[ai]區別；覃韻與談韻則在精組字有/·g/[ɿm]和/·am/[am]的區別。覃韻與談韻的區別是高本漢沒有利用過的。由此可見，這些韻的韓國漢字音能夠說明中古重韻有實際讀音的區別。它們在韓語元音系統里同為陽性元音，在發音部位上有高低的對立。中古漢語的重韻反映在韓國漢字音里的情況正符合李方桂的說法，開韻尾和唇音韻尾前的上古*ə到切韻時候變成a類韻，所以中古時沒有同a類相配的ə類韻，也符合龍果夫所指出的用咸、山、梗、蟹几攝的雙韻之一可以補上深、臻、宕和止攝的空白。即在韓國漢字音的讀音中，哈、皆韻和覃韻可補止攝和深攝的空白，其他同韻尾的韻攝里都保持陽性元音a跟ɿ的對立。

柳宗元 散文의 山水 이미지

— 永州時期 山水記를 中心으로

林 春 英*

< 목 차 >

I 머리말: 두 얼굴의 永州

II 본론: 絶望과 希望의 二重奏

1. 失意와 不滿의 이미지
2. 鬱憤과 脱鬱憤의 이미지
3. 安定과 平靜의 이미지

III 맺음말

I 머리말: 두 얼굴의 永州

柳宗元은 모두 36편의 記文을 창작하였으며 山川의 景物과 自然의 風光을 묘사한 山水記는 18편¹⁾을 사작하였다. 이 중에서 16편은 永州時期에 창작하였고 2편은 柳州時期에 창작하였으니 그의 山水記에서 가장 많이 형상화된 것은 永州의 自然 山水라 하겠다. 주목할 것은 柳宗元 散文에 묘사된 永州 山水가 동일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柳宗元의

* 동아대학교 강사

1) 柳宗元의 山水記 圖表

붓 끝에서 永州의 山水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난다. 서로 대비를 이루는 永州 山水의 이미지는 다음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작은 언덕위에서 사방을 바라보니 고준한 산봉우리와 유유히 떠있는 구름과 흘러가는 시냇물만 보일뿐이다. 즐겁게 뛰노는 鳥獸들은 각자 모두들 희희낙락하며 절묘하고 기이한 재주를 펼쳐보이니 온갖 멋이 이 작은 언덕의 아래에 있다. 이 작은 언덕위에 자리를 깔고 누우니 밝고 깨끗하고 시원한 경색이 눈에 가득 담기고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는 귀에 가득 담기며 한적하고 적막한 분위기는 정신을 트이게 한다. 내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기묘하고 독특한 곳을 두 군데나 발견하였으니 절경을 좋아하던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²⁾

이 글은 元和 4년에 쓴 <鉞鋸潭西小丘記>이다. 소일삼아 주변 山水를 유람하던 유종원이 우연히 西山을 발견하게 되었고

卷數	作品名	創作時期	卷數	作品名	創作時期
卷27	<永州韋使君新堂記>	元和6-8年	卷29	<鉞鋸潭記>	元和4年
	<永州崔中丞萬石亭記>	元和9·10年		<鉞鋸潭西小丘記>	"
	<零陵三亭記>	未詳		<至小丘西小石潭記>	"
卷28	<永州龍興寺息壤記>	"		<袁家渴家>	元和7年
	<永州龍興寺東丘記>	"		<石渠記>	"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元和元年		<石澗記>	"
	<永州龍興寺西軒記>	元和元年		<小石城山記>	"
卷29	<游黃溪記>	元和8年		<柳州東亭記>	元和12年
	<始得西山宴游記>	元和4年		<柳州山水近治可游者記>	未詳

2) 卷29 <鉞鋸潭西小丘記>:…由其中以望, 則山之高, 雲之浮, 溪之流, 鳥獸之遊游, 舉熙熙然回巧獻技, 以效茲丘之下. 枕席而臥, 則清冷之狀與目謀, 滄滄之聲與耳謀, 悠然而虛者與神謀, 澗然而靜者與心謀. 不匝旬而得異地者二, 雖古好事之士, 或未能至焉…

그 산속에 있는 연못과 그 주변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의 永州는 특이한 풍경이 멋진 名勝地의 모습을 띠고 있다.

[2] 산림 울창하여 가시숲 감옥 같고, 호랑이와 표범의 표효 간수를 지키는 개의 울부짖음 같네. 우물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험하고 좁아 도망갈 곳이 없네... 10여년 동안 찾아오는 이 없었건만 층층으로 자란 숲은 내가 갇혀있는 곳을 한층 더 으페시키네. 성인이 국가를 경영하고 있고 현명한 신하도 임명되는데 이 산이 영원히 나를 가두어두게끔 만든 이 누구인가? 3)

이 글은 元和 9년에 쓴 <囚山賦>이다. 全篇을 통해 永州의 험악한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 유종원은 첩첩이 이어진 산은 성벽같고 울창한 산림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며 깊은 산중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와 표범의 울음소리는 마치 죄수를 지키는 개의 포효와 같다고 느낀다. 이 작품에서 묘사된 永州 山水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감옥이고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우물의 모습을 띠고 있다.

永州 山水라는 동일한 자연대상을 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名勝地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감옥의 이미지이다. 永州 山水가 애정의 대상에서 증오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위해서 우선 元和4년에서 元和9년까지 유종원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주요 경력을 살펴보자면, 柳宗元은 元和元年(805)에 폄적되었고 元和10年(815)에 장안으로 잠시 복귀하였다가 그해 3월에 柳

3) 卷2 <囚山賦>:攢林麓以爲叢棘兮, 虎豹咆囂代狴牢之吠噪. 胡井甃以管視兮, 窮坎險其焉逃...積十年莫君省者兮, 增蔽吾以蓬蒿. 聖日以理兮, 賢日以進, 誰使吾山之囚吾兮滔滔!...

州刺史로 다시 좌천되었고 元和14年(819)에 마지막 부임지였던 柳州에서 사망한다.⁴⁾

편적 초기와 달리 元和4년에 이르러 유종원은 持病이 호전됨에 따라 知人들과 함께 山水를 유람하곤 했고 마침 조정에서 대사면을 시행하였지만 유종원은 제외되었다. 元和5년에는 再娶하여 소원하던 대로 후손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몇몇의 친구와 지인의 사망소식을 접하긴 했으나 나름대로 편적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급기야 元和8년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유종원을 위시한 ‘八司馬’에 대한 사면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劉禹錫이 조정 대신들에게 구명을 요청한 書信文이 永貞革新 세력의 복권을 탐탁치않아하던 權臣 武元衡과 憲宗의 반감을 사게됨에 따라 사면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元和9년에는 憲溪 근처에 살면서 독서와 사작활동에만 전념한다.⁵⁾

사회역사적으로, 元和4年是 이른바 獻宗의 治世 시기로 玄宗의 開元·天寶 年間에 버금가는 번성기였다. 점점 쇠퇴해가던 당왕조가 잠깐동안의 중흥기를 맞이한 때이며 이는 헌종이 즉위하고나서 계속적으로 藩鎮 割據를 억제하며 賢臣을 기용하였던 데에 기인한다.⁶⁾

위의 사실로 보아, 자신은 비록 제외되긴하였으나 元和4년에 실시된 대사면은 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복직된 친구와 지인들에게 쓴 몇 편의 서신문을 보면 유종원이 자신의 복권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친구의 복직을 축하하는 한편 자기의 사면에 대해서도 신경써줄 것을 읊소하였고⁷⁾ 태평성세를 맞이하여 자신도 사면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강하

4) 《舊唐書·柳宗元傳》, 姜秉喆, <柳宗元列傳>, 《中國語文學譯叢》, 제 3집, pp65-71 참조.

5) 劉光裕·楊慧文 共著, 《柳宗元新傳》, 上海人民出版社, pp308-310 참조.

6) 누노메 조후 외, 《중국의 역사》, pp287-292 참조.

게 괴력하기도 하였다.⁸⁾

이렇게 볼때, 유종원은 元和4年에서 조정의 사면론이 폐기된 元和8年까지 조정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은 침체되고 소진되어가던 심신을 추스르며 현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어 주었다. 元和4年에서부터 元和7年까지 사작한 「永州八記」 속의 永州 山水가 특이한 풍경과 멋스러운 경치를 가진 絶景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이 시기 유종원이 가졌던 희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元和8年의 사면론이 결국 무위로 끝남으로써 잠시나마 가졌던 희망은 다시 절망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사면의 희망이 물거품되어 사라진 후 돌아본 永州 山水는 이제 자신을 가두고 있는 공포스러운 감옥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永州 山水는 永州時期 유종원의 희망과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리고 그의 희망과 절망은 山水記에서는 반복 출현하여 어떤 정서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永州 時期에 창작한 山水記 16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이미지군⁹⁾을 분석하여 永州 山水의 이미지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종원의 심리상태를 탐구하고 그의 山水記 예술창조의 성취를 규명하고자 한다.

7) 《柳宗元全集》, 卷30 <與楊京兆駢書>(元和5年): “당신은 오래지 않아 조정으로 돌아갈 것이고 대관을 지낼 것이니 저의 심사를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눈물이 흘러 고개를 들고 당신께 진술한 이것을 마음속으로 당신께 알립니다.”(丈人旦夕歸朝廷, 復爲大僚, 伏惟以此爲念. 流涕頓頽, 布之座石, 不任感激之至.)

8) 《柳宗元全集》卷30 <與蕭翰林俛書>(元和6年): “반란군과 도적을 평정하고 천하가 태평한 시대를 틈타 저의 깊은 죄를 벗고 사면받을 수 있고 황상의 은택을 입을 수 있다면…”(儻因賊平慶賞之際, 得以見白, 使受天澤餘潤…)

9) 李明燮 編,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pp395-396 참조: “이미지(즉, 집합적인 ‘이미지들’)은 한편의 시 또는 다른 문학작품에서 언급된 지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과 속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II 본론: 絶望과 希望의 二重奏

1. 失意와 不滿의 이미지

柳宗元은 편적지 永州의 환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다.

永州는 초지방에서도 가장 남쪽인 셈이고 월지방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고민이 있어 밖으로 나가 유람하지만 유람하는 와중에 또 무서워합니다. 들로 나가면 항상 복사와 독사를 만나는데 그것들이 고개를 들고 내려다보면 한 걸음 걸을 때 마다 피로함을 느낍니다. 강가 근처로 가면 전갈과 독충등이 몰래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일단 사람의 몸을 물면 독에 감염됩니다. 어떨 때는 조용한 숲속에서 아름다운 암석속에서 잠시 경치를 감상하고자 하지만 아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오히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종 나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니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어야 할까요?¹⁰⁾

高溫多濕한 永州의 열악한 자연환경은 유종원에게 그 자체 ‘자연감옥’의 인상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언제 사면이 될는지 혹은 언제까지 있어야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자연환경이 주는 공포감과 그로 인한 유종원의 절망감은 말로 설명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다.

永州市기 山水記에 나타난 永州의 형상은 위에서와 같은 감옥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회재불우로 인한 실의와 불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¹¹⁾ 그 자신 이상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

10) 卷30 <與李翰林建書>:…永州於楚爲最南, 狀與越相類. 僕悶卽出游, 游復多恐. 涉野有蝮虺大蜂, 仰空視地, 寸步勞倦; 近水卽畏射工沙虱, 含怒竊發, 中人形影, 動成瘡痛. 時到幽樹好石, 暫得一笑, 已復不樂. …

11) 張蠡·曹萌, <論柳宗元山水文學>, <錦州師院學報>1988年 제2기, p69

없는 左遷 官僚의 신분이고 이미 知人들에게는 잊혀진 인물이며 조정으로 복귀여부를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상심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편적과 회재불우는 ‘버려진 땅’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① 아! 龍興寺는 永州의 훌륭한 절이다. 높디높은 대전에 오르면 남쪽을 바라볼 수 있고 대문을 열어젖히면 눈아래로 호호탕탕한 湘江의 흐름을 볼 수 있으니 정말로 광활한 경계인 듯 하다. 그러나 이 작은 언덕은 오히려 배척되어 바깥에 있고 사람들에게 홀시당한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 두 유람지는 아마도 이 작은 언덕이 빠져서 경물의 아름다움이 감소된 것 같기도 하다. 12)

龍興寺 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은 협소하고 작은 공간으로 용흥사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종원은 유람의 최적지로 광활한 곳과 그윽한 곳을 거론한 적이 있다. 작은 언덕이 있고 관목수가 무성하며 길이 구불구불한 경관을 그윽한 유람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용흥사 동쪽 언덕은 바로 그윽한 유람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유종원은 작은 언덕에 대해 ‘배척당하고 홀시당하다’는 언어를 통해 편적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고 작은 언덕이 훌륭한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용흥사 바깥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회재불우를 암시하고 있다.

② 작은 언덕은 매우 좁아서 합쳐봐야 一畝가 넘지 않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언덕의 주인에게 알아보니 주인이 대답하길 “이곳은 唐씨라는 사람이 버린 땅으로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냐고 물으니 그는 “四百文입니다.”고

참조

- 12) 卷28 <永州龍興寺東丘記>: 噫, 龍興, 永之佳寺也! 登高殿可以望南極, 辟大門可以瞰湘流, 若是其曠也. 而於是小丘, 又將披而攘之. 則 吾所謂游有二者, 无乃厥彥而喪其地之宜乎?

하였다. 나는 땅주인을 가없이 여겨 이 작은 언덕을 사버렸다.…(중략)…아! 이 작은 언덕의 명승이 만약에 灑, 鎬, 戶, 杜같은 京師 주변에 있었다면 山水를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니 매일 一千金씩 값을 올려도 사고싶어하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작은 언덕이 편벽된 이 永州땅에 버려졌기 때문에 농부나 어부들이 지나다니면서도 그것을 눈여겨두지 않은 것이다.¹³⁾

鉛鋸潭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은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팔려고 내놓았지만 내내 팔리지 않는 ‘버려진 땅(棄地)’이며 이는 보잘 것 없는 유종원 자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 덧붙여 이 작은 언덕이 만약 長安 가까이에 있었다면 부자들이 다투어 사려고 할 정도의 絶景이라고 묘사한 것은 자신의 회재불우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버려진 땅’· ‘편벽된 땅’이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의 실의와 불만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아! 나는 아주 오랫동안 조물주가 있을까 없을까 회의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경치를 보고나니 조물주가 있음을 알겠다. 그러나 조물주는 왜 하필 小石城山이라는 명승을 중원땅에 만들어놓지 않고 이렇게 편벽되고 먼 곳에 만들어놓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절경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했는지 의아하기만하다. 사실 힘을 들이고 얻는 것이 없으니 하늘이 이렇게 해서 안되는 거라고 한다면 신은 아마도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¹⁴⁾

여기서 小石城山은 명승지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지만 오랑캐의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알려지지

13) 卷29 <鉛鋸潭西小丘記>:問其主曰:“唐氏之棄地, 貨而不售.” 問其價, 曰: “止四百.” 余憐而售之.…(中略)…噫! 以茲丘之勝, 致之灑·鎬·鄂·杜, 則貴游之士爭買者, 日曾千金而愈不可得. 今棄是州也, 農夫, 漁父過而陋之.

14) 卷29 <小石城山記>:噫, 吾疑造物者之有無久矣! 及是, 愈以爲誠有. 又怪其不爲之中州, 而列是夷狄, 更千百年不得…售其伎, 是固勞而無用, 神者儻不宜如是, 則其果無乎?

않은 ‘버려진 땅’이다. 이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랑캐 땅으로 내쳐진 유종원의 꺾적 처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작용하고 있다. 小石城山の 妙境을 편벽된 야만의 땅에 만들어 그 가치를 헛되게 한 신에 대한 불만 토로는 꺾적된 유종원의 불만심리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小(丘)’-‘小(丘)’-‘小(石城山)’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공간적 협소함’을 들 수 있다. 작고 협소한 山水는 답답한 꺾적생활과 회재불우로 인한 실의와 불만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이미지이다.

다음으로 ‘버려진 땅’에 대한 묘사는 버림받아 쓸모가 없어진데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산산조각난 유종원 자아를 연상시킨다.

‘협소한 공간’과 ‘버려진 곳’은 ‘버려져 주목받지 못하는 자신’을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이는 보잘것 없고 미미한 자기 가치에 대한 유종원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꺾적생활에 대한 불만과 존재가치에 대한 상실을 표현하는 이미지는 협소하고 작은 범위의 境界로 표현되며 쓸쓸하고 적막한 意境을 창출하고 있다. 吳小林은 “유종원의 山水散文은 쓸쓸하고 차가운 경치를 그려내어 특별한 ‘清寂之美’를 표현하는데 탁월하였으니 이는 유종원 散文의 탁월한 창조성이다. 그의 이러한 독특한 심미추구는 고독하고 실의한 심경의 반영이며 억울하고 우울한 심태의 외화이다.”¹⁵⁾고 평가하였다. 결국 꺾적생활로 인해 더 이상 재능과 이상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유종원의 실의와 불만의 心態는 ‘작은 땅’과 ‘버려진 땅’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15) 吳小林, <論柳宗元散文의 幽美>, 《中國人民大學學報》, 89, 5기, pp87-88 참조

永州 山水를 ‘작은 땅’과 ‘버려진 땅’으로 표현한 것은 ‘감옥’이나 ‘황무지’로 표현한 경우와 비교할 때 절망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상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이미지를 통해 永州時期 유종원의 비관과 절망의 한 자락을 엿볼 수는 있을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靜的 感覺의 名詞	聯想 感覺	心理 이미지
<永州龍興寺東丘記>	小丘	배척받는 곳	실의와 불만
<鉅錡潭西小丘記>	小丘	버려진 곳	"
<小石城山記>	小石城山	쓸모없는 곳	"

2. 鬱憤과 脫鬱憤의 이미지

기존의 많은 논자들은 柳宗元의 山水記를 유종원 자신의 슬픔과 처량함을 풀어내기 위한 사작으로 보아왔다. 유종원 山水記 속에 표현된 物景은 그의 근심과 우울을 풀어내는 매개체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山水記 전체가 그의 비관적인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永州時期 山水記 속에는 우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생기와 활력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의 山水記의 物象은 山水詩의 物象과 달리 유종원이 슬픔을 벗어나고 마음을 비우는 정서를 보여준다고 평가¹⁶⁾하고 있는데 은폐되고 더럽혀져 있던 永州 山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발견하는 많은 장면들은 바로 정신적 침륜상태

를 벗어나 새로운 활기를 찾고자하는 유종원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① 이곳은 마른 나무와 가시나무가 뒤섞여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니 이런 마른나무와 가시나무를 베어서 없앤다면 불 만한 경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이에 하인들에게 도끼를 들고와서 모두 함께 마른나무와 가시나무를 베어버리게 했다. 그러자 무성하던 잡초가 모두 없어졌고 막혀있던 만물이 모두 드러나 진실로 환트이고 광활해졌다. 하늘은 이로써 더욱 높게 되고 대지는 이로써 더욱 넓어보이며 언덕과 산계곡의 험준함과 강과 호수와 연못의 드넓음 모두 더욱 높고 넓은 감각을 확대하는 것 같다.¹⁷⁾

法華寺는 永州에서 地勢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이며 柳宗元은 永州로 폼적와서 잠시 여기에 머문적이 있었다. 이곳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다고 여긴 유종원은 永州司馬 녹봉을 털어 정자를 지었고 이를 기념하며 이글을 썼다. 유종원이 사찰 서쪽 걸쳐 대나무밭을 덮고 있던 고목과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없애어’, ‘만물이 모두 드러날 수 있게’하려고 한 것은 ‘불만한 경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결과적으로 가시나무와 마른 나무에 덮혀있던 곳을 정리하자 ‘광활한 경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 글의 ‘伐’과‘除’는 문장 내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동사로서 동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유사한 정도의 사용빈도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마른나무’가시나무’를 나타내는 ‘薪蒸篠簕’이다. 이들 ‘雜草(雜木)類’는 永州 山水의 진정한미를 가리고 있는 덮개이며 이들을 제거하고 없앴으로써 비로써 永州 山水의 진면목은 드러

16) 王佩娟, <柳宗元山水記의審美意義>, 《國際關係學院學報》, 1988年 제1기, p43참조

17) 卷28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然而薪蒸篠簕, 蒙雜擁蔽, 吾意伐而除之, 必將有見焉.……遂命僕 人持刀斧, 群而斲焉. 叢莽下頽, 萬類皆出, 曠焉茫焉, 天爲之益高, 地爲之加辟, 丘陵山谷之峻, 江湖池澤之大, 咸若有增廣之者.

나게 되고 그 결과 확 트인 경관속에서 유종원의 시야와 마음도 넓어진다. 이로부터, 이글에서의 惡木들은 바로 유종원의 심신을 뒤덮고 있던 근심과 우울과 번민이며 '막혀있다가 드러난 萬物'은 완전한 탈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번민과 우울을 타개하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내주는 한다.

② 李深源과 元克己는 당시 나와 함께 유람하고 있었는데 매우 기뻐하며 의외의 수확이라고 여겼다. 이에 연장을 들고서 돌아가며 그것을 사용하여 잡초를 베고 재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를 없애고 불질러 태워버리니, 좋은 나무가 우뚝 보이고 아름다운 대나무가 드러나며 기암괴석이 눈앞에 나타났다.¹⁸⁾

西山을 발견한지 8일뒤에 찾은 鈷鋤潭 서쪽에 있는 작은 언덕을 묘사한 글이다. 작은 언덕의 주인 권유로 이것을 사고 난 뒤 유종원은 벼들과 함께 개간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작은 언덕은 숨어있던 奇景이 드러나면서 淸淨한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역시 '더러운 풀'이나 '잡목'을 '베어버리고, 없애고, 태우는' 시각적 감각과 동적 감각을 통해 울분 타개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小丘를 개간한 결과 좋은 재목과 아름다운 대나무숲과 기암괴석이 펼쳐지게 되는데 '嘉木' '美竹' '奇石' 등의 언어는 유종원 심신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陰影이 견힘으로써 볼 수 있게 된 奇景이다.

③ 나는 永州자사를 따라 이 곳에 왔는데 우리들은 이곳의 썩은 풀과 마른 나무를 제거하고 水路 속을 막고있는 흙과 돌을 없앴다. 썩은 풀과 마른 나무를 쌓아서 불로 태우고 나니 수로가 뚫렸고 石渠속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¹⁹⁾

18) 卷29 <鈷鋤潭西小丘記>:李深源, 元克己時同游, 皆大喜, 出自意外. 卽更取器用, 鏟刈穢草, 伐去惡木, 烈火而焚之. 嘉木立, 美竹露, 奇石顯.

19) 卷29 <石渠記>: 予從州牧得之, 攬去翳朽, 決疏土石, 旣崇而焚, 旣醜而

袁家渴에서 서남쪽으로 백보쫘에 위치한 石渠는 소규모의 냇물로 이곳의 물이 흘러가서 북쪽의 작은 연못에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원가갈로 흘러들어간다. 이 石渠의 양옆으로 기암괴석과 특이한 꽃들이 즐비한데 역시 유종원이 개간을 하고 나서 奇景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글의 ‘썩은 풀’과 ‘마른나무’는 그의 울분을 상징하는 비유물이고 ‘제거하고, 뚫어주는’ 동적 감각의 언어는 유종원 마음깊이 침전되어 있는 응어리를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상태의 반영이다.

④ 진흙을 파서 옹기고 잡초를 베고 불태우고 진흙으로 막힌 도랑을 파서 막혀있던 수로를 뚫어주어 확트인 숲과 잘 흐르는 맑은 연못으로 만들었다. 이에 여기가 밝고 맑게 변하여 마치 조물주가 막 천지를 개벽할 때처럼 이곳에 이러한 절경을 남겨놓으니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경지였다.²⁰⁾

柳宗元의 知人인 崔中丞이 永州로 임명되어 왔고 萬石亭이라는 亭子를 지었다. 최중승이 永州 지방 사람들에게 교화를 시행한 것을 유종원이 칭송하며 萬石亭을 짓게 된 과정과 주변경관을 기록한 글이다. 만석정은 永州 근교 황무지를 개간한 곳에 지었기에 유종원은 특별히 폐허를 개간하여 奇景을 이룩해놓은 모습을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 글의 ‘썩은 땅’ ‘잡목’ ‘더러운 물’은 그의 울분과 번민을 상징하고 있고, ‘각아내고, 불태우는’ 동적 감각의 언어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려는 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盈...

20) 卷27 〈永州崔中丞萬石亭記〉：於是剝辟朽壤，藳焚榛蕪，決滄，導伏流，散爲疏林，洄爲清池。寥廓泓渟，若造物者始判清濁，效奇於茲地，非人力也...

우선, 雜木과 雜草 및 惡木들이다. 이것은 奇石이나 嘉木과는 대비되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유종원을 구속하고 얽어매고 있는 근심·걱정·우울·번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더러움을 벗겨내고 잡초를 벗겨내는 동적 감각의 언어들이다. 이러한 동적 감각은 무엇인가를 떨쳐내고 제거하고 없애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활력적인 동작이라는 점에서 어떤 대상을 개선하고 새롭게 바꾸고자하는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상술한 작품 전체는 ‘광활하며 기분 좋고 소통이 원활한’ 境界를 보이는데 이는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 울분과 번민에서 벗어난 상태를 표시한다. 이로써 유종원이 처량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활력과 삶의 여유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靜的 感覺의 名詞	動的 感覺의 動詞	심리 이미지
<永州法華寺新作西亭記>	雜木·惡木	伐·除	鬱憤과 脫鬱憤
<鈞鐸潭西小丘記>	惡木·雜草	伐去·烈焚	"
<石渠記>	惡石	攬去·剝辟	"
<永州崔中丞萬石亭記>	雜草·汚水	剝辟·翦焚	"

3. 安定과 平靜의 이미지

柳宗元의 山水記는 그가 울분을 떨쳐버리고 삶의 여유를 되찾은데 그치지 않고 어느정도의 희망과 낙관도 품고 있음을 보여준

다. 王佩娟은 柳宗元 山水記의 審美 가치를 탐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天地의 크고 광활한 품속에서 그는 현실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광활함과 완전한 만족을 얻었는데 이는 광활한 천지와 渾然一體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모든 苦悶과 煩惱와 자신을 압박하는 모든 것이 편안함과 안녕함으로 전환되기를 추구하는 심정인 것이다.²¹⁾

이 글은 유종원이 자연을 감상하면서 대자연속에서 위로를 받고자 했고 심적 평정을 추구하였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자연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과 자신을 일체화 시키는 山水記 속의 永州 山水는 확실히 그의 심신을 지배하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해소되면서 심리적 평형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① 회나무, 소나무, 삼목나무, 녹나무, 상록녹나무등의 나무를 거의 3백 그루나 심으니 아름다운 꽃과 빛나는 돌은 그 사이에서 중횡으로 교차되어 있다. 고개를 떨구어 이 녹색의 세계로 들어가면 천지에 가득한 녹음과 그윽함과 편안함만 보게된다. 안에서 천천히 거닐다보면 항상 출구를 찾지 못해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른다. 따듯한 바람이 조금 불어도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시원한 공기가 나부끼는 것만 느껴진다. 물위의 작은 정자는 그윽하니 정취가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 이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게 그윽함을 느끼게 된다.²²⁾

龍興寺의 동쪽 언덕 주변 경관에 대해 쓴 山水記이다. 유종원은 용흥사에서 버린 땅을 개간하여 자신의 거처와 연결하고서 자주 유람하였는데 이곳 작은 언덕의 정상에 올라 유종원은 온갖

21) 王佩娟, 상계서, p43참조

22) 卷28 <永州龍興寺東丘記>: 桂檜松杉榿楠之植, 幾三百本, 嘉卉美石, 又經緯之. 俯入綠縹, 幽蔭蒼蔚. 步武錯迕, 不知所出. 溫風不燥, 清氣自至. 水亭狹室, 曲有輿趣. 然而至焉者, 往往以邃爲病. …

근심과 분노를 해소한 듯 하다. 시각적인 푸르른 녹음과 촉각적인 시원한 공기는 이곳이 아늑하고 깨끗한 경계임을 보여준다. 녹색은 심리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색채인데 시원한 공기까지 불어대니 심리적 평정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

② 이러한 것을 보고나서야 이 산이 확실히 특별하며 보통의 산에 있는 작은 언덕과 많이 다름을 알았다. 눈앞에 경치를 마주하니 내 몸과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자연의 광활한 기와 화합하며 혼연일체를 이루었고 한가로이 천지자연과 함께 교류하니 끝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나는 술잔을 들어 술을 따라 단번에 마셔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땅에 넘어질 정도로 취해버렸으니 해가 저서 서산이 어둑해지는줄도 몰랐다. 저녁 어스름이 멀리서 점점 다가오니 천지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이 때 정신은 한데로 모이고 몸의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천지만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된 듯함을 느꼈다. 이에 예전의 유람은 유람이 아니며 참된 유람은 이 西山을 유람하고나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였다.²³⁾

永州로 폼적은 초기에 유종원은 아무래도 우울할 수 밖에 없었다. 우울함을 달래고자 그가 선택한 방법은 山水자연속에 파묻히는 것이었다. 훌륭한 명승을 찾아서 이리저리 逍遙하였고 永州에서 가볼만한 곳은 다 가보았다고 생각한 그였다. 그러나 우연히 西山을 발견하였고 그곳의 기이한 풍경은 유종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번에 西山의 정상에 올라 눈 아래 펼쳐진 광경을 보며 그는 대자연이 주는 호방한 기운에 일체감을 느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며 사위가 어둠에 잠겼지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을 정도로 이미 그의 몸과 마음은 자연속에 녹아들어 혼연일체를 이루게 된다. 자연과의 완전한 일체감으로 그는 편안함을 느끼게

23) 卷29 <始得西山宴游記>: 然後知是山之特立, 不與培塿爲類, 悠悠乎與顛氣俱, 而莫得其涯, 洋洋乎與造物者游, 而不知其所窮. 引觴滿酌, 頽然就醉, 不知日之入. 蒼然暮色, 自遠而至, 至無所見, 而猶不欲歸. 心凝形釋, 與萬化冥合. 然後知吾向之未始游, 游於是乎始.

되고 비로소 유람의 진정한 맛을 체득하게 된다. 정신이 불안하거나 극도로 우울한 상태에서라면 자연山水의 정취에 온전히 몰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心凝形釋’은 온갖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집중하니 몸의 긴장감이 사라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 순간 유종원이 심리적으로 평정에 놓였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특히 천지만물속으로 아늑하게 녹아들어 합쳐진다는 묘사는 심적 안정이 극대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 작품에서 시작되는 이른바 「永州八記」에서는 유종원이 자연속에서 편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③ 鈞澗 기슭 위에 인가가 한 채 있는데 그 집 주인은 내가 여러 차례 유람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어느날 나를 찾아와 말하길 “관부의 세금과 사채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산속으로 이사하여 땅을 개간하려 하니 고무담 주변 밭을 당신이 사서 제 부담을 덜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좋아하며 그가 요구하는대로 밭을 샀다. 이에 고무담 기슭의 평평한 누대를 높이고 옆쪽의 난간을 높여 높은 곳에서 흐르는 샘물을 고무담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다. 이곳의 경치는 특히 중추절 저녁때 달을 감상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 이곳에서는 하늘의 높고 광활함과 자연속에 흐르는 氣의 묘원함을 느낄 수 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오랑캐땅에 사는 것을 즐겁게 하고 고향을 잊게 해주는가? 바로 이 澗이 아니겠는가! 24)

西山의 서쪽에 있는 고무담은 冉水의 지류가 흘러오다 작은 언덕끝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면서 형성된 연못이다. 유종원은 연못 위 언덕의 작은 집을 사들여 연못을 더욱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수리까지 하였다. 그 결과 높고 원대한 기운을 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자연을 통해 얻은 이러한 즐거움에 꿈에도 잊

24) 卷29 <鈞澗記>: 其上有居者, 以予之亟游也, 一旦款門來告曰: “不勝官租私券之委積, 既芟山而更居, 願以澗上田財以緩禍。” 予樂而如其言. 則崇其臺, 延其檻, 行其泉於高者而墮之澗, 有聲潑然. 尤與中秋觀月爲宜, 於以見天之高, 氣之迥. 孰使予樂居夷而忘故土者, 非茲澗也歟.

지 못하던 고향에 대한 떠망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높은 하늘’과 ‘아득한 기운’은 보다 높고 먼 것을 추구하는 상승의 심리와 마음을 비우고 평정해지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④ 이 작은 언덕 위에 자리를 깔고 누우니 밝고 깨끗하고 시원한 경색이 눈에 가득 담기고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는 귀에 가득 담기며 한적하고 적막한 분위기는 정신을 트이게 한다. 25)

법화사 서쪽 정자에서 주위경관을 조망하다가 西山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산을 유람하다가 서북쪽에서 고무담을 발견했다. 그 고무담 위쪽에 있는 언덕이 바로 이 작은 언덕이다.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고무담의 작은 언덕은 고무담에서 위쪽으로 기이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포진해있으며 전체 언덕 주위에 대나무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서늘하고 차가운’ 촉각 감각은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는 유종원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⑤ 小丘에서 서쪽으로 120보쯤 가다보면 대나무 숲이 가로 막고 있는데 흐르는 물소리 허리띠에 달린 패옥이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같아 매우 흥겨워졌다. 이에 사람을 시켜 앞쪽의 대나무를 베니 작은 길이 나왔고 아래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속 물은 특별히 깨끗하고 시원하였다. ……소석담 주변 사방은 푸른 대나무와 綠樹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조용하고 적막하니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고 마음과 정신이 서늘해지고 한기가 뼈속에 스며드니 참으로 그윽하고 고요하였다. 이곳의 환경이 지나치게 조용하고 서늘하였기에 오랫동안 머물기 힘들었다. 26)

25) 卷29 <鉗鉞潭西小丘記>: …枕席而臥, 則清冷之狀與目謀, 潑潑之聲與耳謀, 悠然而虛者與神謀, 澗然而靜者與心謀. …

26) 卷29 <至小丘西小石潭記>: 從小丘西行百二十步, 隔篁竹, 聞水聲, 如鳴珮環, 心樂之. 伐竹取道, 下見小潭, 水尤清冽. ……坐潭上, 四面竹樹環合, 寂寥無人, 淒神寒骨, 悄愴幽邃. 以其境過清, 不可久居.

고무담 위쪽 작은 언덕에서 서쪽으로 가다보면 대나무 숲 건너편에 바닥이 아주 넓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작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 전체는 대나무 숲이 에둘러싸고 있다. 유종원은 숲속을 흐르는 물소리에 흥겨움을 느끼고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낀다. 특히 인적이 절멸된 조용한 대숲에 이르러서는 그곳의 한기와 적막함으로 인해 장시간 머물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서늘한’ 촉각 감각과 ‘적막한’ 境界는 유종원의 심리적 평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녹색’과 ‘청색’ 등의 시각 감각과 ‘시원하고 서늘하고 차가운’ 촉각 감각이 조합하여 만들어낸 침착하고 담담한 심리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시원하고 서늘하고 차가운 공기는 냉정한 정신 경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여타의 잡념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그윽하고 아늑한’ 境界가 만들어낸 평정의 심리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상술한 山水記에 묘사된 유람지는 모두 협소한 공간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느낌 보다는 아늑하고 그윽한 느낌이 강하다. 좁은 숲속 경치를 깊고 그윽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유종원의 시각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이미 편안한 상태이며 심리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협소한 永州 山水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속하고 움아매는 공간이 아닌 편안히 휴식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된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觸覺 感覺	靜的 境界	심리 이미지
<永州龍興寺東丘記>	清氣	奧趣	안정과 평정
<始得西山宴游記>	顛氣	心凝形釋	“
<鈞鉞潭記>	氣之適		“
<鈞鉞潭西小丘記>	清冷	悠然·淵然	“
<至小丘西小石潭記>	清冽·寒骨	幽邃	“

III 맺음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종원은 영정혁신이라는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였고 이것이 실패함으로써 혁신운동에 참여했던 동지들과 함께 폄적당한다. 진도유망한 문인지식인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폄적지로 쫓겨가는 신세에 기후가 전혀 다른 남방에 이르러 전염병까지 걸렸으니 그의 절망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元和초기에 쓴 서신문에 표현된 험악하고 황폐한 永州의 자연 환경은 ‘황무지’와 ‘야만의 땅’이라는 이미지로써 공간의 열악함과 함께 유종원의 깊은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元和4年에서 元和8年 동안에 사작된 일련의 山水記에서 표현된 永州 山水는 유종원의 실의와 불만, 그리고 울분과 탈출분 및 안정과 평정의 심리를 모두 나타내고 있다. 우선, ‘작은 땅’과 ‘버려진 땅’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폄적된 후의 말할 수 없는 실의와 더 이상 재능을 펼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야를 가리는 잡목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덮고 있는 울분을, 이것을 벗겨내는 동작 이미지를 사용하여 울분에서 벗어남을 표현하고 있다. 또, 그윽한 공간 이미지와 녹림 이미지를 사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山水記에 그려진 永州 山水의 이미지는 유종원의 심리상태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다소 반영되어 있는 활기와 한가로움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의 심리상태를 설명해준다. 결국, 이 시기의 유종원은 언제 사면될지 알수 없고 재능을 펼칠 수 없어 절망하기도 했으나 간간히 들려오는 사면소식에 장차 장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던 것이다. 그가 품었던 희망이 바로 황량하기만 했던 永州 山水로부터 절경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미를 끌어낸 것이다.

유종원의 山水記에 나타난 山水는 그의 심리정감과 경물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결정체로서 객관적 山水가 아닌 主觀的 山水이다. 특히 永州的 山水는 하나 하나의 경치마다 그의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배여있으며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른 분위기와 정서가 각각 다르다. 永州 山水의 이미지는 객관적인 자연상태로서의 山水가 심리정감의 투여에 따라 감정을 가진 主觀的 山水로 형상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시말하자면, 유종원에 의해 형상화된 永州 山水는 客觀的 自然 山水가 아닌 '柳宗元의 永州 山水'이며 '個性的 山水'이다. 永州시기 山水記의 예술적 가치는 바로 이러한 '個性的 山水'로 체현되는 창조적 예술형식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 《柳宗元全集》，曹明綱 標點，上海古籍出版社，1997
- 劉光裕·楊慧文 共著，《柳宗元新傳》，上海人民出版社，1989
- 吳小林，〈論韓柳散文的異同〉(《中國人民大學學報》1988年 제4기)
- 徐正英·田璞，〈韓愈柳宗元山水散文藝術比較〉(《鄭州大學學報》1988年 제3기)
- 王佩娟，〈柳宗元山水記的審美意義〉(《國際關係學院學報》1988年 제1기)
- 丁儀，〈淺淡‘永州八記’中的意境〉(《殷都學刊》1988年 제1기)
- 蔣宗興，〈柳宗元山水游記的美學特色〉(《長沙水電師院學報》88,2기)
- 范能船，〈談柳宗元的本體論山水審美觀〉(《美術論壇》89,6기)
- 肖國芬，〈淺談寫景散文的意境創造-讀柳宗元的永州八記〉(《承德師專學報》89,1기)
- 尚永亮，〈元和貶謫文學藝術特徵初探〉(《陝西師範大學學報》90,4기)
- 程薈·董乃斌 著，《唐帝國的精神文明》，중국사회과학출판사，1996
- 羅宗強，《隋唐五代文學思想史》，中華書局，1999
- 李明燮，《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을유문화사，1985
- 누노메조후 외，《중국의 역사》，혜안，2001
- 姜秉喆，〈柳宗元列傳〉，《中國語文學譯叢》，제 3집

<中文提要>

柳宗元写作了十八篇山水记。其中永州时期写作的山水记都是十六篇。引人注目的就是柳宗元描写的永州山水形象。永州山水有两种意象：名胜地和监狱，因为是同样的永州山水反映两种心态。特别是元和4年到元和8年，柳宗元写作的山水记包含他的希望和绝望。

这篇文章以柳宗元的永州时期山水记作研究对象。柳宗元的山水记有着意象群，这种意象群表现他的心态。所以按照柳宗元山水记的意象群，来分析永州时期山水记的意象。

总而言之，永州时期山水记运用意象群表现柳宗元的失意和不满，忧郁和脱忧郁及安定和平静。具体来说，这个时期，柳宗元因贬谪绝望了。可是因对赦免期待有着希望。因此他的山水记包含两种永州山水。柳宗元山水记中，永州山水形象不是客观的山水，而是主观的山水。换句话说，被柳宗元所描写出来的永州山水就是‘柳宗元的永州山水’。

三袁의 사회성격 고찰*

남 덕 현**

<목 차>

1. 서론
2. 삼원의 생애
 - 1) 집안내력
 - 2) 성장 및 교육과정
3. 삼원의 사회적 가치지향
 - 1) 현실상황에 대한 열정
 - 2) 문단상황에 대한 열정
4. 결론

1. 서론

복고와 반복고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던 명대 문단은 후기에 출현한 公安派에 의해 완연히 반복고의 분위기로 기울게 된다. 이 공안파는 湖北省 公安縣출신의 袁宗道 袁宏道 袁中道 삼형제¹⁾가 중심이 되어 북경에서 문학사단의 큰 틀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문단을 장악해 온 복고파에 의해 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4년과제)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袁宗道(1560-1600) 袁宏道(1568-1610) 袁中道(1570-1626) 형제를 병칭하여 '三袁' 또는 '公安三袁'이라고 한다.

를 바로 잡기 위해 문학 혁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 까닭에 공안파는 참신성과 진보적 면모를 지나치게 되었고, 그 문학이론 역시 혁신적 경향을 띠었던 것이다. 공안파의 혁신이론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의 중국문학사 전개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안파의 독특한 성격과 문학사적 가치는 바로 공안 삼원의 문학관과 세계관이 그 틀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공안파의 핵심인 삼원의 사회적 성격을 집안 내력과 성장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알아보고, 또 당시 현실과 문단상황에 대한 수용 양태를 통해 고민과 이상추구로 점철되었던 그들의 사회적 가치지향을 고찰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공안파의 전체 성격과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삼원의 생애

삼원의 삶은 한결같이 현실 참여와 은둔의 반복으로 점철되었으며, 그런 삶의 곡절은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 속에 하나의 갈등 구조를 남겨놓았다. 이런 갈등 구조는 얼핏보면 현실 참여와 현실 도피의 지극히 모순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절대적 모순 관계가 아니며, 새로운 전화를 통한 조화 결합이 가능한 요인이며 또 그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결과적 창작과 행위에 대한 이해만에 의해 많은 논자들이 극단적 편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²⁾ 삼원의 세계관 형성의 토대가 되었던 내면적 갈등구조는 신진 지식인으로서 현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통해 잘 보여지고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계에 대한 현실인식과 궁극적 가치지향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본질적 차원의 문제는 아무래도 그들 집안 내력과 성장 교육 과정 등, 삶의 기본적 틀에 대한 이해에서

2) 李基勉은 이에 대해 <袁宏道の 현실론>(《中國語文論叢》 第5輯, 中國語文研究會, 1992)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 집안내력

원씨 삼형제는 湖北省 公安縣의 長安村 출신이어서 ‘公安三袁’이라고도 칭해졌으며 公安派라는 명칭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허나 <袁氏家譜序>등 원씨 집안 가보의 기록에 의하면 삼원의 선조는 공안 사람이 아니었고 본디 그 성씨도袁씨가 아니었다.³⁾ 대략 삼원의 오대조부터 공안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 같다. 이 공안 지역은 長江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楚문화의 우수한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楚문화적 색채가 짙은 지역이다. 특히 公安縣은 강, 산, 들판과 시내가 잘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평온한 농촌지역이며, 삼원의 출생지인 長安里 長安村은 이러한 특징을 다 지니고 있다.⁴⁾ 그러나 잦은 수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명인호걸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원씨 집안은 명대 사회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형성된 鄉紳 계층이었다. 명 후기부터 청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국가의 지배체제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 면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

3) 丁煒의 <袁氏家譜序>에는 “公安之有袁氏也，出於江西豐城之元氏.”라고 적혀있고, 또 公安袁氏 十一世孫 袁遵源이 清 乾隆五十九년에 쓴 <袁氏重修宗譜序>에도 “家系出豫章豐城元坊村之元氏，明諱本初公由廩貢出身，振鐸黃之蘄水，後移荊，歿葬江南岸之窯頭埠.”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公安袁氏 十三世孫 袁憲中이 清 嘉慶十五年(1810)에 쓴 <遷江夏袁氏支譜序>에도 역시 “吾本江西老坊之元氏，前明本初公振鐸黃之蘄水，遂移荊籍，卒葬江陵窯頭埠，夫人朱氏 花氏合葬，詳墓志.”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窯頭埠가 바로 오늘날의 湖北省 公安縣에 속하는 지역이다.

4) 李壽和, 《三袁傳》(北京, 知識出版社, 1991). p5. : “長安里長安村, 位於縣西南六十里, 這里崗地起伏, 湖堰循間, 是個發展農耕的好地方. 村中有座喬木千章的荷葉山, 山下是一片浩瀚無際的烏泥湖; 南去二三里有一座雄峙的古刹義堂寺, 寺前有一棵望出數里的高大銀杏樹; 東去二三里則是一條可南通沔陽, 北通長江的小溪--孟家溪.”

였다. 그 중 하나가 이전의 形勢戶, 糧長層 대신에 사회의 지배 신분으로서 향신의 등장이다. 향신이 지배계층으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토지 소유 형태의 변화가 있었다. 명대 후기이래 화폐경제, 상품 생산의 발전 속에서 소농 경영의 자립화가 진전되자 里甲制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宋代부터 明중기까지의 지배 계층이었던 形勢戶, 糧長層의 토지소유는 그 기반을 잃고 해체 변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새로이 형성된 것이 향신에 의한 토지소유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 봉건제 신분질서는 명말에 이르러 내부적 모순의 갈등으로 인해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즉 생산력의 발달이 기존 생산력의 소유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전형적 향신 계층이었던 원씨 집안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안 삼원의 증조부 處世公 袁暎은 무인적 기질의 소유자였으며,⁵⁾ 조부 左溪公 袁大化는 성품이 온화하고 예의가 발라서 ‘退讓君子’라고 불리었다.⁶⁾ 원씨 집안은 공안으로 이주한 이후에 나날이 가세가 번창하였다. 특히 삼원의 조부 시절에는 생활이 부유한 편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다.⁷⁾ 또 부친 袁士瑜는 선대에서 닦아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집안 내에 학술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실제로 그 자신이 『海蠡篇』 2권을 저술하여 일찍이 江盈科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袁士瑜는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관운이 없어 모두 낙방하고는 고향에서 훗날 원평도의 장인이 되는 龔春所와 南平社를 결성하여 그 재능을

5) 袁宏道, 『袁宏道集箋校』(錢伯城箋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余大家祔葬墓石記」: “隱而豪學者也. 出入必帶劍, 馳怒馬, 着靺鞨衣. 嘗遊祚林雙田之間, 遇魁盜數十人, 怒領家僮格鬪, 立磔之.”

6) 袁中道, 『珂雪齋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石浦先生傳>: “左溪公, 改其先行, 斌斌爲退讓君子, 性慷慨.”

7) 『公安縣志·袁宗道傳』: “嘉靖中邑大饑, 公出母粟二千石, 金千兩以貸. 盡焚其券.”

8) 이 『海蠡篇』은 전하지 않고 있다. (참조 李壽和, 앞의 책, p7)

펼치며 학문적 활동을 하였다.⁹⁾ 그는 이처럼 스스로의 학문적 노력 외에 아들 삼형제에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단히 학문 연마에 열중하게끔 하였다. 원중도는 <二趙生文序>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형제 세 사람은 모두 글을 많이 미천하였다. 처음에 사실은 아버님께서 이끌어주셔서 배우게 되었다. 글을 배울 때는 걸치레 말이나 불경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찾아 구하였다. 대저 오래하니 기쁘게 만나는 바가 있는데 마치 번개가 단혀진 문을 여는 듯하였다. 근자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 세 사람을 가르치심에 관대하지도 엄하지도 않으셨고, 향기에 젖어 이슬을 걷는 듯이 가르치시어 대단히 風趣가 있으셨다.

(予兄弟三人皆粗知文，而其始，實先君子啓之以學。學之時，不論華言梵冊，種種搜求。蓋久之欣然有遇，如雷開塾戶，近思先君子之教予三人，不寬不嚴，如染香行露，教之最有趣者也。)

이처럼 袁士瑜는 자식교육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교육철학과 방법을 지니고서 직접 가정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열의 원인은 일반적인 사대부가 그러하듯 그 자신이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함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출세의 꿈을 자식들의 몸에서 실현되기를 바랐던 것 같다.¹⁰⁾ 실로 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열정을 짐작하게끔 해준다.

삼원의 家世흐름을 정리해 보면 공안지역 정착이후 우선 근면과 노력으로 경제적 면에서의 부를 일찌기 조성하여 집안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삼원의 증조부는 무인적 기질을 지니었는데 비해 그들의 조부는 崇文의 기질을 지니어 집안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고, 또 다시 그들 부친에 이르러서는 집안에 완전한 학술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놓았다. 삼원은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의 양호한 가정환경

9) 참조 『公安縣志·袁士瑜傳』.

10) 『公安縣志·袁士瑜傳』：“丙戌，長子宗道會試第一人，公年才及強仕。諸年家子謂當頤養天和，含飴自娛，公拍案起舞曰：雲程頗裕，何甘兒著先鞭？黑頭封公，適足有家聲愧。”

속에서 성장하였던 것이다.

2) 성장 및 교육과정

삼원의 성장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려서 어머니 龔氏를 여의고는¹¹⁾ 庶母 劉氏의 손에서 자라면서 정을 받지 못하였다.¹²⁾ 그러하다보니 자연스레 그의 외가인 龔씨 집안 인물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기본적 교육 환경은 부친이 조성해주었지만 실제적으로 유아교육기에는 외가의 교육과 영향을 깊히 받았던 것이다. 그들의 외가는 공안의 谷升里로서 거리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조부와 외조부 龔大器는 우의가 특별히 돈독한 친구사이였다.¹³⁾ 그리고 삼원의 외삼촌인 龔大器의 차남 龔仲敏은 만력 원년의 舉人이며, 셋째 아들 龔仲慶은 만력 팔년에 進士급제하여 福建道御史등의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이들 외가의 인물들 역시 신분적으로 새로운 지배 계층이었던 향신계층이었고, 모두들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선 신흥지식인이었다.

삼원은 친가 외가의 가정교육 이외에 萬瑩선생 등에게서 학문을 배우고는 부친의 지극한 관심 하에 결국 과거에 응시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李訥를 만나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학문과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삼원은 만력 십팔년부터 이십일년까지 모두 네 차례나 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¹⁴⁾

11) 袁宏道, <余大家祔葬墓石記> : “歲乙亥, 余母卒.”, 袁中道, <行狀> : “八歲, 龔太孀人卽世.”

12) 袁中道, <遊居柿錄>卷6 : “母氏早喪, 三孤備嘗茶苦, 予不忍言之也.”

13) 삼원의 외조부 龔大器는 젊은 시절에 집안이 가난하여 일찍이 삼원의 조부 左溪公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공부하여 결국 進士 급제를 한다.

14) 만력 십팔년(1590) 봄에 원씨 삼형제가 처음으로 함께 李訥를 방문하였다. 두번째는 만력 십구년에 원평도가 혼자 방문하였으며, 세번째 역시 만력 이십년에 막내 원중도가 혼자 방문하였고, 네번째는 만력 이십일년에 삼형제가 다시 함께 방문하였다.

삼원 형제는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유가적 분위기의 집안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중국의 일반적 사대부 지식인이 그러하듯 ‘兼濟天下’를 위해 과거의 길로 나서게 된다. 게다가 부친의 출세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인해 삼형제가 모두 進士가 되는 화려한 출발을 하게 된다. 원중도는 만력 칠년 스무살때 武昌에서 거행된 鄉試에서 舉人이 되고,¹⁵⁾ 만력 십사년에 부친의 강권을 이기지 못해 참가한 북경의 會試에서 二甲第一의 성적을 거두어 북경에서 관리생활을 시작하게 된다.¹⁶⁾

원평도는 만력 십육년 이십세에 鄉試의 舉人이되고,¹⁷⁾ 만력 이십이년에 삼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禮部 주관의 春試에서 進士 급제한다. 그러나 당장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형 원중도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가¹⁸⁾ 이듬해에 甯縣의 知縣으로 임명된다.

또 원중도는 여러 차례 省試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신 뒤 만력 이십오년 삼십사세의 나이에 비로소 鄉試 급제를 한다. 또 會試에서도 실패를 거듭한 다음 만력 사십사년 그의 형 원평도가 세상을 떠난 6년 후에 사십칠세의 나이에 進士 급제를 한다. 그는 徽州府教授, 國子博士, 南京禮部主事 등의 관직을 거쳐 南京吏部郎中이라는 관직에 이르렀는데 이 모두가 미관말직이어서 외견상 그의 두 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원씨 삼형제의 집안내력 및 성장배경 그리고 교육 및 출세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삼원의 집안과 외가는 유가를 숭상하여 입신출세를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중

15) 袁中道, <石浦先生傳> : “二十舉於鄉.”

16) 전국의 鄉試에서 합격한 舉人들이 모여 치르는 會試의 최종시험인 殿試합격자는 一甲 二甲 三甲으로 나뉘어진다. 원중도의 성적은 원래 一甲이 되어야 하나 당시 조정에서 발생한 張居正 사건으로 인해 그와 동향인 원중도를 낮추어 二甲 第一名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원중도에게 일반적으로 一甲의 進士 급제자에게 주는 翰林院庶吉士의 관직을 제수하여 주었다. (참조 李壽和, 앞의 책, pp18-19.)

17) 袁中道, <行狀> : “戊子, 舉於鄉.”

18) 袁中道, <行狀> : “壬辰, 舉進士, 不仕, 復與伯修還故里, 家居石浦之上.”

국의 전통적 유가 사대부 가정이었다. 즉 전통 봉건제 체제의 틀 속에서 명대에 새로이 지배계층으로 형성된 향신계층으로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하여 기성 문인들과는 다른 건강한 학문관과 세계관을 지니고서 관직에 나아가 '兼濟天下'하려했던 유가가정이었다. 그러나 삼원은 모두 다 출세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또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나선 신진 지식인 계층으로서 李贄를 통해 '性命之學'을 배웠었기에 그들의 학문관 및 세계관이 기존 지식인 계층과는 물론이고 집안내의 인물들과도 차별성을 지니었던 것이다

3. 삼원의 사회적 가치지향

1) 현실상황에 대한 열정

삼원은 유가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이 유가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일반적 유가 지식인들처럼 '兼齊天下'를 위해 과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삼원은 관직생활에서 충실히 유가사상을 실천하였다. 원중도는 翰林院編修로써 또 東宮의 講官으로써 그렸으며, 원평도는 吳縣의 知縣시절 지배계층의 통치자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원중도 역시 자신이 맡았던 직무를 잘 수행하였다. 특히 원평도는 표면적인 관직수행의 수준을 뛰어 넘어 통치자의 안목을 지니고서 기층민중인 백성들의 일반적 속성까지 잘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歲時紀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릇 풍속이 사치스러우면 반드시 방탕해지고, 방탕한즉 궁해진다. 백성들은 너그러워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곧 분수를 잊게 된다. 백성이 궁해지면 분수를 잊게되니 혼란이 이를 좇아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는 남모르는 근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夫俗奢必蕩, 蕩則窮, 民泰必驕, 驕則僭, 民窮而僭, 亂從生焉. 司世

道者, 不能無隱憂矣.)

이처럼 기층민중인 백성들의 일반적 속성까지 잘 파악하고 있었던 원평도는 한마디로 봉건제 통치질서 하에서의 유가적 관리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유가 지배이데올로기의 귀결점이기도 했다. 이런 세심한 노력 탓에 그의 甯縣은 가장 세금 징수 실적이 좋은 모범 지역이 되었다.¹⁹⁾ 이와 같이 그는 자아성찰적인 개인보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통치관리로서의 태도가 더 강하였었다. 그러나 원평도는 일방적으로 통치자의 입장에서만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았다. 사실 그는 백성들에 대해 상당히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다. 원평도는 <橫山>에서

나는 가뭄을 살피려 산 아래를 지나 황급히 등성이에 올라 내려다보았으나 (경치를) 음미할 수가 없었다. 아! 지난날의 푸르던 발두둑엔 지금은 흰 물결만 이는구나! 노인네들과 더불어 한숨쉬고 있는 터에 어찌 겨를 있어 갈포로 만든 두건 쓰고 허리띠 누그러뜨리며 인간 세상의 풍류와 문아함을 즐기겠는가?

(余以勘災過山下, 草草登臨, 未及領略. 嗟夫, 往日綠疇, 今日白浪, 方與父老咨嗟, 何暇葛巾綬帶, 作人間風雅事乎?)

라고 적고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간주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하려함을 볼 수 있다. 또 원평도는 <荊州後苦雪引>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 하늘께서는 백성을 대함이 어찌 그리 야박하신지요,
野人은 백성을 도와 도랑과 골짜기를 찾아야겠습니까.
(嗟天公待民何其薄, 野人扶白覓溝壑.)

이러한 깊은 동정적 이해심의 표출은 그가 백성의 힘든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자상한 성격의 훌륭한 관리였기에 가

19) 袁中道, <行狀> : “吳賦甲於天下.”

능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는 전적으로 관리로서 지배계층의 입장에 처해 있었다하더라도 오히려 피지배계층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자 하는 열정과 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원굉도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열정과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더 넓은 시야와 성숙된 세계관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지배계층의 통치관리로서 기층민중에 대한 동정심을 지니고 그들을 살피는 것, 이는 물론 유가에서 추구하는 ‘民本政治’와 상통하는 점이다. 이처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민본정치로 인해 그는 이미 당시에 관리로서의 명망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²⁰⁾ 이와 같이 원굉도는 일방적으로 현실을 보는 통치자의 관점에서 서서히 벗어나 피지배계층의 입장에서 열정을 지니고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나갔던 것이다. 그는 <送梅子馬督木北上> 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옛날 삼전에 불이 나니,
 목수가 불러 들어가네.
 나무를 감독하여 운송함이 수 만리나 되니,
 소래나무와 가래나무가 하늘을 까맣게 덮어 버렸다네.
 장정 천여명이 하나되어 나아가니,
 음식마다 역참의 식사로 없어져 버리네.
 눈앞의 지금 일이 戎馬를 관리하는 일이다보니,
 公私의 일을 폐한지가 이미 오래더라.
 한울의 실이라도 없어질까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다네.
 (往者三殿災, 梓人進公秩.
 督木數萬里, 杞梓被天黑.
 長年千許人, 餐餐損郵食.
 甘今事戎馬, 公私敝已極.
 減得一絲毫, 便是竭心力.)

이처럼 원굉도는 당시 조정에서 벌이고 있던 三大殿 재건축사업

20) 『公安縣志·袁宏道傳』：“清次骨，才敏捷甚，一縣大治。宰相申公時行聞而嘆曰‘二百年來，無此令矣!’居常不發私書，塵覆函數寸。”

으로 인해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원중도 역시 이 三大殿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贈別梅子馬督木北上> 시에서 얘기하고 있다.²¹⁾ 삼원은 이처럼 당시 사회에 표출되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야기되어진 표면적 현상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원평도는 편면적이거나 ‘貧益貧, 富益富’의 사회적 모순현상에까지 인식이 미치어 그 본질적 문제점을 <富兒行>에서 지적하였던 것이다.²²⁾

이렇게 눈뜨여진 삼원의 관직생활은 결코 맹목적 유가사상의 실천이 아니었다. 정부에 대해 일정 정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행정집행관에 대한 비판으로써 생활상에서 체득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통치체제의 골간에 대한 비판으로써 사회모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전자가 사회현상에 대한 단편적 문제인식이었던 것에 비해, 후자는 신진사대부의 안목을 지니고서 통치자와 제도에 대해 지닌 근본적인 비판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이는 봉건 전제왕조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었던 통치질서의 모순현상에 대한 인식이었으니, 사실상 제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먼저 행정집행관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 삼원은 특별히 稅官의 전횡과 宦官의 횡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있으면서 세금 징수 과정에서 피지배계층인 일반백성들이 겪는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시의 일반 백성은 대부분이 이른바 기층민중으로서의 농민과, 소위 시민계층이라 일컬어졌던 소수의 상공인들이었다. 세금의 폐해는 이미 이 신흥 시민계층

21) 袁中道, <贈別梅子馬督木北上>: “今爾督木來, 勾當公家事, 奔走莫云勞, 小大皆朝吏.”

22) 袁宏道, <富兒行>: “貓竹爲牆杉作城, 白日赤刀盜公行, 官軍防禦無計策, 逐戶排門呼士兵, 衛尉呵持急如虎, 老弱十家充一伍. 本是市上傭工兒, 身無尺籍在官府, 東家黃金高於天, 食指盈千皆少年. 朝朝門前科子母, 何曾饒得半文錢? 富兒積財貧兒守, 父老吞聲嘆未有?”

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 농민과 상공인들이 세
금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걱정하였던 것이다. 먼저 원평도는 <猛虎行>에서 稅官을 흉폭한
호랑이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큰 벌레가 태평성대를 좀먹으며,
利를 찾으니 언덕이 비게 되는구나.
板卒이 官에 부합하니,
칼과 화살이 벌이 춤추는 듯하구나.
어루만지며 감히 묻지 아니하니,
州縣이 말에 의해 貶斥되는구나.
노략질이 평민에 미치니,
천리가 메마른 사막으로 텅 비어 버렸네.
... ..

三河와 兩浙이
백성들의 기름과 骨髓로 다하였다네.
(甲蟲蠹太平, 搜利及丘空.
板卒附中官, 鉗簇如蜂踊.
撫按不敢問, 州縣被詞斥.
搥掠及平人, 千里旱沙赤.
... ..
三河及兩浙, 在在竭膏髓.)

여기에서 鑛稅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
으며, 동시에 稅官들의 횡포와 전횡을 적고 있다. 이 鑛稅의 징수는
만력 이십사년에 시작되는데 당시 그 폐해가 실제로 엄청났었다.²³⁾
원평도의 ‘三河及兩浙, 在在竭膏髓.’ 이 구절이 그 정도를 가히 짐작
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사실상 조정에서 파견된 稅監
또는 太監이라 불리웠던 宦官들에게서 주로 자행되었었다. 만력 이
십팔년에 원평도는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 柳浪湖에서 잠시 머물게

23) 『明史紀事本末』卷六十五, <鑛稅之弊> : “逮至萬曆二十四年, 張位主
謀, 仲春建策, 而鑛稅始起. …… 當斯時也, 瓦解土崩, 民流政散, 其不亡者幸
耳!”

된다.²⁴⁾ 이 시절에 稅監 陳奉과 그 무리들의 횡포를 목격하고는 만
력 삼십년에 <竹枝詞>12수와 <荊州前苦雪引>·「荊州後苦雪引」
시를 지어 이를 비판 고발하였다. <荊州前苦雪引>에서 적기를

鮫戶 열 집이 달아났으나 아홉 집이 포로가 되었고,
눈물로 구슬을 이루지 못하니 天帝께서도 노하시더라.
白骨이 부서지고 타도록 黃泥를 쌓았건만,
지금의 荊州에는 단지 白土만이 남아있네.
(鮫戶十竄九囚虜, 淚不成珠天帝怒.
骨白粉焦委黃泥, 至今荊州唯白土.)

라고 하며 그 실상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또 <竹枝詞 其二>에
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눈 내린 산 속에서 질 떨어진 차를 따다,
흰머리의 과부가 봄바람에 통곡을 한다네.
담비와 호랑이가 횡행한 뒤,
열 집의 금전 중 아홉 집이 비어버렸다고 하네.
(雪裏山茶取次紅, 白頭孀婦哭春風.
自從貂虎橫行後, 十室金錢九室空.)

이처럼 백성들이 겪는 세금으로 인한 고통을 잘 느끼고서 말해주
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貂’, ‘虎’는 바로 稅官들을 가리키는 말로
써 사실상 세관의 실질적 우두머리 환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
서 극단적으로 稅官을 ‘躑虎’라고 하여 환관임을 알게끔 해준다. 또
<竹枝詞 其十二>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푸른 하늘 곳곳에 맹호같은 환관이 횡행하니,
딸자식 팔고 사내자식 보태어서 세금을 갚아야만 한다네.

24) 袁中道, <行狀> : “庚子(萬曆二十八年), 補禮部儀制主事. 數月, 即請告歸.
…… 時於城南得下窪地, 可三百畝, 絡以重堤, 種柳萬株, 號曰柳浪. 先生偕
中道與一二名僧共居焉.”

(青天處處橫瑞虎, 鬻女陪男償稅錢.)

이와 같이 원굉도는 하늘이 부여해준 부모 자식의 인연조차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장본인이 바로 세금의 폐해였음을 적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삼원의 고향인 荊州, 공안지역은 長江 강변인 고로 상업자본이 비교적 일찍 발전하여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시민 계층이 빨리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하다보니 자연스레 삼원은 이런 현상을 비교적 실감있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이 지역은 店稅와 鑛洞丹沙가 징수의 대상이기도 했다. 위 <荊州前苦雪引>에서 말한 ‘黃泥’가 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을 읽어 보면 원굉도의 시민계층에 대한 인식과 진보적 경향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조정에서 파견되어 세금의 징수업무를 관장하던 환관의 강제적 세금징수 등의 횡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湖廣지역에 파견된 鑛稅吏 陳奉과 그 무리들의 횡포로 인해 漢口 黃州 襄陽 武昌 寶慶 德安 湘潭등에서 십여차례의 민중 폭동이 있었다고 한다.²⁵⁾ 만력 이십칠년에 武昌과 漢陽의 백성들이 진봉의 횡포에 항거하여 민변을 일으켰는데 이를 원중도는 그의 『珂雪齋文集』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²⁶⁾ 당시 환관들의 횡포와 그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불만의 정도,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한 삼원의 태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삼원은 단지 稅吏와 환관의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봉건제

25) 참조 錢伯城, 『袁宏道集箋校』(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pp896-897.

그는 《明史八十一食貨志, 三百五陳增傳附陳奉傳》에 근거하고 있다.

26) 袁中道, 『珂雪齋文集』, <趙大司馬傳略> : “壬寅, 奉居武昌舊帥侯邸, 若古藩鎮, 大作威福, 金錢日至無算. 奉大喜, 浸有他志. 民不堪剝刻, 遂變, 共起誅之, 燔其居. 奉急從後垣走入藩府, 獲免. 居民縛其左右數百人, 皆投之大江. 漢陽人聞之, 皆相聚縛其使, 亦如武昌. 每投一人, 兩岸居民皆鼓掌大笑爲樂. 投三四日不盡. 得奉姪兒, 不復投, 令其四據如犬行, 入水死, 皆大笑. 諸君悉攘臂起, 縛稅使殺之, 殺奸人無數, 官不能禁.”

통치체계의 정점인 황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원평도는 <送葉使君還朝序>에서 神宗 황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 천하의 유익한 儒家는 다 唐宋에서 소모되어 진 것이고,
또 그 규범된 법은 다 방안과 손바닥에서 어지러워지고 있다네.
(今天下之利孔, 百耗於唐宋, 而其規利之法, 百苛於間架手實.)

이처럼 황제의 무능한 통치력을 꼬집고 있는데, 사실상 당시 전체 정치현실의 비참신성과 혼란스러움을 말하고 한 것이다. 그는 또 <顧升伯太史別序>에서는 황제의 인재등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무릇 호걸은 즐거이 등용되지 않음이 없어야 하거늘, 오로지 등용되어 힘을 다하고자 하여도 가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까닭에 즐겁지가 못하구나.
(夫豪傑非不樂用者也, 唯夫欲盡其用而不可得, 故不樂也.)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능력 있는 文武인재가 중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인재발굴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애국정신에서 표출되어진 우국정신인 것이다. 심지어 원평도는 <漣賦謠>에서 아예 황제의 정책적 실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日本과 蒙古의 변경에는 功이 많으나,
長江 淮水와 육지에는 큰 물결이 이는구나.
內庫가 말 가격으로 다 충당되어 버려,
이에 백성들이 곤궁해지니 힘없는 관리인들 어찌하랴!
蘇州의 옛 세금 칠십만 전이나 되는데,
황제가 쓰는 것이 그 반이나 된다네.
어찌 넓으신 하늘 있어 금비를 내리어,
위로 임금의 부지런함을 일깨우겠는가?

.....

아! 백성은 날로 어렵고,
 관리는 날로 고달프기만 하고,,
 대나무에 꽃은 피는데,
 광산에서는 흙만 나고 있다네.
 (東封西款邊功多, 江淮陸地生洪波.
 內庫馬價支垂盡, 民固無力奈官何!
 蘇州舊賦七十萬, 漕析金花居其半.
 安得普天盡兩金, 上爲明君舒宵?
 ……………
 嗟乎! 民日難, 官日苦,
 竹開化, 鑛生土.)

이처럼 원평도는 국가정책 집행에 있어서 드러난 잘못이 황제의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정책을 수행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도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이들에 대해 안타까움과 동정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쩌면 당시 현실 속에서의 삼원들과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이런 인식은 사회구조상 체제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서 그들에게 당시 현실과 삶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져다 주었으리라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적 태도 자체는 전대의 저명한 사회시인인 杜甫 白居易 등에 비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하겠다.

원중도 역시 <趙大司馬傳略>에서 불합리한 鑛稅제도와 그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료의 실질적 책임자인 황제의 실정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있다.

壬寅年 陳奉은 武昌의 옛 제후의 저택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옛 번진처럼 위력으로써 크게 복종시키고 있었다. 금전이 날로 이르러 계산할 수가 없었다. 陳奉은 크게 기뻐하였고 누워서 그만의 뜻이 있었다. 백성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변란을 일으켜 함께 일어나 그를 죽이려고 그 집을 불태웠다. 陳奉은 급히 뒷담을 넘어 藩府로 도망하여 모면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무리 수백명을 묶어 長

江에 던져버렸다. 漢陽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모두 서로 모여 그 稅吏들을 묶어 武昌人처럼 하였다. 매번 한사람씩 던질 때마다 兩岸의 백성들이 다 拍掌大笑하며 즐거워했다. 물에 던지는 것이 삼사일이 지나도 다하지 못하였다. 陳奉의 조카를 잡아서는 물에 던지지 않고 네발로 개가 걷는 것처럼 걷게 하여 물에 들어가 죽게 하였다. 모두가 크게 웃었다. 여러 郡이 다 팔을 건어올리고 일어나, 稅吏를 묶어 그들을 죽이었다. 奸人을 죽임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나 官에서는 禁할 수가 없었다.²⁷⁾

실로 통치불능 상태의 엄청난 일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민중 변란에 대한 기술이나, 실제로는 최고 통치권자인 황제의 정치능력 부재로 인해 야기되어진 현상에 대한 고발인 것이다. 이 때에 원중도는 통치질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황제와 제도에 대한 비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백성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삼원의 애국사상과 민족의식 그리고 애민적 경향은 모두 유가의 현실주의에 바탕한 것이라 하겠다.

삼원의 강렬한 비판 정신과 현실 상황에 대한 열정은 당시 현실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근원적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또 그 정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끔 해주었다. 그러나 이처럼 자세히 현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그에 대해 염증을 느껴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²⁸⁾ 결국은 은둔생활을 하게되는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삼원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현실이 분명 개조의 대상이나, 적극적 활동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조하여 바로 잡기 보다는 너무나 그 골의 깊이를 잘 알았기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현실을 피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여러 차례 관직을 버리고 은거와 유랑을 거듭 하였으며, 결국은 李贄의 계도에 의해 큰 삶과 학문에 눈을 떠 다음 儒·佛·道 삼가사상을 잘 조화시켜 그들 나름의 세계관으로 큰 삶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27) 참조 註26.

28) 袁宏道, <趙無錫> : “丘壑日近, 吏道日遠.”

2) 문단상황에 대한 열정

명대 문학은 복고와 반복고의 연속이었다. 대체적으로 전반기의 주류는 복고 사조이고 후반기의 주류는 반복고 사조이었다. 이 중 크게 두 차례의 복고운동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弘治 正德년간에 李夢陽과 何景明을 영수로 한 前七子에 의해서였고, 두번째는 嘉靖 隆慶년간에 李攀龍과 王世貞을 영수로 한 後七子에 의해서였다. 이러한 복고운동이 단지 모의 일변도로 흘러 문단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자, 삼원은 당시 七子派가 주창한 복고이론과 그로 인한 모의병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이러한 삼원의 노력과 문학사적 성과에 대해 淸의 朱彝尊은 그의 『靜志居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嘉靖 년간의 七子派를 徐文長이 李長吉의 體로서 그것을 변화시키려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다. 湯顯祖가 尤袤, 楊萬里, 范成大, 陸游의 體로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역시 그러하지 못하였다. 王伯穀, 王承父, 屠長卿 등이 비록 번갈아서 반대의 의견을 내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袁伯修가 나와 白居易와 蘇東坡의 저술을 익히고 첫 글자 白蘇로써 그 齋를 이름한 다음 그 원류를 인도함에 中郎과 小修가 그를 계승하니 더욱 그 물결이 일어 이에 公安派가 성행하게 되었다.

(嘉靖七子之派, 徐文長欲以李長吉體變之, 不能也; 湯義仍欲以尤楊范陸體變之, 亦不能也; 王伯穀 王承父 屠長卿雖迭有違言, 然寡不敵衆, 自袁伯修出, 服習香山眉山之結撰, 首以‘白蘇’名齋, 既導其源, 中郎小修繼之, 益揚其波. 由是公安盛行.)

이처럼 복고파가 문단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원종도에게서 시작되어진 공안파는²⁹⁾ 당시 복고풍조가 만연한 문단의 현실에 불만

29) 錢謙益은 『列朝詩集小傳』, <袁庶子宗道>에서 “伯修在詞壇, 當王李詞章盛行之日, …… 於唐好香山, 於宋好眉山, 名其齋曰‘白蘇’, 所以自別於時流也. …… 而公安一派自伯修發之.”라고 적고 있고, 朱彝尊도 『明詩綜』에서 “而公安派實自伯修發之”라고 적고 있다.

을 품고 이를 비판 바로잡으려 하였던 것이었다.

먼저 원종도는 <論文 上>에서 복고파 문학론의 근원설정에 대한 오류를 다음과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거꾸로 前漢을 헤아리니 몇 천년이나 멀어졌는지 모르겠도다. …… 내가 어려서 李攀龍과 王世貞 두 선생의 문집을 즐겨 읽었다. 두 문집의 장점은 가히 가릴 수 없으나 그 논점의 큰 오류를 지녀 후학을 미혹하게 하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도다. …… 일시의 꾸며대는 말로 한 두 識者의 嘲笑를 해결하려하니 그 후학에 대한 流毒을 모르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게끔 취하게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니 가히 해결할 바를 모르겠도다.

(至於今日，逆數前漢，不知幾千年遠矣。自司馬不能同於左氏，而今日乃欲兼同左馬，不亦謬乎？ …… 余少時喜讀滄溟鳳洲二先生集，二集佳處固不可掩，其持論大謬，迷誤後學，有不容不辨者。 …… 此一時遁辭，聊以解一二識者之模擬之嘲，而不知其流毒後學，使人狂醉至於今，不可解喻也.)

이와 같이 삼원의 주요 비판대상은 後七子の 영수 李攀龍과 王世貞이었다. 그러나 공안파의 비판대상 자체가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공안파의 비판대상은 이 두 사람을 추종하면서 복고를 외치며 모의를 일삼는 기성문단의 불특정 다수의 문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어쨌든 원종도는 복고파 복고주장의 본질적 오류를 지적하여 그것이 후학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명분상의 당위성으로써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모의를 일삼는 문인들이 근본적으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論文 下>에서 다음과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의 文士들은 …… 어두운 가슴으로 鴻巨의 뜻을 망령되게 한다. 스스로 左傳과 司馬遷의 곁에서 그 구함을 행하지 않고 남겨진 오줌을 시주하기를 청하거나 남겨진 똥을 훔치니 어찌 능히 만권의 책을 쓰겠는가? 시험삼아 諸公의 한 편을 古語陳句를 잘라버리면 거의 紙筆을 손에 들고서도 시문을 짓지 못함을 면할 수 없도다. 그 부끄러움이 이와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르길 古詞를 인용

하여 수사를 전하는 것, 그것을 일러 글을 짓는 것이라 하네.

(今之文士, …… 夫以茫昧之胸, 而妄意鴻巨之裁. 自非行乞左馬之側, 募緣殘溺, 盜窮窮遺失, 安能寫滿卷帙乎? 試將諸公一編, 抹去古語陳句, 幾不免於曳白矣. 其可愧如此, 而又號於人曰, 引古詞, 傳今事, 謂之屬文.)

또 공안파의 핵심인 원굉도는 복고파의 복고론이 모의로 흐른 그 허구성에 대하여 <雪濤閣集序>에서 비판하기를

그러나 남의 것을 표절하는 것을 복고라고 여겨서, 매자매구 마다 타인의 것을 모방하여, 끌어다 일치시키는데 힘을 쓰고, 눈앞의 정경을 버리고 진부한 말만을 고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재주가 있는 자는 법에 얽매어 감히 자기의 재주를 펴지 못하며, 재주가 없는 자는 한두마디 浮泛한 말을 주워 가지고는 조합하듯 詩를 만드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익혔던 바에서 억지로 끌어다 붙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단지 그 쉬움을 즐긴다. 한 사람이 제창함에 수많은 사람이 화답하니 어리석은 사람과 좃아 오는 사람이 모두 雅道를 얘기하는구나. 아! 시가 이에 이르렀으니 가히 부끄러울 뿐이로다.

(然至以剽襲爲復古, 句比字擬, 務爲牽合, 棄目前之景, 摭腐濫之辭, 有才者誦於法, 而不敢自伸其才, 無之者, 拾一二浮貶之語, 幫湊成詩. 智者牽於習, 而愚者樂其異. 一唱億和, 優人驕子, 皆談雅道. 吁! 詩至此, 抑可羞哉!)

라고 하며 냉정한 필치로써 실랄하게 복고파를 비난하고 있다.

삼원의 막내이자 공안파의 殿軍인 원중도 역시 복고파의 모의로 인한 유독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였다. 그는 <花雪賦引>에서 모의로 인해 야기되어진 결과를 단정적으로 적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 후에 이르러 그것(擬古風潮)을 배운 자는 格套에 빠지게 되어 부화함과 빈소리만 서로 높여, 무릇 가슴속에 하고자 할 말이 있는 자라도 모두 막히게 되어 표현해내지 못하게 되니 詩道가 병들게 되었다.

(及其後也, 學之者浸成格套, 以浮響虛聲相高, 凡胸中所欲言者, 皆

鬱而不能, 而詩之道病矣.)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원은 당시 문단현실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런 태도를 지니고서 실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 비판은 문학론 자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의 시대발전성에 위배되는 복고론 자체가 문제가 되며, 동시에 복고를 통해 환골탈태한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단지 모의로만 흘러버려 아무런 문학적 진실성을 찾을 수 없음에 바탕한 것이다. 문학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성문단의 병폐는 지방에서 공부하여 과거를 통해 등단한 아무런 기득권을 지니지 않았던 신진 지식인계층인 공안파 문인의 안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반드시 개조해야할 현상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인식 없이 현실적 기득권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기성 문인들 자체도 그들이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문단 상황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어진 삼원의 문학론은 그 사회적 성격으로 인해 참신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었던 것이었다.

4. 결론

공안파 문인들은 대체로 명말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이 지배계층으로 등장한 향신 출신 문인의 전형이었다.³⁰⁾ 삼원은 이런 공안파의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계층적 신분적 변화 속에서도 기존 제도권 속의 유가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대부로서 과거급제를 통해 등단하였다. 신홍지식인 계층인 그들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기존의 문인들과는 다른 세계관과 문학관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30) 참조 줄고 <公安派 文人과 그 文論-三袁 이외의 문인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第2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1996), pp21-40.

삼원은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적 상황과 문단의 상황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지니고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 노력하였다. 허나 그들은 이런 현실을 개조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개량하지 못하고 소극적 태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쳐버렸다. 이는 결국 공안파가 전체가 지닌 성격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원으로 대표되어지는 공안파의 문학혁신운동은 당대의 고문운동이나 신악부운동처럼 상층 지식인들만의 문학운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향신출신 신홍사대부 계층의 초급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삼원은 문단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그들의 견해를 펼치는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을 직접 실천을 통해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점은 만명시기는 물론이고 이후 5·4신문학시기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다양한 문학사단활동을 자극한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參考文獻>

- 袁宗道, 《白蘇齋類集》, 上海, 上海雜誌公司, 1935.
- 袁宏道, 《袁宏道集箋校》(錢伯城箋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袁宏道, 《袁中郎尺牘》, 臺北, 廣文書局, 1989
- 袁中道, 《珂雪齋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袁中道, 《游居柿錄》,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1989.
- 李健章, 《袁宏道集箋校志疑》(外二種),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94.
- 趙伯陶 選注, 《袁伯修小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6.
- 熊禮匯 選注, 《袁中郎小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6.
- 李壽和 選注, 《袁小修小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6.
- 袁宗道 袁宏道 袁中道, 《三袁隨筆》,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6.
- 熊禮匯 選注, 《公安三袁》, 長沙, 岳麓書社, 2000.
- 譚邦和 主編, 《歷代尺牘小品》, 武漢, 湖北辭書出版社, 1993.
- 陳文新 譯注, 《日記四種》, 武漢, 湖北辭書出版社, 1998.
- 南德鉉, 《公安派之文學理論研究》(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南德鉉, 〈公安派 文人和 그 文論-三袁 이외의 문인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第27輯, 嶺南中國語文學會, 1996.6.
- 南德鉉, 〈公安派 文學理論의 형성〉 『中國語文論集』第11輯,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1996.
- 李基勉, 《袁宏道性靈說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李基勉. 〈袁宏道の 현실론〉 『中國語文論叢』第5輯, 高大中國語文研究會, 1992.12.
- 禹在鎬, 《袁宏道詩歌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鍾林斌, 《公安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2001.
- 袁震宇·劉明今, 《明代文學批評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5.

王運熙·顧易生 主編，《中國文學批評通史》(明代卷)，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6.

王蘧常 主編，《中國歷代思想家傳記匯註》(南宋-近代分冊)，上海，復旦大學出版社，1989.

李壽和，《三袁傳》，北京，知識出版社，1991.

山根幸夫，《中國史研究入門》，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4.

<中文提要>

到了明代中叶的嘉靖年間，社會各方面的矛盾已經非常尖銳，封建王朝的統治基礎開始發生動搖。處於這樣的時代背景，公安三袁對當時社會有了問題意識。他們受了優秀的傳統儒家訓育，肯定繼承傳統文學的特點，還有積極的受容所有變化的新思潮。公安三袁是通過科舉用於朝廷，所以沒有所執着既得權。即他們是當時的新進士大夫階層就是鄉紳階層，故他們的學問觀和世界觀又健全又新鮮。因此，公安三袁處於所上述的文學外的環境，繼承了傳統文學的特點，另一方面又受容了所變化的新文藝思潮，以遂形成公安派的革新文學理論。

中唐 新興士大夫의 성장과 文壇의 변화*

임 효 섭**

< 목 차 >

1. 중국 전통사회와 지식인
2. 安史의 亂 이후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3. 新興士大夫의 성장과 改革運動
4. 改革의 실패와 文壇의 변화

1. 중국 전통사회와 지식인

혹자는 문학을 '사상의 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¹⁾ 이 말은 삶에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일학부 부교수

1) 철리(哲理)는 시정(詩情)의 뿌리요, 시정은 철리의 꽃이다. 철리의 운축(蘊蓄:底蘊)이 없는 시정은 뿌리 없는 부평(浮萍)이요, 시정의 꽃을 피울 수 없는 철리는 말라 죽은 뿌리에 지나지 않는다. 冷成金 著, 『中國文學的歷史與審美』,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北京, 1999. 引言 p. V.

대한 깊은 고뇌만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궁이후공(窮而後工)’론의 현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상이란 인간—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하여—에 대한 깊은 이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해의 깊이는 참다운 인간의 삶이라는 이상에 대한 지향과 이를 가로막는 현실의 억압구조에 의한 내적 갈등, 즉 고뇌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 역사 시대—조대 구분이 아닌—가 서로 다른 현실 구조를 가지는 만큼 그 시대가 추구하는 이상도 형태를 달리하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여 현실과 이상 양자간의 갈등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한 시대는 그 시대가 공유하는 사상을 가지게 된다. 인간이 역사적 존재인 만큼 어떤 개인도 이러한 자기 시대의 사상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한편으로 한 집단은 그 집단이 사회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사상적 정향을 달리 하고, 개인은 자신의 성격·기질과 학습과정 및 사회적 조우(遭遇)에 따라 자기만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게 된다. 한 시대의 작품군이 다른 시대와 구분되는 사조나 양식을 가지고, 한 시대 내에서도 작가마다 독특한 개성을 창조하는 문학사 현상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회가 기존의 사회구조에 만족하며 안주하여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현실 억압구조와 이상 지향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회의 문학 또한 정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작가의 ‘궁(窮)’ 즉 삶에 대한 고뇌에 의한 훌륭한 창작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기 시대의 문학창작 양식·방법과 정신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약 중국 고전문학사 전 기간 동안 사회구조와 창작 주체의 성격 변화가 없었다면, 고전문학사에 대한 제기되는 ‘정체론’²⁾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前野直彬은 『중국문학서설』에서 “중국문학이 주변 민족의 문학과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1917년의 문학혁명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전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책에서 중국문학사를 4 시기로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데,³⁾ 시대구분이란 각 시기가 전후 시기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만큼 현저한 특징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며, 또 그의 문학사 시기구분이 일본의 중국사 시기구분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의 역사·사회학적 근거는 ‘아시아적 생산방식’론을 기초로 하는 중국전통사회정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김관도(金觀濤)의 ‘초안정적 중국 봉건사회론’⁴⁾은 그 참신한 시각과 대담한 가설로 중국의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사학계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유가의 윤리중심주의·복고주의·현실주의 전통에서 중국 문화와 과학기술을 정체시킨 주요 요인을 분석해내고, 중국 봉건사회를 기본적으로 소농 중심의 지주경제, 유생의 관료정치, 유가이데올로기라는 경제·정치·문화의식의 세 하위시스템의 결합이라고 본다. 이데올로기와 정치, 바꿔말해 문화구조와 정치구조가 불가분의 일체화를 이룬 전제왕권 사회구조는 토지의 집중화나 관료기구의 부패로 인해 한 왕조가 무너

2) 이러한 견해는 서양 학자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일본 학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고전문학사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경시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3) 前野直彬, 김양수·최순미 옮김, 『중국문학서설』, 토마토, 1996.

4) ①金觀濤·劉青峯, 「中國封建社會的結構;一個超安定系統」, 『貴陽師院學報』(1980)第1·2期. ②金觀濤·劉青峯, 『興盛與危機;論中國封建社會的超安定結構』, 湖南人民出版社, 1984. ③金觀濤, 『在歷史的表象背後;對中國封建社會超安定構造的探索』, 四川人民出版社, 1983. ①과 ②의 제8장은 金觀濤·劉青峯 엮음, 김수중·박동헌·유원준 옮김, 『중국 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天池, 1994, 서울)에 「중국 봉건사회의 장기지속 원인에 대한 분석」과 「중국 전통사상의 시스템이론적 분석」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③은 金觀濤 著, 하세봉 譯, 『中國史의 시스템理論의 分析』(신서원, 1997, 서울)으로 번역되어 있다.

지더라도 한편으로 가정[家]과 국가[國] 사이에 이른바 동형구조(同型構造)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국적인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유생들의 역할에 근거하여 새로운 왕조가 반복해서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관도(金觀濤)의 이론은 자연과학의 논리적 틀을 역사분석에 도입하여 2천년 이상 계속된 중국의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를 '초안정구조(超安定構造)'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중국사 전체를 거시적으로 이론화시켜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⁵⁾

그러나 김관도(金觀濤)의 이론은 중국 문학사와 연관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그의 '초안정적 중국 봉건사회론'은 중국 사회가 서주(西周:B.C.1122~771)시대에 봉건사회로 진입했고 진한제국(秦漢帝國:B.C.221~A.D.220)의 성립 이후 2천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봉건적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아시아적 생산방식'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아편전쟁 이전의 전근대사회를 봉건시대로 파악하는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가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적지 않다.⁶⁾

둘째, 그는 농민반란에 의해 무너진 봉건왕조를 재건하는 힘을 유생 즉 '관료지주계층 지식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士)'계층에서 찾는다. 춘추전국(春秋戰國:B.C.770~221)시대라는 격렬한 사회변혁기에 나타난 토지매매제도를 통해서 지주와 자영농이 출현했고,

5) 하세봉, 「중국학계의 시스템이론적 역사분석-‘초안정적 중국봉건사회론’」(金觀濤 著, 하세봉 譯, 『中國史의 시스템理論的 分析』, 신서원, 1997, 서울) 참조.

6) 중국사의 시대구분론(時代區分論)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사인식』(민두기 편, 창작과 비평사, 1985)를, 아시아적 생산방식에 대해서는 『아시아 생산방식』(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이상규 역, 신서원, 1991)을 참고.

다시 그 사회적 기초 위에서 출현한 특수한 계층으로서의 '사'가 다른 봉건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적 요인이며, 춘추 전국시대의 '사' 즉 제자백가(諸子百家)가 기본적으로 치자(治者)의 학(學)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행정 조직만으로는 통제하기 힘들었던 중국 사회의 지역적 방대함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치자와 인민의 연계고리로서 '사'계층을 주목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사회를 경제·정치·문화의식의 세 하위시스템의 결합으로 볼 때, '사'계층은 경제적 지주이자, 정치적 관료이면서, 문화이데올로기 담당자이기도 하므로 중국 사회 구조의 성격을 파악하는 핵심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김관도(金觀濤)는 이들 '사'계층의 구성원과 그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이 시대에 따라 적지않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 '사'계층은 경제·정치·문화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격동기에 현실이 던지는 문제를 가장 절실히 고뇌하였고, 문학 창작의 주체로서 시대적 고뇌와 가치지향을 담아내는 장르와 양식을 형성·발전시킴으로써 문학 발전을 주도한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역대 각 시대의 사회구조의 성격과 그 속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인민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중국 문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당(唐) 중기에 이르러서는 하층 '사'계층이 기존의 귀족적 지배구조에 대항하여, 그들 '사'계층의 이익과 세계관을 현실 정치에 관철시키고자 정치개혁을 주창하였으며, 그러한 정치개혁 정신을 문학에까지 관철시켜 문학개혁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의 경제적 발전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자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투쟁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투쟁은 당시에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이후 송대(宋代)에야 실현될 수 있었다.⁷⁾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하여 대부분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당하여 폄적(貶謫)당하기

나 한사(寒士)로 일생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야기된 깊은 고뇌와 가치지향을 문학작품에 담아냄으로써 앞 시대만이 아니라 이후의 문학조류와도 확연히 변별되는 문학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 중기의 문학창작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담아낸 한 시대의 문학적 특징을 구현해 냄으로써 전후 시기와 구분될 수 있을 만큼 문학사적 전변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대를 고민하는 지식인이 현실의 억압구조에 대응하는 다양한 모습과 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산문·소설 등 문학 갈래마다 담아내는 제재와 정신이 다르기도 하고, 개인마다 갈래의 선택과 제재 선택, 가치지향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똑같이 현실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갈등하며 차별성을 가지기도 하고, 혹은 현실에 대한 집착과 초월 사이에서 고뇌하는 변혁기 지식인의 본원적 속성에 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 중기의 문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혁기로서의 당시 사회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현종(玄宗, 713-755년 재위) 치하에서 당조(唐朝)는 번영과 영광의 절정기를 맞이했고 위시한 문학 또한 그에 상응하는 만큼 흥성

7) 당 중·후기 즉 “安史의 亂 이후 唐後半期는 ‘獨特한 生氣’와 ‘理想主義’에 특징이 있던 宋朝 ‘士大夫’의 源流로 생각되는 새로운 社會·政治支配勢力이 등장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河元洙, 『唐 順宗代(805年) 執權勢力의 性格-唐後半期 官僚의 새로운 政治意識과 관련하여-』, 『東亞文化』25輯, 서울대, 1987, p.231.

하였다. 특히 시가(詩歌)는 가히 극성가를 구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안정과 번영은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회심리를 형성하였고 시가 또한 이를 반영하여 진취적 정치 이상을 추구하고 국가를 위해 공업(功業)을 세우고자 하는 영웅적 기개, 왕후(王侯)를 오시(傲視)하고 권귀(權貴)에 반항하는 정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내면에는 취약점 또한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과도하게 재정을 고갈시킨 엄청난 비용의 군사적 팽창, 부병제를 대신한 번진(藩鎮)과 절도사(節度使) 권력의 확대, 고관(高官)들의 당파 싸움과 환관(宦官)의 득세 등등은 중앙권력을 약화시켰고, 급기야 안록산(安祿山)의 반란을 초래하였다. 이 파괴적인 반란은 8년 후 평정되어 당의 통치는 명목상 회복되었지만 이후 150년 동안 당조의 권력은 결코 완전히 부활되지 못했다. 반란 이후의 당조는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인심은 각박하고 절망적인 사회심리가 팽배해졌다. 사대부 문인 지식인은 실의 속에서 방황하였고 그 실의와 방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모색하였다. 그들의 작품은 이러한 시대가 부여한 고통과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창신(創新)정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중당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안사의 난을 전후한 정치·경제적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안사(安史)의 난 이후 번진(藩鎮)은 하북(河北)·산둥(山東)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으며, 검남(劍南)·산남(山南)·하남(河南)·회남(淮南)·영남(嶺南) 심지어 경기(京畿) 지역에서도 절도사나 군장(軍將)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내지에도 약 30개 정도의 번진이 설치되어 지방행정의 기본 조직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들 절도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지방정부를 장악하여 중앙의 명령을 거부하기 일쑤였다.⁸⁾ 그리고 번진 상호간의 세력전쟁으로 변경의 방비가 허술해져 이민족의 침입이 빈다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통일적

인 법률과 제도로 중앙에서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지방주의'와 '배타주의'가 그 뒤를 이었으며,⁹⁾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 번진에 대한 통제권 상실¹⁰⁾은 정치·경제·문화의식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신흥사대부의 전국적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무측천후(武則天后, 654-705년 재위) 이래 과거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엘리트 관료층인 신흥사대부 계층이 이후 번진 토벌과 황제 권력의 회복·확대를 주장한데는 그들이 지향한 유가 사상의 실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번진의 할거에 의해 약화되어 가는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헌종(憲宗)은 번진의 세력을 삼감하고 권력을 중앙집권화하는데 성공하여 당제국의 중흥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이 또한 일시적인 상황에 그쳤을 뿐, 헌종이 환관에 의해 살해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내정은 황제권을 등

8) “763년 이후 황제권은 네 지역, 즉 수도 주변 지역, 서북 변경 지역, 강남 지역, 수도로 통하는 동맥이었던 대운하 주변 지역에만 불안정하게 미치고 있을 뿐이었다. 일부 북방의 번진들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당제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조세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있었다. 당조에게는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강남과 회수(淮水) 유역만이 남아 있었다.”: 존 킹 페어뱅크, 앞의 책, p.106.

9) 존 킹 페어뱅크, 앞의 책, pp102-103. 참고.

10) “效戰國，胥髀相依，以土地傳子孫，脅百姓.”: 《新唐書》卷210〈藩鎮魏博〉. “喜則連衡而叛上，怒則以力而相并，又其甚則起而弱王室.”: 《新唐書》卷64〈方鎮一〉. “德宗自經憂患，多為姑息，不生除節帥，有物故者，先遣中使察軍情所與則授之。中使或私受大將賂，歸而譽之，既降旄鉞，未嘗有出朝廷之意者.”: 《資治通鑒》卷237“憲宗元和元年條杜黃裳語”. “朝廷益弱，而方鎮愈疆.”: 《新唐書》卷7〈本紀第七〉. “天子顧力不能制，則忍恥舍垢，因而撫之，謂之姑息之政。蓋姑息起於兵驕，兵驕由於方鎮，姑息愈甚，而兵將愈俱驕。由是號令自出，以相侵擊，虜其將帥，并其土地，天子熟視不知所為，反為和解之，莫肯聽命.”: 《新唐書》卷50〈兵志〉.

에 업은 환관세력에 의해서 음모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당대 환관세력의 발전은 현종(玄宗)이 고력사를 신임하여 그에게 상소문은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¹⁾ 안사의 난 때에는 환관 이보국(李輔國)이 숙종(肅宗)을 옹립하였고, 숙종은 장안으로 돌아온 후 그에게 궁정호위군[禁軍]의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이로부터 환관이 군사권까지 지니게 되었다. 숙종은 대장군 곽자의(郭子義)·이광필(李光弼) 등의 공로가 너무 커 통제가 힘들자 환관 어조은(魚朝恩)을 보내 감독하게 하였다. 762년 이보국과 또 다른 환관 정원진(程元振)이 숙종의 황후 장량제(張良娣)를 살해하고 태자인 이에(李豫)를 황제에 옹립하자 숙종은 충격을 받아 죽었다. 이에가 바로 대종(代宗)이다. 그는 즉위 후 환관의 내부모순을 이용하여 이보국을 죽였지만 여전히 정원진과 어조은을 총애하였다.¹²⁾ 후에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로 대종은 차례로 그들을 축출하고 환관의 군사감독관제도[監軍制]를 폐지하였다.¹³⁾ 그러나 덕종(德宗)이 즉위한 후 경원(涇原) 번진의 반란 등 여러 차례의 반란에서 환관의 보호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자 장수들을 의심하여 다시 환관에게 궁정호위군을 관장하게 하고 환관의 군사감독관제도를 회복시켜 환관의 세력이 다시 확대되었다.¹⁴⁾ 이제 황제의 측근에서 군사권과 정권을 장악하여¹⁵⁾ 오히려 황제의 우환이 되어¹⁶⁾ 황제와 조

11) “宦官之盛自此始”: 《資治通鑿》卷210“玄宗開元元年條”.

12) “肅·代庸弱, 倚爲捍衛, 故輔國以尙父顯, 元振以援立奮, 朝恩以軍容重, 然猶未得常主兵也.”: 《新唐書》卷207〈宦者上〉.

13) 白壽彝, 임춘성의 1인 옮김, 『중국통사강요』, 이론과실천, 1991, 서울, pp.196-197. 참고.

14) “以李晟·渾瑊爲不可信, 悉奪其兵, 而以竇文場·霍仙鳴爲中尉, 使典宿衛. 自是太阿之柄, 落其掌握矣.”: 《資治通鑿》卷263“司馬光語”.

15) “威柄下遷, 政在宦人, 舉手伸縮, 便有輕重.”: 《新唐書》卷207〈宦者上〉.

16) “居肘腋之地, 爲腹心之患.”: 趙翼, 《二十二史劄記》卷20〈唐代宦官之禍〉.

관(朝官)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황제를 폐위하고 옹립하였다.¹⁷⁾ 뿐만 아니라 원래 관리가 담당하던 궁중에 필요한 외물(外物) 구입을 그들이 관장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다시피 하여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은 유가의 민본·애민사상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체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유(韓愈)와 백거이(白居易)의 시문(詩文)에 보이듯이 사대부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다.¹⁸⁾

안사(安史)의 난으로 인한 북방의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였다.¹⁹⁾ 난이 평정된 초기에 중앙정부가 장악할 수 있는 호구는 약 300만 호로 천보(天寶) 년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건중(建中) 원년(780)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할 때 호적에서 누락된 객호(客戶)를 정리하여 380여 만 호로 증가되었고, 무종(武宗) 회창(會昌) 연간(841-846)에 이르기까지도 국가가 장악한 호구는 490여 만 호에 불과하였다.²⁰⁾ 호구수가 성당(盛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변진이 호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대량의 도호(逃戶)가 존재한 것과 관련이 있지만, 전쟁이 빈번한 북방의 생산력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17) “劫脅天子，如制嬰兒。”：《資治通鑒》卷263“司馬光語”。“蘭錡將臣，率皆子畜，藩方戎帥，必以賄成。萬機之與奪任情，九重之廢立由己。”：《舊唐書》卷184〈宦官傳〉。

18) “貞元末，以宦者爲使，抑買人物，稍不如本估。末年不復行文書，置‘白望’數百人於兩市并要鬧坊，闖人所賣物，但稱‘宮市’，卽斂手付與，眞僞不復可辨，無敢問所從來。……名爲‘宮市’，而實奪之。”：韓愈，《順宗實錄》卷2。

19) 안사의 난으로 인한 황하 중하류의 하북(河北)·하남(河南) 및 관내(關內) 등지의 폐허상은 당시 郭子儀가 조정에 올린 글에 잘 표현되어 있다：“夫以東周之地，久陷賊中，宮室焚燒，十不存一，百曹荒廢，曾無尺椽。中間畿內，不滿千戶，并邑榛棘，豺狼所號。既乏軍儲，又鮮人力。東至鄭·汴，達于徐方，北自覃懷，經于相上，人烟斷絕，千里蕭條。”《舊唐書》卷120〈郭子儀傳〉。

20) 唐長孺 主編，《隋唐五代史》，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88，北京，p.52.

결론적으로 안사의 난과 번진의 할거, 환관의 전횡, 정치적 부패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사회심리의 변화를 가져왔으며,²¹⁾ 이는 중당 문단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방은 병란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북방의 인구의 일부분이 난을 피하여 남방으로 이주해오에 따라 노동력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북방에 비해 현저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수리관개 시설의 확대, 벼의 무논 재배 및 이앙 기술의 발달, 벼와 보리의 이모작 확산 등등은 단위농지당 생산량의 현격한 향상을 가져왔으며, 경제 작물로서의 茶 생산의 확대와 국내외로의 유통은 상품경제와 교통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남북 경제 발전의 불균형은 호구수의 변화가 증명하는데, <元和郡縣圖志>에 의하면 개원(開元) 시기와 원화(元和) 시기를 비교할 때, 북방은 현격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장강(長江)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남방 특히 양주(襄州)와 요주(饒州)는 약 2 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강남의 이와 같은 농업생산의 발전은 “농업혁명”²³⁾으로 표현될 정도였다.

안사의 난 이후 상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당조의 정책은 안정된 가격으로 농민의 생산에 도움을 주고 천박한 이윤추구의 성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상업을 계속

21) “大曆之風尚浮，貞元之風尚蕩，元和之風尚怪”：李肇，〈唐國史補〉，上海古籍出版社，1979.

22) 唐長孺 主編，앞의 책，『隋唐五代史』，p.52-53 참조.

23)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이것을 ‘농업혁명(農業革命)’이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개간과 수리관개를 통한 가경지(可耕地)의 확대, 품종의 다양화 및 신품종의 도입 보급 등이었다.”：辛聖坤，「唐宋變革期論」(『講座中國史』3，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지식산업사，1989)，p.45.

규제하고 공식적으로 시장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상업으로 들어오는 상세(商稅) 수입은 군사비가 필요하거나 왕조가 쇠퇴해갈 때 중시되기도 했지만,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없었다. 당후반기의 시장공동체의 그물망은 머지않아 송대에 등장하여 국가가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될 터였다.²⁴⁾ 향리에서의 토지 할당방식인 균전제의 붕괴, 도시에서의 시제(市制)와 가격지정제의 붕괴는 경제가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지방 유력자의 손에 축적되기 시작했다. 국가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매년 여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인정(人丁)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조세제도가 실시 되었다. 양세법(兩稅法)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78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말하자면 토지세(土地稅)와 호세(戶稅)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새 제도는 정부가 더 이상 사적인 부(富)와 자유로운 토지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들었지만, 조세액은 토지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전망이 밝은 안정된 세입을 제공했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생활에 대한 간섭적인 지배의 후퇴는 기존 경제구조에 기반한 전통 가문의 정부내에서의 지배권 상실 및 새로운 지배층으로서의 신흥사대부의 성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사의 난을 전후한 정치적 혼란과 부패,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대부 지식인의 환상은 철저하게 무너졌다. 그와 함께 성당 시가의 열정적이고 낭만적 정신, 열정적이고 웅혼(雄渾)한 기상, 명랑하고 활달한 정서는 더 이상 사대부 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상을 상실한 지식인이 불가피하게 겪는

24) 존 킹 페어뱅크, 앞의 책, p.105.

실의와 방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이상을 찾아야만 했다. 어느 시대의 지식인이나 그러하였듯이 중당의 사대부 지식인이 추구하게 되는 가치와 이상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당 시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문인 사대부들의 사회적 위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여야만 한다.

3. 新興士大夫의 성장과 改革運動

안사(安史)의 난²⁵⁾ 이후 나타난 변화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장기적인 것은 정부를 지배해왔던 귀족가문의 몰락이었다. 후한대(後漢代)에는 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트 가문[士]과 일반 서민(庶民) 및 천민(賤民)이라는 신분의 구별이 명확했다.²⁶⁾ 이후 위(魏)의 조비(曹丕)는 향론(鄉論)에 의거하여 현자(賢者)와 유덕자(有德者)를 추거(推舉)한다는 기본정신을 표방하며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곧 중정직(中正職) 자체가 향촌의 특정계층에 의해 독점되고 관직 또한 그들에 의해 점유되었다. 그들은 학문과 예술에 대한 풍부한 교양을 겸비한 문인(文人)으로서 관직을 독점하고 혈통위주의 임관방법을 굳혀나갔다.²⁷⁾ 이로부터 가문(家門)이

25) 唐朝 지배층의 성격변화 문제는 기왕에 많은 논의가 있으나, 安史의 亂이 새로운 지배층의 政治·社會的 登장에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侯力, 「從士庶分野到士庶合流-當代地主階級內部變動與科舉制的關係」, 『湘潭師專學報』, 1984-2. 참고.

26) 존 킹 페어뱅크, 앞의 책, p.103.

27) “上品無寒門, 下品無世族”(《晉書》卷45, 劉毅傳)이라든지 “上車不落則著作, 體中如何則秘書”(顏之推, 《顏氏家訓》勉學篇)라는 당시의 속언(俗諺)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식이나 현우(賢愚)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가문의 등급에 의해 기가관(起家官)과 승진이 결정되는 즉

고정화되고 관직이 세습적으로 독점됨으로써 자연 귀족제 사회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문벌귀족(門閥貴族)은 이후 위진남조(魏晉南朝:220~589) 370여년간 그 지배권력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가문마저 단순히 최고 품계의 가문에 지나지 않았다.

수(隋)를 거쳐 당대(唐代)에 진입하여서도 여전히 사회 지배구조의 핵심세력이었다.²⁸⁾ 남북조(南北朝)시대에 이미 이들 문벌귀족의 강력한 대항세력으로서 한인(寒人) 즉 서족(庶族) 지식인이 끊임없이 등장하였지만, 그들은 사서구별(士庶區別)을 타파하려는 의도보다 귀족계층에 끼어들려는 목적이 강하였다. 따라서 서족의 귀족에 대한 대항도 중요한 정치변혁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한사(寒士) 자체도 귀족계층에의 집착과 가문의 고양을 위한 노력만이 끈질기게 행해져 왔을 뿐이었다.²⁹⁾ 문벌은 소위 '전국사대부단(全國士大夫團)의 자율적 질서'를 통해 왕조를 초월하는 특권을 유지하였으므로,³⁰⁾ 한인(寒人)의 경우 그

“平流進仕，坐至公卿”(《南齊書》卷23, 褚淵 王儉傳論)이라는 풍토였다.

28) 唐代 귀족[士族]의 상황에 대한 중국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魏晉과 유사한 士族은 唐代에 없었던 견해로서, 엄격한 사족제도는 隋代에 와서 이미 종결되었으며 그 지표라 할 수 있는 科擧制가 九品中正制를 대체함으로써 士族은 정치적 특권을 상실하였으므로 唐代의 사족은 舊士族의 殘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견해는 唐代의 士族은 魏晉이래 남북 각 지역 士族의 연속이자 遺存인 동시에 새로운 성분이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唐代 士族의 구성에 관해서는 주로 關隴집단이 士族내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이 집단의 역사적 작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王玉德·姚偉鈞 編, 『新時期中國史研究爭鳴集』,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89, 武漢, pp.180-181. 참고.

29) 朴漢濟, 『南北朝末-隋初의 過渡期的 士大夫像-顏之推의 「顏氏家訓」을 중심으로-』, 서울대, 『東亞文化』 16집, 1979, p.99. 참고.

30) 지주·관료 및 지식계급의 의미를 포괄하는 소위 '士大夫'계층은 前漢末 혹은 後漢初부터 儒者의 지위가 굳어짐에 따라서 하나의 사회

자신이 당대 훈공(勳功) 등 특수한 계기로 아무리 높은 관직을 얻었다하더라도 이들 계층에 쉽사리 편입될 수 없었고 제왕도 이러한 질서 및 풍조를 없애거나 교정할 생각을 할 수 없었다.³¹⁾ 심지어 제왕들마저도 문벌귀족에 대해 정신적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³²⁾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귀족의 경제력 상실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 권력도 실추하고 있었다. 귀족 莊園의 경영은 거의 守園人이라 불리워지는 대리인에 맡겨져 있었고, 직접으로 그들이 관여하는 경우는 적었다.³³⁾ 이후 장원에서 올린 귀족의 수익은 일반적인 경제 발

계층으로 형성되었다. 원래 사대부란 《周禮》卷39 冬官 考工記 第6에 “坐而論道 謂之王公, 作而行之, 謂之士大夫”란 규정과 그것에 대한 鄭玄의 注에 “親受其職, 居其官也”라 한데서 알 수 있듯이 天子에 의해 친히 임명된 실무담당자로서, 관료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후세에로 내려오면서 ‘賢士大夫’로 흔히 관용화했듯이 학문견식을 기초로 하여 世論에 지지되는 民望으로서의 측면을 겸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측면이 강하게 부각된 (즉 황제에 의해 임명되는) 시기는 魏·西晉期에 그치고 東晉南朝는 사대부층의 고정화와 民望 자체도 개인의 능력에서 家門의 高尚으로 변화함으로써 점차 방기되어 간다. 이 고정화의 저변에는 항상 사대부층의 강한 연대의식에 의한 自律性和 排他性이 잠재해 있다. 박한제, 앞의 논문, pp.98-99.

31) 《南史》卷36 江數傳: “(梁)武帝曰, 士大夫 故非天子所命”

32) 《南齊書》卷1 高帝本紀: “吾本布衣素族, 念不到此.”

33) 안지추는 남조 귀족들의 생활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江南의 朝士들 중에는 짚의 中興으로 강남으로 渡江해 온 후 곧 羈旅인 채로 지금까지 8·9대를 거치고 있는데 그들은 농업에 힘써 본 경험은 전혀 갖지 않고 오로지 俸祿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설사 田土를 가져도 모두 僮僕들에 맡겨서 경영함으로 전혀 토지에서 일어나는 일, 즉 땅을 일구고 묘를 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몇월달에 씨를 뿌리고 몇월달에 거두워 들어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世間의 일에 무엇을 알겠는가? 그런까닭에 政務를 맡겨도 끝을 못맺고, 家務를 처리해도 되는 일이 없으니 모두 優閒함이 過한 때문이다.”(《顏氏家訓》涉務篇)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守園人의 소득은 換金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당시 점차 경제적으로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일반상인적 寒人의 세력에 밀려 귀족의 경제권은 서서히 그 비중을 잃어가게 되었다. 南朝 각왕조교체시에 경제력과 향촌의 토착성이 강한 寒門 士豪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특히 梁武帝 天監改革³⁴⁾에서 표방된 지배계층의 대폭적인 변경은 이들의 강력한 진출과도 연관하고 있었다. 경제력이 그 당시 지배계층으로의 진출과도 점차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 연관성이 남조 후기로 접어들며 더불어 강해져가게 되었던 것이다.³⁵⁾

이와 함께 북주(北周)·북제(北齊) 양조(兩朝)에 있어서는 이른바 ‘귀족제’의 가장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중정제(中正制)가 유명무실해짐과 동시에 점차 문벌주의적 임관방법이 실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다. 특히 수조(隋朝)의 천하통일은 이러한 시대 분위기의 집

34) 西晉말부터 ‘族門制’라 칭해지는 非制度的 신분제가 출현하여 士人을 上·下·最下 三等級으로 나누고 동시에 上級士人을 甲族, 下級士人을 次門, 最下級士人을 後門이라 칭하게 되었다. 서진 당시에는 이들 사인간에는 서로의 연대의식이 있었으나 서진말 東晉·南朝로 접어들자 상급사인의 가문이 고정화됨에 따라 차문 이하는 정치적 지배층에서 점차 소외되어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무제 天監7년(508년)에 단행된 관제개혁은 갑족의 실무에서의 무능으로 정치담당력이나 사무처리능력을 가진 상층차문(차문을 二分하여)을 정치적 지배계층으로 끌어 넣음으로써 상층차문출신의 사인=寒士가 제도적으로 사대부계층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층차문 출신으로 양무제의 총애를 받던 朱異에 대하여 甲族層에서 小人(庶)이라 부름으로써 사대부층에서 의식적으로 소외시킬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사대부계층이 상호 共屬感情을 가지고 공동이해와 명예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뭉친 인간집단이며 그 자체가 관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이라는 舊來의 관념과 사대부층이 가문의 고정화로 혈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인습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한제, 앞의 논문, p,100.

35) 박한제, 앞의 논문, pp.136-137.

약된 표현으로서의 정책이 입안·실시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개황(開皇) 년간에는 중앙집권화하려는 일련의 조처³⁶⁾를 취함과 아울러 중정제(中正制)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위진(魏晉) 이래 호문(豪門)·문벌의 정치적 특권을 보증하는 합법적 제도를 제거해 버렸다. 이제 관직의 보유가 가문의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귀족가문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모든 것은 출신가문이 아니라 개인의 관직 품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관료는 더 이상 특별한 엘리트로서 여겨지지 않았다. 당률에 의해서 관료의 아들에게 낮은 관품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법률적으로 관직임용을 위한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는 상층신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국가의 제도가 귀족가문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처는 당대(唐代)에 실시되는 과거제에 의해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진다. 당대(唐代)에는 황제의 가문마저 단순히 최고 품계의 가문에 지나지 않았던 문벌귀족에 의한 지배에서부터, 부분적으로는 과거를 통해서 능력과 업적으로 선발된 숙련된 관료제에 의한 지배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³⁷⁾ 그러나 당시 과거가 관료공급원으로써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가 하는 점에 약간의 유보조건이 있고 이것이 표방하는 이념이 구세력과 마찰없이 현실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³⁸⁾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와 隋唐사이에 완

36) 郡의 폐지에 의한 州와 縣의 직접연결과 冗員의 축소, 地方官의 屬僚辟召權의 박탈 및 임기 규정 등.: 박한제, 앞의 논문, p.152. 참고.

37) 존 킹 페어뱅크, 앞의 책, pp.104-105.

38) 당대 관료제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유교의 새로운 재탄생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당조 치하에서는 역사서와 통속적인 문학뿐만 아니라 학교제도, 과거제, 공자에 대한 숭배, 국가의례 등에 의해서도 유교경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발전했다. 당대(唐代) 사대부층의 성장은 북송대(北宋代)의 사상적인 번영을 이루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존 킹 페어뱅크, 앞의 책, pp.104-105.

만하다고 할 수 없는 질적 轉回가 있었다고 해서 수당시대를 곧 바로 '관료제시대'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³⁹⁾

과거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 합격자의 사회적 출신 배경의 문제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된 인물들 가운데 '士族' 곧 舊來의 名門과 唐朝의 累代 관료 가문 출신자의⁴⁰⁾ 수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료 선발 제도가 新興勢力의 등장을 가져왔다기보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士人들을 관료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 매개 역할을 하였던 듯도 하다. 이것은 唐代의 과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관학이 주로 관료의 자손들로 충원되었다는 사실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舊唐書』·『新唐書』에 登載된 인물들 중 약 65% 가량을 접하는 舊來의 名門이나 累代 관료 가문 출신자의 비율이 南北朝時代의 상황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⁴¹⁾

39) 중국에서는 文革이전까지 唐初 통치집단을 舊世族地主(귀족)와 新興庶族地主와의 양측면으로부터 추구하여 李淵과 태자 建成을 중심으로 하는 世族地主集團에 대한 李世民을 중심으로 하는 新興庶族集團의 승리로 규정하여 唐의 新興階層의 진출로 中國史上 극성기인 '貞觀의 治'를 이룩하였다고 하는 說이 유력했다.(齊陳駿, 「試論隋和唐初的政權」, 『歷史研究』1965-1. 및 梁森泰, 「關於唐初政權性質的幾個問題」, 『歷史研究』1965-6.) 일본에서는 北周-隋-唐의 지배집단은 '關隴集團'을 기축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신층계층의 진출을 부정하지만 '關隴集團'은 著姓門閥이 아니고 武人的 관료가문출신으로서 그들에 의해 행해진 당초 정치가 귀족정치는 아니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박한재, 앞의 논문, pp.154-155.

40) 毛漢光, 『唐代統治階層社會變動』, 22쪽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士族이란 魏晉南北朝의 舊族·外蕃大族·唐 皇室과 "唐代三代爲官, 並居官五品以上者."라고 하였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毛漢光의 「中古統治階層之社會基礎」, 『中國中古社會史論』(1976 원간)은 관료 가문으로서의 士族을 "(唐代)三世中有二世居官五品以上"(34쪽)이라고 정의하여 약간 차이가 있다.

41) 毛漢光의 『唐代統治階層社會變動』(政治大學高級研究生畢業論文),

그러나 당 전반기에는 國子監에서 올라온 과거 응시자들은 어느 정도 쉬운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관례였고, 중앙 관학의 生徒들도 비교적 용이하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으나, 鄉貢으로서 과거에 합격한 이는 극소수였다. 그러나 唐 後半期에 와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貞元年間 이전에는 兩監만이 아니라 郡·府의 학생도 존중되었으나
…… 이후 “膏粱之族”들은 대개 학교를 鄙事로 여겼다.⁴²⁾

더욱이 당시 兩監 출신의 과거 급제자는 거의 없었다거나⁴³⁾ “公卿子弟, 恥遊太學.”⁴⁴⁾ 하였다든가 기록조차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당시 國子監의 이러한 현실이 唐前半期の 상황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 관학의 쇠퇴는 安史의 亂 이후 唐朝의 전반적인 통치력 약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唐後半期가 되면 예전에는 관직을 꿈꾸기 어려웠던 지역 혹은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인물들이 진사과를 통해 관계에 진출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⁴⁶⁾ 그리고 재상으로 승진한 숫자도 후반기로 갈수록 진사과 출

臺北, 1968. 및 「中古統治階層之社會成分」, 『中國中古社會史論』, 臺北, 聯經出版司業公司, 1988(1976 원간). 참조. 더욱이 唐後半期에도 “名族公卿”이 대부분인 과거 출신자들의 성격은 宋代의 경우와 달랐으며, 주요 관료들의 성격도 마찬가지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원수, <唐代的 進士科와 士人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8. p.3.

42) 『唐摭言』권1, 「鄉貢」, 7쪽

43) 『唐摭言』권1, 「兩監」, 5쪽에서 “貞元十年已來, 殆絕於兩監矣.”라고 하였다.

44) 『韓昌黎文集』권8, 「請復國子監生徒狀」, p.589.

45) 하원수, 앞의 논문, p.39.

46) 唐代과거 응시자들의 계층적·지역적 확대 현상은 傅璇琮, 『唐代科舉與文學』, 「進士出身與地區」, 191-216쪽 및 吳宗國, 『唐代科舉制度

신이 많아졌다.⁴⁷⁾ 후반기에 향공(鄉貢) 출신이 진사과 급제자의 대다수를 점하였다라는 사실과 관련시킨다면 지배계층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⁴⁸⁾

물론 당대 신흥세력의 관료화는 측천무후에서 비롯된다. 昭儀란 일개 후궁의 지위에서 황제가 되기까지 일종의 ‘易姓革命’의 집권과정에서, 武后는 황후가 될 때부터 唐皇室 혹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던 관료·旣得權勢力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혔다. 구래의 문벌적 기반을 지닌 舊勢力이 중앙집권적인 관료 선발제도 아래에서 唐朝와 일찍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그가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갖지

研究』, 「唐後期應學及第範圍의擴大」, 268-278쪽에 상술되어 있다. 물론 唐代에도 胥史나 商人들에 대한 응시 제한은 없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진사과 급제자의 사회적 출신 배경이 그 이전 시기의 관료는 물론 宋代의 과거 급제자에 비하여서도 오히려 더 광범위하였다는 주장조차 있다.(傅璇琮, 「論唐代進士의出身及唐代科擧取士中寒士與子弟之爭」, 『中華文史論叢』, 1984-2)

47) 하원수, 앞의 논문, p.87. 참고.

48) 관료의 자손들에게 입학의 우선권이 주어진 唐代의 중앙 관학이 명경과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官蔭을 가진 이들은 관학을 통해 명경과에 급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國子監의 학생들은 과거에 응시하려 할 때 “能通兩經已上”이란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고 하므로, 이들 중 상당수가 전술한 “通二經” 이상의 명경과 급제자에 대한 우대 규정에 따라 보통 명경과 급제자에게 주어진 품계 이상의 관직으로 입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에 합격한 “蔭高者”의 서계를 올려 주는 제도에 따라 그 지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경과 출신자들 가운데 사실상 官蔭의 혜택을 입고 있던 이들이 많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진사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사과 합격자들 특히 唐後半기에 그 대다수를 점하는 鄉貢 출신의 진사과 급제자들은 상대적으로 蔭과 무관하였리라고 여겨진다.: 하원수, 앞의 논문, p.94.

못한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濫官 정책은 그 단적인 예이니, 武后의 세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흥세력들의 관료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경과에 비해 진사과가 월등히 우월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안사의 난 이후라 할 수 있다.⁴⁹⁾

唐朝의 전반적인 통치력 약화 현상이 나타난 安史의 亂 이후, 정치적 역할이 커진 翰林學士와 황제의 개인적 유대 자체가 점점 약해지는 등, 士人들 사이에 “脫宮廷的” 풍조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安史의 亂 이전에 관료의 선발과 직접 연관된 座主와 門生 기록이 발견되지 않음에 반해, 柳宗元의 “門生으로서 그 은혜가 말미암은 바(座主)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도 아니다.”⁵⁰⁾라는 이야기나, 官途에 뜻을 버린 뒤에도 “그래도 한가지 한스러운 일, (座主) 高郢의 집안에 은혜 갚지 못한 것!”⁵¹⁾이라고 한탄한 白居易의 예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시기가 되면 唐前半기와 달리 과거 제도를 매개로 한 座主門生 관계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비교적 가문의 배경이 있고 또 이것을 중시한 명경과 응시자들이라면 굳이 과거를 매개로 한 私的 결탁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진사과의 응성과 함께, 그 응시자·출신자들의 私的인 집단활동이나 이들의 결속력은 중앙조정 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었다.⁵²⁾ 아래와 같은 韓

49) 陳寅恪은 隋代에 만들어진 진사과가 高宗·武后 시기 이후 비로소 관료 선발제도의 “唯一正途”로 되었다고 보았으나(『唐代政治史述論稿』), 이를 비판하는 岑仲勉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玄宗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한다.(『隋唐史』, 「進士科擡頭之原因及其流弊」) 이후 吳宗國은 「科擧在選舉中地位的變化」(『唐代科擧制度研究』)에서 분명한 명경과의 지위 低下와 진사과의 월등한 우위 상황은 玄宗 시기가 아니라 安史의 亂 뒤라고 하여 그 시기를 더욱 늦추어 잡는다.

50) 『柳宗元集』 권30, 「與顧十郎書」.

51) 『白居易集』 권16, 「重題」.

52) 하원수, 앞의 논문, p.135. 참고.

愈의 言說은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유능한) 사람을 구하고 아래에서 (좋은) 자리를 원해, 서로 바라는 것이 오고가서 (결국) 이르는 것은 한가지입니다.⁵³⁾

“布衣之士”는 몸이 窮苦한 처지에 있어, “王公大人”의 勢力을 빌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王公大人”은 공적이 현저하다라도, “布衣之士”의 기림을 빌지 않으면 그 명성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 그 “事勢”가 서로 필요로 하며, 그 “先後”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⁵⁴⁾

진사과와 천거라는 일면 상이해 보이는 제도가 사실상 士人·관료들 사이의 私的 유대를 조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이것을 확산시켰던 셈이고, 唐後半期 이와 같은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진사과 출신자들이 존재하였다. 知貢擧와 과거 합격자들 사이의 座主門生 관계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 혹은 이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세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順宗 시기에 일어난 소위 ‘永貞革新’은 그들 새로운 지식인 관료 세력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진사과 급제자로서 “相與(皇帝)唱和歌詩”하여 德宗의 총애를 받은⁵⁵⁾ 韋執誼는 자신의 주위에 모인 관료들과 같이 順宗 시기에 이르러 사실상 “朋黨專柄”⁵⁶⁾했다. 실제로 “朋黨相煽”·

53) 『韓呂黎文集』 권3, 「上宰相書」.

54) 『韓呂黎文集』 권3, 「與鳳翔邢尙書書」. 韓愈의 이러한 인식은 “士之能享大名顯當世者, 莫不有先達之士負天下之望者爲之前焉. 士之能垂休光照後世者, 亦莫不有後進之士負天下之望者爲之後焉. …… 是二人者, 未始不相須也. …… 豈上之人無可援, 下之人無可推也.”(同上, 「與于襄陽書」)에서도 잘 드러난다.

55) 『舊唐書』 권135, 韋執誼傳. 『資治通鑑』 권235, 貞元12年 11月下 참조.

“朋黨諠譁”로 비난된⁵⁷⁾ 이들 順宗朝의 집권세력은 전형적인 관료들의 붕당이었으니, 德宗 이후 붕당 양상은 일단 이 韋執誼 중심의 관료집단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⁸⁾ 韋執誼의 “門下”에 있었던⁵⁹⁾ 柳宗元·劉禹錫이 貞元9年の 진사과 同年이고⁶⁰⁾, 또 이들과 呂溫은 모두 顧少連의 門生으로서 같이 그에게 祭文을 올리기도 했던 것이다.⁶¹⁾ 順宗朝 집권세력과 牛黨의 밀접한 관계 역시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貞元21年(805) 곧 順宗代에 진사과에 응시하여 급제한 牛僧孺를 韋執誼가 특별히 중시·발탁하려 했다는 이야기⁶²⁾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바 이들을 중심으로 한 두 관료집

56) 『舊唐書』 권147, 高郢傳.

57) 『順宗實錄』 권4, 711쪽 및 719쪽

58) 소위 ‘永貞革新’이라고 불리는 이 順宗朝 집권세력의 활동은 그 정책의 혁신성 여부를 둘러싸고 기왕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拙稿, 「唐 順宗代 執權勢力의 性格」, 『東亞文化』25, 1987는 이들의 政治意識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관료들의 집단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59) 『樊川文集』 권7, 「唐故太子少師奇章郡開國公贈太尉牛公墓誌銘并序」, 114쪽. 이들의 특별한 관계는 좌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니, 韋執誼의 歸葬을 주선한 이가 柳宗元이며(『雲溪友議』 권中, 「贊皇勳」, 51쪽) 劉禹錫도 나중에 그를 특별히 칭송한 적이 있다.(『劉禹錫集』 권19, 「唐故中書侍郎平章事韋公集紀」, 485쪽)

60) 『登科記考』 권13, 479쪽

61) 『全唐文』 권631 呂溫, 「祭座主故兵部尚書顧公文」, 6370쪽에 따르면, 呂溫과 함께 顧少連에게 제문을 올린 다수의 “門生”들 중 柳宗元과 劉禹錫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顧少連이 知貢舉로서 합격시킨 진사과 출신자들 곧 貞元9年の 柳宗元·劉禹錫과 貞元14年の 呂溫 사이의 남다른 유대관계를 잘 보여 주는 듯하다. 劉禹錫이 柳宗元과 呂溫의 문집에 序文을 적었던 까닭도 이처럼 동일한 門生이란 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劉禹錫集』 권19에는 「唐故衡州刺史呂君集紀」와 「唐故尚書禮部員外郎柳君集紀」가 실려 있다.)

62) 『樊川文集』 권7, 「唐故太子少師奇章郡開國公贈太尉牛公墓誌銘并序」, 114쪽; 『文苑英華』 권888 李珣, 「故丞相太子少師贈太尉牛公神道碑」, 4677쪽. 전계 岑仲勉, 『隋唐史』, 「牛李之李指宗閔, 李德裕無黨」, 430쪽

단 사이에 공통의 기반이 있었던 듯한 것이다. 牛黨은 실상 唐後半期 진사과 출신자 위주의 봉당을 唐末까지 확대재생산하고 있었던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宣宗 이후 거의 모든 재상 및 주요 관직을 진사과 출신자가 독점하였던 현실 곧 진사과 출신자들이 관료 사회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이에 대항할 만한 다른 관료 집단이 이미 없어졌음을 뜻하는 듯하다. 즉 진사과 출신 士人들은 그들의 긴밀한 私的 결속력을 이용하여 봉당을 조성하였고 그 와중에서 실제적인 政局의 분위기를 압도해 버렸던 것이다. 進士가 되려는 이들은 수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柳宗元(을 찾아와서 그의 “師法”을 따랐으니, 대개 그의 “門”下를 거친 이면 반드시 “名士”가 되었다.⁶³⁾

唐後半期 士인들의 詩賦는 그 작자나 독자가 크게 확산되었으니,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한층 촉진시킨 것이 바로 行卷의 역사적 의의라고 여겨지는 것이다.⁶⁴⁾ 실제로 安史의 亂 이후 고문가들의 ‘運動’의 활동은⁶⁵⁾ 주변 士인들과의 이처럼 긴밀한 집단적 유대를 배경으로 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古文運動’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唐前半기와 달리 궁정 중심의 讌會的

참조.

63) 『舊唐書』 권160, 柳宗元傳, 4214쪽

64) 전계 程千帆, 『唐代進士行卷與文學』은 기본적으로 唐代 문학의 발전을 진사과가 아니라 이러한 行卷 관행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

65) 胡適으로부터 유래한 듯한 唐代의 古文“運動”이란 명칭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羅聯添, 「論唐代古文運動」, 전계 『唐代文學論集』(1985 원간), 3-16쪽), 적어도 이처럼 집단화된 士인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唐後半기 古文的 부흥 주장은 일종의 “運動”의 성격을 띠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E.Pulleyblank, “Neo-Confucianism and Neo-Legalism in T’ang Intellectual Life, 755-805”, A.F.Wright ed, The Confucian Persuasi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8(1960 원간), p.85)

분위기를 벗어난 고문가들이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士人들과 함께 과거를 매개로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들의 집단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중심에 있는 고문가들의 행태를 唐後半期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韓愈는 인맥상에서도 이 시기 고문가들을 둘러싼 士人들 가운데 중심적인 존재였다. 『舊唐書』는 韓愈가 가르침을 받던 “後進”들 가운데 열에 여닐곱을 자신의 집에 묵도록 했다고 하며⁶⁶⁾, 『新唐書』 역시 그의 “指授”를 거친 이들이 모두 “韓門弟子”라고 일컬었음을 특기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사실 그가 제자들과 宿食을 같이 하였다면, 이들이 서로 나누게 되었을 특별한 친밀감은 별다른 설명을 요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韓愈의 적극적인 의도의 산물이기도 함은 여기에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자기에게 배우러 온 李蟠이란 자에게 그는 “傳道·受業·解惑”의 “師”를 자부했으니⁶⁸⁾, 이것은 師弟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호간의 私的 결속력을 철저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급제를 위한 그의 청탁이 당시 어떤 이에 비해서도 더욱 두드러졌던 결과, 그는 이러한 비난을 받았음과 동시에 제자들과의 사이에 강한 결속력을 갖출 수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것이다. 고문가로서의 韓愈의 성격은 진사과를 매개로 해 문학적 소양을 중시하는 士人들과 공고한 결속력을 갖춘 집단을 계기적으로 형성하였다는 사실로부터도 확인된다고 하겠다.

『因話錄』에서 “引接後學爲務”한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이들은 韓愈를 위시해 柳宗元·皇甫湜·李漢으로서⁶⁹⁾, 모두 그와 각별한

66) 『舊唐書』 권160, 韓愈傳, 4203쪽

67) 『新唐書』 권176, 韓愈傳, 5265쪽

68) 『韓昌黎文集』 권1, 「師說」, 42-44쪽

69) 『因話錄』 권3, 「商部下」, 82쪽. 여기에서 원문은 그 마지막 인물로 “(余座主)李公”이라고 되어 있는데, 『登科記考』 권21, 763쪽에 의하면 『因話錄』의 작자 趙麟은 大和8年 李漢이 知貢舉일 때 진사과에 급제

친분이 있던 고문가들이란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⁷⁰⁾ 따라서 韓愈를 비롯한 후기의 고문가들은 대체로 그 이전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士人들간의 긴밀한 유대를 중시한다는 속성을 함께 하였다고 보이며, 더불어 상호 문집의 서문이나 추도문 등으로 역시 밀접히 연관된 이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고문가들 내부의 결속력과 대외적인 명성을 당연히 증대시켰으리라고 짐작된다.⁷¹⁾ 게다가 이들은 서로 정

하였으므로, 이것은 李漢인 셈이다. 물론 전개 程千帆, 『唐代進士行卷與文學』, 73쪽에서는 『因話錄』 권3 「商部下」, 84쪽의 “開成三年, 余忝列第.”란 말에 의거하여 趙璘을 開成5년의 급제자로 보고, 그 座主는 李漢이 아니라 李景讓이었다고 주장한다. 開成3년의 知貢舉는 高鐸이므로, 위 『因話錄』의 기록은 李氏가 座主가 될 수 있는 “五年”의 誤記란 것이다. 그러나 同上, 90쪽의 “余座主隴西公”이란 말을 보면, 太原을 본관으로 삼은(『舊唐書』 권187下, 李_上登傳, 4887쪽) 李景讓을 그의 座主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皇族으로서 “隴西”人이라 볼 수 있는 李漢을 그 座主라고 이해한 『登科記考』의 설명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한다.

- 70) 柳宗元和 韓愈의 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후술하겠다. 그리고 皇甫湜이 그의 뛰어난 제자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역시 제자의 하나인 李漢은 문집 서문을 적은 이일 뿐만 아니라(『全唐文』 권744, 「唐吏部侍郎昌黎先生韓愈文集序」, 7697쪽) 사위로서(『皇甫持正文集』 권6, 「韓文公墓銘」, 25쪽) 韓愈와 특별한 사이이다.
- 71) 韓愈는 같이 梁肅의 門下에 있었을 뿐더러 진사과 同年이기도 한 李觀(『韓昌黎文集』 권6, 「李元賓墓銘」, 347-348쪽)과 비슷한 文風의 동료 樊宗師(同上書 권7, 「南陽樊紹述墓誌銘」, 539-542쪽)·제자 孟郊(同上書 권6, 「貞曜先生墓誌銘」, 444-447쪽)의 墓誌銘을 적었으며, 저명한 고문가이자 同年인 歐陽詹에게 바치는 哀悼의 글을 썼다.(同上書 권5, 「歐陽生哀辭」·「題哀辭後」, 301-305쪽) 또 韓愈를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많은 글을 썼는데, 前記 李漢의 문집 서문이나 李翱(『李文公集』의 권11, 「故正議大夫…韓公行狀」, 48-50쪽; 권16, 「祭史部韓侍郎文」, 70-71쪽)·皇甫湜(『皇甫持正文集』 권6의 「韓文公神道碑」·「韓文公墓銘」, 22-25쪽)의 다양한 추도문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들은 서로 문학적 소양을 극찬하며 그 능력과 명성을 높이 평가하였음은 물론이다.

치적인 상호부조도 도모하였는데, 韓愈가 汴州의 진사과 예비시험에서 張籍을 뽑아 주었을⁷²⁾ 뿐더러 그를 國子博士로 천거하기도⁷³⁾ 했다거나 李觀이 孟郊를 梁肅에게 추천하고⁷⁴⁾ 李翱가 孟郊와 張籍을 천거한 것⁷⁵⁾ 등은 그 현저한 예이다.

韓愈를 비롯한 唐後半期の 고문가들은 관료·士人들간의 私的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진사과 출신 士인들의 전형적인 실례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韓愈와 柳宗元이 “天”에 대한 인식 등에서 사상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상이함이 있다. 하지만 中國 학계에서 강조해 왔던 이러한 차이는 종종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니⁷⁶⁾, 이들의 기본적인 정치사상⁷⁷⁾과 문학사상⁷⁸⁾은 결코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더욱이 이들의 활동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집단적 특성은 확실히 유사하여, 韓愈가 後進들과의 師弟 관계를 강조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태도가 柳宗元⁷⁹⁾이나 呂溫⁸⁰⁾에게도 보인다

72) 『韓昌黎詩』 권1, 「此日足可惜·一首贈張籍」, 40-47쪽 및 『唐才子傳』2 권5, 「張籍」, 561-562쪽의 校注

73) 『韓昌黎文集』 권8, 「舉薦張籍狀」, 629쪽

74) 『全唐文』 권534, 「上梁補闕薦孟郊崔宏禮書」, 5420-5421쪽

75) 『李文公集』 권8, 「薦所知於徐州張僕射書」, 32-33쪽

76) 柳宗元·劉禹錫을 비롯한 韋執誼 집단을 唯物主義·無神論으로 특징지어 이것을 韓愈·李翱 등의 唯心主義·天命論으로 대비시키는 것도(侯外廬 주편, 『中國思想通史』4上, 「韓愈李翱排斥釋老的政治理論及其唯心主義的天命論」·「柳宗元和劉禹錫的唯物主義·無神論及其戰鬥性格」, 北京, 人民出版社, 1959, 319-397쪽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立論이 文庫 시기에 심지어 ‘法家’와 ‘儒家’로 각각 규정되기에 이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中國 학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반성이 있으니, 胡如雷, 「關於唐代韓柳之爭的幾個問題」, 『歷史研究』 1877-4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77) 전개 좋고, 「唐 順宗代 執權勢力的 性格」은 이와 같은 입장 위에서 집필한 것이다.

78) 劉國盈, 「韓愈和柳宗元」, 『唐代古文運動論稿』,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4는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79) 柳宗元이 韓愈와 달리 스스로 “師”라고 자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는 점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관료·士人들간의 私的 유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동질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문학을 주요한 매개의 하나로 삼아 士人들과의 집단적 결속력을 보이던 고문가들이 당시 진사과 출신자들을 위주로 한 봉당의 구성원들과 이처럼 밀접한 人的 교류가 있었던 사실은 일면 당연하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듯하다. 고문가를 중심으로 한 士人들의 집단이든 정치적 봉당이든간에, 이들은 모두 당시 문학과 과거를 통한 관료·士人들간의 긴밀한 私的 유대라는 유사한 구성 원리 내지 공통의 기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安史의 亂 이후 두드러진 두 현상 곧 朋黨의 盛行과 고문운동의 전개는 서로 긴밀히 맞물린 채 병행되었으며, 그 주체는 바로 진사과 출신 士인들이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고문가들은 주지하듯이 번잡한 典故와 화려한 수사로 특징지어지는 駢文을 비난하면서 “古文”으로서의 ‘散文’ 부활을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古文運動은 기왕에 文學史에서 익히 다루어 온 주제이다.⁸¹⁾

“取其(師)實而去其名”(『柳宗元集』 권34, 「答韋中立論師道書」, 874쪽) 혹은 “僕之所避者(師)名也, 所憂者其實也.”(同上, 「答嚴厚與秀才論爲師道書」, 878쪽)와 같은 말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런 師弟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80) 『呂和叔文集』 권3, 「與族兄臯講學春秋書」, 16-17쪽의 “師資道喪, 八百年矣. …… 不師不友之人, 不可與爲政而論交矣. 且不師者, 廢學之漸也.”란 呂溫의 인식은 韓愈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81) 古文運動은 주지하듯이 中國文學史에서 손꼽히는 연구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서 매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관련 저작들이 있는데, 관견에 의하면 문학비평사 내지 문학사상사에서의 고문운동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대체로 두가지 상이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즉 漢代까지의 모호한 ‘文學’의 전통적 개념으로 되돌아가 결국 문학을 경학에 예속시킴으로써 문학사적인 퇴보였다고 보는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한편, 문학의 내용을 현실성 있고 알차게 만들어 문학을 경학과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文體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古文 안에 담긴 내용·정신의 추구였고, 이 점에서 古文運動은 소위 ‘宋學’을 낳은 儒學 부흥 운동이기도 하였다.⁸²⁾ 특히 당시 宋代에까지 이어지는 경학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간 이른바 ‘새로운 春秋學’의 연구자들과 고문가들의 긴밀한 人的 교류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고문과 傳奇의 유사성 및 이 傳奇가 行卷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 착목하여 진사과와 고문운동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였던⁸³⁾ 陳寅恪은 韓愈의 입장을 ‘尊王攘夷’로 특징지음으로써 이 시기 정치적 현실과 고문가의 사상이 갖는 상관성에 대해 풍부한 시사를 준 적이 있다.⁸⁴⁾ 고문가들의 駢文 비난은 魏晉 이후 수사적 형식미를 중시하는 文風에 대한 배척임과 동시에 이것을 잇고 있던 당시 진사과의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다. 하지만 주로 文體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연구들은 필자가 충분히 설명할 능력을 갖지 못하며 또 진사과 출신 士人들의 실태를 밝히 고자 여기에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듯하다. 따라서 단순한 문학적 논의는 일단 접어 두고, 후술하듯이 이러한 움직임의 정치적 맥락에 관심을 모은다.

82) 韓愈·李翱나 柳宗元·劉禹錫 등이 宋代 이후 소위 ‘新儒學’의 선구자임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이상, 이에 대한 설명은 戶川芳郎 등, 조성을 등 역, 『유교사』, 서울, 이론과실천사, 1990(1987 원간), 191-208쪽의 개관으로도 족할 것이다.

83) 전계 陳寅恪, “Han Yü and the T'ang Novel”. 물론 傳奇가 行卷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이후 학계의 논란 거리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사는 羅聯添, 「唐代文學史兩個問題探討」, 전계 『唐代文學論集』, 253-262쪽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대체로 陳寅恪의 주장을 긍정하는 전계 程千帆, 『唐代進士行卷與文學』, 79-87쪽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84) 전계 陳寅恪, 「讀韓愈」. 물론 이에 대해서도 黃雲眉, 「讀陳寅恪先生論韓愈」, 『韓愈·柳宗元文學評價』,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57(1955 원간)을 비롯한 반론이 없지 않다. 그러나 陳寅恪의 이러한 입론은 C.Hartman, Han Yü and the T'ang Search for Unit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에서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고문가들은 당시의 文風과 자신들의 문학을 차별화시켜 정당화하는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학 자체의 가치와 이것의 존중 논리를 마련한 셈이다.⁸⁵⁾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문가들은 새로이 ‘古文’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4. 改革의 실패와 詩壇의 변화

盛唐 一代의 시인은 웅대한 이상을 품고, 활기차고 열렬한 정감과 격앙되고 강개한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 시대의 각종 생활을 謳歌하였다. 성당 시인에게도 의기소침하고 纖弱하고 퇴폐적인 정서가 적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별의 아픔, 실의의 슬픔, 산수전원, 기생을 희롱하고 술에 취하는 작품을 쓸 때에도 항상 壯大한 기백이 있었다. 林庚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쾌락이든 고통이든 모두 활달[爽朗]하고 건강한 것이었고, 영원히 인간에게 무궁한 상상과 밝은 전망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바로 이른바 진정한 ‘盛唐之音’이다.”⁸⁶⁾

이에 반해 中唐 시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각성한 士大夫 文人の ‘시대정신’이 충만한 작품들이 창작되어 문학사에서 특별히 시대 구분될 수 있는 시기였다. 따라서 역대의 많은 비평가들이 중당 시가의 번성과 특징, 그리고 중국 시가사

85) 李翱는 “兄(韓愈)嘗辯之, 孔道益明 …… 六經之風絕而復新, 學者有歸, 大變于文.”(『李文公集』 권16, 「祭韓史部侍郎文」, 70쪽)이라고 하여 韓愈를 따르는 문학이 더이상 “孔道”와 구분되지 않는 듯이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계 龔鵬程, 「論唐代的文學崇拜與文學社會」, 37-44쪽의 지적처럼, “反文學以昌大文學”이란 특징을 갖는 古文運動이 소위 純文學에 대한 비판 논리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문학과 文人の 권위를 오히려 제고시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86) 林庚, 『中國文學簡史』, 북경대학출판사, 1998, P.210.

에서 중당 시가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관해 언급해 왔으며,⁸⁷⁾ 李澤厚 역시 中唐의 文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문학·예술의 찬란한 세계를 전개하고, 보편적으로 시·서·화 등 각 예술분야에서 고도의 성취를 달성하였던 것은 성당 시대라기보다 오히려 중당·만당시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大歷十才子가 있고, 韋應物이 있고, 柳宗元이 있고, 韓愈가 있고, 李賀가 있고, 白居易·元稹이 있고, 賈島·盧仝이 있고, 그 뒤를 바짝 따라 晚唐시대의 李商隱·杜牧이 있고, 溫庭筠·許渾이 있다. 중국시의 개성과 특징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충분히 발전하게 되었다. 漢·魏시대의 古詩에서부터 盛唐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대가를 제외하고는 예술의 개성이 결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되고 있지만(예컨대 <建安風骨> <正始之音> <玄言> <山水> 등과 같은 것) 개성의 구분은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다.(예컨대 建安七子·二陸三張은 모두 그 성격이 대동소이 함) 盛唐시대에는 시파(高·岑, 王·孟 등)는 있었지만, 그러나 개성은 여전히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中唐시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성은 참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⁸⁸⁾

中唐 시대에 이르러 이렇듯 앞 시대와는 달리 성숙한 모습의 ‘개

87) 清 陳衍, 《石遺室詩話》卷1: “蓋余謂詩莫盛于三元, 上元開元, 中元元和, 下元元祐.” 宋 趙孟堅, 《凌愚谷詩集序》: “故自貞元·元和而上, 李·杜·韓·柳以至乎長慶元白, 皆唐文之懿也.” 宋 楊時, 《龜山先生語錄》: “詩自河梁以後, 詩之變, 至唐而止, 元和之詩極盛.” 明 胡應麟, 《詩藪·外編》卷4: “元和而後, 詩道浸晚, 而人才故自橫絕一時. 若昌黎之鴻偉, 柳州之精工, 夢得之雄奇, 樂天之浩博, 皆大家材具也.” “東野之古, 浪仙之律, 長吉樂府, 玉川歌行, 其才具工力, 故皆過人. 如危峰絕壑, 深澗流泉, 并自成趣, 不相沿襲.” 高棅, 《唐詩品彙·總敘》: “中唐之再盛.” 清 葉燮, 《唐百家詩序》: “貞元·元和時, 韓·柳·劉·錢·元·白鑿險出奇, 爲古今詩運關鍵, 後人稱詩, 胸無成識, 謂爲中唐, 不知此中也者, 乃古今百代之中, 而非有唐之所獨, 後此千百年, 無不從是以斷.” 孟二冬, 『中唐詩歌之開拓與新變』, 北京大學出版社, 1998.

88) 李澤厚 지음, 윤수영 옮김, 『미의 역정』, 동문선, 1991, pp.367-368.

성'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安史의 난과 그 이후의 藩鎮의 割據·宦官의 전횡 등으로 혼란에 빠진 사회 현실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학예술의 성취를 거둘 수 있었는가? 李澤厚는 이 점을 中唐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창작주체의 변화로부터 설명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安史의 난 이후의 唐代 사회가 “결코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으며, 藩鎮이 割據하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조차,” “생산력이 진일보하여 발전하게 되었고, 전반적 사회경제는 여전히 번영·창성하는 단계”⁸⁹⁾에 있었다고 한다. 劉大杰은 또한 이러한 安史의 亂 이후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杜甫의 위대한 현실주의 시가 창작의 힘이었다고 설명한다.

安史의 난은 唐代 정치의 전환점으로서 문학발전에 중대한 전변을 일으켰다. 大亂이후 표면상으로는 단기간의 평정을 되찾았지만 지배계급의 잔혹한 착취와 지배계급 내부의 복잡하게 착종된 극열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인민의 생활은 매우 곤궁하였다. 동시에 이 시대는 수공업과 상업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많은 대도시가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시민계층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당시의 長安 楊州 廣州는 가장 변화한 대도시였다.……당시의 詩歌 중 곳곳에서 長安城과 楊州城을 노래한 작품을 볼 수 있다. 특히 唐代的 많은 소설에는 시민의 생활과 사상이 선명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은 唐代문학의 사상 내용을 풍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唐代的 문학에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⁹⁰⁾

劉大杰은 杜甫 전기 詩歌의 낭만주의적 분위기가 安史의 난 이후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현실주의로 점차 전변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 현실의 변화가 작품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창작과정에 작용하는 매개들이 필수적이다. 당시의 사회

89) 앞의 책, 『미의 역정』, p.365.

90) 劉大杰, 『中國古典文學史中現實主義的形成問題』, 1956년 4월, (『劉大杰古典文學論文選集』, 湖南人民出版社, 1984), pp.14-15.

적 모순과 어두운 정치현실 그리고 유량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인민의 삶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이 자신의 곤궁한 생활과 결합되어 사상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의식상의 변화가 문학유산과 民歌의 창작정신 및 현실주의 요소를 수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부터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과 인도주의 사상이 풍부한 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천재성과 결합하여, 唐代의 시대적 본질과 인민의 삶을 폭넓고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현실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본 학자들에 의하면 안사의 난 이후 당대의 농업생산력은 “농업혁명”⁹¹⁾이라 할 만큼 급격히 발전하였다고 한다. 즉, “비옥한 황하중·하류 지역의 평야지대를 藩鎮세력에게 빼앗긴 唐 왕조는 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자강 중 하류의 이른바 강남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⁹²⁾ 나섰고, 이로부터 논농사를 중심으로 “벼의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모내기 등 재배 방법도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기구 개량 및 수리, 관개 정비 등 생산의 전반적 기술이 크게 발달”⁹³⁾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소농 경영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소농경영을 바탕으로 한 중소지주 출신의 新興士大夫가 정치 세력으로 대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제도의 확립과 함께 성장해 온 新興士大夫는 기존의 문벌귀족 체계⁹⁴⁾ 내에서 꾸준히 성장

91)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이것을 ‘농업혁명(農業革命)’이라고 부르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개간과 수리관개를 통한 가경지(可耕地)의 확대, 품종의 다양화 및 신품종의 도입 보급 등이었다.”: 辛聖坤, 「唐宋變革期論」(『講座中國史』3,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지식산업사, 1989), p.45.

92) 李範鶴, 「宋代의 社會와 經濟」(앞의 책, 『講座中國史3』), p.130.

93) 河元洙, 「宋代 士大夫論」(앞의 책, 『講座中國史3』), p.104.

해오다 中唐시대에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 권력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⁹⁵⁾ 애당초 士大夫는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황권에 의해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 士大夫가 지향하는 황제 중심의 儒家 정치사상은 황제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혼란을 극복하고 중흥을 꾀하려는 皇帝와 士大夫 세력의 개혁이 시도되었던 것이다.⁹⁶⁾ 그들은 藩鎮을 제압하여 중앙권력을 강화하고, 환관의 권력을 통제하여 황제와 朝官에 의한 관료체제를

94) “어떤 통계에 의하면 당대의 재상은 절대 다수가 문벌사족 출신임에 비하여, 송대는 이와 반대로 <백의경상白衣卿相>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었다……당대의 풍습은 역시 가문을 자랑하고 권문세족임을 표방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앞의 책, 『미의 역정』, p.365.

95) “신홍사대부들은 초당에서 성당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대두하였고, 중당에서 만당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져갔으며, 북송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경제·법률·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전면적인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두보의 시·안진경의 글씨·한유의 문장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간적 추이가 바로 이 과정과 서로 일치하고 있다.……세속지주(즉 서족·비신분적 성격을 띤 지주;승려지주·문벌지주와 구별되는 개념)계급은 육조 문벌사족에 비하여 훨씬 더 폭넓은 사회적 기초와 수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소수 몇몇이 세습하는 권문세족의 가문이 아니라 사면팔방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지주들이다. 그들이 이처럼 매우 통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규범적 아름다움을 환영하게 되었던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앞의 책, 『미의 역정』, p.359.

96) “중당시대는 중국 봉건사회가 전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전환점이다. 중당시대는 양세법兩稅法에 의한 재정개혁을 법률의 지표로 삼았으며, 세속지주는 갈수록 문벌사족의 지위를 대신 차지하여가고 있었고, 갈수록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가고 있었다.……황제는 이제 더이상 육조시대처럼 서로 대항하고 쟁탈하는 소수 문벌귀족들의 의지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국 각 계층을 대표하는 정권의 중심이 되었고, 모든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었다.”: 앞의 책, 『미의 역정』, p.364.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이후 宋에 이르는 진보적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당시의 權門勢家귀족들은 이미 하향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호화롭고 환락적이고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생활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중국의 봉건사회는 그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⁹⁷⁾ 그리고 그들은 그 비용을 토지겸병과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여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농토를 떠나 이주하거나 유랑하는 농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귀족들은 수탈의 대상인 농민의 수가 줄면 남은 농민에게 착취를 강화하고 따라서 남아있던 농민도 농토를 이탈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심화되면 국가의 재정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농민봉기로 왕조는 무너진다.

士大夫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중소 지주였기 때문에 농민의 유민화를 막아 농민의 노동력을 농업생산에 재투자 해야만 자신의 부를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농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민의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그 향상된 노동력을 농업생산에 최대한 재투여하는 길만이 자신들의 부를 확대할 수 있는 길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농민의 노동력을 악화시키고 농민들을 농토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귀족들의 가혹한 대농민착취를 비판하였고, 궁극적으로는 토지소유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中唐 新興士大夫의 휴머니즘 혹은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직접 농민의 생활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촌의 수리관개를 주도하고 農耨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농민의 고통을 노래하고 부패한 귀족과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시를 지었다. 인민을 억압하는 정치·경제적 구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中唐 新興士大夫의 ‘시대정신’이 산문에 관철된 형태가 柳宗

97) 앞의 책, 『미의 역정』, p.307.

元·韓愈가 이끈 ‘古文運動’이고, 詩歌 창작에 관철된 형태가 白居易·元稹이 이끈 ‘新樂府運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古文運動’과 ‘新樂府運動’은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당시의 현실적 억압구조를 거부하고 인간성을 옹호하는 정신을 추구하였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할 때 柳宗元이 추구한 가치로서의 ‘義’가 자기 시대의 생명력 즉 시대정신을 담지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柳宗元·韓愈·白居易·元稹 뿐만 아니라 中唐의 많은 士大夫들은 그들의 이러한 이상을 현실 정치 속에서 실현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당초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여 요직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요직을 얻은 자들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받아 貶謫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다.

중국의 기나긴 봉건시대 속에서 官僚 士大夫들에게 貶謫은 늘상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체로 한창 전성기에 있을 때 관직을 물러나게 된 士大夫는 통상 ‘隱居’로서 內心의 평형을 얻고자 한다. 인간의 내적 정신체계는 항상 끊이지 않고 변화하는 불평형 상태에 있고, 외부의 격렬한 자극은 인간의 사유세계와 환경과의 조화를 파괴한다. 이 때 시끄러운 외부세계로부터 물러나, 고요 속의 사색으로 몰입하는 것은 정신 사유체계 에너지의 균형을 획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 士大夫는 외부 세계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겸제(兼濟)’가 불가능할 때에는 종종 돌연히 산수 전원 속에서 은거하는 ‘독선(獨善)’의 태도로 한걸음 물러난다. 이러한 태도 또한 내적 균형을 얻으려는 독특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궁(窮)하고 천(賤)함으로써 쉬이 편안하고 그윽히 은거함으로써 울적함을 잊을 수 있는”⁹⁸⁾ 이기(利器)로서의 詩歌는 이 심리 에너지 전이의 궤적

98) 使窮賤易安, 幽居靡悶: 《詩品·總論》.

과 그 복잡성을 매우 정밀하게 드러내기도 한다.⁹⁹⁾

蘇東坡는 “孟郊는 차고, 賈島는 수척하다”¹⁰⁰⁾고 하였다. 두 시인의 작품이 苦難의 삶과 내적 고뇌로 말미암아 그 情調가 ‘차가운’ 서리 내린 가을 情景이나 ‘과리하게’ 수척한 말을 연상시킨다는 뜻이다. 그리고 中唐의 천재 시인 李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이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과리한 말을 타고 집을 나서는데 어린 서동에게 남은 비단 주머니를 훑어지고 따르게 하였다. 길을 가다가 시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적어 주머니에 넣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먼저 제목을 정한 다음에 그기에 맞춰 억지로 시를 쓴 적이 없었다. 해가 저물어 돌아올 때 많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술에 크게 취하거나 초상이 있는 날이 아니면 언제나 이렇게 하였고, 또 한번 쓴 시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 어머니가 계집종을 시켜 주머니를 꺼내보게 하고선 쓴 것이 많으면, “이 아이가 필시 심장을 다 토해 내어야만 그만두겠구나” 하며 한탄하였다.¹⁰¹⁾

사회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지식인은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 노력한다. 그들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정열을 투여하여 무너져가는 현실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부패한 통치자들은 그들을 배척한다. 李賀가 타고 다닌 “과리한 말”은 정치현장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詩文에 “심장을 토해 내는” 李賀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貶謫 이후의 柳宗元도 李賀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柳宗元은 산문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상과 열정을 표현하는 한편, 시를 통해 내면의 고뇌

99) 林繼中, 앞의 논문, pp.228-229. 참고.

100) “郊寒島瘦”: 蘇東坡, <祭柳子玉文>.

101) 每旦日出, 騎弱馬, 從小奚奴, 背古錦囊, 遇所得, 書投囊中. 未始先立題然後爲詩, 如它人牽合程課者. 及暮歸, 足成之. 非大醉, 弔喪日率如此, 過亦不甚省. 母使婢探囊中, 見所書多, 卽怒曰, ‘是兒要嘔出心乃已耳.’: 《新唐書》卷203.

를 토로하였다. 그 중에서도 내면의 열정을 숨기고 절제된 ‘차가움’으로 표현한 山水詩가 그의 시세계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맹교와 柳宗元의 ‘차가움[寒]’, 가도와 이하의 ‘수척함[瘦]’은 모두 무너져가는 中唐 사회에서 재능을 가진 士大夫지식인이 그들의 이상을 현실 정치 속에서 펼치지 못하고 부패한 통치배들로부터 배척당함으로써 가지게 된 ‘고뇌의 미학’이다. 현실이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들은 현실을 용납하지 못함으로써 극한의 갈등에 빠져든 中唐 士大夫지식인들이 그나마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詩文을 통해서가 아닌가 한다.

그들은 현실과의 깊은 갈등과 고뇌의 늪을 벗어나기 위하여 억지로 현실을 외면하고 일탈의 경지에서 정체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士大夫 문인이 일탈의 경지에서 정체성을 찾는 길은 그 첫째가 道佛이고 둘째는 산수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心得을 가지게 마련이다. 똑같이 정체성을 추구한 중당 문인 중에서도, 韋應物은 ‘獨處’에서 힘을 얻고 白居易는 ‘閑適’에서 힘을 얻었다. 소위 ‘독처’란 인간의 능동적 사회행위의 일종이다. 이를 이용해 사회와의 왕래를 조절하여 연 상태에 있기도 하고 달은 상태에 있기도 한다. 韋應物의 ‘獨處’는 “관청에서 물러나면 대문을 닫아 걸고”¹⁰²⁾ 홀로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공적 사무가 끝나면 곧바로 “風塵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¹⁰³⁾ ‘홀로 존재하는[獨處]’ 자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佛學徒 韋應物에게는 “고요 속의 흥취에 빠져드니, 저절로 품진 세상 만사와 멀어진 듯”¹⁰⁴⁾하는 淸靜無爲로 많이 體現되며, 승려와의 왕래는 사회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수단이다.¹⁰⁵⁾ 산수 유

102) “吏散門闔掩”: <寄楊協律>

103) “似與塵境絕”: <郡中西齋>.

104) “方耽靜中趣, 自與塵事遠”: <神靜師院>.

105) “雖居世網常淸淨, 夜對高僧無一言”: <縣內閑居贈溫公>.

람도 그에게는 마찬가지로 사회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수단이다. “한적하게 노니니 거리낄 무엇 없고, 마음은 경물따라 초연하며,”¹⁰⁶⁾ “산수가 광활하여 쓸쓸도 한데, 산에 올라 내 성정 풀어보노라”¹⁰⁷⁾는 정신이다. 결론적으로 위응물은 ‘獨處’를 빌어 심리상태의 모종의 평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고, 그 산수시도 종종 일종의 冲澹의미를 드러낼 수 있었다.

현실주의 시인으로 유명한 백거이는 貶謫된 이후 스스로를 ‘醉吟先生’이라 칭하면서, 시가를 “放情自娛”의 도구로 삼아, 산수를 조용히 즐기면서 佛學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 進舒退卷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심리 상태의 평형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그의 후기시는 자족하며 평화로운 閑適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中唐 詩壇의 변화는 당해 시기 사회·정치적 상황 및 문화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盛唐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신, 昂揚되고 奮發된 기개는 중당 시인의 것이 아니었다. 험악한 사회, 어긋난 세상 풍조, 각박한 인정으로 시인은 방황과 고민과 근심에 빠졌다. 따라서 중당 시가는 성당 시가의 호쾌하고 낭만적인 정조와 색채에서 움츠러들어, 절망과 고민, 슬픔과 원망으로 배회하는 淒涼함이 그 기조를 이루었다. 중당 시기에 유행한 종교 특히 불교와 도교는 시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우주와 인생과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예술적 상상 예술적 구상의 경의 구성 예술 형상의 창조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였다.

중당 詩歌의 創新 변화의 추세는 당시의 기타 문학·예술-고문의 부흥, 傳奇와 變文의 흥기, 詞의 문인 창작, 書法과 회화의 발전 등등-의 창신 변화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각 시인 혹은 각 유파가 처한 사회·정치적 지위의 차이나 그들의 세계관과 문예관의 차이에 의해, 그들의 예술적 풍격과 미학적 풍모風貌도 다양하

106) “閑游忽無累, 心迹隨景超”: <灋上西齋寄諸友>

107) “山水曠蕭條, 登臨散情性”: <義演法師西齋>.

나, 성당의 기풍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혹자는 시어의 조탁에 심혈을 기울이고, 혹자는 실용적인 평이한 기풍을 추구하고, 혹자는 기괴한 인공의 미를 추구하였지만 중당 시가의 정감 기조는鬱悶과 침울이었고, 그意境은 내면으로의 수렴[內斂]이었다.

〈參 考 文 獻〉

- 『元和五大詩人與貶謫文學考論』, 尙永亮, 文津出版社, 臺北, 1992.
- 『唐代文學演變史』, 李從軍,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3.
- 『唐代文學研究』, 中國唐代文學學會,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桂林, 1992.
- 『唐詩概論』 蘇雪林著 商務印書館 民國 59年 7月 臺 1版
- 『唐詩研究』 胡雲翼著 商務印書館 民國 61年 1月 臺 3版
- 『中國詩史』 陸侃如·馮沅君著 作家出版社 1956年
- 『中國詩歌發展史』 梁石著 經氏出版社 民國 65年 10月 臺初版
- 『中國文學史綱要』二, 袁行霈 編著,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86.
- 『中國文學概論』, 鹽谷溫著 孫俎工譯 啓明書店 民國 65年 3月 臺 2版
- 『中國大文學史』 謝无量著 中華書局 民國 65年 12月 臺 5版
- 『中國文學史』 胡雲翼著 第一文化社 民國 66年 5月
- 『中國文學發展史』 劉大杰著 華正書局 民國 66年 5月
- 『中國文學批評大綱』 開明書店 民國 64年 5月 臺 5版
- 『隨唐文學批評史』 羅根澤著 商務印書館 民國 56年 6月 臺 2版
- 『中國文藝思潮史』(中國文學批評史新編) 郭紹虞著 宏政出版社 1944(?)
- 『中國文學論集』 徐復觀著 學生書局 民國 65年 9月 3版

- 『中國文學家列傳』楊蔭深編著 中華書局 民國 62年 12月 4版
- 『中國文學家大辭典』(上·下) 世界書局 民國 63年 12月 4版
- 『中國文學史論文選集』(三) 羅聯添編 學生書局印行 民國 68年 3月 初版
- 『陳寅恪先生全集』(上·下) 九思出版有限公司 民國 66年 12月 3次 修正版
- 『劉大杰古典文學論文選集』劉大杰 湖南人民出版社 1984
- 『中國考試制度史』鄧嗣禹纂著 學生書局 民國 66年 8月 3版
- 『中國通史』傅樂成著 夏德儀校訂 辛勝夏譯 宇鍾社 1975. 8
- 『柳宗元新傳』柳光裕·楊慧文 著 上海人民出版社 1989
- 『柳宗元評傳(中國思想家評傳叢書)』孫昌武 著 南京大學出版社 1998
- 『元白詩箋証稿』陳寅恪 上海古籍出版社 1987
- 『미의 역정』, 李澤厚, 윤수영 옮김, 동문선, 1991.
- 『미학강의 2』, 까간 저, 진중권 옮김, 셋길 1991.
- 『講座中國史』3,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지식산업사, 1989.

沈從文과 遊俠精神

안 승 응*

<목 차>

1. 서론
2. 沈從文 遊俠정신의 배경
 - 1) 역사적 배경
 - 2) 지역적 배경
3. 沈從文 소설의 遊俠정신
 - 1) <在別一個國度里>- 遊俠정신의 자각
 - 2) 遊俠 인물형상으로 본 遊俠정신의 특징
4. 결론

1. 서론

약 200여 편에 달하는 沈從文의 소설은 작품의 수량만큼이나 다양한 형식과 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어떤 한가지 경향으로 귀납시키기는 곤란해 보인다. 그러나 문학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의 소설은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문학적 출발이 五·四 계몽문학의 영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沈從文의 대부분의 소설은 <道德與智慧>, <紳士的太太>, <宋代表> 등과 같은 작품처럼 현대 도

*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강사

시인의 도덕적 타락을 풍자하거나, <菜園>, <黔小景> 등의 작품처럼 폭력적인 당시 정치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¹⁾ 이러한 沈從文의 문학적 경향을 두고 金介甫는(Jefree C. Kinkley) “넓은 의미에서 유가적 사상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²⁾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金介甫는 현실참여라는 측면에서 沈從文 소설 창작에서 드러나는 현실비판의 정신을 전통적인 유가사상에 귀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沈從文의 소설들 중에는 전통유가사상의 관점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특히 현대도시인의 애정관을 비판하고 있는 <紳士的太太>과 같은 작품, 그리고 이 작품의 대척점에서 원시적, 자연적 농촌의 애정관을 선양하고 있는 <雨後>와 같은 작품들이 그러하다. 이들 작품들에 나타나는 애정관은 金介甫가 지적한 바, 유가적 사회도덕관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沈從文의 작품이 현실 비판적이라고 해서 모든 작품을 유가적 경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유가적 관점 외의 또 다른 가치척도로써 사회를 바라보았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沈從文의 작품을 살펴볼 때 그의 작품에 遊俠적 요소가 발견되는 바, 그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질과 양의 측면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沈從文 소설의 이러한 특징을 해석하는데 聞一多의 <關於儒, 道, 匪>라는 글은 어떤 특별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聞一多是 이 글에서 “대부분의 중국인의 영혼 속에는 한 명의 儒家, 한 명의 道家, 한 명의 土匪가

1) 沈從文의 대표작 <邊城>은 일찍이 世外桃源과 같은 비현실적인 작품이라 비판받았었다. 그러나 작품이 드러내었던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우며, 또 인성에 위배되지 않는 인생형식”은 타락한 현실사회를 겨냥하여 쓰여진 역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美)金介甫, 《沈從文筆下的中國社會與文化》(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4), 85쪽 참조.

투쟁하고 있다.”는 웰스의 말³⁾을 인용하면서 중국문화 속의 遊俠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⁴⁾ 이 遊俠전통은 춘추전국시기에 형성된 이래 역사의 변천을 겪으며 사회의 기층에까지 침투해 들어간 독특한 정신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리를 중시하고 이익을 경시(重義輕利)’하며, ‘은혜는 잊지 않으며, 원수는 반드시 갚고야 마는(知恩必報)’ 遊俠정신은 줄곧 민간 사회의 소박한 윤리도덕의 준칙이 되어왔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遊俠전통은 “민첩하고 용맹하고 때로는 원시적인 야성을 지닌 상서 병사들 속에서 인생관을 형성하고, 특히 어린 시절 고향에서 이름을 날렸던 ‘협객’을 존경해 마지 않았던.”⁵⁾ 沈從文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沈從文의 문학세계 속에서 遊俠의 그림자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沈從文 소설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사회 비판적 시각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遊俠전통이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먼저 沈從文의 遊俠정신의 형성배경 살펴보고,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遊俠정신의 지향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써 沈從文의 문학창작에 있어 遊俠정신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沈從文 遊俠정신의 배경

沈從文은 일찍이 湘西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호족 집 자체들의 뇌리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⁶⁾ 遊俠정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호탕하고 의를 좋아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나 의협심이 강한 楚지역 사람들의 고전적인 열정”⁷⁾이 湘西지역 하층사회

3) 웰스, 《인류의 운명》

4) 陳山, 《中國武俠史》(上海: 上海三聯書店, 1995), 2쪽 참고.

5) 李輝, 《恩怨滄桑》(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2), 133쪽 참고.

6) 沈從文, <湘西. 鳳凰>, 《沈從文文集》第9卷(廣州: 花城出版社, 1991), 412쪽.

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낭만적인 정서와 역사적으로 내려온 종교적 정서가 결합하여 바로 遊俠정신을 만들어 낸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는 또 “遊俠정신의 침윤이 과거를 만들어 내었고, 또 장차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다”⁸⁾라고 여겼다.

沈從文의 이러한 遊俠정신에 대한 높은 평가는 단순히 작가의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遊俠전통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자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 遊俠전통은 오랜 기간 중국문화의 심층구조에 침투되어 거대한 문화적 잠재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의 변천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 특색을 띄게 된다. 따라서 沈從文 遊俠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역사적 배경

遊俠에는 그 역사적 환경과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俠客’, ‘武俠’, ‘劍俠’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다.⁹⁾ 이 중에서 공통적인 ‘俠’자는 유희의 탄생과 그 역사적 연변과정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먼저 이 俠자에 관한 문자학적 연구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商周시대의 갑골문이나 금문에는 ‘俠’자가 없고 ‘夾’자만 있었다. 그 형태는 중간에 人이 서 있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따라서 夾은 원래 양옆

7) 같은 책, 399쪽.

8) 같은 책, 412쪽.

9) 필자의 이해에 의하면, 沈從文은 ‘遊’(유람하다. 자유롭게 움직이다) 字가 지닌 낭만적 정서와 자유정신을 중요시했다. 따라서 그는 俠을 遊俠者라 불렀다. 본고는 심중문의 관점을 따라 遊俠으로 통일하였다.

에서 중요인물을 보좌하고 또 수행하는 인물을 뜻하는 글자였다고 할 수 있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에 이르면서 이러한 인물의 역할은 점차 풍부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¹⁰⁾

위의 인용문은 俠에 대한 문자학적 설명으로 결국 俠은 武力을 가지고 대인을 보호하는 특수 계층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역사고증에 의하면 대인을 호위하던 俠의 계층은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도시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자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漢代에 이르러 이미 이른바 ‘布衣之俠’, ‘匹夫之俠’, ‘卿相之俠’, ‘暴豪之俠’ 등과 같은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俠의 계층은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사회 각 계층으로 파고들어 사회의 주요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수한 사회계층으로서의 俠은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중시하였는데, 가장 먼저 俠을 언급한 서적은 戰國 시기의 《韓非子》이다. 이 책에서 韓非子は “儒는 文으로써 법을 어지럽히고, 俠은 武로써 금한 것을 어기나, 통치자들은 이를 모두 예로써 대한다. 이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이다.”¹¹⁾라는 말이 있다. 韓非子は 法家の 대표로서 당연히 법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俠의 범법행위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韓非子の “俠은 武로써 금한 것을 어긴다.”라는 말을 통해 용감하고 사회제도에 구속받지 않는 俠의 기본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西漢 시기 司馬遷은 遊俠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遊俠列傳>을 썼다. 여기에서 그는 “오늘 날의 遊俠은 그 행동이 비록 정의에 벗어나나 그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으며, 그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성실히 수행하며 그 몸을 돌보지 않는다.”¹²⁾고 했다. 여기에서 司馬遷은 행동에는 결과가 있고

10) 在今可見到的商周甲骨和金文中, 尙未有俠字, 而只有夾字, 其形似中間站一個人, 兩邊各有一人挾持……‘俠’的原義, 當爲挾持大人物並供其役使之入. 自春秋而及戰國, 這些人羽翼日漸豐滿. 陳廣宏, 汪涌豪, 《遊俠人格》(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66), 3쪽.

11) 儒以文亂法, 俠以武犯禁, 而人主兼禮之, 此所以亂也. 《韓非子·五蠹》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덕 정신과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용맹한 정신을 긍정하였다. 班固의 《漢書》 또한 俠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반고가 《漢書》를 저술한 동한 시기에는 이미 갈등으로 가득 찬 어지러운 세상에 칼 한 자루를 차고 천하를 유유히 유랑하는 遊俠은 사라진 뒤였다. 오직 왕궁 귀족출신의 豪俠들만 있었을 뿐 遊俠 본래의 면모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봉건왕조가 공고화되고, 정치 군사 제도의 확립으로 遊俠이라는 이 특수한 계층은 역사의 무대에 점차 사라져야만 했고, 《漢書》 이후 다시는 이들을 언급하는 역사서는 없게 되었다.¹²⁾

그런데 遊俠이라는 특수한 계층이 이미 소실된 뒤에도 그들의 陽剛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영웅적 인물들의 비범한 업적들 속에는 遊俠정신이 숨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遊俠정신은 陳平原이 <江湖與俠客>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三國演義》, 《水滸傳》 등과 같은 문학작품 속의 '江湖世界'에서 갈수록 풍부해졌고 이상화되었다. 즉 다시 말해 遊俠의 영웅적 행위 속에서 보여주었던 陽剛의 정신은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풍부해졌던 것이며, 마침내 사회의 주요한 정신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遊俠정신이 하나의 정신문화로 정착되는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 인류의 보편적 염원이다. 우선 어떠한 사회제도와 가치관에 구속되지 않고 세상을 유랑하는 遊俠의 행위는 각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遊俠의 除暴安良의 행위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즉, 遊俠정신은 인류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염원과 결합하면서 그 강인한 생명력

12) 今遊俠, 其行雖不軌于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史記·遊俠列傳》

13) 陳山, 《中國武俠史》 참고.

을 확보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통사상의 영향이다. 우선 遊俠정신은 그 특유의 陽剛의 정신으로 현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가적 경향을 강화시켰고 忠孝禮智信과 같은 유가적 덕목을 자신의 정신적 가치로 삼았다. 이로써 악에 대한 폭력적 응징은 사회적 도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나아가 遊俠정신은 도가의 무위자연의 사상과 함께 심신수양법을 적극 받아들였다. 이로써 무예의 수련은 단순한 신체 단련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경계로 심화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遊俠정신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불가의 정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운신의 폭을 더욱 넓혔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知恩必報, 重義輕利 등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행위규범에서 출발한 遊俠정신은 제반 전통사상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풍부한 문화적 내용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遊俠정신은 이렇듯 인류의 보편적 염원과 전통사상들의 영향 속에서 강화되고 풍부해지면서 일종의 정신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遊俠정신은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적극 수용하여 자기의 것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민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遊俠정신이 민간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점차 그 독자성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에라도 능멸과 폭력이 있는 곳에서는 사회의 공정과 정의라는 소박한 바램을 위해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영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 자발적인 俠義행위는 중국민간사회의 독특한 문화정신—강렬한 사회충동과 소박한 이성정신이 혼합된 正義와 公道의 상징—으로 승화되었다.¹⁴⁾

14) 哪里有欺凌和壓迫, 哪里就有可能會涌現出一些激于對社會公正, 社會正義朴素愿望挺身而出的英雄好漢. 自發性的俠義行爲便昇華成一種中國民間社會獨特的文化精神, 一種混合着強烈的社會衝動和朴素的理精神的‘正義’與‘公道’的象徵. 陳山, 《中國武俠史》(上海:三聯書店, 1995), 281쪽.

사회의 구속을 거부하고 또 필요하면 무력의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遊俠정신은 통치계층의 문화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수 천년간 압박을 받아온 피지배계층의 문화로 적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遊俠정신은 儒·佛·道 사상에 비해 비록 심오한 사상적 체계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면서도 자유와 정의 그리고 公道의 상징으로서 기층문화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점차 儒·佛·道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민간사회의 중요한 도덕관, 혹은 가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2) 지역적 배경

沈從文은 <從文小說習作選·代序>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골사람은 어려서부터 강호를 떠돌면서 각지를 돌아다녔다.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신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상상력을 키우고, 또 얼마간의 인생경험도 쌓았다.”¹⁶⁾ 어린 遊俠 沈從文의 강호세계는 <九歌>의 고향이자 또 桃花源의 배경이 되었던 湘西지역이었다. 湘西는 중국낭만주의 문학의 원류가 되는 楚문화권에 속하며 屈原과 같은 대시인과 함께 수많은 시인묵객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은 역사적

15) 儒·佛·道는 모두 내면의 수양을 강조하는 정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행위규범으로 출발한 遊俠정신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동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遊俠정신은 그 동적인 특징으로써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면을 보이는 儒·佛·道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는 荊軻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들이 보여주듯 사대부 계층이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곤경에 직면했을 때, 모두 자신의 울분과 염원을 遊俠형상과 그 정신세계에 기탁하고 있는데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16) 這鄉下人又因從小飄江湖，各處奔跑，挨餓，受寒，身體發育受了障礙，另外却發育了想象，而且儲蓄了一点点人生經驗。沈從文，<從文小說習作選代序>，《從文小說習作選》（上海：良友圖書公司，民國34年），3 쪽

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尙武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楚지역 사람들이 왜 軍을 중시하고 武를 숭배했는가? 한 《楚國發展史》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楚지역 사람들이 처한 특정한 역사적 환경과 그 생존과정 중에 몸으로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商왕조에서 시작하여 西周에 이르기까지 楚의 부락이나 종족은 강력한 이웃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완강히 생명을 보존하여야 했으며, 아득한 산과 척박한 토지 속에서 분발하여 강함을 추구하여야만 했다. 武를 숭상하지 않았으면 어찌 존립할 수 있었겠는가? 武를 숭상하지 않았다면 어찌 대를 이을 수 있었겠는가?¹⁷⁾

이러한 상무전통으로 인해 상서지역은 일찍이 황제의 은총이 미치지 않는 변방의 야만지역으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土匪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감수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무전통은 ‘산은 높고 물길은 험하며, 땅은 거칠며 안개가 많은’ 지리환경 및 초문화 특유의 巫風과 결합하여 강력하고 열정적인 遊俠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劉一友의 <論鳳凰人一鳳凰人的遊俠精神>은 沈從文의 고향인 湘西 鳳凰 지역의 독특한 遊俠정신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글이다. 이 글은 沈從文이 <湘西·鳳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기도 한 군벌 陳渠珍과 遊俠 田三怒와 같은 상서지역의 거물급 인사들이 보여준 遊俠적 행동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劉一友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하며 이 지역의 독특한 遊俠정신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 지역 사람들은 의를 중시하고 이익을 경시하며, 은혜를 알고 원수는 반드시 갚으며,

17) 楚人爲何重軍崇武? 一部楚國發展史表明：這是由楚人所處의 特定曆史條件及其生存發展의 切身經歷所決定的。自商至于西周，楚部落、國族一直在強鄰의 夾縫中頑強의 求生，在窮山僻壤里奮發圖強。不尙武，何以立足？不尙武何以繼宗？ 宋公文、張軍，《楚國風俗志》(漢口：湖北教育出版社，1995)，514쪽

약속을 중히 여기고 생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고전적인 遊俠정신에 아주 충실하다고 보았다. 둘째, 강직함을 중시하며,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경멸하고, 자기 싫어하며 승부근성이 강할 뿐 아니라 싸우기를 좋아하며 원칙적이며 고전적이다. 셋째, 완강하며 사내다움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沈從文이 성장한 湘西 鳳凰지역이 농후한 遊俠전통을 지니고 있었고, 또 이것이 최소한 民國시기까지 이 지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 외에, 沈從文의 遊俠정신은 조부로부터 부친, 그리고 沈從文의 삼형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관을 지냈던 가족적 배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沈從文의 할아버지 沈洪富는 일찍이 貴州 제독을 지낸 바 있는 군관출신으로서 “그가 사망했을 당시 남겨놓았던 얼마간의 명성과 재산은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비교적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沈從文의 부친 沈宗嗣 또한 일찍이 “내몽고 동북, 티벳 등 각 지역의 군영에서 군인생활을 했던” 군관이였다. 특히 沈宗嗣는 鐵血團을 조직해 袁世凱 암살을 시도하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도망을 다니기도 하였던 독특한 경력의 사람이기도 하였다. 沈從文의 형 沈岳霖은 일찍이 상서군벌군대에 몸담은 바 있는데, 沈從文은 그를 모델로 <大先生, 你一天忙到晚, 究竟幹嘛?>라는 가족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이 소설에서 沈岳霖은 몸은 늙었지만 마음속엔 遊俠적 기질로 가득 찬 독특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또 沈岳霖은 넘치는 의협심에 남의 일에 적극 관여하다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고향을 떠나 각지를 유랑하고 돌아와서는 진귀한 물품들을 고향의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곤 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파격적 행위들을 통해 그가 정의감이 충만하고, 자유롭고 낭만적인 遊俠정신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沈從文의 동생 沈岳釜는 黃埔군관학교 5기 졸업생으로 국민당 군대에서 소장으로 부사단장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소설 <動靜>에서는 중일전쟁 때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고 있던 동생의 모습을 이상적인 군인형상으로

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가족적 배경에서 성장한 沈從文은 결정적으로 청년기를 군영에서 보내게 된다. 결국 이러한 배경과 성장환경으로 인해 沈從文은 자연스럽게 遊俠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沈從文의 문학창작 생애 또한 강호를 떠돌던 遊俠들의 생활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가 상경하여 문학창작을 선택하게 된 것 또한 遊俠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종의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가 문우 胡也頻과 丁玲을 구하기 위해 국민당의 삼엄한 통치 속에서 동분서주한 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당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 일 들 또한 沈從文이 친구와 의리를 중히 여기는 遊俠정신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는 沈從文의 생애 곳곳에서 遊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3. 沈從文 소설의 遊俠정신

沈從文은 1924년부터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는데 <在別一個國度里>를 발표한 26년을 기점으로 하여 遊俠정신이 농후한 소설을 계속 발표하게 된다. 예를 들면 <說故事人的故事>(1928), <七個野人與最後一個迎春節>(1929), <漁>(1929), <虎雛>(1931), <建設>(1931), <黑夜>(1932), <早上----一堆土一個兵>(1933), <過嶺者>(1934), <芸廬紀事>(1942), <雪晴>(1947)등이 모두 遊俠정신을 담은 작품으로 이해된다. 이 작품들은 상서지역의 遊俠문화를 우리에게 상세히 소개해주는 박물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작품세계는 잔인한 복수이야기에서부터 친구와의 의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遊俠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끝없이 펼쳐 보여준다. 이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遊俠에 대한 작가의 관점과 태도를 드러내는 한편, 작가의 현실

인식과 시대성이 농후하게 가미된 독특한 遊俠인물의 형상을 창조해내기도 하였다.

1) <在別一個國度里> — 遊俠정신의 자각

<在別一個國度里>는 1926년 《現代評論》에 발표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8통의 편지와 이에 대한 작가의 해석으로 구성된 서신체 소설이다. 이 소설은 '關於住八蠻山落草的大王娶討太太與宋家來往的一束書信'이라는 작품의 부제에서 나타나듯 匪賊 두령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이 民國 초기 각 지역에 창궐하였던 半軍半匪의 실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軍閥이나 土匪에 대한 어떠한 비판 혹은 풍자도 찾아볼 수 없다.¹⁸⁾ 오히려 작품의 결말에서 다음과 같이 匪賊 두목을 찬양하면서 의식적으로 도시사람들의 농촌에 대한 상식을 반박하고 있다.

언니의 근황은 바로 이러하다. 젊고, 건강하고, 재산이 있고, 총명하고, 부드러우며 또 아내를 위할 줄 아는 대왕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호화롭고 영광스런 생활 속에서 사랑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봄날과 같아, 마치 그녀가 편지에서 한 말과 마찬가지로였다. 천둥소리도 그 날의 천둥소리일 뿐이요, 비바람도 그 날의 비바람일 뿐이니 모두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18) 작품의 주요한 줄기는 다음과 같다. 土匪 두목은 송씨 집안의 큰딸에게 반해 구혼의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는 형식적으로 아주 예의를 차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송씨 집안의 큰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씨 집안에서는 원래 이 혼사를 반대하려 했으나 이 土匪 두목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어쩔 수 없이 큰딸을 시집보내게 된다. 그런데 송씨 집의 큰딸이 산채의 안주인이 된 뒤 그녀의 학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다. 그 土匪 두목이 건강하고,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부드러워 아내를 위할 줄 하는 청년이라는 것이었다.

의 걱정, 의심, 눈물 등은 모두 이 손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대가를 찾아내었던 것이다.¹⁹⁾

즉, 土匪 두목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한 번 깜빡 안 하는 잔인함을 지니긴 했으나 한편으로는 학식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 인간미가 넘치는 온화한 청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 소설 속에서 土匪 두목을 찬양하고 있는가? 농촌출신의 작가의 2년에 걸친 도시생활과 창작활동을 통해 형성된 도시에 대한 관점이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1924년 문단에 첫 등단한 이래 1926년 <在別一個國度里>를 발표하기 전까지 沈從文은 약 20 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는 <畫師家兄>, <棉鞋> 등과 같이 신변잡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臘八粥>, <玫瑰與九妹> 등과 같이 고향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그린 작품들도 있다. 이 소설들은 모두 창작기교 면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 밖에도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농촌청년 沈從文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창작 실천을 거치면서 沈從文의 창작은 중요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즉, 沈從文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도시를 점차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宋代表>와 같은 도시인의 위선과 공허한 심리를 풍자하는 소설들을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풍자소설의 다른 표현으로 농촌의 적극적인 요소를 부각해 내고 찬양하는 향토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 새로운 향토소설의 출발점이 된 작품이 바로 <在別一個國度里>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거세된 듯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 남

19) 大妹近來就是這樣，同一個年輕，彪壯.有錢，聰明，溫柔，相互會體貼她的大王生活着，相互華貴的生活中，光榮的生活中過着戀的生活，一切如春，正象她自己信上所說樣：雷霆是當日的雷霆，風雨是當日的風雨，都不必再說去了。過去的當心，疑慮，眼淚，都找到比損失更多許多倍數的代價了。<在別一個國度里>，《現代評論》(第2卷，75期 1926년.)

성을 대비시키기 위해 匪賊 두목을 이렇게 남성적 강인함이 넘치는 생명력의 화신으로 그렸던 것이다.²⁰⁾ 이를 통해 土匪 두목은 미개한 지역의 위협한 부정적 인물이 아니라 농촌을 대표하는 긍정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匪賊 두령의 형상에 沈從文이 어린 시절부터 존경해 마지않던 遊俠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이다. 즉, 작품 속 匪賊 두령의 모습은 남성적 강인함이 넘치는 생명력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重義輕利, 知恩必報의 정신을 지닌 遊俠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在別一個國度里>는 농촌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沈從文의 깨달음을 처음으로 반영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遊俠정신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최초의 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2) 遊俠 인물형상으로 본 遊俠 정신의 특징

沈從文의 소설은 선명한 개성을 지닌 遊俠 인물형상을 창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遊俠정신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용기, 의리, 자유, 공정무사 등의 정신적 미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해된다. 이들 인물들은 작가의 창작의도와 인물형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虎雛형, 順順형, 沈岳峯형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인물 유형은 각기 자신만의 독특하고 분명한 遊俠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작가의 사회인식을 읽게 된다.

(1) 虎雛형 遊俠형상 : 虎雛는 소설 <虎雛>의 주인공이다. 군인이었던 작가의 동생이 데리고 온 14세의 어린 병사를 보고 작가

20) 작가는 이후에 상해에서 이 작품을 새로이 발간하는데, 그 때 <男子須知>로 개명한다. 이로써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더욱 분명해진다.

는 그 총명함에 반해 동생에게 상해에 두고 가면 그 소년을 “가장 문명적인 방법으로써 교육시켜 놓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한 달도 못되어 그 어린 병사는 사람을 죽여놓고 숨어버린다. 겉으로 온순하고 총명하기만 하였던 어린 병사가 사실은 오만하고 길들일 수 없는, 그리고 수시로 야성과 피의 본성을 드러내는 한 마리 길들일 수 없는 호랑이 새끼였던 것이다. 사람을 죽인 후 그는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려 작가를 실망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속작 <虎雛再遇記>에서 작가가 虎雛라는 이 인물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모두 虎雛가 상서 특유의 遊俠정신, 용감하고 남에게 꺾이지 않는 정신과 원시적 야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虎雛 형 인물로 虎雛만큼이나 강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說故事人的故事>중의 弁目을 살펴보자. 작가의 자서전 <從文自傳——一個大王>에 의하면 이 弁目은 이름이 劉云亭으로 원래 농사를 짓던 농민이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군인들이 그를 토비로 몰아 총살시키려 하자” 그는 도망쳐 나온 후 정말로 土匪가 되었다. 그는 사령관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자 사령관의 수행원이 된다. 그런데 나중에 군대를 이탈해서 土匪가 될 것을 두려워한 사령관이 그를 처형해버린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이별하고, 또 오랫동안 자신을 보살펴 준 사령관에 대한 감사의 말을 남기는 등 영웅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虎雛 형의 인물은 모두 湘西 농촌의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하였는 바, 당시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沈從文이 보기에 도시인들은 문명의 세례로 글과 예절을 아는 생활을 하지만 도시라는 거대한 구조물 속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 그리고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沈從文에게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한 눈에 보기에 모두 비슷한 모습에, 수면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며”, “피곤함과 혹은 정신적 퇴화를 드

러내는” 일종의 거세당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도시인들에 비해 虎雛 형 인물들은 무지하고, 야만적이고, 충동적이기는 하지만, 하나같이 은원이 분명하고 용감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작가는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법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도박을 감행하는 영웅적 기개와 여기에서 분출되는 강력한 생명력에 주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沈從文이 보기에 이러한 기개와 생명력이야말로 명칭하게 일상을 보내는 도시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虎雛 형 인물이 체현하고 있는 남성적 강인함과 그것의 근간이 되는 遊俠정신은 바로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과 처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順順형 遊俠형상 : 順順은 沈從文의 대표작 <邊城>의 주인공인 雛送의 부친이다. 順順²¹⁾은 虎雛형 인물이 지니지 않은 遊俠정신을 지니고 있다. 먼저 소설에서는 順順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성격이 호방하고 또 호탕한 이 사람은 사업이 비록 아주 뜻한 바대로 잘 되었으나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또 혼쾌히 다른 사람들의 급한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기름 장사처럼 그렇게 큰돈을 벌 수가 없었다. 자신 또한 어려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생을 이해했으며 실의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다. ……비록 발에 조그만 병이 있었으나 그래도 물질을 할 수 있었고, 걷는 것은 절뚝거렸으나 그 사람됨은 오히려 공정무사 하였다.²²⁾

21) 일부 학자들은 順順이 雛送을 방앗간 집 딸에게 장가보내려 했다는 점을 들어 順順에게 계급적 낙인을 찍어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무리한 건강부회적 해석에 기초한 것임은 물론이다.

22) 但這個大方 灑脫的人, 事業雖十分順手, 却歡喜交朋結友, 慷慨而又能濟人之及, 便不能同販油商人一樣大大發作起來. 自己既在糴子裡混過日子, 明白出門人的甘苦, 理解失意人的心情, ……這人雖然腳上有点小毛病, 還能泗水, 走路難得其平, 爲人却那麼公正無私. 沈從文, 《邊城》, (生活書店, 民國23年), 20-22쪽

<邊城>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많은 편폭으로 順順의 내력을 소개하고 또 그의 고상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소설 속 順順에 대한 찬양은 다음의 세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 친구 사귀기를 좋아한다. 둘째, 흔쾌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셋째, 공정 무사하다. 이러한 성격적 미덕은 바로 농촌민간사회의 소박한 도덕적 준칙인 동시에 遊俠정신의 핵심이기도 하다. 順順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遊俠정신은 소박한 인정미를 지니고 있는 농촌공동체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다. 따라서 順順은 <邊城>에서 그리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된다. 만약 이러한 인물이 없다면 <邊城>에 묘사된 아름답고 예술적인 공간인 茶峒이라는 마을은 와해되어버릴 것이다.

順順이외에 이러한 遊俠정신을 드러내는 인물로 <長河>의 長順, <丈夫>의 水保, <石子船>의 船主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인생경력이 풍부한 중년으로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잘 이해한다. 둘째, 그들은 모두 농촌사회에서 모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모두 공정무사하며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농촌민간사회의 이상적인 지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順順 형 인물은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영웅형상으로서 당시 중국의 정치지도층과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 蔣介石의 국민당 정권은 4·12 반혁명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반민족, 반민주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적 통치를 실시한다. 沈從文은 일찍이 <除夕>, <菜園>, <冬的空間> 등과 같은 소설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엄격한 출판물 검열로 인해 집권층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順順 형 인물이 지니고 있는 除暴安良, 공정무사의 遊俠정신은 당시의 정치

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3) 沈岳釜 형 遊俠형상 : 비범한 무예와 넘치는 정의감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저함 없이 전장에 뛰어드는 것이 遊俠의 우수한 전통이기도 하다. 沈從文의 <動靜>에 보이는 연대장 沈岳釜은 바로 그러한 遊俠의 전통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沈岳釜은 원래 沈從文의 친동생으로서 일찍이 국민당군대의 연대장을 지낸 바 있고, 중일전쟁 당시 滬杭鐵路 보위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부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군인이었다. 이 沈岳釜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소설 <動靜>은 당시 발생했던 조그만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의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沈從文의 여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허구적인 측면이 적다. 그러나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상적인 애국군인의 형상을 그려내면서, 또 그로 하여금 湘西 遊俠정신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드러내게 하였다.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과 생활에 안주하지 않은 치열한 도전정신이다. 沈岳釜은 부상을 당했으나 요양치료가 간이 끝나기 전에 전장으로 돌아가려 한다. 의사가 그를 만류했으나 그는 포화 속에 죽어갈 동지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돌아가려 한다.

두 번째, 그는 객관적인 정세에 대해 아주 냉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전쟁의 실상을 잘 모르는 많은 학생들이 시대적 분위기와 격정으로 그를 민족영웅으로 추대하면서 그를 따라 전투에 참가하려 한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 대한 숭배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실망하거나 반감을 느낄 정도로 그 태도가 냉정하다.

셋째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군사적 측면 외의 다양한 애국활동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

작가는 이렇게 용감하고 희생적이며 또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태

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한 시대의 영웅으로, 그리고 이상적인 군인으로 沈岳峯을 묘사한다. 사실 沈從文의 소설에는 이러한 이상적인 군인 형상들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早上 -- 一堆土一個兵>의 늙은 병사에서 <黑夜>의 어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싸워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 그리고 자신의 희생의 의미까지도 잘 알고 있는 완전한 군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沈從文은 왜 군인들을 이상적으로 형상화하였던 것이며, 이를 적극 찬양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7년 일본제국주의의 전면적 침략 앞에 중국은 존망의 기로에 놓여있었다. 중국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길은 일치단결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희생적인 遊俠정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냉정한 태도와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沈從文은 항일전쟁의 경험이 있는 연대장의 형상을 빌어 遊俠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취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遊俠형상을 통해 沈從文 소설에 나타난 遊俠정신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유형의 인물형상들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던 遊俠정신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虎雛는 도시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야성과 생명의 상징으로, 順順은 폭력적 통치세력에 대항하는 정의의 상징으로, 그리고 沈岳峯은 국란의 시기 애국심의 고취할 영웅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사회정의의 염원과 애국적 충정을 기탁한 다양한 遊俠 인물형상들은 결코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방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遊俠정신의 시대적 효용에 대한 작가의 절실한 탐색과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이상 沈從文의 遊俠정신이 배태된 배경과 작품에 표현된 遊俠정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沈從文의 遊俠정신은 중국민간전통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작가의 고향인 湘西지역 특유의 遊俠전통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강인한 생명력과 선명한 개성을 지닌 遊俠전통은 군인집안 출신으로서 군대에서 청년기를 보냈던 沈從文의 인생관을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의 이러한 遊俠정신은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 속에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沈從文의 작품에 표현된 遊俠정신은 작가의 현실인식과 창작경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띄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遊俠인물 또한 몇 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들 遊俠 인물형상들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沈從文의 작품에 표현된 遊俠정신은 현실참여적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遊俠정신이 沈從文의 소설 창작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이 遊俠정신은 沈從文 소설 창작초기부터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沈從文 특유의 공리주의적 문학이 탄생될 수 있었다. 30년대 초 蘇雪林은 <沈從文論>에서 沈從文의 전기소설에 대해 “노쇠하여 비틀거리고, 퇴폐적이며 부패한 중화민족의 몸에 야만의 피를 주사하여 자극시키고 젊게하였다.”²³⁾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蘇雪林的 평가는 沈從文의 공리적 문학이 유가적 가치관에서 출발하였던 당시 여타 작가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었던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蘇雪林은 야만인의 혈액을 농촌과 소수민족의 자연생명력 혹은 농촌출신 작가의 젊은 혈기와 등치시킴으로써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23) “把野蠻人的血液注射到老邁龍鍾頹廢腐敗的中華民族身體里去使他興奮起來; 年青起來” 蘇雪林, <沈從文論>, 《沈從文研究資料》上(廣東: 花城出版社, 1991), 48쪽

이해된다. 그 야만의 피가 상서 특유의 遊俠 정신의 다른 표현이며, 그것이 장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遊俠문화에서 발원하는 것임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둘째 沈從文의 遊俠정신은 상층 엘리트 문화가 아니라 하층 민간 문화라는 측면에서, 沈從文의 문학 창작은 당시의 여타 계몽문학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당시 지식인 주도의 계몽문학은 유가사상의 현실참여 정신에 근거를 둔 상층 엘리트문화의 소산이었다. 이 시기 전통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모든 민간적인 것들은 봉건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배척의 대상이 되었고, 계몽문학의 주요한 목표는 무지몽매한 민간의 백성을 깨우치는데 있었다. 반면 농촌 군인 출신으로서 당시 지식인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沈從文은 오히려 민간에서 遊俠정신의 적극적인 요소를 길어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의 문학적 지향 또한 도시 지식인을 계몽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와 크게 다른 점이다.

한편 沈從文의 遊俠정신은 魯迅의 후기 문학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지향과 궤를 같이한다. 魯迅은 <過客>, <鑄劍>, <理水> 등의 작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복수하며 목숨까지 거는 영웅적인 성격을 형상을 그리고 있다. 魯迅은 “개혁에 뜻을 둔 자”는 “민중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되며 “오직 민족혼이야말로 가치로운 것이며, 이것을 발양하여야만 중국이 비로소 진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魯迅의 관점과 같은 차원에서 沈從文은 가치있는 민중·민족정신으로 遊俠정신을 꼽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沈從文 문학창작의 연변과정이 도시문명비판, 농촌인성의 찬양, 생명의 고취라는 큰 주제로 변화해 갔다고 볼 때, 그 변화의 내면에 작가의 자연지향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 외형적 변화를 주도한 것은 현실참여적 遊俠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沈从文, 《从文小说习作选》, 上海, 良友图书公司, 民国34년
(美)金介甫, 《沈从文笔下的中国社会与文化》,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94
陈山, 《中国武侠史》, 上海, 上海三联书店, 1995
姜凤求 译, 陈山, 《中国武侠史》, 동문선, 1997
李辉, 《恩怨沧桑》, 天津, 百花文艺出版社, 1992
陈广宏, 汪涌豪, 《游侠人格》, 武汉, 长江文艺出版社, 1996
宋公文, 张君, 《楚国风俗志》, 汉口, 湖北教育出版社, 1995
沈从文, 《从文自传》, 北京, 人民文艺出版社, 1981
凌宇, 《沈从文传》, 北京,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1
沈从文, <湘西, 凤凰>, 《沈从文文集》 제 9권, 广州, 花城出版社, 1991
沈从文, <从文小说习作选代序>, 《从文小说习作选》, 上海, 良友图书公司, 民国34년
刘一友, <论凤凰人. 凤凰人的游侠精神>, 《吉首大学学报. 社科版》, 1995년 제 3기
沈从文, <在另一个国度里>, 《现代评论》, 제2권 제75기, 1926
沈从文, <建设>, 《沈从文子集》, 上海, 新月书店, 1931
沈从文, <北平的印象和感想>, 《沈从文文集》 제10권, 广州, 花城出版社, 1991

<论文提要>

沈从文积极接受了流行于民间社会并变成了一种朴素的道德尺度的传统游侠精神, 而且从这种游侠精神中发掘了对社会正义的强力实践性和完成自我的理想精神, 进而形成了他独特的文学功利观.

중심어 : 유흥정신, 민간문화, 공리주의 문학관.

中國詩歌會 簡介*

김 용 운**

< 목 차 >

머리말

1. 현실과 대중을 향한 전환
 2. 이념과 창작의 간극, 탈휴머니즘
 3. 대중화의 방향과 문제
 4. 蒲風 任鈞 穆木天 楊騷 柳倩 王亞平, 그리고 溫流 關露
 5. 中國詩歌會 계열의 간행물
- 결론

머리말

중국현대시의 문제는 정치에 대한 시의 열심당원 같은 경위에 있다. 신랑을 위해서라면 신부가 아닌 무엇이랄도 되어야 하는 것이 중국현대시의 사명이다. 신랑이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중국현대시의 종교 같은 엄숙함은 황당함이 되어가고 진심을 토로하는 것조차 반혁명이 되어버림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비판하는 것은 60년 이상의 금기가 되고 만다. 하지만 코미디가 되어버린 중국현대시의 주류 비평을 더 코믹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역사에 대한 경건함이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동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국외단기파견) 지원에 의함.

**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교수

다. 혁명봉숭아학당의 역사가 눈물겨운 웃음으로 밝혀지고 말았음에도 문예의 계급성, 조직화 대중화, 문예정책에 의한 전인민의 民歌創作 등이 외경과 자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스개를 향한 사채투지이자 무의미에 대한 천 배 공양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中國詩歌會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끝이다. 계급의식으로 시를 판단하며, 시인이 대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들을 조직하고 시를 대중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만이 옳다는 도그마에 빠져있었으며, 新月派 現代派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중국의 시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봉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의 분위기였다. 문예에 대한 통제가 정책에 의한 도덕적 판단의 확대에 불과한 상황이었지만, 당위와 사명감의 형식을 띠는 모든 징조의 출발은 中國詩歌會로부터였다.

1. 현실과 대중을 향한 전환

1932년 9월 上海 左聯의 부문조직으로 출범된 中國詩歌會의 창작 방향은 현실과 대중이었다. “식민지 중국은 광폭한 폭풍우 속에 처해있다. 많은 詩歌 질료들이 우리가 섭취하고 표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인식이다. 그리고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진행되는 두 가지의 창작경향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다. “어떤 이는 서양을 모방하기만 하고, 어떤 이는 여전히 눈 바람 꽃 달 속에 도취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중국시단은 아직도 침묵중이다”는 것이다. 現代派와 新月派를 써야할 시를 쓰지 않는 일탈로 규정하는 이들은 다시 대중을 거론함으로써 중국현대시가사의 경건한 방향을 결정짓고 만다. “대중과 십만 팔천 리나 떨어져서 시를 지으니 이 위대한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바다”¹⁾ 말이 그것이다.

중국현대시의 문제는 이상과 같은 시의 방향전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대중을 향한 전환이 비판을 적과 과거에 대한 것으로 축소시켜버리고, 현실에 대한 투쟁을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한 투쟁으로 대체시키면서 대중을 향한 길이 대중을 위한 길, 나아가 대중에 의하여 지도되는 길로 나아갔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대중이라는 하나의 방향이 유일무이한 주류를 형성함으로써 5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는 데에 있다.²⁾ 그런 의미에서 中國詩歌會의 이 선언은 이전시기의 시에 대한 방향전환이자 20세기 중국 주류시의 출현이었다. 현실과 대중의 관계를 향한 중국 지식인들의 시 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1932년 10월에 출간된 左聯 기관지 『文學月報』는 中國詩歌會가 출현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健尼 風斯 森堡(=任鈞) 林穆光 市增訓 黃浦芳(=蒲風) 穆木天 楊驪 등은 중국의 신시운동이 12년 간이나 발전 없이 내려와서 다함께 연구 협력 창작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中國詩歌會를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랐다”³⁾ 것이다. 5.4이래의 시적인 성과를 현실과 대중의 잣대로 부정하고 양자간의 관계 속에서 中國詩歌會의 임무를 상징하고 있는 좌편은 中國詩歌會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시가이론을 연구하고 시가작품을 창작하며, 시가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그것을 소개하며 선진적인 시가이론과 작품을 소개하고 과거의 시가작품을 평가하는 등이 中國詩歌會의 목적이다”⁴⁾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이념을 조직을 매개로 한 대중화를 통하여 대중에게 실현하는 詩論學習과 시 창작의 시대

1) 이상 中國詩歌會 創立 발기문 《緣起》 참조.

2) 『今天』派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들이 자성하고 비판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鄧小平에 의하여 비판이 장려되고 있는 과거일 뿐이다.

3) 이들 중 穆木天 楊驪 森堡(=任鈞) 黃浦芳(=蒲風) 등이 주요 발기인이었다. 穆木天은 원래 創造社 성원이었지만 左聯에 가입한 뒤에는 創作委員會 詩歌組의 일을 주관하였다. 간사는 蒲風으로서 中國詩歌會를 대표하는 성원이었다.

4) 이상 『文學月報』 제1권 제4기 〈中國詩歌會成立〉 참조.

가 열린 것이다.⁵⁾ 실제로 1933년 2월에 간행된 中國詩歌會의 기관지 『新詩歌』⁶⁾ 「發刊詩」는 자신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잔해에 연연하지 않으니
그것은 이미 과거일 뿐이므로
현실을 움켜 쥔 우리는
신세기의 의식을 노래한다.
(중략)
압박 착취 제국주의의 도살
반제 항일 그것은 전체 민중의 고조된 정서
우리는 이러한 모순과 의미를 노래하여
모순 속에서 위대한 세기를 창조한다
우리는 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이 모순을 民謠 俗謠 鼓子詞 동요로 쓰고
우리의 시를 대중가요로 만들어
우리 자신도 대중 가운데 하나가 되리

이들이 “현실을 움켜쥐고” “신시기의 의식을 노래하는” 목적은 “압박 착취 제국주의의 도살”과 “반제 항일”의 全民衆的 정서간의 “모순과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자신의 “시를 대중가요로 만들고” 그들 “자신 또한 대중의 하나가 되려”하는

5) 이 같은 지향의 대표작들은 『國防詩歌總書』에 수록된 穆木天의 《流亡者之歌》, 任鈞의 《戰歌》, 楊騷의 《鄉曲》, 柳倩의 《自己的歌》 등 4권의 시집이라고 할 수 있다.

6) 『新詩歌』는 1933년 2월에 창간되어 1934년 12월 폐간될 때까지 모두 2권 10기 10기를 출판하였다. 제1권 안에는 旬刊 4기와 半月刊 2기가 있고 (그중 6,7기는 합간본) 제2권은 월간인데 모두 4기가 나왔다. 정치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旬刊 半月刊 月刊 등으로 간행되거나 뒤늦게 출간되는 경우가 잦았다. 穆木天 楊騷 任鈞 蒲風 柳倩 田間 關露(=胡攄) 石靈(=奇玉) 葉流 流水 杜談(=寶隱夫) 蕾嘉 白曙 宋寒衣 王亞平 溫流(=方慧心) 濺波 許幸之 등이 정기적으로 《新詩歌》에 기고한 작가들이며, 中國詩歌會 성원은 아니었지만 艾青이 〈肅者的行吟〉 〈鐵窓里〉 등을 기고해주기도 했다.

까닭은 그래야만 “모순 속에서 위대한 세기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체는 대중의 절대다수가 문맹이라는 것과 정규교육을 통한 문맹의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中國詩歌會의 이론학습과 창작활동은 이 현실을 고려하는 특수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시와 현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반제 항일의 전민중적 정서를 대중에게 이입시키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반영과 선전이라는 관계 속에서 가치론적으로 파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전시기 시인 유파 비판은 주로 이 같은 가치지향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⁷⁾ 동시에 그들은 보는 시가 아니라 듣는 시를, 그것도 대량으로 창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다.⁸⁾ 예를 들어 蒲風은 자신이 설정한 양을 채우기 위해

7) 穆木天的 「關於〈罪惡的黑手〉」 〈王獨清及其詩歌〉 〈徐志摩論〉 및 蒲風의 〈五四到現在的中國詩壇鳥瞰〉 〈楊驥的詩〉와 胡適 徐志摩 郭沫若 王獨清 戴望舒 溫流 등의 시를 평론한 〈幾個詩人的研究〉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대량창작의 버릇 또한 이들로 말미암는다. 《永遠結不成的果實》에 의하면 1936년 蒲風은 시 창작의 스타하노프 운동을 제기하면서 王亞平과 “5년 이내에 10권의 시집을 써내자고 약속하고는 항전 2년만에 열 한 권의 시집을 써낼” 정도였다. 현실투쟁의 필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中國詩歌會 성원들이 발표한 작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新詩歌》와 기타 신문문예란에 발표된 작품을 제외하고도 항전 발발 이전까지 이들은 수 십 권의 시집을 출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穆木天的 《流亡者之歌》, 蒲風의 《茫茫夜》 《六月流火》 《生活》 《鋼鐵的歌唱》 《搖籃歌》, 楊驥의 《鄉曲》, 任鈞의 《冷熱集》 《戰歌》, 柳倩의 《生命的微痕》 《无花的春天》 《自己的歌》, 王亞平的 《都市的冬》 《海燕的歌》 《十二月的風》, 溫流의 《我們的堡》 《最後的吼聲》, 胡楣의 《夜的進行曲》 《太平洋上的歌聲》, 葉流的 《不是詩》, 孤凡의 《孤凡的詩》, 杜談의 《還鄉集》 《青春集》 《夢》, 白曙의 《五月祭》, 宋寒衣의 《寒衣的詩》 《漁家》, 江岳浪의 《飢餓的咆哮》, 田間的 《未明集》 《中國牧歌》 《中國農村的故事》, 袁勃의 《真理的船》 등이다. 蔡清富의 〈中國詩歌會〉에 의하면 郭沫若 또한 中國詩歌會의 창작에 대해서는 過濫之嫌을 갖고 있었다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를 쓸 정도였으며, “어느 때는 격정의 폭발에 기대어 쓰는 것 같았고, 때로는 이성에 복종하여 쓰는 것 같았다”⁹⁾ 한다. 이밖에 낭송이나 가요 창작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대중의 절대다수가 문맹이었기 때문이다.¹⁰⁾

그렇다고 해서 가요의 형태로 쓰여진 이 시기의 시가 대중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대중과의 만남을 지향하고 있었을 뿐이다. 國共間의 적대적인 대립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당시의 현실 속에서는 좌익성향을 가진 작가와 대중의 접촉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¹¹⁾ 사실 정치적인 이념이 작가로부터 대중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매개하는 정치조직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작가가 내뿜는 정치적인 자양이 기층의 대중 하나 하나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심장과 세포를 잇는 혈관, 다시 말해서 작가와 대중간의 정치조직이 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대 초반의 중국에서는 작가와 대중이 따로 놀 수밖에 없었다. 작가가 勞農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中國詩歌會의 조직은 작가와 대중과의 관계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작가들 간의 관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총회를 상해에 둔 詩歌會 조직이 北平과 廣州에 中國詩歌會 華北分會와 廣州分會를 두었을 뿐인 것도 이 때문이다.¹²⁾ 王亞平의 기억에 의하면 “각지의 회원은 모두 2백 명이 넘었다”고¹³⁾ 한다. 그의 말을

9) 黃寧嬰의 《悔蒲風》 참조.

10) 예를 들어 中國詩歌會 동인들의 〈關於寫作新詩歌的一點意見〉 森堡의 〈關於詩的朗讀問題〉 穆木天的 〈詩歌與現實〉 〈關於歌謠之制作〉 胡楨의 〈用甚麼方法去寫詩〉 등이 이에 해당한다.

11) 특히 추수봉기 이후에는 노동조직이 거의 와해됨으로써 王明이 이끄는 당 중앙과 조직의 관계가 租界地로 국한된 상황이었다. 毛澤東의 정강산 소비에트에서 보낸 운영자금이 국민당에 의해 탈취 당하고 당중앙위원의 아지트가 수색 당할 정도였다.

12) 北平分會의 책임자는 王亞平이었으며 상해의 총회와 마찬가지로 《新詩歌》를 간행하였다. 廣州分會의 책임자는 濫流로서 《詩歌》 《新詩歌》 등을 간행하였다.

13) 王亞平의 《永遠結不成的果實》 참조.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 해도 中國詩歌會는 창작경향을 함께 하는 文學流派라기 보다는 左聯의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는 지식인간의 심리적 結社體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입자가 매우 많다고 들었으니, 장래 중국신시운동에 반드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는¹⁴⁾ 『文學月報』의 中國詩歌會에 관한 보도야말로 코메디의 구체적인 시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많을수록 문예가 발전한다는 民歌運動 紅衛兵詩歌 紅旗歌謠의 신화 또한 이로부터 비롯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中國詩歌會가 심리적인 結社體였다는 사실은 1934년 여름이 지나면서 國民黨정권이 中國詩歌會의 몇몇 성원들을 체포 투옥하자 『新詩歌』가 정간되고 활동이 위축되어버린 데에서 드러난다. 물론 『新詩歌』가 정간이후에도 中國詩歌會 성원들의 활동은 계속된 흔적이 역력하다. 『大晚報』의 문예란을 빌어 몇 期의 시 간행물을 낸 것과 『每月詩歌』 『詩經』 『農報·自由談』 등에 계속해서 시를 발표한 것 등이 그것이다.¹⁵⁾ 하지만 조직화 대중화를 부르짖던 中國詩歌會의 租界內 위축은 30년대 초 黨組織의 지리멸렬함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양상이다. 게다가 中國詩歌會는 1936년 봄, 中國左翼作家聯盟이 해산된 뒤에도 해산을 선포하지 않고 있었다. 4월 4일, 東京에서 郭沫若을 만난 蒲風은 “中國詩歌會가 아직 해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적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詩人協會의 성립을 선포할 때쯤이면 해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고¹⁶⁾ 말한 바 있다. 적절한 시점을 놓쳐버린 中國詩歌會 해체선언 시기를 詩人協會의 성립 즈음으

14) 『文學月報』 제1권 제4기 〈中國詩歌會成立〉 참조.

15) 이밖에 1934년 가을 華北分會의 『新詩歌』가 폐간된 후, 王亞平 袁勃 등은 靑島로 도망가서 활동을 계속하며 『現代詩歌』 『詩歌季刊』 『詩歌新輯』 간행물을 창간하였으며, 1935년 蒲風 王亞平 등은 東京으로 건너가서 魏晉 雷石榆 林林 林煥平 戴何勿(=肖岱) 征軍 등 유학생들과 東京詩歌座談會를 개최하며, 『詩歌』 『詩歌生活』 등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16) 蒲風, 《郭沫若 詩作談》, 《現世界》 創刊號, 1936年 8月.

로 상정하고 있는 蒲風의 이 말은 36년 5월 전국의 9개 시가단체와 70명의 시인이 中國詩歌作者協會를 발족시킨 것을 계기로 1937년 5월 上海에 中國詩人協會가 출범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廈門에 머물고 있었던 蒲風은 5월5일의 일기에 “寒衣의 편지를 받아 보니 中國詩人協會는 최근에 이미 성립되었으며 회원으로는 穆木天 柳倩 任鈞 寒衣 統照 艾青 關露 林林 石靈 등 25명이라고 한다”고 적고 있다. 200여명의 성원이 25명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結社體가 조직으로 다시 출범하고 있었던 셈이다.

2. 이념과 창작의 간극, 탈휴머니즘

『新詩歌』 창간호에 게재된 「신시 창작에 관한 의견 關於寫作新詩的一點意見」은 “현실을 움켜 쥐고” “신시기의 의식을 노래하는” 中國詩歌會의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억압받는 입장에 서서 제국주의의 제2차 세계대전과 중국침략을 반대하고 불합리한 압박에 반대하며, 동시에 대중을 정확한 출로로 인도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제도하의 각 계급의 인생을 이해하고 대중생활의 묘사에 치중하며, 대중을 자극하고 추동시키며, 적극적으로 투쟁을 그려내거나 대중을 조직해야 했다. 전반적으로 1931년 11월에 통과된 左聯의 〈중국 무산계급 혁명문학의 새로운 임무 中國无産階級革命文學的新任務〉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中國詩歌會의 실천방향은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의식형태는 시 창작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현실상황이 이들에게 주입시킨 분위기였다. 따라서 현대시의 창작에 관한 여태까지의 문제 - 내면을 어떻게 詩로 빚어낼 것인가 - 를 현실과 대중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면서 시적인 문제의 계승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내재된 문제의 형상화로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대중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이 시기의 상황은 대중을 매개로 한 현실에의 접근이 아니라, 대중이 없는 현실에의 접근, 다시 말해서 개념화된 현실, 또는 시인 자신의 체험을 반제반봉건으로 확대시켜 놓은 현실로 대체됨으로써 대중을 매개로 한 집중이 아니라 현실인식의 확산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新詩歌』의 「發刊詩」는 9·18, 1·28 이후의 상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28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熱河의 포화는 벌써부터 하늘을 비춘다.
 黃浦江엔 제국주의의 군함이 정박해 있고
 吳淞江. 어귀엔 성조기 일장기 나부긴다.

인식에 의존한 시 쓰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시선의 흐름에 따른 현실모순의 부각들이다. 피 흘림과 제국주의와 대립구조를 제국주의가 규정하는 적대적인 모순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황의 절망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이 시의 구조는 단순한 것만큼이나 분명하다. 현실인식이 체험을 매개로 시공을 벗어나는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것이 주로 작가 자신의 시선에 의하여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다. 蒲風 또한 “파리한 하늘에/ 홀연히 날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의 시선으로 현실을 인식한다. 그 기러기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것은 “도처의 잔혹한 학살/ 풀 베듯 사람 죽이는 도처의 도살장”이다.¹⁷⁾ 蒲風은 이 작품을 통하여 현실과 주제 의식이 연역된 개념을 일치시키고 있다. 내면의 삭힘이나 시공을 넘어서는 객관화를 통해서만 중국 전체가 도살장이 되어버렸다는 주제를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이 시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어린이 같은 대중을 향한 문제의 제기다. 王亞平의 어린이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17) 蒲風의 《鴉聲》 참조.

아빠

일본군은 왜 우리한테 못살게 구는 거예요?

모두들 그 사람들이 東三省을 뺏어갔다던데

또 塘沽를 점령하고 天津을 점령했다는 게 사실예요?

六五는 “일본 놈의 새끼들 정말이지 쳐부쉬야 해”라던데

누가 가서 일본을 쳐부수나요? 아빠¹⁸⁾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대중의 현실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었지만,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국민당에 반대하는 지식인일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할 때, 직접적인 주제의 부각과 개념적인 처리는 그 시대의 상황이자 조류일 수밖에 없었다. 대중과의 관계가 봉쇄된 데다 이들 지식인끼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협을 무릅쓴 창작이 무용담과 같은 의미를 갖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蒲風은 王家庄의 도로건설 반대투쟁을 애써 가꾼 논밭과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무리한 공정과 “외세를 몰아 내려면 먼저 국내를 안정시켜야 한다./ 국내를 안정시키려면 우선 도적을 토벌해야 한다./ 도적을 토벌하려면 도로를 건설해야 하지/ 일본을 이기려면 공사를 해야 하니 거역하지 마라”는 抗日을 빙자한 국민당의 剿共作戰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 때문이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무너진 독으로 굶이쳐 흘러나오는 황하의 물

그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리?

하하! 원시적인 무기가 이제 호령을 하네 춤을 추네

오늘 논밭과 들판으로 뺏어 가누나 반항의 손길이어!¹⁹⁾

黃河의 격류와 농민들의 반항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의 흐름으로 그리고 있는 이 시는 현실 속의 상황을 계기로 쓰여진 것

18) 王亞平의 〈孩子的疑問〉 참조.

19) 蒲風의 《六月流火》 참조.

이다. 黃河의 격류와 농민운동을 시각을 매개로 결합시키고 있는 이 시는 상황의 선전이자 정치권력에 대한 무용담이다. 이렇듯 中國詩歌會의 시는 현실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계기와 주관적인 定向 - 그것이 전투정신이건 무용담을 지향하는 것이건 - 이 결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같은 兩結合의 원인이 시인의 소망을 결정짓는 객관현실 때문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현실이 소망을 압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사회 역사적인 이상을 포기할 수 없을 때, 현실에 대한 저들의 이념은 그 시선을 미래로 돌려버리곤 한다.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꿈꾸게 되는 것이 바로 미래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매개로 한 체험의 과정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에 詩속의 미래는 현실로부터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사상된 당위의 형태로 제시되어버린다.

불, 불, 핏빛같이 붉은 땅 속의 불,
 겹겹이 지각에 의해 억눌려 있어도
 언제든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면
 이 모든 것 뚫고 나오리!²⁰⁾

땅 속의 불꽃이 지각을 뚫고 나오는 과정은 체험할 수도 실천한 적도 없는 이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소망이 당위로 전화하면서 다시 그것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다시 신념에 가득 찬 예언으로 전환하면서 “언제고 불꽃은 지각을 뚫고 나오게” 된다. “멀지 않은 곳에 / 광명이 눈부신”²¹⁾ 것이다. 실천이 배제되면서 소망이 당위가 되고 양자간에 형성된 믿음이 예언이 되는 과정은 시간에 의한 체험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단계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 전광석화와 같은 생략이 구호로 이어져버리는

20) 蒲風의 《地心的火》 참조.

21) 蒲風 《生活·熱望着》 참조.

리를 탈취해야 한다”는 귀절을 낳게 된다. 비판이 사라진 낙관이 구호와 표어의 형식으로 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나 문예창작에 있어서나 意識性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의식성이 현실로부터 유리되고 인간의 보편적인 지표로부터 멀어져버리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념론이자 의식성과 결합된 도그마로 변해버림으로써 가치와 방법의 전도를 낳게 된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살육이 인간을 위한 史的 當위의 형식을 띠고 나타남으로써 경건한 광기를 잉태하여 황당한 귀절을 향해 가는 소외의 과정을 필연성의 엄숙한 자기이행과정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蒲風의 〈조롱 속의 새〉는 이 같은 집단 의식과는 대립을 이루는 작품이다.

노래하지 말라 미물이어!
행복이 그대를 후대한 적이 있었던가?
즐거움이 그대에게 온전히 주어진 적이 있었던가?
좁은 조롱 속에서 기쁨을 가장하는 데에 내 마음 아파하나니

뛰지 말라 미물이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좀 준다고
사람들이 찬 물 몇 방울 준다고! -----
부끄럼 없이 조롱 속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내 마음 아파하나니

아아 조롱을 벗어나 버려라 미물이어
넓고 푸른 세계를 보라!

이념이 사회 역사적인 소망과 결합할 때, 價値定向을 가진 자의 의식형태는 이 속에 함께 있을 때가 더 편한 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자신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의 초라함과 어찌할 수 없음은 체험을 매개로 한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조롱이 현실이라면 새는 시인이다. 새가 자신이건 지식인의 객관화이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롱을 벗어날 수도 조롱 속의 먹을 것을 떠나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넓고

싱그런 하늘을 한 번 바라보는 것조차 그리 힘들었던 이 새의 상황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대중화의 방향과 문제

현실에 대한 관심이 실천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데올로기가 매개한 조직은 실천의 주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문제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인이 현실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할 때, 실천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계급의식을 갖춘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관한 30년대의 논의의 틀은 王明의 8.1 선언에 연계적인 상해의 중앙위원회와 毛澤東간의 차별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31년의 左聯 집행위원회는 실천의 방법을 대중화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중화된 노선을 통하여 운동과 조직의 대중화, 작품 비평 등 모든 것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야 만이 우리가 직면한 反帝 反國民黨 소비에트 혁명을 완성할 수 있고 진정한 중국 무산계급 혁명문학을 창조해 낼 수 있다”²⁹⁾ 것이다. 실천을 위한 전제를 실천으로 인식하는 左聯의 이 같은 모호함에 반하여 모택동은, “그러나 이른 바 대중화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문예공작자의 사상 감정과 勞農兵 대중의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³⁰⁾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가능성이었다. 勞農兵이 지식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식인이 노농병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지식인이 노농병으로 바뀌는 것 말고는 가능한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의 고통스런 자기개조는 불가피한 미래였다. 소자산계급의 동요와 이중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는 이 현실을 분석한 결과라기 보다는, 현실상황의 유일한 가능성을 밝혀주는 논리였다. 대중이

29) 《中國無產階級革命文學新任務》.

30)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과 기독교 정신의 모순구조를 중국이라는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의 일차원적인 태도는 리얼리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대부분은 하이네 마야코프스키 페트라이와 페찌멘스키 등에 대한 이해조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리얼리즘이 갖는 인간해방의 유물론적인 메시지를 세계성의 차원에서 자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묵전의 중국내적인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지향을 대중과의 관계에서 형상화한다는 中國詩歌會의 창작경향은 반우파투쟁을 계기로 당의 풍향에 따른 詩 쓰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모든 주류문학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관건은 권력의 풍향이 아니라 대중이었다. 시의 모든 것이 당의 결정이 아니라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를 써야 했다. 시의 목표 자체가 바로 대중이었기 때문이다. 中國詩歌會의 많은 시인들이 “통속적이기만 하면 된다”³⁷⁾ 郭沫若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었다. 이 때의 이른 바 통속이란 저속한 내용이란 뜻이 아니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란 의미였다. 그리고는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에 대한 보물찾기가 시작된다.³⁸⁾ 『新詩歌』에 게재된 《泗洲調》 《五更嘆》 《孟姜女尋夫》 《新譜小放牛》 등은 예외 없이 대중이 지금 애용하고 있는 형식들이었다. 그 중에서 《新譜小放牛》의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37) 郭沫若, 《新興大眾文藝的認識》.

38) 민가에 대한 주목은 中國詩歌會가 처음은 아니었다. 5·4시기의 일부 시인들도 민가의 학습에 주의를 기울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劉半農의 《瓦釜集》의 일부 시들은 민가풍인 것이 적지 않으며, 劉大白의 《賣布謠》 《田主來》 등도 江南 民歌體였고, 北京大學 歌謠研究會의 『歌謠週刊』은 전문적으로 가요를 수집 연구하는 간행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5.4시기는 시인들이 민가를 흡수하는 분위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민가에 대한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中國詩歌會였다. 茅盾이 〈民間藝術形式和民主的詩人〉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민간가요의 우수한 점을 섭취하여 “新詩로 하여금 이채로움을 띠게 하였다”.

누가 하늘에서 하하 웃는가?
 누가 땅 아래서 흑흑 우는가?
 누가 벼 심어도 쌀을 못 얻는가?
 누가 누에 키워도 옷을 못 얻는가?

大軍閥은 하늘에서 하하 웃고,
 小百姓은 땅 아래서 흑흑 운다,
 농부가 벼 심어도 쌀을 못 얻고,
 뽕 따는 아가씨가 누에 키워도 옷을 못 얻는다.³⁹⁾

전통적인 小放牛 형식에다 군벌과 농민의 삶을 웃음과 눈물, 하늘과 땅의 차이로 改詞해 놓은 이 글은 유통 중인 형식에 정치적인 내용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간의 소통에 의존하여 정치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 예이다. 예술적인 가치와 문학사적인 의의를 분리시켜야 하는 이 같은 시도들은 “보편적인 歌謠 時調의 형태를 빌려서 그것의 보급 통속 낭독 등의 장점을 미래의 詩歌로 인도”⁴⁰⁾하려는 노력이었다. 『新詩歌』 「가요 특집」에 게재된 穆木天의 《外國士兵之墓》은 기존의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결과였다.

너에게 꽃다발 하나 가져다주는 이 없고,
 너에게 와서 눈물 흘려주는 이 없다.
 너는 만리 먼 바다를 넘어 원정 와서,
 지금은 단지 한 무더기 黃沙로 무너졌을 뿐.

너의 장군은 지금쯤 저녁연회에서,
 미회를 끌어 앉고 미친 듯이 웃고 있으리,
 누가 崑國의 황폐한 묘지를 기억 할 수 있으리요?
 다만 북풍만이 너와 함께 할뿐이다.(원문으로 대체한다.)

이 작품이 民間歌謠 時調 鼓詞의 고정된 격식을 벗어나 있는 것

39) 奇玉의 《新譜小放牛》 참조.

40) 《我們的話》, 《新詩歌》 第 2 卷 第 1 期, 1934年 6月.

은 사실이다. 하지만 每句마다 세 번을 쉬고, 짝수 句마다 압운을 가하는 구성은 전통적인 민족형식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중 속에서 소통되고 있는 형식과 시인간의 간극이었다. 특정지역의 일정 계층 사이에 소통되는 어떤 형식은 작위적인 노력 없이는 알아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中國詩歌會 성원들이 민가의 수집과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예를 들어 蒲風은 廣東 福建 河北 河南 安徽 등지의 민가를 수집 연구하여 리듬이 경쾌하고 脚韻이 자연스러운 시를 써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매끄러운 언어형식을 자랑하는 蒲風의 〈農夫阿三〉은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7월,
 불같은 태양,
 밭 가운데 누런 울벼.
 총총히 서둘러 가는 阿三,
 흐르는 땀,
 땀방울은 금빛으로 반짝인다.
 다른 이들, 베는 자는 베고, 짊어지는 자는 지고,
 남너노소 한가지로 바쁘다.
 집에 와 생각하니,
 마음은 쓰리고 손은 근질근질.⁴¹⁾

대부분의 官方 觀點의 학자들은 이 시가 대단히 유행했던 작품이라고 전하고 있다. “시구의 리듬이 분명하고, 산뜻하고 깔끔하여 술술 읽힐 뿐 아니라 기억하기가 쉬워서”였다는⁴²⁾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모든 민가의 특징을 이 작품이 읽혀졌던 이유로 귀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이들은 민가형식이어서 유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가형식을 채용한 다른 작품들이 별로 읽혀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읽혀졌던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적어도 이 작품 안에는 시인의 주관이

41) 蒲風의 〈農夫阿三〉 참조.

42) 예를 들어 北京師大 蔡濤富의 〈中國詩歌會〉

형상으로 빚어지는 사태는 출현하지 않고 있다. 시의 구성에 필요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려낸 뒤, 阿三의 형상을 결합시키는 부분에 와서는 철저하게 阿三의 阿三에 의한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창작방법이 사회 정치적인 책임의 소재를 유통과정 속에 들어온 모든 독자들에게 돌려버리는 민가의 익명성에 가 닿음으로써 독자들의 내면적인 공모를 유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가와 달리 이 작품이 야기하는 내적인 공모가 객관현실을 공유하는 자 끼리가 아니라 그 현실을 상정하고 있는 지식인간의 阿三에 대한 공감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반면에 溫流의 《打磚歌》는 똑 같은 민간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은 망치, 네모진 벽돌,
우리의 세계가 앞에 있다,
동정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 마라,
쳐라, 쳐라, 해치워라!”⁴³⁾

민간형식에 “벽돌을 깨듯이 현실을 때려 부숴라”는 이념을 대입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찍이 대망서와 牛漢은 자신이 만난 사병들에게 이념적인 시를 읽어주면서 어떤 시를 좋아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결과는 한 가지였다. 사병들은 정치적인 시보다는 愛情詩를 더 좋아했던 것이다. 결국 정치적인 이념을 시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그것을 자기화 할 수 있는 길도 시인이 제공해야 했다. 中國詩歌會가 시와 음악의 결합을 주장한 것은 바로 이 주체화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穆木天은 “새로운 시가는 대중의 오락이자, 대중의 떡이어야 한다. 시가는 음악과 결합하여서 민중이 부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민중으로 하여금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정감의 薰陶를 얻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그것의 교육적 의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⁴⁴⁾ 주장하였다. 시인에 의한 수용과정의 고려는 가

43) 溫流의 《打磚歌》 참조.

사의 창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노래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주체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蒲風이 “나는 노래가 될 수 있는 歌詞를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이것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⁴⁵⁾ 했던 것도 가사를 매개로 한 주체적인 의식화를 겨냥한 말이었다.⁴⁶⁾

가사의 창작이 대중의 수용과 표현을 고려한 것이라면, 낭송은 시와 대중의 관계, 그것도 시가 대중에게 파고드는 효과를 고려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들은 낭송의 효과를 직접적인 감동을 매개로 한 보급과 선전에 두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朗誦詩에 의한 보급과 선전이 대중의 대중에 대한 효과는 아니었다.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조차 차단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대중에 대한 대중의 선전이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몇십 몇백 몇천 심지어는 몇만 명이나 되는 대집단이 읽게되면 조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⁴⁷⁾ 생각하였던 것도 대중에 대한 대중의 선전이 아니라, 그 시를 수용한 대중의 변화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中國詩歌會는 “시 한편을 완성하고 나면 기회를 봐서 낭독을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점에 기초하면 다음에 신시

44) 《平凡集·關於歌謠之制作》.

45) 《搖籃歌·寫在后面的話》.

46) 蒲風의 《搖籃歌》에는 20여 수의 시가 편집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작품이 노래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蒲風의 시에는 유명한 음악가에 의해 곡이 붙여져서 널리 불리워 지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碼頭工人歌》 《打磚歌》 《打樁歌》는 聶耳가 곡을 붙여서 《聶耳歌曲集》에 수록했다. 《搖籃歌》는 孫愼이 작곡을 하여 1936년 7월 16일 《婦女生活》 제3권 제1기에 실린 바 있다. 《廈門自唱》은 李煥之가 곡을 만들어 1937년 9월 《游擊隊》의 제3기에 실렸다. 《戰鬥救亡曲》은 李煥之가 곡을 붙여 1938년 《延安魯藝音樂講義》에 실린 바 있다. 이밖에도 溫流의 《打磚歌》 《賣報小孩歌》, 石靈의 《新譜小放牛》 《碼頭工人歌》, 柳倩의 《雪花飛》, 任鈞의 《車夫曲》 등도 유명한 음악가에 의해 곡이 붙여져서 노래되었다.

47) 《關於詩的朗讀問題》 《新詩歌》 第1卷第2期.

낭독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낭독은 신시의 발전을 돕는 한 편 신시를 완성시키는 임무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⁴⁸⁾ 생각하였다. 시의 완성을 정치이념의 온전한 전달에 두고 있는 이들로서는 대중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창작과정에 반영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각적인 수단으로부터 청각적인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시 창작은 지식인이 아니라, 노농병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야 했다.

엠병할!
 쌀 수확하는 지주 놈
 모피 옷에,
 마고자.
 먹는 것은 사람 같고
 입는 것도 사람인데
 개새끼, 우라질 놈,
 지 마누라 밖에 모르니
 남의 어미는 안중에도 없네.⁴⁹⁾

흥미로운 사실은 中國詩歌會의 독특한 대중화가 장편서사시를 쪽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⁵⁰⁾ 일찍이 茅盾은 “이것은 시인들과 현실이 밀접하게 포용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주체의 생활체험과 객관적인 사회의 요구 모두가 시인들로 하여금 서정적인 단편시는 시대의 리듬에 부응하기에 부족하며, 시를 서재와 응접실에서 행길과 들판으로 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면서 “이 때문에 나는 ‘서정에서 서사로’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는 신시 영역의 개척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층의 새로운 문화운동의 의의에서 볼 때, 한 마디로 이것은 신시의 再解放

48) 〈關於寫作新詩歌的一點意見〉 참조.

49) 田間의 〈壞傻瓜〉 참조.

50) 穆木天의 《防堤者》 《在哈拉巴嶺上》 《江村之夜》, 蒲風의 《六月流火》 《可憐蟲》, 楊蘓의 《鄉曲》, 王亞平的 《十二月風》, 田間의 《中國農村底故事》, 江岳浪의 《飢餓的咆哮》 등이 그 예이다.

이 같은 아이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王亞平이다. 어린아이가 제시한 상황을 독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서정주체가 사라진 가치지향을 독자의 내면세계 속에서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상황은 나뭇잎을 둘러싼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쌓인 눈은 아직 녹지 않았는데/ 길은 차갑고/ 마른 잎은 앙상한 가지 위에서 떨면서/ ‘왔어! 도시의 겨울이’라며 읊조린다.”⁶²⁾ 전통적인 민족형식에 가까운 그의 창작방법은 “소박하나 열정적이다.”⁶³⁾ 작품형상에 서정주체의 색깔이 배어나지 않는다는 뜻에서 소박하지만 독자의 가슴에 각인되는 상황이 독자의 것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그것은 열정적이다. 그가 자신의 열정을 시로 표현한 것은 “먼 곳에서 보낸 놀래 키는 바람소리/ 분노의 파도 사방에 솟구치고// 새벽 빛 찾아들 전날 밤/ 내 생명 광명에 바치나니” 정도가 다지만, 예를 들어 〈大沾口〉에서 보여주는 詠懷詩의 분위기는 주관이 탈각되면서 說唱의 맛을 갖춘 것이기에 더 자극적인 長詩의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모두가 심리적인 계급이동의 결과를 시로 표현하고 있었다면, 濫流와 여류시인 關露은 공장 노동자가 되어서 시를 쓴 사람들이었다. 특히 스물 다섯 해의 짧은 인생을 《우리들의 진지 我們的堡》와 《최후의 울부짖음 最后的吼聲》이라는 두 권의 시집으로 정리하고 있는 濫流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지식인의 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삶을 노래한 노동자 계급의 시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그의 이념을 향한 생활형상의 비약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생생한 삶의 형상이 현실모순에 대한 고통스런 인식을 요구한다. 적어도 그의 시를 읽고 있는 독자라면 현실이 다른 모습을 갖출 수도 있다는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

61) 〈孩子的疑問〉 참조.

62) 〈都市的冬〉 참조.

63) 王統照, 《海燕的歌·序》.

새벽부터 밤 되도록 벽돌을 깨도
하루 20전도 벌 수가 없다 64)

내일이 설인데도 아빠는 오늘 밤 수레를 끌어야만 하고
엄마는 화장을 하고 길거리로 나서야 한다65)

웃음 하나가 천만개의 웃음을 매장시켜버리고
즐거움 하나가 수천 수만의 불행을 조성한다66)

매질 몇 차례에 말 한 상
이런 잡녘의 새끼 눈구렁이 막혔나
에미 애비가 햇빛에 뒹겨버려서
바구니를 길에다 놓지 말라고 가르치질 않았나
길은 사람이 다니라는 것이지
너희 돈 벌어 먹으라는 것이 아냐
홍, 네 나이 어리다고 봐줄 수 없으니
감옥에다 며칠 가둬 놓아야겠구먼67)

溫流는 스스로가 “고귀한 눈빛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묘사했던 여러 사람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고통과 미래를 노래하였다”고68) 고백하였듯이 그는 자신을 노래하는 중이었다. 그의 시가 형상과 이념의 결합구조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면 스스로가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徐志摩의 눈과 聞一多의 머리와 蔣光慈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關露의 시는 현장에서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색채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피땀은 기계를 돌리고” “피땀은 견직물로 변하고/ 견직물은 자본가의 자본으로 변한다”는69) 그녀의 詩句는 형상보다는 형상에 내재된 사회적인 모순

64) 〈打磚歌〉 참조.

65) 〈大年夜〉 참조.

66) 〈醒〉 참조.

67) 〈賣菜的孩子〉 참조.

68) 蒲風, 『溫流的詩』.

69) 〈馬達響了〉 참조.

전개할 때에도 그 원칙은 中國詩歌會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다. 1939년 10월 李靑鳥 등이 창간한 『福建民報』 副刊 『戰線詩歌』의 세 원칙은 “1 대중적인 歌謠小調와 街頭詩 등을 창작하는 데에 노력한다. 2 시가낭독운동을 전개한다. 3 詩歌 작업을 합창단 작업과 같은 것으로 본다” 등이었다. 中國詩歌會의 견해가 현실에 따라 발전한 결과였다. 1938년 9월, 昆明에서 발간된 『戰歌』의 〈投稿規約〉은 “이 간행물은 항전시가를 위한 것이다. 무릇 항전과 유관한 詩歌 小調 歌謠 鼓詞 劇詩 歌劇 및 항전관계시가에 대한 논문 비평 소개 번역 등의 투고는 모두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항일전쟁의 전개에 따라 中國詩歌會의 지향이 통일전선 속에서 구체화된 결과였다.

결론

시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위한 수단이기를 고집할 때, 시간 속에서 획득된 삶과 죽음에 관한 깨달음은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영원과 순간이 만나는 섬광이 불가능해지면서 신이 사라지고 허무가 퇴폐적인 감상의 영역으로 유폐되어버린다. 그리고는 삶과 죽음에 의해서 인간 현실 우주 시간이 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체해야한다는 이념에 의하여 詩 속에 비난과 기다림이 교차하는 정치선전이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中國詩歌會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동시에 모든 것과의 단절이다. 하지만 詩 속에 인간의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항일전쟁과 救亡의식이 勞農의 확보를 위한 시 쓰기를 도덕적인 결단으로 몰고 갔다는 데에 있다. 통일전선하의 신민주주의 詩 말고는 존속이 불가능한 문학사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주제와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같은 상황의 초래를 자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짐으로써 單位制度에 의한 창작의 통제가 실현될 수 있는 심

리적인 조건이 성숙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의 창작이 지식인의 계급이동과 창작주체의 폐기 등과 맞물리면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형식과 내용은 脫俗을 음모하는 패륜행위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남은 문제는 勞農階級에 의한 시 쓰기의 길을 닦기 위한 마녀사냥이었다. 스스로를 폐기시켜버린 지식인에 대한 저주는 그가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黨으로 말미암았다. 시만이 아니라 시인까지도 수단이 되어야 하는 시대, 黨에 의하여 쓰여지는 것이 삶의 목표인 시대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九葉派시 비평이론 탐원 - 九葉派詩歌批評理論探源

藍棣之*

이 논문의 표제를 “袁可嘉 시 비평이론 탐원”이라고 한다면 훨씬 정확한 테지만, 袁可嘉는 九葉派의 시론을 구축함으로써 명성을 얻었고, 그 후 시 이론연구의 기초와 출발점이 되었으므로 그 표제를 쓰지 않았다.

九葉派 시론의 연원은 매우 풍부하여서 가히 “多元”적이라 할 수 있다. 唐湜, 陳敬容, 杭約赫 및 신시기 이후의 鄭敏, 都卓 등이 이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이른 시기에 전문성과 계통성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이론을 제시한 九葉派의 이론가로는 단연 袁可嘉를 꼽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46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袁可嘉 시론의 연원을 살피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가 이 기간(25~27세)에 쓴 시론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현대시의 현대화를 논함論新詩現代化》(三聯書店, 1988年 1月)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250쪽에 불과한 소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글은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필자에게 있어서도 九葉派와 중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경전과 같은 문헌이 되었다. 이미 1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필자는 신시기 이후 九葉派에 대한 평론을 발표한 최초의 평자 중 하나였던¹⁾ 탓에 袁可嘉 선생은

* 清华大学 教授

1) 필자의 논문은 일찍이 北京에 거주하던 몇몇 九葉派 시인들이 읽은 바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 차례 수정을 거쳐 1982년 10월 <40년대 “현대시”유과를 논함 論四十年代的“現代詩”派>이라는 제목으로

40년대 시론집 《현대시의 현대화를 논함》을 편집하던 중 필자에게 서문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해 왔다. “이들 논문의 탄생 배경과 그것이 서술하고 있는 문예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객관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부분에는 긍정을 표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꾸밈없고 예리한 서평과 거리낌없는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서문을 완성한 후 먼저 『독서 讀書』誌에 발표했는데, 글의 분량이 상당히 길어서 논문집을 엮을 때는 통상적인 서문의 위치가 아닌 논문집의 첫머리에 실리게 되었다. 필자는 袁可嘉 선생의 요구에 따라 논문의 배경과 시론의 요점 분석 및 이론체계와 평가 등을 서술하는 한편 이들 시론의 연원을 밝혔다. 서문에서 필자는, 袁可嘉는 리차즈 류의 “문학비평가”로서 비평을 과학으로 간주하고, 미학 원리의 탐구 및 이론 체계 건설에 치중할 뿐 아니라 감상보다 연구를 우위에 두며, 의미를 제도화하여 일시적인 감동을 넘어선다고 보았는데 그의 이론은 知性과 명백함이 드러나며,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분석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袁可嘉는 텍스트로서의 시 또한 가까이 하고 연구했던 바, 시에 대해서도 유달리 민감했고 그 가운데서 독특한 견해를 개괄해내는 등 엘리엇 류의 “비평문학가”로서의 장점도 겸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서술의 의도는 袁可嘉 시론의 연원이 리차즈나 엘리엇과 연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데 있었다. 그로부터 이미 15년이 지났지만 필자는 스스로 제기한 이 과제를 완성할 수 없었으며, 학계의 그 누구도 지금껏 이 과제에 도전한 이가 없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지난 일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이 과제가 아직도 의미 있는 것이며, 여전히 학계의 관심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選題 방향과 選題 전략은 더욱 주목받을 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83年 第1期에 처음 수록되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고전문학 전문가인 嚴迪昌 교수로서, 그의 논문 〈그들은 빛과 어둠이 갈아들 때 노래한다 他們歌吟在光明與黑暗交替時〉는 1981년 말에 발표되었다.

袁可嘉 자신의 서술에 따르면 논문을 쓸 당시는 그가 昆明에서 北京으로 막 옮겨와 北京大學 서양어과 조교수로 있을 때로서, 西南聯大 외국어과를 졸업한 뒤 北京大學의 초빙을 받아 재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6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기간은 九葉派가 고유한 스타일을 갖추고 점차 성숙해가던 시기였다. 袁可嘉는 이 기간동안 많은 시를 발표했다. 이것은 그가 九葉派의 시적 경향을 익히고 창작과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그 같은 시적 사조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袁可嘉가 시론을 발표한 주요 간행물로는 沈從文이 주편한 『大公報·星期文藝』와 『益世報·文藝周刊』 및 朱光潛이 주편한 『文藝雜誌』 등이 있다. 袁可嘉의 시 창작은 그 예술적 방향에 있어 몇 단계에 걸친 전이를 보인다. 1941년 가을 그는 昆明에 위치한 西南聯合大學 외국어과에 입학한다. 대학 1학년 당시 그는 주로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에 몰두해 있었다. 바이런, 셸리, 키이츠, 워즈워드 등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시는 이들에 이르러 극에 이르렀고 이들의 작품보다 나은 작품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楊振聲 교수가 담뱃대를 입에 물고 흥미진진하게 해석하던 徐志摩에 감화되어 그의 시 또한 무척 좋아하게 된다. 1942년은 매우 중요한 해로, 그의 관심이 낭만파 문학에서 현대파 문학으로 옮겨간 시기이다. 그 해를 전후로 袁可嘉는 卞之琳의 《십년시초 十年詩草》와 馮至의 《소네트 시집 十四行集》을 읽고 충격을 받아 시가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른 형식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장르임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미지즘 시와 엘리엇, 예이츠, 오든 등의 작품을 통해 이들 시가 낭만파보다 훨씬 함축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인의 생활에 더욱 근접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당시 西南聯大에서는 모더니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던 바, 袁可嘉 역시 모더니즘 시의 상징적 수법과 위트 섞인 필치를 익히고, 현실·상징·위트 등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에 강한 이성적 색채를 부여하게 된다. 그는

오든의 〈전시 중국 在戰時的中國〉의 영향을 받아, 그다지 엄격하다 할 수 없는 소네트 형식으로 上海와 南京 및 北京 등 몇몇 대도시의 외형과 실체를 묘사함으로써, 형상을 통해 각 도시의 특징을 포착해내는데 힘썼다. 이 같은 경향을 대표하는 시들은 필자가 주편한 《구엽과 시선 九葉派詩選》²⁾에 수록했으므로 독자들은 그의 이론적인 글들과 이 선집을 참조해서 연구해도 무방할 것이다. 1946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문으로 쓴 논문 〈에이츠의 시를 논함 論葉芝的詩〉은 袁可嘉 시론의 시초라 할 수 있다.

袁可嘉 선생은 71세 되던 해에 당시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3, 40년대는 서양의 모더니즘 시와 우리의 현대시가 서로 뒤섞이고 한 데 어우러지던 시기이다. 서양에서는 엘리엇, 릴케, 발레리, 오든이 그 시기를 풍미했고, 중국에서는 戴望舒, 卞之琳, 馮至와 후에 九葉 시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현대시를 낭만주의로부터 상징주의를 거쳐 중국식 현대주의로 이끄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때야말로 中西詩가 한 데 어우러져 훌륭한 시가 탄생된 황금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0년대 중엽을 거치면서 시 이론은 확연히 창작 실천에 뒤지게 되었는데, 서구의 모더니즘시가 널리 알려져 있긴 했으나 서양과 중국 현대시간의 접합점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은 결핍된 상태였다.” 여기에서의 “시 이론”이란, 상기한 논문에서 제기했던 바의 리차즈 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미학원리에 편중한 문학비평이자 袁可嘉 선생이 찾으려던 “접합점”으로서, 당시에 그가 거듭 강조했던 “현대시 극화 新詩戲劇化”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로 “신비평”이라 이름해도 무방할 것인데, 당시 袁可嘉는 자신의 시론에 〈신비평 新批評〉이라는 제목을 붙여 朱光潛이 주편한 시론 총서에 수록하려 했지만, 전란으로 인해 원고는 발송 과정에서 소실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 글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

2) 人民文學出版社. 1992年 出版, 袁可嘉 선생은 1992년 12월 탈고한 그의 정식 《자서전 自傳》에서 이 선집을 가리켜 “여태껏 이보다 상세한 九葉派 선집은 없었다”라고 평한 바 있다.

는 까닭은 袁可嘉가 자신의 회고에서 밝혔듯이, 영미 뉴크리티시즘과 모더니즘에 의해 계도된 그의 시론의 기본적인 관점이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유기체로서, 총체적인 효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둘째, 시와 주·객관적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지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셋째, 시의 표현수법에 있어서의 현대화 문제이다. 이러한 논술은 이 논문에 확실한 단서와 근거를 제공하였다.

袁可嘉 시론의 연원을 밝히기에 앞서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독자들이 이 논문을 읽은 후에 무의식적으로라도 袁可嘉 시론의 독창성을 회의하면서 ‘아, 그렇단 말이지. 袁可嘉의 이론이라는 것도 죄다 딴 데서 끌어온 것일 뿐이잖아’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다른 유명 작가들에게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필자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다른 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비평가들에 의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茅盾은 그가 《한밤중 子夜》을 쓰기 전에 결코 졸라의 소설 《돈》을 읽은 적이 없다고 했다. 曹禺는 누군가 《뇌우 雷雨》가 입센의 《유령》과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자 이를 완곡히 부인했으며, 더욱이 《일출 日出》이 뒤마의 《춘희》를 저작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언젠가 모 학생이 자신의 논문을 통해, 九葉 시인 杭約赫의 서정적 長詩 〈부활하는 토지 復活的土地〉가 엘리엇의 《황무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필자는 그 같은 분석이 일리가 있고 글쓴이의 독특한 발견이라고 여겨 들뜬 마음으로 그 글을 杭約赫에게 보이며, 이는 九葉派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 획득되어진 발전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杭約赫은 이전과 같은 진솔하고 친절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낮설고 냉담한 태도로, “이전에도 내가 쓴 〈부활하는 토지〉가 艾靑의 〈부활하는 토지 復活的土地〉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소

리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杭約赫의 그 같은 태도는 의아스럽고도 놀라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필자는 그의 오해를 풀어줄 만한 어떠한 방법도 갖고 있지 않았다. 사실 모든 작가들의 창작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기 마련이며, 이는 과학자들 정치가들 군사전략가들 예외가 아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에 세 가지의 來源과 세 가지 구성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으며, 서구의 학자들은 毛澤東이 철학사적으로는 헤겔의 변증학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얼핏보기에 엘리엇은 독자적으로 일인자가 된 듯 하지만, 17세기 玄學派의 시를 캐 들어가면 사실 엘리엇 이전에 사무엘 요한슨(1709~1784)이 영미 시에 있어서의 풍자의 전통을 중시하면서 위트와 정련된 시를 특히 좋아했을 뿐 아니라 고전주의 형식의 완미한 표준을 수립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듯, 영미 문학비평사에 있어 요한슨은 엘리엇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魯迅은 〈광인일기 狂人日記〉라는 제목을 고골리의 중편소설 《광인일기》에서 직접 착안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唐弢 역시 魯迅의 방법에 입각하여, 魯迅의 잡문이 보여주는 문체의 연원이 외국의 에세이나 문예란(feuilleton), 그리고 魏晉 시기의 辯文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 何乃英은 「〈악마파 시의 힘〉의 제재 연원 고찰 〈摩羅詩力說〉材源考」을 쓰기도 했다. 袁可嘉 선생은 또한 九葉派 시 분석에도 매우 탁월한데, 그는 九葉派 시를 가리켜 “새로운 감성의 崛起를 대표한다”라든지 “시적 동향의 새로운 전변”이라고 하는 동시에 九葉派 시를 “감성 혁명의 맹아와 선구”라고 평가하였다. 여기서의 선구는 卞之琳의 시속에 보이는 전통적 감성과 상징 수법의 효과적인 배합이자 현대미가 더욱 살아 있는 馮至의 《소네트 시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서술로 인해 九葉派의 위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九葉派가 갖는 詩史的 지위와 독창적인 공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九葉派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어떤 예술을 통해 崛起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

도움을 준다.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袁可嘉 선생이 오해할까 두려워한 때문은 아니다. 그 자신이 학자이고, 자신의 논문에서 이미 자기 시론의 연원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필자의 서술은 단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가하는 데 불과한 탓이다. 필자는 袁可嘉만의 탁월한 업적에 주목하면서, 당시 약 2년 간에 그가 말한 바의 “탐색”에 대해 진일보한 분석과 귀납 작업을 펼침으로써 현대시론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袁可嘉는 40년대 후반, 그러니까 그의 시 이론 연구가 점점 활기를 띠던 시기(1946. 9. 15~1948. 10.30)에 무려 26편에 달하는 글을 썼다. 그 글들은 1988년 《현대시의 현대화를 논함》에 수록되었고, 그 중 10편은 1992년에 그가 직접 편집한 白選集에 재수록됨으로써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가 처음부터 “현대시의 현대화”라는 주제의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현대시의 현대화를 논하는 첫 번째 글은 그가 시 이론을 발표한 후 반 년이 지난 뒤에 쓰여졌다. 그의 이론 체계를 확인하면서 은근히 그의 이론을 숨긴 채 「회극주의에 관하여 談戲劇主義」라는 제목이 붙은 글이 1948년 6월 8일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대략 2년에 걸친 모색 이후의 일이었다. 袁可嘉 선생은 먼저 시 창작의 경험을 쌓은 후 이론 방면으로 전환했던 탓에 창작은 그의 기초가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시론은 창작에 대한 논의로서,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창작 경험을 늘어놓은 것은 아니며, 텍스트로서의 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발견”에 관한 것으로 제목 또한 “시적 경계의 확장과 결정을 논함 論詩境的擴展與結晶”이었다. 두 번째 글은 당시 詩壇의 유행 경향에 대한 중대한 관찰로서, 그것은 “정치적 비애감 政治感傷性”으로 개괄된다. 이어서 그는 시의 주제, 晦澁, 나아갈 길 등과 같이 당시 詩壇의 비교적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현대 영미 시의 “분석으로부터 종합”에 이르는 연변 과정을 거론한 후 “현대시의

현대화”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현대시의 현대화 : 새로운 전통의 탐구 新詩現代化 : 新傳統的尋求〉(1947.3.20)는 그의 첫 번째 중요 논문이다. 袁可嘉가 말한 “현대시의 현대화”는 40년대 이후 출현한 穆旦, 杜運燮을 대표로 하는 현대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이러한 현대시의 출현은 “오랜 감성을 바꾸어 놓은 혁명”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변화를 몰고 온 배후에 일곱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론적인 맥락에서 그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일곱 번째 항목인 “현실, 상징, 玄學이 종합된 전통”이 바로 “새로운 전통의 탐구”의 중심이자 핵심이다. 이 때 현실은 직면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인생에 대한 긴밀한 파악으로 표현되며, 상징은 암시나 함축을 의미하는 한편 玄學은 민감함과 사려 깊음, 정감, 의지의 강렬한 결합과 번쩍이는 위트 등에 의해 표현된다. 여기서 동원된 세 가지 개념, 즉 감각·사상·정감 및 삼자가 시속에서 서로 관련된다는 사실에 주의하기 바란다. 袁可嘉는 현대시의 이 같은 새로운 전통이 서양시의 현실·상징·玄學의 새로운 종합 전통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대시의 현대화를 논하는 두 번째 글 〈현대시의 현대화에 관한 재분석 新詩現代化之再分析〉(1947.5.18)에서 袁可嘉는 이 새로운 전통의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네 가지 기법에 대해 논술했다. (1)겉으로는 솔직한 듯 하면서 실제로는 감추고 있는 직접적인 설명과는 달리 이 새로운 전통은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사상의 지각화 思想直覺”를 표현해야 한다. (2)낭만과의 “공허하고 모호한” 이미지와는 달리 새로운 전통의 이미지는 놀라우면서도 색다르고 참신하며 풍부함으로 대표되는 사물로써 확실하고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정감과 사상의 강렬한 결합으로 인해, 그로부터 생산되는 의미의 복잡화를 요구받게 된다. (3)개념적 논리와는 달리, 작가는 상상의 논리를 통해 전체 시의 구조에 한층 주의하게 된다. (4)새로운 전통은 유행하는 고정된 문자가 아닌 탄성과 韌性을 지닌 시어를 필

요로 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중심 문제는 이미지·정감·사상 등의 결합에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袁可嘉가 이 새로운 전통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작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인데, 이것은 그의 이른바 새로운 “전통”에 대해 “따질 만한” 빌미를 제공한기 때문이다. 참고할 만한 작품도 없는 바에야 이 전통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전통이란 말인가? 사실 袁可嘉가 말한 전통이라는 것은 기왕의 창작물에서 귀납해낸 것이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는 자신의 주장이 첨가된 것이거나 서양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전통의 “출현”이 아닌 새로운 전통의 “탐구”라고 했던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새로운 전통이 모색과 형성의 과정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가 말한 바의 아직까지 예증할 만한 작품이 부재하는 “전통”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1)언어의 소리·리듬·이미지 등을 통해 야기되는 연상작용. (2)상상의 논리 (3)전체 구조에 대한 세부 요소의 공헌. 이 세 항목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상상의 논리이며, 이는 袁可嘉 시론이 언급하는 세 번째 기본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1년 후, 袁可嘉는 理想으로서의 현대화된 현대시를 창작적 측면에서 귀납시키고, 당시 詩壇의 폐단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면 의지와 정감을 시적 경험으로 바꿀 것인지에 답하기 위해 “극화 劇化”라는 명칭을 사용한 「현대시 극화 新詩戲劇化」(1848년 6월 『詩創造』 12期) 라는 글을 발표하게 된다. 이 논문의 의의와 그가 제기했던 ‘설교와 感傷의 폐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요점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사상적 요소를 융합하고, 사물의 심층과 본질을 자신의 경험으로 전화시켜야지 시속에 격정을 분출하거나 무절제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이 원리에 입각해 세 가지 가능한 예를 보다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다. (1)릴케와 같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바를 살살이 뒤져 외계 사물의 본질과 한데 어우른다. (2)오든과 같이 위트와 知的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언어 운용의 특수한 재능을 발휘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면서도 시인이 지닌 同情·혐오·증오·풍자 등은 단지 語氣에 맡기며, 또한 비유를 통한 부분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과도한 노출을 피한다. (3) 엘리엇이 쓴 詩劇에서와 같이, 현실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바, 상징은 과도한 현실에 이르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현대 詩劇의 현실·상징·玄學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종합된 새로운 전통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주류 현대시가 요구하고 또 추구하는 바이다. 袁可嘉가 자신이 이상으로 삼고 주장하는 현대시를 “극성 戲劇性”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주된 이유는 분명 현대 詩劇으로부터의 啓示를 받아들여자는 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릴케, 오든, 엘리엇 등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경향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전통이 체현해 내는 세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袁可嘉 시론의 네 번째 기본 문제에 해당한다.

이 글과 거의 같은 시기에 袁可嘉는 그의 전체 시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 할 〈회극주의에 관하여 談 戲劇主義〉(1948년 6월 8일 『大公報』)를 발표한다. 위 글에서 분석한 “극화”는 袁可嘉 자신이 이상으로 삼아 귀납해낸 현대화된 현대시를 명명한 것이며, “회극주의”는 袁可嘉의 비평이론에 대한 명명이다. 1998년, 필자는 스스로의 문학비평이론을 “증후분석이론 症候分析理論”(《現代文學經典的症候式分析》, 清華大學出版社, 1998年出版)이라 명명하고, 필자의 시 비평이론을 “시속의 주요 정감 분석 이론 詩中主要情感分析理論”(《현대시의 정감과 형식 現代詩的情感與形式》(華夏出版社, 1995年出版)이라 이름한 바 있다. 결국 “회극주의”라는 것 역시 袁可嘉가 자신의 비평이론에 부여한 명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48년에 이 글들을 모아 출판할 때에는 “신비평”으로, 1988년에 다시 출판할 때는 “현대시의 현대화를 논함”이라고 명명했다. 시대적 원인이었던 개인적인 이유

였든, 그는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시대적 문학 조류에 호응하려 했거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가 시대 사조의 심층에 존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명한 것일 터이다. <회극주의에 관하여>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글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는 문장은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다. (1)회극주의라는 명칭은 심리학, 미학 그리고 언어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2)회극주의 비평의 네 가지 특성 (3)회극주의 비평에 상용되는 전문용어. 그의 논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글의 참신성이 리차즈의 “극대화된 의식형태” 및 “위트”와 “풍자”라는 두 전문용어의 해석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회극주의 비평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袁可嘉 시론의 다섯 번째 기본 문제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네 편의 논문을 통해 다섯 층차에 걸쳐 다섯 가지 기본 문제에 관해 거론했다. 이 글의 주저에 비춰 살펴보면, 이 다섯 가지 기본 문제들은 각각 고유한 연원을 찾아낼 수 있다. 다행히도 袁可嘉 선생이 자신의 논문 속에 우리가 그 연원을 탐색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 걱정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짐작컨대 우리의 袁可嘉 시론 연원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 누군가는 분명 袁可嘉가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현듯 일본의 옛 이야기가 떠오른다. 고대 일본은 낮은 생산력 때문에 양식이 부족했고, 부모가 늙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들이 부모를 업고 깊은 산에 버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다. 그런데 이야기 속의 노모는 자신을 업고 깊은 산에 들어간 아들이 왔던 길을 잃을까 걱정돼 아들 등에 업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떨어뜨려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필자는 마치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이 된 듯, 袁可嘉 선생이 안겨주는 단서를 찾으려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깊은 산중에 던져 버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말은 좀 다르다. 그 아들은

모친이 베푼 사랑에 깊이 감동되어 결국 어머니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우리에게 연원을 밝힐 단서를 제공해준 袁可嘉 선생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나는 이 논문의 결미에 그의 독창성과 탁월한 업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이다.

袁可嘉 시론의 다섯 가지 기본 문제의 이론적 연원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에 대해 袁可嘉 선생은 최초의 논문에서 현대 서구 시는 엘리엇을 중심 축으로 삼으며, 현대 서구 시 비평은 리차즈의 저작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 글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측면은 모두 엘리엇과 리차즈의 대표적 저서에 근거한 것이다.

1. 〈현대시의 현대화 : 새로운 전통의 탐구〉에서, 袁可嘉는 40년대 이후 穆旦, 杜運燮으로 대표되는 시적 감성 개혁 움직임의 배후에는 일곱 가지 이론적 원칙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핵심을 이루는 항목이 바로 “현실, 상징, 현학이 종합된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시의 이 같은 새로운 전통은 현실·상징·현학이 종합된 서양시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袁可嘉는 서양 현대시의 주요 흐름이 바로 이 전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詩劇이야말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르라고 재삼 강조했다. 詩劇 창작의 측면에서 보면, 엘리엇은 1932년 詩劇의 부활을 시도하면서 《壯士 스위니 Sweeney agonistes》를 실험작으로 내놓았다. 1935년에는 최초의 劇詩 《성당의 살인 Murder in the Cathedral》을 발표했다. 엘리엇의 장편 시 《황무지 The Waste Land》 역시 이 같은 전통을 표현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여기에서의 玄學이 지칭하는 바는 엘리엇에 의해 계도된 17세기 영국 玄學派 시의 전통을 말하며, 상징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袁可嘉가 이 점에 주목한 것은 卞之琳의 시 창작의 영향을 받으면서였다. 끝으로 “새로운 전통”이라는 제목에서의 “전통”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문학 전통에서의 전통이 아니라 엘리엇이 「전통과 개인의 재능」(1917年)에서 논술한 “전통”으로서, 엘

리엇은 그 글에서 전통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성숙한 시인에게 있어 과거의 시는 그의 개성을 이루는 요소가 되며, 과거란 현재를 이루는 일부분으로서 현재에 의해 개정되기도 한다. 진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한다면 쉽 없이 변화하는 “유럽 사상”의 존재를 깊이 인식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 또한 그것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유럽 시의 총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시인은 반드시 자신의 개성을 소멸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2. <현대시의 현대화에 대한 재분석>에서 袁可嘉는 “새로운 전통”에 대해 논하면서, 기법상의 몇 가지 측면으로서의 “사상과 감각”, “정감과 사상의 강한 결합” 등에 대해 언급하였는 바, 이것은 모두 엘리엇에서 비롯된 개념들이다. 엘리엇은 「현학과 시인」(1921)이라는 글에서, 현학과 시는 엘리자베스 시대 영미시의 철학 논리가 발전함에 따라 주류로 편입된 것이라고 하면서, 현학과시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상화된 묘사는 극히 풍부하고 구체적이며 뚜렷하고, 사용된 비유는 어떤 구체적인 물체와 함께 이성적인 함의를 구비함으로써 사상·정감·감각의 세 요소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다. 이 세 가지 요소의 통일체는 17세기 시인들에 의해 “위트 wit”라고 명명되었는데, 그것은 “관련 없는 경험들”을 함께 결합시키는 날카로운 지적 능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적 전통은 일종의 “감각적 기제”를 가지고 있어서, 용광로처럼 사상을 녹여 감정적 반응으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감각으로 사상을 용해시켜 감정이 되게” 하는 특색은 아쉽게도 17세기 후반에 소실되고 만다. 드라이든 이후의 신고전주의 시에서는 감각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사상은 감정이나 감각과의 연계를 잃고 오늘날의 “위트”, 즉 해학이나 풍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한편 밀턴의 시에서 보이는 격동적인 웅변 역시 “위트”와 분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초 낭만주의 시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3. <현대시의 현대화에 대한 재분석>에서 袁可嘉는 아직은 예

로 들만 한 작품이 없는 “전통”에 대해 논하면서 특별히 “상상의 논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엘리엇과 리차즈 역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엘리엇은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시인의 임무는 그저 평범한 감정을 갖고 닦아 시로 엮어냄으로써 실제적인 감정 속에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감각을 표현해내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시란 허다한 경험의 총화이자 그렇게 경험을 한 데 모은 후 생겨나는 새로운 그 무엇인데, 이러한 경험들은 실체를 추구하거나 활동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경험이라 할 수도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험의 집적은 自覺이나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인은 그저 피동적으로 그것들의 변화를 거들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련·집중·피동 등은 모두 실제적인 경험과는 다른 “시적 상상”에 관한 개념들이다. 리차즈는 「상상」에서, 시적 상상은 유기적인 종합적 능력을 가지며, 상상은 일체의 예술 속에서 뒤섞이고, 관련 없는 각종 충동을 한 데 엮어 단일하고 체계적인 반응을 이루어 낼 때 현저히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시적 경험」에서, 언어의 운용에 있어서 시는 과학과 상반된다고 했다. 확실하고 정확한 사상의 생성은 언어의 논리적인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억양·리듬·운율 등이 우리의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의 흥미가 필요로 하는 적절하고 이상적인 사상을 가려 낼 때 생성된다는 것이다.

4. 〈현대시 극화〉에서 언급한 바 “사상의 요소들을 융합하고, 사물의 심층과 본질을 자신의 경험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자신의 내면을 살살이 살피 외계 사물의 본질과 한 데 어우른다는 것은 릴케의 《형상집》에서 비롯한다. (2)위트·知的 요소·언어·비유·생동성과 內的 침잠 등은 향전 시기 오든의 작품에서 비롯된다. (3)詩劇의 방식은 1935년을 전후한 엘리엇 등의 詩劇 창작에서 비롯한다.

5. 袁可嘉의 “희극주의 비평이론”을 형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용어

의 내원은 다음과 같다.

(1)“극대화된 의식형태”: 리차즈는 「상상」에서, 인생의 가치가 높고 낮음은 순전히 무게가 다른 충동을 조정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충동이 조정된 후의 상태를 가리켜 태도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 상태다. 극대화되고 가장 우수한 충동을 조화해내는 정신 상태야말로 인생의 최고 경지이며, 이것이 곧 리차즈의 이른 바 “극대화된 의식상태”의 함의로서, 그는 예술이나 시의 창조는 모두 이러한 기능을 갖는다고 여겼다.

(2)위트: 엘리엇과 리차즈가 모두 충분한 해석을 가하고 있는 용어다. 앞서 인용한 엘리엇의 「현학과 시인」은 독자들도 주지하는 바이며, 리차즈는 「상상」과 「시적 경험」을 통해 이 개념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袁可嘉는 이들의 연구를 귀납하여, “위트”란 특정한 상황에 직면한 작가가 그 같은 상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위트는 시에 뜻밖의 생동감과 풍성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3)풍자성: 리차즈는 「상상」에서 어떤 종류의 시는 절대로 풍자적인 태도로 감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키이츠의 “너의 입술은, 반짝이는 행복”과 같은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 때의 풍자란 대립적이며 보완적인 충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왜 풍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시가 최상의 시가 아니라 최상의 시가 갖는 특징으로 항상 풍자가 곁히는 지를 설명해준다. 袁可嘉 선생은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하고 있다. 즉, 풍자성은 일종의 욕망이자 心情으로, 시인은 자신의 태도를 개진할 때 상반되면서도 相補的인 태도를 희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질적인 요소를 획득하는 것이며 시의 주요한 정서적 요소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것은 위트와 다르다. 위트는 이질적인 요소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것인데 반해 풍자성은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쟁취하는 것이다.

글이 너무 장황해진 듯 하다. 끝으로 袁可嘉 시론의 독창성과 탁

월한 기여를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1. 서구 시의 조류를 따르면서도 중국 詩壇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점이다. 서구 시 조류에 대한 그의 추종은 대부분 예술 자체에 대한 연구였으며, 또한 매우 전문적인 것이었다. 그는 당시 詩壇의 폐단을 논할 때 급소를 찌르는 듯한 따끔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견해 또한 매우 독창적이었다. 타산지석이라 했는데, 袁可嘉 선생이야말로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 40년대 詩壇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소멸되지 않는 가치를 갖게 되었다.

2. 리차즈의 이론 저작들은 너무도 난해하다. 리차즈는 1930년대를 전후로 北京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서 당시 李安宅, 吳世昌 등 많은 이들이 그로부터 배웠다. 袁可嘉는 이 같은 경력을 지닌 리차즈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해석을 가했을 뿐 아니라 중국 詩壇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3. 袁可嘉 선생은 풍부한 연원과 배경 하에서 그들 이론의 내용을 編譯하거나 소개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깊이 있는 이해와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로써 중국 詩壇과 현대시 발전에 끼친 그의 공헌은 지극히 크다 하겠다. 예를 들면 상상의 논리에 대한 리차즈나 엘리엇의 논술이 다소 산만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袁可嘉 선생은 적절하고 구체적인 귀납 과정을 통해 소위 상상의 논리라는 것은 오로지 詩情이 연속적인 이미지를 거쳐 얻어내는 변화 무쌍한 논리로서 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상상의 논리는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한 데 엮어내어 시에 더욱 깊고 확장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엘리엇의 장편시를 해석하면서, 이들 시속에 표현된 것은 자취를 찾을 수 없으나 두드러지는 편린이거나 한 행 또는 하나의 이미지를 확대한 숨겨진 내지는 깊어진 어떤 정서의 기복 또는 요동, 가속화된 어떤 관념의 변증적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리차즈의 이론으로 穆旦의 시 〈시대유감 時感〉에서 相反相輔하는 두 가지 사상적

주류는 매 절구마다 서로 교착되고 층층이 침투해있다고 해석했으며, 杜運燮의 〈캠프 露營〉와 〈달 月〉에는 그 감각곡선과 복잡한 곡절 그리고 간접성·우회성·암시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매우 치밀하고 독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4. 당시 중국 시단의 “感傷”과 “정치 비애감 政治感傷性”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개인 문학 人的文學”과 “대중문학 人民的文學”에 대한 탁월한 분석, 회삽한 토론 및 40년대 문학비평에 있어 출현한 몇몇 문제들에 대한 독창적 견해는 특히 오늘에 이르러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 하겠다.

20世纪中国新诗史料工作述评

劉福春*

20世纪过去了，我们很有幸能站在今天来面对刚刚逝去的上个世纪的中国新诗。在动荡不安的20世纪里，中国新诗从诞生到成长经历了种种曲折，留下了无比丰富的新诗史料，但也使史料的收集、整理成为一个难题。本文拟就中国近一个世纪的新诗史料工作进行粗略的梳理，并对现状做出一些初步的分析。

一

如果追溯中国的新诗史料最初的工作，或许要从1920年1月由新诗社编辑部编辑、新诗社出版部在上海出版的《新诗集》（第一编）谈起。这部我们现今见到的出版最早的新诗集也是新诗史料工作的第一个成果。首先是这部新诗集的编者有很明确的“因为要研究新诗”和“汇集几年来大家试验底成绩”¹⁾的编辑目的，其次是所收集的范围较广，并在每首诗后注明出处。所收103首诗共来自20余种报刊，这些报刊除《新青年》、《新潮》等影响大的之外，有不少像《新空气》、《黑潮》、《女界钟》等现今已很难见到。这些报刊上面所发表的部分诗作因这部诗集得到了保存，使得我们今天重新面对这段历史的时候，可以较真实、完整地看到新诗最初的足迹，也由此可知当时对于新诗的提倡，并非仅仅是《新青年》等几个刊物孤立的运作。从1918年1月15日《新青

* 社会科学院 文学研究所

1) 见《新诗集》序《吾们为什么要印〈新诗集〉？》。

年》上发表胡适、沈尹默、刘半农的9首白话诗，到这部诗集出版才仅仅两年的时间，可见新诗史料收集整理工作起步还是比较早的。紧接着，同年8月许德邻编的《分类白话诗选》由崇文书局在上海出版，该书一名《新诗五百首》，实收诗233首（组）。阿英认为：“此集为初期新诗之最完备的选集，各主要杂志，主要报纸上的著作，网罗靡遗。就资料言之，此集当为最佳。”²⁾ 1921年3月胡怀琛编的《尝试集的批评与讨论》由上海泰东书局出版，该书收有胡怀琛《尝试集批评》、吴天放《评胡怀琛尝试集正谬》等当时讨论《尝试集》的文章和讨论的通信，是我国第一部新诗作品的评论集，保存了一批研究胡适的早期资料。1922年8月北社编的《新诗年选》（一九一九年）由上海亚东图书馆出版，这是最早的一本年度新诗选集，展示了新诗在1919年的成绩，也开了新诗年选之先河。

在这样短短的几年时间，新诗史料的收集就能有如此的成绩是应该庆幸的。当然，从严格的意义上讲，以上的编辑工作大多数并不是以收集史料为目的，只是客观上起到了保存史料的作用，然而毕竟有了一个良好的开始。从单纯的史料工作来讲，新诗书目的编撰应该是一个重要的方面。新诗书目的收集整理最初所见是在1933年9月出版的王哲甫的《中国新文学运动史》一书中，该书第十章附录有《新文学创作书目一览》，其中有新诗集100种。这之后，1935年6月25日出刊的《诗帆》第2卷第5-6号曾刊出《诗册编目》；1936年2月由上海良友图书印刷公司出版的《中国新文学大系》对新文学第一个十年进行了全面的梳理，其中有朱自清编选的《诗集》卷和阿英编选的《史料索引》卷，《史料索引》卷在《卷五·创作总目》中收录有新诗集的书目，而且每本诗集都有细目。1937年1月《文学》第8卷第1号刊出新诗专号，这本厚达299页的带有总结性的专号除刊有茅盾《论初期白话诗》、穆木天《郭沫若的诗歌》、石灵《新月诗派》等诗论外，还刊出曲鸿、韩学勤、柳倩合辑的《新诗集编目》，编目共收录诗集400余种，展示了此前新诗创作的

2)见《中国新文学大系·史料索引》第296页，上海良友图书印刷公司1936年2月出版。

成绩。除了新诗书目的编撰，还应提到的是刘半农1933年编印的《初期白话诗稿》³⁾，该书影印了新诗初期胡适、周作人等一批新诗手稿，是非常珍贵的史料。以上这些都显示了新诗史料工作的良好发展态势。

然而很快新诗史料工作就停顿下来，其原因无疑是抗日战争的爆发。而这之后的战争不仅仅是停止了新诗史料的工作，更严重的则是对新诗史料的直接毁坏，使得以后的工作难度大大增加。从抗战爆发到1949年，有关新诗史料的工作就所见只有孙望、常任侠编了《现代中国诗选》和孙望编了《战前中国新诗选》以及开明书店出版了《闻一多全集》⁴⁾。此外，1944年9月出刊的《诗领土》第4号曾刊出萧雯的《征求资料小启》，小启讲：“最近想干一件很傻劲的事，就是编辑一部《中国新诗总目录》，把自胡适的《尝试集》以来各家刊印的诗集，作一详细的目录，虽则已经草就一个大纲，可还不知那一天可以完工，而且编好了有没有机会得以出版，那些且不管它，我知道这是件对于中国新诗有意义的工作，至少也是新诗爱好者的珍贵参考书；且做第一步事，就是着手搜罗调查征求各项资料，然后加以整理，可是这工作似乎不是个人的能力所能胜任，因此很希望《诗领土》的同人帮助我一同来进行，请先从自己藏书中所有的，及看到的知道的各种诗集及新诗刊物里将她们的：著译者，书名，出版时期，书局名称，印行数量，当时定价，页数（请以Page计算），开本，内容简述（如该书共载诗作若干首及附作，或译某国某人诗各若干等）以及其他种种，各项抄列表格，在这里一定会给我许多参考的资料。”这是一件很有意义的计划，可惜的是以后未能见到任何成果和消息。

1949年后，中国的新诗史料的工作应该有一个重新的开始，然而事实却并不乐观。在中国大陆，所能见到的不是很多，只有鲁深编了《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五四以来新诗集简目补遗》和臧克家编了《中国新诗选》（1919-1949）、魏巍编了《晋察冀诗抄》以及诗

3)该书由北平星云堂书店刊印。

4)《现代中国诗选》南方印书馆1943年7月出版，《战前中国新诗选》绿洲出版社1944年10月出版，《闻一多全集》1948年8月出版。

刊编辑部编了四集《新诗歌的发展问题》等⁵⁾，而且这些工作从史料的角度看问题还不少，如《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所收诗集都没有注明出版时间。从现有的资料看，有关新诗史料的工作并非无人去做。1950年6月南京市诗歌工作者联谊会举行过一次诗歌展览会，共展出新诗书刊698册，成绩相当可观⁶⁾。这次展览，曾编有一份目录，但后来并没有发表或出版。1957年中国科学院文学研究所现代文学组曾“根据本所图书室，北京大学图书馆，清华大学图书馆，北京图书馆，作家协会图书室，文学讲习所图书室，文化部图书室等处之卡片，并参考中国新文学史，中国出版史料，全国总书目及一些私人藏书编成”《中国新诗书目初稿》（1920-1949）⁷⁾，也只是油印征求意见，未能正式出版。

那是一个不需要史料的年代，史料的选编也成了“以政治为标准”的选择。像前面提到的臧克家选编的《中国新诗选》（1919-1949），该书的编辑目的是“为了帮助青年读者丰富文学知识，了解‘五四’以来中国新诗发展和成就的概况”，并“主要介绍一九一九年到一九四九年中国新诗创作中一些比较具有代表性的诗人和作品”⁸⁾，然而书中没有选入胡适

5)《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收入张静庐辑注的《中国出版史料补编》，中华书局1957年5月出版；《五四以来新诗集简目补遗》收入张静庐辑注的《中国现代出版史料丁编》，中华书局1959年11月出版；《中国新诗选》中国青年出版社1956年8月出版；《晋察冀诗抄》中国青年出版社 1959年3月出版；《新诗歌的发展问题》四集均由作家出版社出版，出版时间为第一集1959年1月，第二集1959年9月，第三集1959年12月，第四集1961年12月。

6)见陈山、孙望、赵瑞蕙《南京市第一届诗歌展览》，载1950年8月10日《文艺报》第2卷第10期。据该文介绍，此次展览陈列出来的诗刊书籍共计814册，除关于屈原研究和楚辞的一些书刊外，新诗书刊有698册，其中诗刊129册（包括报纸副刊的合订本），单行集子475册，理论30册，译品64册。

7)《中国新诗书目初稿》（1920-1949），中国科学院文学研究所现代文学组1957年编印，引文见陈尚哲《几点说明》。中国科学院文学研究所现代文学组现为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现代文学研究室。

8)《关于编选工作的几点说明》，见《中国新诗选》第312页，中国青年出版社1956年8月出版。

的诗,也没有徐志摩的诗。⁹⁾不重视史料,或无视史料,新诗史的研究便成了一种围绕着政治运动的随意的和不断更改的写作。像该诗选的代序《“五四”以来新诗发展的一个轮廓》,最初在论述艾青时这样写道:“在抗战初期收获较大,成绩最好的是艾青。他连续发表了许多优秀的诗篇,发生了很大的影响。这些诗,歌颂了中国士兵的英勇的大无畏精神,但不是概念化的或口号的而是通过了具体的人物形象的描写,在这具体描写里,沁透着诗人的真实的爱国主义的思想和情感。”“艾青的诗,采取了‘自由诗’体的表现形式。这种形式虽然在‘五四’时期就普遍的被应用着,但艾青的语言比‘五四’时期的新诗语言在艺术的成就上却高得多了。”¹⁰⁾而这些论述到1962年又改成:“艾青在抗战以前写过《大堰河》。这个集子,表现了他反帝和同情农民的思想情绪。抗战以后他接连出版了《他死在第二次》、《向太阳》、《火把》等诗集。他以一个小资产阶级知识分子追求光明、歌颂抗战的热情,曾经在向往革命的青年读者中起过一定的作用。他利用自由体的形式,鼓吹‘诗的散文美’。他有他自己的风格。他的作品受过法国象征派的影响,有的诗篇,流于晦涩。”¹¹⁾在那早晨还是著名的诗人,晚上却成了万恶的“敌人”的变幻莫测的时代,这样的改写是司空见惯的。这种对新诗史的任意“改写”或“重写”,还有什么史料工作可言。更有甚者,在那个年代史料往往还会成为诗人的“罪证”。比如1955年5月13日《人民日报》公布的《关于胡风反党集团的一些材料》,就是胡风的一些书信;从此以后,为了免遭不测,多少诗人的书信和日记没有损在战火之中却不得不毁于诗人自己之手,新诗史料又一次遭到毁坏,而“史无前例”的“文化大革命”开始后,新诗史料工作更是雪上加霜。

而在台湾新诗史料工作也并非顺利,一是原始资料缺乏,再是限制太多,“几乎所有来自大陆的东西都成为禁忌”¹²⁾,很多大陆诗人的作品

9)此书1957年3月再版本补入徐志摩的《大帅(战歌之一)》和《再别康桥》诗二首,但仍没有选入胡适的诗。

10)见《中国新诗选》第25-26页,中国青年出版社1956年8月出版。

11)见《在文艺学习的道路上》第24页,上海文艺出版社1962年9月出版。

12)痲弦《中国新诗研究·自序》,洪范书店有限公司1981年1月出版。

要改換署名才能出现在报刊上。比如1979年7月10日台北《联合报·联合副刊》刊出的“抗战诗选”，其中有一首杜运燮的诗《滇缅公路》，但作者却写成了“杜宇”。然而在这种情况下，一些有远见的诗人还是开始了新诗史料的垦荒工作。1966年1月《创世纪》第23期开始刊出《新诗史料》专栏，痲弦先后在上面介绍了废名、朱湘、王独清、孙大雨、辛笛、绿原、李金发、康白情等诗人。1975年12月《创世纪》第42期起又连续发表痲弦编的《民国以来出版新诗集总目初编》、《民国以来新诗总目初编》（诗刊部分）和《中国新诗年表》（1894-1949）。虽然这些资料存在着很多不足之处，但在那种困难的情况下已实属不易。痲弦后来谈道：“当时我之所以从事这项工作，主要是觉得，由于战乱，使中国新文学的传统产生了前所未有的断层现象；”尤其是1948年以后，“三、四十年代作家的作品与资料极为稀少，年轻的一代，对那个时代的诗作几乎没有任何的认识，这对我们承继、发扬与创新文学传统的使命而言，并不是件有利的事。因此我以为有把自己多年的珍藏公诸同好的必要；”而对于大陆的作家，“也希望能藉这番钩沉的工作，彰显他们的文学业绩，并兼致我的怀念与同情。”¹³⁾

70年代末，特别是进入80年代，新诗史料工作开始了一个崭新的阶段，在大陆可以说是出现了热潮。其中规模较大的有：1978年，由杭州大学和苏州大学发起并串联其他院校开始编辑《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丛书，1981年起，又与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协作，丛书被列为国家资助的重点科研项目；1979年，由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现代文学研究室发起编辑《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分为《中国现代文学运动、论争、社团资料丛书》、《中国现代作家作品研究资料丛书》、《中国现代文学书刊资料丛书》甲乙丙三种，并也列为国家资助的重点科研项目。这两个大型项目中，均有很多诗人的研究资料专集，¹⁴⁾ 这些专集的内容包括诗人生平、创作自述、研究文章选辑、著

13)痲弦《中国新诗研究·自序》，洪范书店有限公司1981年1月出版。

14)《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中有：《贺敬之专集》（王宗法、张器友编，江苏人民出版社1982年5月）、《艾青专集》（海涛、金汉编，江苏人民出版社

译系年及研究资料目录索引等,是研究诗人的重要资料。《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中的《中国现代文学书刊资料丛书》还出版有《中国现代文学期刊目录汇编》和《中国现代文学总书目》¹⁵⁾,前者里面有部分诗刊目录,后者其中有刘福春、徐丽松编的《新诗卷》。《新诗卷》收

1982年6月)、《闻捷专集》(贾植芳等编,福建人民出版社1982年9月)、《李瑛研究专集》(李泱、李一娟编,解放军文艺出版社1983年7月)、《田间研究专集》(唐文斌等编,浙江文艺出版社1984年4月)、《徐迟研究专集》(王凤伯、孙露茜编,浙江文艺出版社1985年2月)、《何其芳研究专集》(易明善、陆文璧、潘显一编,四川文艺出版社1986年3月)、《李季研究专集》(张器友、王宗法编,海峡文艺出版社1986年4月)、《张志民研究专集》(李泱等编,新疆人民出版社1991年3月)、《铁依甫江·艾里耶夫、克里木·霍加、艾里坎木·艾合坦木研究合集》(耿金声编,新疆人民出版社1991年3月)等。

《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中国现代作家作品研究资料丛书》中有:《蒋光慈研究资料》(方铭编,宁夏人民出版社1983年7月)、《王统照研究资料》(冯光廉、刘增人编,宁夏人民出版社1983年10月)、《冰心研究资料》(范伯群编,北京出版社1984年12月)、《李广田研究资料》(李岫编,宁夏人民出版社1985年2月)、《刘半农研究资料》(鲍晶编,天津人民出版社1985年2月)、《刘大白研究资料》(萧斌如编,天津人民出版社1986年5月)、《闻一多研究资料》(许毓峰等编,北岳文艺出版社1986年7月)、《俞平伯研究资料》(孙玉蓉编,天津人民出版社1986年7月)、《郭沫若研究资料》(王训昭等编,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6年8月)、《周作人研究资料》(张菊香、张铁荣编,天津人民出版社1986年11月)、《李季研究资料》(赵明、王文金、李小为编,陕西人民出版社1986年11月)、《徐志摩研究资料》(邵华强编,陕西人民出版社1988年1月)、《柯仲平研究资料》(刘锦满、王琳编,陕西人民出版社1988年1月)、《胡适研究资料》(陈金淦编,北京十月文艺出版社1989年8月)、《臧克家研究资料》(冯光廉、刘增人编,甘肃人民出版社1990年9月)、《绿原研究资料》(张如法编,河南大学出版社1991年4月)、《冯文炳研究资料》(陈振国编,海峡文艺出版社1991年8月)、《冯乃超研究资料》(李伟江编,陕西人民出版社1992年3月)、《光未然研究资料》(刘可兴编,陕西人民出版社1993年12月)等。

15)《中国现代文学期刊目录汇编》天津人民出版社1988年9月出版,《中国现代文学总书目》福建教育出版社1993年12月出版。

彙1920年至1949年9月出版的新詩集、散文詩集、詩劇等，並彙有每本詩集的詳細篇目。除了以上這兩個項目，1978年還創刊了專門刊登史料的刊物《新文學史料》，至2000年底已出版89期，其中刊出了大量新詩史料。

1981年7月辛笛等著的詩選《九葉集》由江蘇人民出版社出版，同年8月綠原、牛漢編的詩選《白色花——二十人集》又由人民文學出版社出版，這兩本帶有流派色彩的詩選產生了很大的影響。隨著新文學社團、流派的研究越來越受到重視，有關社團、流派的資料書籍也不斷編輯出版，大型一些的有錢谷融主編的《中國新文學社團、流派叢書》和人民文學出版社出版的《中國現代文學流派創作選》叢書，其中都收有不少新詩社團、流派的資料和詩選¹⁶⁾。此外，其他的新詩流派詩選及當代各種新詩社團的詩選就更多。

那是一個重新開始的年代，隨着一個個錯案的糾正，已經被改寫的新詩史面臨着又一次地改寫，史料工作不能不提到日程上來，幾經破壞的新詩史料開始重新建設。70年代末，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現代文學研究室組織全室力量編輯《中國現代文學創作選集》，其中有《中國現代新詩選》十卷。那是一次大規模地“打撈”工作，在當時引起很多詩人的注意。到80年代初選編完成，共選入400多位詩人的2000余首詩作，遺憾的是完成後未能馬上出書，1996年10月才由北岳文藝出版社題名《中國現代經典詩庫》出版。為補新詩史研究和教學的需要，上海書店出版了《中國現代文學史參考資料》叢書，人民文學出版社出版了

16) 《中國新文學社團、流派叢書》由華東師範大學出版社出版，有關新詩社團的有：《湖畔詩社評論資料選》（王訓昭編，1986年12月）、《九葉之樹長青——“九葉詩人”作品選》（王聖思編，1994年10月）、《一代詩風——中國詩歌會作品及評論選》（王訓昭編，1996年3月）、《“九葉詩人”評論資料選》（王聖思編，1996年10月）等；《中國現代文學流派創作選》叢書有《現代派詩選》（藍棣之編，1986年5月）、《〈七月〉〈希望〉作品選》（吳子敏編，1986年7月）、《象徵派詩選》（孫玉石編，1986年8月）、《新月派詩選》（藍棣之編，1989年9月）、《九葉派詩選》（藍棣之編，1992年2月）等。

《中国现代文学作品原本选印》丛书，这两套丛书按原本影印或重排出版了几批现代文学史上早已绝版的书刊，其中有很多新诗史上珍贵的资料，像《尝试集》、《分类白话诗选》、《湖畔》、《新月诗选》等。很多出版社还编辑出版了各类文学书系，如上海文艺出版社的《中国新文学大系》，中国文联出版公司的《中国新文艺大系》，重庆出版社的《中国解放区文学书系》和《中国抗日战争时期大后方文学书系》等，其中都有诗歌卷。此外，诗人的全集、文集的编辑和出版更是丰收，已出版的有《郭沫若全集》、《何其芳文集》、《臧克家文集》、《朱自清全集》、《艾青全集》、《闻一多全集》、《俞平伯全集》、《胡风全集》、《戴望舒全集》、《冯至全集》、《郭小川全集》等¹⁷⁾。以上这些工作都从不同方面对新诗资料进行了发掘。

在台湾，新诗史料的收集、整理工作也是越来越受到重视。1984年10月台湾中央图书馆主办“现代诗三十年展览”，展出有诗集、诗刊、诗人资料等，并编印了《现代诗三十年展览目录》。1990年6月1日出刊的《文讯》总第56期刊出“抢救现代诗”专栏，发表有张默《呼吁筹设“现代诗特藏室”》等文。1995年3月，由文讯杂志社主办的“台湾现代诗史研讨会”召开，其中专门举行一次“新诗史料问题”座谈。值得高兴的是，在台湾诗坛上活跃着一批新诗史料的辛勤耕耘者，而且都有不凡的成绩。除前面提到的痙弦外，张默更是一位热心者，他编的《台湾现代诗编目》1992年5月由尔雅出版社出版后深受诗人和新诗研究者、新诗爱好者的喜爱，1996年1月又修订再版。这之后，张默还与张汉良主编有《创世纪四十年总目》¹⁸⁾，1998年6月他的《梦从桦树上跌下来——

17)《郭沫若全集》文学编人民文学出版社1982年起出版，《何其芳文集》人民文学出版社1982-1984年出版，《臧克家文集》山东文艺出版社1985-1994年出版，《朱自清全集》江苏教育出版社1988-1998年出版，《艾青全集》花山文艺出版社1991年7月出版，《闻一多全集》湖北人民出版社1994年1月出版，《俞平伯全集》花山文艺出版社1997年11月出版，《胡风全集》湖北人民出版社1999年1月出版，《戴望舒全集》中国青年出版社1999年1月出版，《冯至全集》河北教育出版社1999年12月出版，《郭小川全集》广西师范大学出版社2000年1月出版。

诗坛钩沉笔记》又由尔雅出版社有限公司出版。林焕彰1976年2月就编辑出版了《近三十年新诗书目》¹⁸⁾，后又编有《中国新诗集编目》1980年6月由成文出版社出版。麦穗在报刊上发表了大量有关新诗史料的考辨文章，1998年5月结集为《诗空的云烟——台湾新诗备忘录》由诗艺文出版社出版。秦贤次的史料工作不局限在新诗，然而在新诗史料收集方面做了很大贡献，他与王宏志合编的《诗人朱湘怀念集》1990年6月由志文出版社出版。赖益成主要工作不在史料，然而他编辑出版的《葡萄园目录》²⁰⁾以其详实完备得到好评。此外，台湾的诗社也普遍重视新诗史料的整理工作，大多都编辑出版有诗社的诗选和诗刊的总目录，所见就有《笠诗刊三十年总目》²¹⁾以及前面提到的《创世纪四十年总目》、《葡萄园目录》等。还应提到的是，在香港，《香港文学》等刊物也刊登了不少新诗史料，司马长风的《中国新文学史》中也附录有《收获期诗人诗集录》、《战时战后诗人诗集录》²²⁾等。

二

20世纪的新诗史料的工作所收获的成果是相当丰富的，以上所讲到的只是其中一小部分，还有大量的没有提及，然而我们也不能不看到，新诗史料工作还存在着许多问题。这问题大致有三个方面：一是还有大量的初步收集、整理工作没有做，二是已出版的成果中问题较多，三是对史料进行深入研究和进一步开掘的工作还少有人问津。

我们先来谈第一个问题。在20世纪，新诗史料的收集整理工作虽然

18)创世纪诗杂志社1994年9月出版。

19)书评书目出版社出版。

20)诗艺文出版社1997年11月出版。

21)吴政上、陈鸿森编，笠诗刊社1995年10月出版。

22)《收获期诗人诗集录》见《中国新文学史》中卷，昭明出版社1978年11月再版；《战时战后诗人诗集录》见《中国新文学史》下卷，昭明出版社1978年12月初版。

投入了不少的人力和物力,进行了广泛地开垦,但仍有大量的空白需要填补。第一,作为新诗史料的基本建设还不完整,新诗出版物目录的编撰有很多空缺。1949年前出版的新诗集已经有了较详细的书目,但诗刊完整的目录还没有;1949年后出版的新诗书刊台湾出版了张默的《台湾现代诗编目》,而大陆和香港还没有出版过这方面完整一些的编目²³⁾;在台湾《创世纪》诗杂志、《笠诗刊》、《葡萄园诗刊》都出有总目录,可在大陆只见1997年1月重庆出版社出版的《中国·星星四十年诗选》书后附有《〈星星〉四十年总目》,而像《诗刊》这样影响大、出刊长的刊物总目录的编辑也还没有做,倒是日本学者岩佐昌璋主编了《诗刊(1957-1964)总目录·著译者名索引》1997年11月在日本的中国书店出版。除书刊外,还有大量的诗报和报纸上的诗副刊、诗专版及期刊诗专号都有待收集整理,如《北平晨报》上的《诗与批评》、《大公报》刊出的《诗歌特刊》等,这些新诗史上重要的诗副刊应该有较完整的编目。

第二,重要诗人和作品的研究资料还需要建设。虽然在《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丛书和《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中都出版了不少诗人的研究资料专集,但应该看到,这并不是新诗史的专门资料,而且所选入的作家也是依据70年代末或80年代初的文学史观念选定的,再加上后期出版越来越困难等原因,像李金发、戴望舒、冯至、卞之琳、穆旦这样一些在新诗史上有影响的诗人的资料或是没有列入丛书,或是列入没能出版。重要作品的研究资料专集出版的就更少,大陆所出版的未见到,台湾出版的见到的只有侯吉谅主编的《洛夫〈石室之死亡〉及相关重要评论》和罗门编著的《〈麦坚利堡〉特辑》等几种²⁴⁾。还有诗人的年谱之类的这样研究诗人的重要资料也不够,作为专书已出版的有《郭沫若年谱》、《胡适之先生年谱长编初稿》、《刘半农年谱》、《闻一

23)本人编有包括当代新诗书刊在内的《新诗书刊总目》,此工作曾列入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的重点科研项目并已完成,但至今未能出版。

24)《洛夫〈石室之死亡〉及相关重要评论》汉光文化事业股份有限公司1988年6月出版,《〈麦坚利堡〉特辑》文史哲出版社1995年4月出版。

多年谱长编》、《朱自清年谱》等²⁵⁾，很多诗人还缺乏详实的资料。重要诗人的作品辑佚、钩沉工作也需进一步努力，虽然这方面工作已做了不少，出版了《徐志摩诗集》（全编）、《臧克家集外诗集》、《何其芳佚诗三十首》、《戴望舒诗全编》、《穆旦诗全集》以及诗人的全集、文集等²⁶⁾，但从面和点上仍多有欠缺与遗漏。

第三，新诗社团、流派资料也不充分。前面所讲到的这方面的资料以作品选居多，作为史料仍有不少有待收集整理，比如象征派、现代派等，都没有专门的资料出版。而且所注重的也多为1949年前的社团、流派，像湖畔诗社、中国诗歌会等；1949年后出现的如台湾的现代诗社、蓝星诗社，大陆的“白洋淀诗歌群落”、“非非”、“他们”等，则注意得不够，所见只有《沉沦的圣殿——中国20世纪70年代地下诗歌遗照》²⁷⁾等几种。还有一些特殊时期的新诗资料，像“反右”、“文革”等。对这些时期诗歌应该进行搜集和清理了，特别是“文革”时期的诗歌。“文革”诗歌是特殊年代的特殊产物，也是前十七年诗歌发展到极端的一种形态；这一时期的写作大部分远离了诗歌，但也有一部分写作又重建了诗歌的尊严。它是结束，也是开始，是新诗发展的一个非常重要时期。虽然时间离现在并不算远，可资料收集也不容易。

第四，在时间上是重现代轻当代。这一点前面也谈到了，不过还想专门提一下。从整个新诗史料建设的情况来看，似乎是时间越远的越清楚，越近的反而越模糊。举一个例子，“朦胧诗”离今天并不算远，但其

25)《郭沫若年谱》龚济民、方仁念编著，天津人民出版社1982年5月出版；《胡适之先生年谱长编初稿》胡颂平编著，联经出版事业公司1984年5月出版；《刘半农年谱》徐瑞岳编著，中国矿业大学出版社1989年11月出版；《闻一多年谱长编》闻黎明、侯菊坤编，湖北人民出版社1994年7月出版；《朱自清年谱》姜建、吴为公编，安徽教育出版社1996年5月出版。

26)《徐志摩诗集》顾永棣编，浙江文艺出版社1983年7月出版；《臧克家集外诗集》陕西人民出版社1984年4月出版；《何其芳佚诗三十首》罗涵编，重庆出版社1985年1月出版；《戴望舒诗全编》梁仁编，浙江文艺出版社1989年5月出版；《穆旦诗全集》李方编，中国文学出版社1996年9月出版。

27)张明策划、廖亦武主编，新疆青少年出版社1999年4月出版。

中究竟应包括哪些主要诗人一时还不易说清楚。芒克无疑应该是其中重要的一位，1978年他与北岛共同创办了朦胧诗最重要的刊物《今天》，并在上面发表大量优秀诗作。但是在所见的《朦胧诗选》中，最早的一本辽宁大学中文系1982年出版的《朦胧诗选》，舒婷选了29首，北岛选了15首，而芒克只选了1首；最流行的一本春风文艺出版社1985年出版的《朦胧诗选》，北岛是27首，舒婷29首，芒克是3首。有趣的是南开大学出版社1988年出版的《朦胧诗·新生代诗百首点评》，朦胧诗一辑中没有芒克的诗作，而在新生代诗一辑中却选了一首。当然说起来这也属正常现象，史料工作本来就需要时间和积累，不过这些是否也说明当代新诗研究的史料意识还有待加强。我们不能只顾过去，虽然对过去欠得实在是太多。新诗史料工作应该改变“今天清理昨天的债，明天又偿还今天的钱”这种非良性循环，在进行历史的追踪同时，也要与当前保持同步的建设，不能总是亡羊补牢，失去了才认识到其重要。事实告诉我们，失去的很多是后来怎样努力也找不回来的。还有从我个人的经验，虽然新诗史料现代部分损失较大，可当代部分收集更加困难，主要是数量太大，资料太庞杂。特别是90年代以后各种渠道出版的新诗集、诗刊、诗报等，很多图书馆都不藏，还有地分大陆、台湾、香港多处，查找实在不易。

第五，诗人创作文本之外的资料收集和整理还不够，像诗人的日记、书信等出版得太少。这些资料收集整理难度比较大，一是损失严重，经过多次运动，不是被抄走就是被销毁；二是因为多种原因还不愿意公开或还不能公开；三是涉及大量的人和事，整理起来难度很大。

《新文学史料》陆续刊出了不少，已出版的诗人全集和作品集也收入了一些，但仍需进一步整理。诗人的日记、书信等有独特的史料价值，像《郭小川全集》所收的日记、笔记和书信，为研究诗人和诗史提供了其他文本不可能提供的丰富而真实的资料，出版后产生很大反响；牛汉的《命运的档案》²⁸⁾里所收的给胡风的信，其中有50年代初对一些诗人的批评，保留了那个时代不能公开发出的声音。

28) 武汉出版社2000年3月出版。

再谈第二个问题。检视已出版的成果不难发现其中的问题还是较多的。第一是所用多为第二手或第三手资料，很少能从原始资料开始，像鲁深的《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就是“参照《文学》七卷一期《新诗专号》柳倩、韩学勤、曲鸿等所辑之《新诗集编目》（该目录截止一九三六年六月）及其他书志并佐以个人藏书增补删节而成”²⁹⁾。这样一来往往是后者抄前者，前者一错后者跟着错，而且是越抄越错。比如王樵生的诗集《桃花底命运》，曲鸿、韩学勤、柳倩合辑的《新诗集编目》误为《桃花命运》，作者也误为王焦生，鲁深编的《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林焕彰编的《中国新诗集编目》和司马长风的《收获期诗人诗集彙》也都是王焦生《桃花命运》；叶菲洛的诗集《昨日之花》，《新诗集编目》误为《昨日之衣》，《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中国新诗集编目》和《收获期诗人诗集彙》又都是《昨日之衣》；南星的诗集《石像辞》，《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误为《石像群》，《中国新诗集编目》也是《石像群》；而臧克家的诗集《生命的秋天》、《生命的零度》到《中国新诗集编目》已变成《生》、《生命的零度》、《生命的叫喊》、《生命的秋天》四本。这些看上去只是个别文字上的谬误，却是“失之毫厘，谬以千里”，是错不得的——即使只错一两个字，其史料价值就大打折扣，失去其价值，甚至只能起误导的作用。当然讲起来史料工作也应该借鉴前人的成果，不能总是从零开始，而且原始资料查找起来困难实在是太大，有些也无法查到，但是要看到新诗史料的工作一直很不完善，很多工作不能不从头开始。

第二是文字错误太多。像我与杨匡汉编的《中国现代诗论》应该是使用率较高的一本书，1985年由花城出版社出版，到1991年已印刷过三次，最近校读了其中几篇，发现错误很多。如徐志摩的《诗刊弁言》、《诗刊放假》署名应为“志摩”³⁰⁾，可写成了“徐志摩”，这不能说全错，

29) 见《五四以来新诗集简目（初稿）》说明。

30) 广西民族出版社1991年7月出版的《徐志摩全集》关于《诗刊弁言》的题注也误为“署名徐志摩”。

至少是不准确。在《诗刊放假》一文中有一句很明显是不通的话：“但本刊既然暂行结束，我们正不妨为开篇是我唱的，这尾声（他们说）也得我来。”查原文才发现原来是“但本刊既然暂行结束，我们正不妨回头看看：究竟我们做了点儿什么？因为开篇是我唱的，这尾声（他们说）也得我来。”丢了一大段文字，这无疑是没能仔细校对造成的，其原因可能有多种，可没有按学术规范去下功夫认真操做不能不是主要病根。类似的错误其他的书中也存在，致使这些本应是给研究者带来方便的资料书籍，在使用时又不能不留几分小心。

第三是全集不全。一是资料散失，很难收集全，二是多种原因有些作品不能收入，三是即便收入也做大量删改。第一点不用多加说明，仅就第二点和第三点举两个例子。艾青50年代写过《什么“芽子”！》和《把奸细消灭干净》，这两首诗曾选入作家出版社1955年8月出版的《把奸细消灭干净——肃清胡风反革命集团讽刺诗选》，但1991年7月花山文艺出版社出版的《艾青全集》没有收入，其原因并不是没有发现而漏收，1982年6月出版的《艾青专集》中的《艾青著译目录索引》就有这两首诗，之所以没有收入一定有其他原因。此种情况其他全集中也有一些。还有的是即便收入也做了大量删改，比如冯至1958年写有《论艾青的诗》一文，最初收入《诗与遗产》一书由作家出版社1963年1月出版，1999年12月《冯至全集》由河北教育出版社出版，《诗与遗产》编入全集第六卷。编者说明讲：“在《诗与遗产》一书中，个别篇章在写作时曾受当时政治形势的影响，作者事后曾为此深感歉疚，但为了尊重历史的原貌，本卷仍照原样予以收录，只是对有关当时被错误定性的人和事的提法在文字上作了少许处理。”可将《论艾青的诗》一文与《诗与遗产》原书上的相对照，全集中所删文字有3000字左右，删掉100字以上的就有8处，最多一处删去1000多字。全集不全，这已是出版的多种全集的一个通病，1949年前去世的诗人还算好，以后去世的和还健在的诗人这方面的问题就多一些。经过多次运动，很多诗人都自觉和不自觉地写了后来“深感歉疚”的文字，无视或简单地对待都是不应该的。

我们来看第三个问题，新诗史料还需要进一步整理与开掘。第一，版本的校勘。在新诗史上，诗人的作品常常是先在报刊上发表，再编入集子，又编入选集和全集，每次编入由于艺术和思想的变化或适应各种运动的需要等原因，有些诗人要对作品做一些修改或对篇目进行增删，而且每次必经编辑之手有些也会删改，由此造成了新诗史上多种版本的复杂现象。像郭沫若的《匪徒颂》一诗，1921年收入《女神》初版本其中有一节是：

倡导社会改造的狂生，庾而不死的罗素呀！
倡导优生学底怪论，妖言惑众的哥尔栋呀！
亘古的大盗，实行“波尔显威克”的列宁呀！
西北南东去来今，
一切社会革命底匪徒们呀！
万岁！万岁！万岁！

1928年编入《沫若诗集》时前三行改为：

发现阶级斗争的谬论，穷而无赖的马克思呀！
不能克绍箕裘，甘心附逆的恩格斯呀！
亘古的大盗，实行共产主义的列宁呀！

前后改动很大。还有冯至的《十四行集》，这是诗人的重要诗集，也是新诗史上最优秀的作品，诗集问世后一直受到肯定。可是1955年9月《冯至诗文选集》出版，十四行诗不但一首未选，诗人还在该书序中称这些诗“受西方资产阶级文艺影响很深，内容与形式都矫揉造作”；而到了1980年8月《冯至诗选》由四川人民出版社出版，《十四行集》的27首诗又全部选入了这本选集。经编辑之手删改的有郑敏的长诗《第二个童年与海》，编入诗集《寻觅集》时“被删去一百多行，只成为一首数十行的小诗”³¹⁾。类似的例子还很多，这就使新诗版本的校勘显得尤

31) 见郑敏《闷葫芦之旅》，载《作家》1993年4月号；《寻觅集》，四川文艺出版社1986年5月出版。

为重要。但这方面的成果还不是很很多,就所见出版的有桑逢康编校的《〈女神〉汇校本》³²⁾,《郭沫若全集》和《冯至全集》中每篇作品也注明了最初出处和修改等情况,然而多数诗人的作品在选编时操作过于简单,没能更多地体现出后人的学术含量。总的来看版本问题重视得还不够,因此这方面的问题也不少,像《冰心研究资料》中的《冰心著译目录》,关于诗集《春水》写成:“新潮社,1923年5月初版。收入小诗182首。并收有《迎神曲》……等诗篇。”冰心的诗集《春水》是新潮社1923年5月初版不错,但初版本只收入小诗182首,此诗集的再版本我未见到,所见1927年1月第三版才“并收有《迎神曲》……等诗篇”,而且出版社也改为北新书局。还有胡风编的《七月诗丛》,初版本多由桂林南天出版社在1942至1943年出版,1947年改由上海希望社再版,但再版本版权页只标明初版的时间,没标明初版的出版社,于是不少研究者只见到再版本就认为初版也是上海希望社出版的。

第二,现有资料的考证。20世纪给我们留下了丰富的新诗史料,也为史料的收集和整理留下了很多难题。如诗人使用过的众多的笔名,新诗出版物的出版时间等等,有大量的问题都需要考证解决。这里所讲的还不完全是指新发现的资料,就是一些我们已经用熟的资料,或认为不成问题的资料仍有很多这方面的工作要做。比如第一本诗刊《诗》,不论是单篇文章还是新诗史专著很多都写到过,但是这刊物每一期的出版时间因为刊物的目录页与版权页所标明的不同,研究者各据一方也说法不一,这似乎还无人来考辨。我们看原刊,第1卷第1号目录页为1922年1月1日,版权页为1922年1月15日;第1卷第2号目录页为1922年2月20日,版权页为1922年2月15日;第1卷第3号目录页为1922年5月,版权页为1922年3月15日;第1卷第4号目录页为1922年7月,版权页为1922年4月15日;第1卷第5号目录页为1922年10月,版权页为1922年5月15日;第2卷第1号目录页为1923年4月,版权页为1923年4月15日;第2卷第2号目录页为1923年5月,版权页为1923年5月15日。前两期和最后的两期差别不是很大,问题较大是中间的三期。查这三期刊物中所刊登的文章的

32)湖南人民出版社1983年8月出版。

写作日期，第1卷第3号上的周作人《法国的俳谐诗》的序写于1922年3月31日，第1卷第4号上叶绍钧《诗的泉源》一文写于1922年5月17日，第1卷第5号上周作人《石川啄木的短歌》序写于1922年6月20日，由此来看，目象页所标明的时间大致正确。不过这是假设目象页和版权页有一方为正确，我们选用了“正确”的一说，如果两说都有问题呢？比如所见1922年2月1日《时事新报·文学旬刊》第27号的中缝广告，在《诗底第一期末目象》上注明出版日期既不是1月1日也不是1月15日，而是“一月二十日”，这还有更多的细致工作要做。

第三，以上所谈多是“死”文字，还有大量的“活”史料急待开发。这开发的意义至少有两个层面，一是存活于诗人及当事人头脑中的史实本身就是难得的资料，二是一个世纪复杂的因素，使我们能见到的文本或多或少都存在着一些问题，有一个潜文本需要发掘。关于前者不必多论述，下面仅就第二点多说几句。20世纪，特别是进入50年代后，翻来覆去的政治运动使诗人的写作离真实越来越远，至使“说真话”这一本应是诗人写作的底线却成了至今仍是一个很高的标准。很多的诗已经不再是心灵流出来的声音，诗之外的文本的真实度就更可想而知了。因此，要循着这些文本走进诗人的内心世界是非常困难的。很多文本造成了对那些年代的遮蔽，我们很难从中生动地还原出那些年代的复杂，所以挖掘文本下面隐藏着的更为复杂而真实的潜文本就更为重要，而这挖掘大多只能通过“活”史料进行开发才能进行。这方面的工作近十几年有了不少成果，很多诗人写下了回忆录，出版成专书的有《胡风回忆录》³³⁾等，《新文学史料》上面发表的更多。1994年5月《诗探索》编辑部曾组织过白洋淀诗歌群落寻访活动，之后该刊在1994年第4辑刊出宋海泉《白洋淀琐忆》等一组文章，产生了很大影响。还有对诗人有目的的访谈，不少报刊都发表过访谈录，出版成专书的有王伟明的《诗人诗事》³⁴⁾等。但总的来讲还需加强，我们应该看到这是一项只能今天做而明天做不了的工作，随着一批老诗人的故去，我们已经失去了很多机

33)人民文学出版社1993年11月出版。

34)诗双月刊出版社1999年8月出版。

会,一定不能再失去更多。有人提出“抢救”一词,非常适当,对此本人也有深切的感受。十几年前,我在图书馆里找到一本署名李村哲的新诗集《黑人》。“李村哲”是舒群用过的名字,而“黑人”也是他用过的一个笔名,于是我推测这是舒群的诗集。但从所见到的舒群研究资料来看,似乎从没有提到过他有诗集出版,于是我作了详细的笔记,准备当面向舒群请教。可是当我敲开舒群的家门时,舒群刚刚去世,问其亲属,都不很清楚。后来我写了《〈黑人〉——舒群的一本轶诗集》³⁵⁾一文,考证出这确是舒群所作,但仍一些问题说不清楚。如果稍早一点去见舒群可能问题就都能解决,只晚一点这些问题也许就成了永远的谜。当然,对这些“活”史料仍有一个辨别的问题,由于记忆、立场、人与人的关系和人性本身的缺陷等原因,潜文本而一旦转化为文本,也有一个是否真实的问题,仍然需要进一步考证。

三

以上分析了新诗史料工作的问题,无论是问题的出现,还是要解决这些问题,都说明确立这一学科的学术规范和建设一支新诗史料工作的专业队伍是势在必行。新诗史料工作是个年轻而又屡遭破坏的学科,学术规范的建立尤为重要。检视新诗史料工作的成果,不难发现其中很多还缺少最基本的学术规范。引文无出处、选文不注明版本是常见的现象,其中显示出的随意性更为突出。行文、用语随意致使行文前后不统一,用语有失客观、准确;随意删改更是不断造成谬误。出现这些问题大多并不是因为做不到,而是没能去做或做得不到位,说到底还是缺少一个必要的学术规范。像《闻捷专集》中的《闻捷小传》在写到闻捷去世是这样表述的:“在1971年初春含冤死去”。“含冤死去”一词主观成分太重,而“初春”这一时间也不精确,应为1月13日,这在收入该专集的文章中就清楚地写着,只是小传作者没意识到应该写准确。再如《冯至

35)刊《社会科学辑刊》1996年第1辑。

全集》第6卷所收的《论艾青的诗》一文，原文有一段是：

同样的情调，是：
 薄雾在迷蒙着旷野啊……
那首诗。

收入全集改为“同样的情调，是《薄雾在迷蒙着旷野啊……》那首诗。”只要去查一下艾青的诗集就能查出艾青没有《薄雾在迷蒙着旷野啊……》这首诗，这只是《旷野》一诗的第一句。一个简单地改动就造成了一个错误，严格地讲即使不错也是不应随意改动的。还有诗人的出生时间和出生地等更是不够规范，有的是有“年”没有“月”、“日”，有的是农历和公历不分、祖籍和出生地不分。像《中国大百科全书·中国文学》³⁶⁾，冰心的条目还比较准确，为“原籍福建长乐，1900年10月5日生于福州。”而祖籍浙江德清，生于江苏苏州的俞平伯却写成：“浙江德清人。1900年1月8日生。”前后体例也不统一。还有如《田间研究专集》对田间的介绍，只有“一九一六年生于安徽省无为县开城桥镇”，翻遍全书也查不到是1916年哪月哪日生的。作为一般的对诗人介绍只有年份或许也够了，可作为一本诗人研究资料专集，所缺不能不说是大遗憾。类似的例子还不少，由此可以看出规范的确立实在是非常必要。

随着学术规范的确立，加强新诗史料工作队伍并使之“专业化”也应该同样予以重视，只有这样才能确保这一工作做得更好。可是我们现在所面临的问题是，一是从事这项工作的人员越来越少，很多年轻的学者不愿意从事这项工作。前不久，有人给硕士研究生讲授现代文学史料学课程，曾问过今后谁愿意从事史料工作，或者选择史料工作方面的专题撰写学位论文，这些未来的学者中没有一个人作出正面回答。这从出版方面也可看出，在中国大陆新诗史料的书籍多在80年代出版，90年代有明显的下降趋势。二是从事这项工作的人员多是业余的，新诗史料的工作没有成为专业。这里讲的专业，并不是成果没有专业水准，而是没有将这工作作为专业来对待。我们来看一下从事新诗史料工作的人员情况。

36)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86年11月出版。

在台湾,有痙弦、张默、林焕彰、麦穗等一批新诗史料的工作者,但他们主要的身份是诗人,成就也主要在创作。在大陆,从事新诗史料工作的多为高校和研究机构的教学及研究人员,但多不专门研究新诗,也没有将新诗史料的收集、整理作为长期的“专业”来做,所做或是临时任务,或是其研究的副产品。像李伟江编有《冯乃超研究资料》,他在《编后记》中就讲:“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主持编辑《中国现代作家作品研究资料丛书》,我校中文系领导委托我负责编选《冯乃超研究资料》,我高兴地接受了。经过两年的努力,终于编成了这本书。”³⁷⁾显然是个“临时”任务。范伯群编有《冰心研究资料》,他在《编后记》就说“这本《冰心研究资料》可算是我们写作《冰心评传》的副产品。”³⁸⁾

这就出现了一个矛盾,需要人做,却不愿意去做;本来是一个需要长期积累的工作,反而成了“临时”和“业余”的工作。这项工作为什么很难吸引更多的人并形成一个专业队伍,我想从以下三个方面来讨论。

第一,史料工作细碎,需要积累,时间长,很难见成效。这一点前面已涉及到在此不用多说,只举几个具体的例子。赖益成主编的《葡萄园目录》只是一个诗刊的目录,编者自己讲“前后共花了笔者近五年的时间”³⁹⁾。作为个人研究资料专集,《俞平伯研究资料》也是“经过三年多的努力”才完成⁴⁰⁾。就是研究的副产品要成为一本资料专书,所需时间和难度也不小,比如前面讲到的范伯群编的《冰心研究资料》,他在《编后记》中这样写道:“原以为在写作《冰心评传》的同时,编选一本《冰心研究资料》,所费的时间与精力大概是毋庸太大的。殊不知一承担了这一任务,就觉得工作量也着实不容低估。举例说吧:《寄小读者》是印行过数十版的畅销书,可说是最易得的材料,为写《冰心评

37)见《冯乃超研究资料》第391页,陕西人民出版社1992年3月出版。

38)见《冰心研究资料》第495页,北京出版社1984年12月出版。

39)见《诗的历程——编后记》,见《葡萄园目录》第1003页,诗艺文出版社1997年11月出版。

40)见《俞平伯研究资料》第598页,孙玉蓉编,天津人民出版社1986年7月出版。

传》，我们也不知阅读过若干遍；但为了编选《冰心研究资料》，就得考查出这本书是1926年5月由北新书局初版，当时只收入通讯一至通讯二十七；到1927年四版时，冰心才写了《寄小读者四版自序》，并增加了通讯二十八及通讯二十九。为了要追根寻源，探究最早的版本，核对每篇文章的出处，就得四出奔走，上下求索，于是越编越感到诚惶诚恐，汗流浹背了，至今还觉得很不能令自己满意。又例如要搞一个‘作家著译系年目录’，这似乎是没有思想性的‘陈年流水帐簿’，但要搜集得作品全，时间准，出处明，无疏漏遗缺，实在是大不易的。特别是冰心这位有名望的老作家，在她的六十多年‘创龄’中在国内外发表的文章，可谓‘著作等身’；国内外对她的作品的评论文章也为数众多，面广量大。而这本资料集由于编者的孤陋寡闻，虽不能说挂一漏万，却可说是残缺不全。”⁴¹⁾ 其中的辛苦我想从事过这项工作的人都是经历过的。

第二，有了成果出版也难，出版困难，工作见效慢。经过千辛万苦，终于成书，可出版又成了难题，不能见书，几年的工作的成绩就体现不出来。资料书籍在出版社看来是没有经济利益的，而实际情况也确乎如此。我们从《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丛书和《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这两套大型项目来看，其中所见到的29种诗人研究资料当中，上万册的只有一种，多数在1000到2000册之间，最少的才500册⁴²⁾，而

41) 见《冰心研究资料》第495-496页，北京出版社1984年12月出版。

42) 《中国当代文学研究资料》中：《贺敬之专集》11500册，《艾青专集》8000册，《闻捷专集》7085册，《李瑛研究专集》6000册，《田间研究专集》8000册，《徐迟研究专集》4900册，《何其芳研究专集》1600册，《李季研究专集》3660册，《张志民研究专集》1200册，《铁依甫江·艾里耶夫、克里木·霍加、艾里坎木·艾合坦木研究合集》1200册。《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中：《蒋光慈研究资料》2800册，《王统照研究资料》1900册，《冰心研究资料》6400册，《李广田研究资料》2150册，《刘半农研究资料》2900册，《刘大白研究资料》1400册，《闻一多研究资料》1100册，《俞平伯研究资料》2310册，《郭沫若研究资料》5000册，《周作人研究资料》4000册，《李季研究资料》1130册，《徐志摩研究资料》1400册，《柯仲平研究资料》500册，《胡适研究资料》1510册，《臧克家研究资料》1000册，《绿原研究资料》

其中9种4000册以上的资料又都是1987年前出版。这样的印数怎能引起出版社的兴趣，因此出版常常是一拖再拖，像《郭沫若研究资料》1982年底完成，1986年8月才出版；《张志民研究专集》1986年5月已经制版，1991年3月才印出；《冯乃超研究资料》完成是在1984年，出版已是1992年3月；最可悲的是《胡适研究资料》，1984年完成到1989年8月才出版，出版时编者已经去世，看不到其多年辛苦的成果。这还是已经出版的，没能出版的就更多，就我知道《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就收有《李金发研究资料》、《艾青研究资料》等，有的早已编好，但至今还未出版。还有本人所承担的《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中国现代文学书刊资料丛书》中的《中国现代新诗总书目》最初计划是单独出版，而且还有项目的出版补贴，可经过多年寻访成书后出版社迟迟不出，最后不得不另找出版社与小说、散文等书目合在一起名为《中国现代文学总书目》才出版。以上所举还是有国家资助的重点科研项目，其他工作的情况更可想而知了。

第三，出版的史料成果学术地位不高或没有学术地位。前面所讲的成书难、出版难在其他的学术研究中虽程度有些不同但也一样存在，而怎样对史料成果进行学术评定可能是一个独特的问题。在一般的观念中，新诗史料工作或者说整个新文学史料工作还多作为拾遗补缺、剪刀加浆糊之类的简单劳动来对待。史料工作只是一般性的资料工作，没有进入学术研究范畴；成果一直属于一般性资料，不是研究成果，有些地方甚至连工作成绩都不算。比如有一高校的博士生在做一诗人研究，前不久对诗人有一访谈，做得非常好，可她告诉我这不能算学术成果，所以她的同学都不愿做这样的事。对此本人也感受很深。我这十多年一直在从事新诗史料的收集、整理工作，已完成国家社科重点项目《中国现代文学史资料汇编》中的《中国现代新诗集总书目》和所在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的重点科研项目《新诗书刊总目》的编撰任务，前者作为《中国现代文学总书目·新诗卷》已出版。可如何看待这些成果是经

1000册、《冯文炳研究资料》1000册、《冯乃超研究资料》1000册、《光未然研究资料》1000册。

常遇到的问题，好像是此类工作越多离“研究”就越远，因此常常有人善意地劝我写文章，似乎只有写成文章我所做的工作才能提升到学术。

史料的重要性是没有人怀疑的，但学术地位不高，史料工作的地位就更低。一般看来，史料工作只是服务于研究工作，本身还不构成研究，史料工作是简单而费力，有用而不讨好的不用脑的脑力劳动。行笔至此忽然想到“史料工作”不知是何时提出的，也不知提出是重视还是贬低。我真希望它的提出并不是将“史料工作”从“研究工作”中分开，而是强调其独立价值。就我所知，“史料工作”自古就是“研究工作”的一部分，从汉代的朴学，到清代的乾嘉学派，目录、版本、训诂、考据、校注、辨伪、辑佚、考订都是重要的学问，就是现今在古代文学研究中也一直受到重视。因此在古代文学研究领域，书目、年表之类都属于“著”，像孙楷弟《日本东京所见小说书目》、傅惜华《元代杂剧全目》、吴文治《中国文学史大事年表》等⁴³⁾，而在新诗研究领域，书目、年表之类多为“编”，连“编著”都不敢署。当然造成这些问题也与新诗史料工作的本身有关，与古代的“史料工作”来比，新诗史料的工作或整个新文学史料的工作确还存在着严重不足，诸如前面讲到的不规范、学术含量不够等等，很多也确实没有进入学术研究层次。但要看到，新诗史料工作还是一个刚刚起步阶段，正像现、当代文学研究和新诗研究一样都是新兴学科，还不成熟。问题是不成熟的“研究”没人认为不是研究，而不成熟的史料工作却排除在研究之外。新诗史料工作应该视为新诗研究工作的一部分，或者是应该使之成为新诗研究工作的一部分，前一点可以吸引和留住一批专业工作人员，而有了一支专业队伍史料工作才有可能进入“研究”层次。在此，我呼吁研究机构能建立学术标准正确对待史料成果，使之有更多的人投入这一工作。而且从现有的情况看，这样的史料工作状况无疑制约了新诗史的研究，很多研究总是今天依据一个新材料，明天又靠一个新发现来不断修补新诗史，没有详实

43) 《日本东京所见小说书目》，人民文学出版社1958年5月出版，署“孙楷弟著”；《元代杂剧全目》，作家出版社1957年12月出版，署“傅惜华著”；《中国文学史大事年表》（上），黄山书社1987年12月出版，署“吴文治著”。

的史料占有研究工作很难游刃有余。另一方面,随着时间的推移资料散失和损坏越来越严重,而近十年新诗出版物又越来越多,大量自印的诗集和“民刊”查找非常困难;从地域上讲,又分大陆、台湾、香港、澳门还有海外,靠一地收集是不可能的。这要求我们必须加强史料工作,而没有一支专业队伍是很难胜任的。

在这里还想谈几句史料工作的学术价值问题。一是独立的学科地位。随着社会分工越来越细,史料工作已经能够成为一门相对独立的学科,而且确有自己的研究范围、自己的治学方法和独立的学术价值。作为史料,无疑是为史的研究和作家作品研究服务的,而对于史料工作却未尽然。如果将史料工作与研究工作(理论的、思辨的、抽象的、概括的)视为两种不同的学术工作,史料工作无疑是一切研究工作的开始,可研究工作未必一定就是史料工作的目的。史料工作有自己要达到的高度与深度。如果说研究工作是总结,是创新,史料工作则是发掘,是求真。研究工作与史料工作的关系应该是互动的,没有史料工作,研究工作就很难进行和深入;没有研究工作的带动,史料工作也失去了最终意义。或者将史料工作称之为基础研究可能更合适一些。二是史料工作在某种意义上讲标志着研究学科的成熟。这话听起来也许不够严密,我这里想讲的是一个成熟的学科对史料的强调。比如古代文学研究应该是一个成熟学科,它的研究要求基本上不能有史料上的错误,也就是所说的“硬伤”;而在新诗研究或在新文学研究中,一篇论文、一本研究著作有几条或者十几条史料错误是常见的,也并不因此妨碍其成为有影响的著作。像陈思和主编的《中国当代文学史教程》,1999年9月由复旦大学出版社出版后,深得学界好评,而有文章就指出这本书在关于“潜在写作”研究中涉及到的基本史料、史实就出现多处错讹⁴⁴⁾。三是学术品格的表现。收集史料要锲而不舍,整理史料又要耐心细致。从事这项工作要耐得住寂寞,经得住诱惑,坐得住冷板凳,而且一坐就要几年、十几年或更多,这在现今浮躁的环境中是一种学术品格的修炼。这是很不容

44)李润霞《“潜在写作”研究中的史料问题》,《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2001年第3期。

易的。像前面讲的，这工作是成书难、出版难，而出版了学术评价又不高，在这种情况下，仍然还有辛勤的开垦者，没有一份热爱之心是坚持不住的。但愿新诗史料的工作能够吸引来更多的专业人士来做，通过不懈的努力，取得更多更好的成绩。

신시의 흐름을 논함

謝冕* · 원소윤** 역

—

시는 중국에서 늘 사회혁명의 전조가 되어왔다. 이는 중국사회가 시교(詩敎)를 숭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통은 시의 중국사회 생활에서의 특수한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고대 통치자들은 시를 채집하여 민풍(民風)을 살펴보았으며, 역대의 평민들은 시를 통하여 흥망성쇠의 울분과 감탄을 토해냈다. 시가 집결한 근세기 최대의 한차례 시위는 바로 서기 1976년 북경에서 발생한 천안문 시가운동이었다. 적어도 10년이나 달했던 기나긴 고난으로 인한 우울함과 역사가 대대로 물려준 우환이 바로 이 때, 마치 같은 해의 5·4 운동처럼, 한차례 화산폭발과 같은 갑작스런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시는 마침내 기적과 같이 인민들을 불러 일으켜 암흑과도 같은 신전(神殿)의 통치를 타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시는 다시 한번 사회 경고성의 매우 권위적인 증거가 된 것이다.

시의 중국에서의 이러한 특수한 성질은 '시는 시 그 자체이면서도 또 그 자체 이상의 것을 담아낸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예술로써의 시는 과부하적으로 예술 이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담당하고 있었다. 아주 오랜 시간의 발전을 거치면서, 이러한 과적재는 중국 정세에 부합하는 시의 전환을 야기하게 된다. 시는 마침내 우리에게 확증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즉 그것의 내포의 미와 외재형태의 방향 중에서 우리들이 중국의 세태인정의 흥망성쇠,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조의 강화와 완화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 北京大學 中文系 教授

** 동아대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세기의 처음 10년 간, 신문학 운동의 선구자들은 고전시의 고도로 완비된 정형화(定型化)에서 중국사회에 잠재된 위기의 조짐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시와 현실의 사회인생, 특히 20세기 현대문명의 반항은 바로 시가 명석하고도 예민한 중국 인텔리들을 향해 보낸 긴급 구조 신호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당시 문화와 문학 변혁에 뛰어들었던 용사들을 믿었다. 하지만, 채원배(蔡元培), 진독수(陳獨秀), 호적(胡適) 할 것 없이 그들의 최종 목표는 중국사회를 개조하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감(靈感)은 오히려 문학과 시의 계몽에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호적 및 곽말약(郭沫若)등 그 일대 시인들의 중국시에 대한 “대폭발”적인 행동은 당연히 중국사회의 ‘옛것을 부정하고 새것을 건립하자’는 대망(大望)에 대한 그들의 표현이었다. 신시가 배양되고 탄생되는 과정에서의 깊은 고통과 뒤따른 끝없는 시련은 바로 개혁하고자 하는 바램과 개혁을 반대하는 저항 이 양자간의 악전고투의 기록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고통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까닭은 중국사회 전통의 오랜 습관과 역사타성의 필사적 저항에 의한 것이었다. 한 가지 예로써 전체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데, 문언시의 완비는 사회체계의 초 안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신시 건립의 과정 중에 가장 영향을 받은 부분은 결코 신사조와 신관념의 수입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없는 곳이 없었던, 그래서 몰아낼 수 없었던 문언 시와 사의 정조와 풍격(風格)의 포위망이었다. 호적은 통속적으로 그것을 두고 “구사조(舊詞調)”에 대한 이탈로 칭하였다. 이러한 정신상의 “관계를 벗어나는” 너무도 어렵고도 방대한 사안은 그 일대 시인들의 정력을 거의 다 써버린다. 비극적인 사실은 적잖은 모반자들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잇달아 당초에 그들이 반대했던 방향으로 “복귀(復歸)”하였다는 점이다. 그들 중의 일부는 전력투구하여 문언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우리들 후계자로 하여금 시지푸스의 비애를 느끼게 한다.

二

지금은 우리들 이 일대 사람들의 차례가 돌아왔다. 우리들이 얻은 중국 신시의 발전에 관한 모든 역사적 사실은 시가혁명에서부터 혁명시가에 이르는 간단한 방정식으로 개괄되어질 수 있다. 우리들은 이 간단한 개괄의 귀납 중에서 역사의 필연성 및 이러한 필연성이 초래한 비극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들은 혁명시가가 합리적으로 중국시가의 주류로 성장하였으며, 중국의 어려운 시세에 공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까닭에 시가혁명의 모든 성과가 “혁명화(革命化)”로 연장되어지는 과정 중에 거의 사라지고 마는 마음 아픈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신시는 호적의 “창시(嘗試)”가 초석을 닦으면서부터 주작인의 《작은 강 少河》이 독립을 선언한 데까지, 곽말약의 《여신女神》이 강렬한 기세로 맹렬한 시대에 세력을 다진 데부터 서지마(徐志摩)의 우수한 예술 작품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은 모두 중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외국시의 모델을 흡수한 종합적 창조의 성과물이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와 창조력의 유효한 전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부셨으며 전면 개방하였던 5·4 신시의 성숙한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다. 주자청(朱自清)의 자유, 격률, 상징 세 파의 병립으로 개괄한 설명은 아무래도 세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의심의 여지없이 이 시기 시가 창작의 번성의 양상을 말해주고 있다.

30년대에 시작한 붉은 걱정은 민족의 우환이 계속됨으로 인해 오히려 구망(救亡)운동과의 결합을 조성하게 된다. 좌익시가운동은 매우 빨리 그 모든 것을 정합(整合)하고 말끔히 씻어나갔다. 멸망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미(美)의 신과 사랑의 신의 추방을 선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졌으며, 이 때문에 혁명의식의 시가에 대한 전면적 포용 역시 너무도 당연히 합리성을 구비하고 있었다.

너무도 빨리, 우리들은 일련의 예술생산을 영도(領導)하는 방식을

흡수하고 형성하였다. 즉 행정수단(보고, 답화, 호소, 결의, 쪽 전개된 형형색색의 운동)을 통해서 시 전체에 대한 혁명적 개조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시대의 추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유례 없는 개조의 본질, 즉 예술의 다원상태를 뿌리뽑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표준화 공정을 볼 수 있다. 이 공정의 장구한 목표는 여러 종류의 시가 병존하고 경쟁하는 구성을 개변하고 단일시(單一詩) 방식의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존재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화된 예술의 정화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주류시 이외의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 시킴으로써 주류시의 빠르고도 거침없는 점령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 까닭에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비판”은 모두 비주류시에 대한 배척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배척의 일반적 방식은 배척을 받는 시들을 암류(暗流), 지류(支流) 및 역류(逆流)로 정하여 주류시가와는 상대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주류시 자체에 대해서 대체로 같은 방법을 통해 “비정상”적인 발전을 배제하고 두절함으로써 주류시 자체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혁명시가는 극도로 경건하게 그것의 예술 신조를 관철하고 유지·보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신조가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지니고 있던 간에 전반적 추세는 오히려 견고하였으며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술주류를 규정하고, 창작방법도 규정하며, 표현방법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감의 주조까지도 규정하였다. 요컨대, 문학과 시의 가치관념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회에 대한 교화작용을 인정하는 이러한 규정성은 공전의 예술 침체를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침체는 “백화제방(百花齊放)”을 순전히 말로만 외쳐댈 뿐 실행치는 못하는 한낱 공론으로 만들어버렸다. 사실, 단지 통일된 방식에 따른 제조(製造)와 엄격한 규정을 거친 창작과정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제조된 모든 작품들이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형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이러

한 예술 방침은 그 정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반복되어 제창되어지고 있었다.

중국시는 1930년대 중기에서부터 혁명화 과정을 밟아나가기 시작하며, 이러한 진행과정은 각 시기의 각기 다른 사회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강화되어 나갔다. 30년대는 국방을 위해 복무하는 시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시 작품의 질적인 상실을 재촉하게 된다. 40년대는 대중화에 대한 제창이 계속되어졌는데, 당시 민족위기의 엄중한 형세에 근거하였을 때, 이러한 제창을 민족화 추구의 총 궤도 위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시는 협소한 농민문화의 기호와 민족보호주의의 규범아래에서 그것과 기타 민족문화, 특히 세계 현대시와의 유대관계를 단절시켜 나간다. 50년대는 내전이 끝나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 시기로, 현실은 시가의 전면적 통일을 위해 가장 강대한 행정적 보충을 제공하였다. 좌익시가운동과 해방구 시가전통의 새 시대에서의 결합은 결국 오랜 시간동안 계획되고 운영되어져왔던 시가이상을 실현시킨다.

현재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실현은 강대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재난을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후기, 우리들은 마침내 중국대륙시의 대 통일을 완성함과 동시에 이 토지 위에서의 해체를 선언하게 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시 현상에서 다시금 중국사회가 정상적 상태를 벗어나거나 이상해져 버렸다는 증거를 획득하게 된다. 시의 붕쇄와 정체는 사회 병태가 예술에 투영된 것이었다. 이것은 당연히 사회 상태가 약정한 결과였다. 잔혹한 사회현실은 모든 예술에 가혹한 정신적 속박을 가하였으며, 그것의 첫 번째 희생물이 바로 예술에서 가장 민감한 신경에 해당하는 시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중국 대륙이라는 특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시 형태가 시대의 특정한 풍격과 면모를 체현하고 있으며,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특정한 시대가 마치 기적과 같이 문학과 시의 왜곡을 지적해 낸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어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과거 시의 변형(變形)이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사회부활에 대한 희망을 시부활의 희망에 기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전통시에 대해 보편적인 실망의 정서를 드러냈을 때, 어찌하여 출현 가능한 시가 변혁에 대해 간절한 바람을 걸 수 있었으며, 게다가 일단 그러한 변혁이 도래한 흔적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는지의 내재원인 즉, 예술로서의 시가 예술 이외에 더욱 많은 것을 담아내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사회개혁의 희망을 기탁하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열정이나 걱정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열정은 완전히 예술에 속하기보다는 사회와 정치에 더욱 기인하고 있었다.

三

문혁(文革)이라는 동란이 끝난 후, 생존자들에게 있어서, 옛일을 회고하는 심리가 급속도로 생겨나게 된다. 그 시기는 연안(延安)혁명의 문화를 추구하고 복제하는 감정 격동의 밀월기(蜜月期)였다. 희극, 미술, 음악에서부터 시, 소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난날의 꿈을 환기시킴으로써 지금의 공허한 심경을 위로해 주고 있었다. 모두 예외 없이 진정한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주위에서 잇달아 40~50년대의 황금기에 대한 기억을 거슬러 옛 꿈을 찾아 갈 때, 일부 “이단(異端)”의 예술 모반은 우선 시 영역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78년 말, 현대 미신을 비판하는 조치는 사상문화계의 단단한 동토에 녹아들어 갔다. 한 무리의 예술 탐험가들은 민영 등사판 간행물인 『금천(今天)』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 간행물의 창간호에는 간단한 <독자에게 致讀者> 라는 글 한편이 실려있는데, 여기에서 이 탐험가들의 예술

선언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글의 요점은 대체로 이러한데, 진정한 백화제방 즉, 수직적 계승 이외에 수평적 참관(參觀)과 참고(參考)를 강조하는 이념 및 이전과는 다른 신생(新生) 문학으로서의 역량 있는 참여의식을 호소하고 있었다.

5·4 운동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때 사람의 생존 의의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람들의 자유 정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다. 우리 문명고국의 현대적 갱신(更新) 역시 중화민족이 세계민족의 중심에 서는 지위를 새로이 확립시켰다. 우리들의 문학예술은 이 심각한 본질을 반드시 반영해 내야만 한다.

오늘날, 당시 사람들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직적 안목으로 수 천년의 문화유산 위에 머물지 아니하며, 수평적 시각으로 주위의 지평선을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비웃음을 사는 자존자만(自尊自滿)이나, 비극적 자포자기(自暴自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잊지 못할 1979년, 사상해방은 예술자유와 최초의 기원을 이끌어낸다. 예술의 각개 영역의 앞뒤에서 영향력 있는 작품들이 한 무더기씩 쏟아져 나오으로써, 예술해방의 첫 신호를 보내게 된다. 1979년은 신시가 “지하 상태”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대중의 앞으로 나아간 기념비적인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해에 중국 작가협회가 주관한 『시간(詩刊)』에 서정(舒婷)의 〈상수리나무에게 致橡樹〉와 북도의 〈회답(回答)〉이 발표된다. 전자는 개인 정감에 대한 존중 및 보통 사람 특히 보통 여성의 독립의식에 대한 소환(召喚)으로써 고도의 인간정신을 체현하였다. 이 소환은 습관화 되어버린 개체생명의 무가치성 그리고 군체의식이 침몰한 질서에 있어서 마치 무섭게 내려치는 천둥번개와 같았다. 서정과 비교해 봤을 때, 북도의 〈회답〉은 더욱 침울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미 얻은 질서에 대한 회의정신 및 이전부터 있어왔고, 당시에 사라지지 않았던 암흑에 대한 두려움 없는 항의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의 새 시대가

도래한 매우 유력한 “선고(宣告)”가 되었다.

비열함은 비열한 자의 통행증.
고상함은 고상한 자의 묘지명.
보아라, 저 황금 빛 하늘 속에,
죽은 자의 일렁거리는 그림자가 가득하다.

빙하기는 지나갔는데,
왜 아직 도처엔 얼음뿐인가?
희망봉은 발견되었는데,
왜 사해엔 천 개의 돛대가 서로 싸우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져온 것은,
종이와 밧줄과 그림자.
그리고 심판에 앞서,
그 판결을 읽기 위한 음성 뿐.

너에게 이르나니, 세계여!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설령 내 발 아래에 수 천명의 도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 한 번째의 도전자로 나를 세워다오.

나는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번개가 메아리침을 믿지 않는다.
나는 꿈이 거짓임을 믿지 않는다.
나는 죽으면 웅보도 사라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바다의 제방이 무너진다면,
모든 쓴 물을 내 가슴속에 호리게 하리.
어쩔 수 없이 땅이 하늘로 솟구친다면,
인류더러 다시 생존의 정상을 찾게 하리.

새로운 조짐과 번쩍이는 별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가득 장식하고 있다.
그것은 오 천년의 상형문자이며,
그것은 미래의 인류가 응시하는 눈동자이다.

이는 출현하자마자 고조의 열풍을 탄다. 새로운 시대가 구비한 일체의 것들은 모두 최초의 현상 중에서 설명을 얻었다. 이 시 중에서 우리들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유와 관념의 표현을 느끼게 된다. 회의는 맹종으로 대체되어지고, 항의는 찬양의 노래로 대체되어졌으며, 관례를 따지지 않고 전력을 다해 고양한 자유정신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데 익숙해져버린 심령을 향해 갑자기 강렬한 빛을 비추게 하였다. 이러한 진입은 궁지에 내몰린 중국 예술을 일깨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어 이 “괴물”을 분간해 내고자 하는 원망(願望)을 불러일으켰다. 그들 중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모습과 음성, 특히 이단적 사상에 깜짝 놀랐다.

그 “괴물”은 등장하자마자 겹겹이 포위되어졌다. 사람들은 그 일체의 비정상성 때문에 국가와 민족에게 “불길한 소리”¹⁾ 임을 선고하였으며, 예술방식의 비정상성 때문에 그것을 벼랑 끝으로 향해가는 “시의 암 덩어리”로 판단하였고, 사상방식 및 표현수법의 비정상성 때문에 그것을 “자산계급의 자유화”²⁾나 “정신오염”으로 판단

1) 孫犁語, 《詩刊》1982년 제5기 《류인의 읽고(讀柳蔭詩作記)》를 참조하였다. 원래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이러한 시는 촉박하고, 복잡하며, 처참한 리듬으로 시대와 국가 모두에 매우 불길한 목소리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보기에는 혁신적인 것 같은 이러한 시들을 읽고 있으면, 우리들은 늘 ‘이것이 저 10년의 동란기간 중 만연하였던 변주(變奏)와 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신이 타인으로 변하고, 방향을 바꾸어 신이 자야로 변하는 이것은 실제상으로 연관적이고, 이기주의관념에 기인하며, 양지를 상실하였고, 현실과 인민대중 밖에 유리되어 있으며, 비극적 성질을 지닌 환멸의 과정이었다.”

2) 程代熙가 《徐敬亞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너는 글 안에 시를 쓰는 청년들의 몇 가지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시의 선언자로 간주하였지. 사실 너의 이 글 역시 언제 선언이 아니었던 적이, 자산계급 현대파의 시 선언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는가? 만약 네가 내 직언을 너그럽게 봐준다면, 나는 오히려 자산계급자유화 사상의 선언이라 말하고 싶다네”. 『詩刊』, 1983년 제 11기를 참조하였다. 애청은 《“몽롱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며》에서 또 다음을 말하였다. “그들이 사방에 적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 취한 태도는, 일체의 것들을 부정하고, 스스로 일체의 것들을 비워나가, 오로지 자신만을 긍정하는 것이

하였다. 이러한 신시조류에 관한 논쟁은 수년간 계속되어 졌으며, 시 계열 이외에도 만연하게 되어 한동안 문학계 심지어 사상·문화계의 쟁점이 되었다.

신시조류가 직면한 것은 수십 년 간에 걸쳐 개조되고 획득되어진 고도로 통일된 시가현실이었다. 작가, 비평가, 그리고 광대한 감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강대하고 융통성 없는 비시화(非詩化)된 눈과 비시화된 귀, 비시화된 심령이었다. 사유의 습성은 예술적 편견이 더해지면서, 신시조류를 위해 매우 강력한 항체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명성도, 지위도 없고, 심지어 직장도 없었던 시인들이 거대한 사회 타성과 예술 타성에 직면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은 당연히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시 변혁의 한 귀퉁이에서 우리들은 중국에 유례 없던 비애를 엿볼 수 있다. 문화가 풍부하고 게다가 자족하는 이 사회는 고유한 질서를 바꾸는데 취지를 둔 모든 기도와 노력에 대해 거의 천성적으로 적의(敵意)를 품고 있었다. 이 사회는 그것의 어디서나 존재하는 관성과 인력(引力)으로써, 그 모든 것을 동화시키고, 그것으로 하여금 두터운 퇴적층에 넣은 후에는 자신을 소실시켜 통일된 혼돈을 융합하고 만들어 내게 하였다. 이렇듯, 본래 있던 것과 융합된 것은 또다시 외부 물질에 대해 일치 단결하여 저항하는 백혈구를 합성해 낸다. 이 “백혈구”는 경계심으로 충만해 있고, 언제나 명령대기 중이며, 이단의 침입자를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시조류는 전통시에 있어서 일종의 이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이 백혈구에게 포위·섬멸을 당하는 것은 숙명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비애를 느꼈고, 이는 중국의 거대한 인습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것이 아직 유지 될 수 있거니와 한다면,

었다. 그들은 항의 때문에 언어를 선택하였고,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 전통에 반대하였으며, 그들이 받은 고난 때문에 권위를 떨치하였다. 이들은 도저히 건드릴 수조차 없는 한 세대였다. 그들은 원한을 털어 버리지 못한 대상을 찾았다.” 『文匯報』 1981년 5월 12일 자를 참고하였다.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변혁의 일체의 가능성을 거부하였다. 시는 아주 작은 구멍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그 구멍 입구에 광명이 새어들어 오면, 암흑의 보존(保存)과 조화를 깨트리고, 달려들어 짓밟고 물어뜯음으로써 상당한 잔인함과 잔혹함을 표현해 낸다. 우리들은 시의 변혁이라는 작은 귀퉁이에서 의연히 중국의 고질적 습관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체현한 것은 크나큰 비애였다. 이때문에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사회의 실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연상할 수 있었다.

낡은 시대는 시의 변혁 중에 배웅되어졌다. 중국 신시의 20세기 초 문언시에 대항하기 위한 고난의 탄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창조한 그것의 업적은 일찍이 인위적인 이화(異化) 과정 중에 잊혀지고 심지어 사라져 버렸다. 신시는 그리하여 새로운 “문언시”로 변화한다. 그것이 체현한 내재 생명의 피로감과 재생력의 부족, 그리고 형식상에서의 창조성의 침체와 경직은 표현력의 쇠약(衰弱)을 초래하게 된다. 위에서 이야기한 시대의 왜곡을 받은 이러한 신시의 쇠퇴 현상이 어찌 전통문화의 습성과 오랜 폐단 같은 것을 견디어 낼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의 자아퇴화의 속도와 중국의 진부한 사유방식을 체현해 내는 거대한 병탄력(併呑力)이었다.

이 일대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른 시대의 새벽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중국은 20세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끝도 없이 치욕적인 배역을 맡아 하고 있었다. 중국은 어떤 태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야 하는가? 중국은 스스로 구제하고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타락할 것인가? 심각한 우환이 온 사회에 가득 차 있었으며, 시와 문학에도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시의 한 귀퉁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 탐험은 어떤 침중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며, 게다가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는 구체에게 있어서 비록 아주 미약한 충격과 추진이겠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설령 보잘 것 없는 힘의 존재라 할지라도

쉬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단지 힘의 존재, 다시 말해 일종의 현존하는 질서를 변혁하는 힘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것이다. 하물며, 중국 신시조류의 분출에 있어서, 그것이 야기한 것은 오히려 알고 잔잔한 물결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체가 추진력—당연히 신 세기를 맞이하는 걱정을 포괄하고 있다—을 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四

사람들은 신시조류에서 참신한 소박함을 느꼈으며, 전통적 습관의 속박을 거부하고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심령의 사고를 전달하는 새로운 힘을 느끼게 된다. “몽룡시(朦朧詩)”의 대표격으로 칭해지는 어떠한 시편도 모두 예술 모반의 독립선언이었다. 신시가 구비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시종 그것이 직면한 역사의 까마득한 거대 존재 즉 전통시의 조류가 구비한 모든 예술 타성의 참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들의 기대는 특별한 풍족함을 드러낸다. 빈곤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유하다. 대표격의 시편 모두가 신 대륙이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대륙이 시시각각 사람을 감동시키는 조산 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중국 신시의 5·4의 처음 10년 간을 제외한 시기동안, 신시의 발전 운동은 여전히 현재의 이 시기와 같은 기발함과 다변화, 그리고 충만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타성에 대한 반항은 모든 새로운 시가변혁운동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그것의 내재정신은 오히려 모든 사회의 웅대한 배경으로부터 찾아야만 한다. 이 시기의 중국 본토는 오랜 봉쇄와 속박 후에 개방된 “갱생의 대륙”이었으며, 중국은 처음으로 열린 창구에서 고개

를 내밀고, 숨막히는 암실에 가득 넘쳐흐르는 전 세계의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것이 가져온 강력한 자극은 새로운 동서양 문화의 충돌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붕괴된 봉건체제가 완전무결한 현대조류에 직면한 대 진동이었다.

이러한 진동은 사회의 이전의 퇴폐 및 심령이 이전에 입은 상처가 커다란 대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조성한 심리의 차이는 간단한 실락정서(失落情緒)로 개괄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터운 봉건의 침전물은 중국사회의 그칠 줄 모르는 고난이 더해지면서 침중한 민족의 우환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의 집단적 우환과 사회 각 성원 자신의 고달픔과 재난의 경험의 융합은 소리 없이 신시 대두의 밀물 속으로 스며들었다. 거대한 정서의 흐름은 고유한 예술 질서에 반항하는 데 그 뜻을 둔 현대시 한 수 한 수 속에 스며들어갔다. 그들은 “다시 한번 광명을 보게 될” 흥분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진심으로 울분과 고통으로 하여금 은밀한, 혹은 공개적인 쾌락을 파묻히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신시조류의 기본 정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경쾌함이 아니라 침울함이었으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전통적 기원과 동경도 여기에서 끝도 없는 우수와 비애로 대체되어진다. 신시 발전에 있어서의 이 단계는 진부한 군체의식과 백성의 개체의식과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을 이루게 된다. 대표격 시편 모두 이러한 특수한 사회와 개인 정감의 요소가 합성된 “근대화석”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만약 새 시대의 시 성분 중의 의(意)와 상(象)의 결합과 중첩을 예술 본질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새 시대의 시 창작의 주체적 심리 태도 중의 사회와 개인의 결합과 일치는 오히려 분명한 상징일 것이다. 개성을 철저히 배척하는 시의 시대는 끝나 버렸지만, 그렇다고 사회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의 시대가 도래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 시기의 시가 관성과 정형화된 심미 습관으로 인해서, 과도한 예술 경관을 체현해 낸 것은 아니었다. 사회와

개인의 각기 다른 원주의 동심원이 겹겹이 중첩되면서, 신시는 그것의 건립 이래로 시작된 사회성과 개인성에 관한 끊임없는 고뇌와 분쟁을 결속시키게 된다. 상술한 이 중첩의 극치는 시로 하여금 정확하게 사회 전환기의 몇 대에 걸친 중국인의 정신 상태와 정감 상태를 전달하게 하였다.

중국인은 천부적 자질로 그들의 예술 공간을 다시 메워나갔다. 한 방면으로는 그들은 과거 금지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인간의 자아에 대해 점령을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확장된 “점령지”를 늘려나갔고, 용감하게 비난에 맞섰다. 다른 방면으로는 확고하고 저속한 사실경향과의 관계를 끊었으며, 이는 단지 사회 인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동적이고 초연한 자태로 시의 거시적 공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 예술공간의 재구성은 시대를 대표하는 또 개인을 대표하는 이정표가 될 만한 우아한 작품들을 창조해 냈다. “몽롱시”의 흥성기에 출현하여 그 시대의 상처와 개인의 피눈물을 응집해 낸 시들은 모두 이렇게 “작은” 필묵으로 써낸 “대시(大詩)”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그 속에서 우환을 보았다. 그것은 개인과 실재를 초월한 태도로써 양지(良知)를 잃지 않은 중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몽롱시” 운동의 사상 선구자와 예술 전위대의 성격은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전 민족의 이 우환 의식 위에서 체현되어졌다. 이 사조를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공격대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었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하였다. 편견은 그들을 천박함 속으로 빠트렸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를 융합하는 사고 속에 함께 존재하는 침중함과 고통은 그들이 간주한 그런 소위 “불길한 소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빈약한 낙관과 마비된 정신에 대한 경고였다.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뒤덮은 암흑은 이 100여 년의 시간동안 끊임없이 거듭되었다. 무수한 선구자들의 고난이 넘쳐흘렀으며, 민족의 재난과 생활고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이

백여 년의 시간동안 모든 세계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번성한 국가가 취득한 사회의 민주화와 과학기술의 진보가 노쇠하고 우둔한 중국과 대비되어지면서, 중국의 선진화된 지식인으로 하여금 20세기의 펫빛 황혼 속에서 세기말의 비애를 느끼게 하였다.

민감한 심령은 시인의 것이었다. 중국의 새로운 일대 시인들은 개방과 교류의 충격 속에서 제일 먼저 이 시대의 백박을 포착하였다. 걱정적인 호소, 감상적인 독백, 복잡한 항의, 심각한 우려 등 갖가지 표층에 드러난 이러한 정감현상의 배후에는 100년 간 중국사회에 누적되어왔던 우울함의 견인(牽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대 동란에 대한 반성의 힘을 빌려, 더욱 사리에 맞게 변화한 것이었다.

5·4 문학혁명이 당시의 사상해방운동의 격렬함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문이 개방된 이래의 시대 대 전환이 지닌 사상해방의 성격 역시 눈앞의 예술운동을 위해서 역사 대 배경과 사상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마치 5·4 신시가 일으킨 중국 문단 심지어 중국 사회에 대한 대 진동과 같이, 중국 신시조류의 궤기는 신 문학예술변혁의 서곡을 열었다.

“몽롱시”를 둘러싸고 나타나면서 시작된 격렬한 토론은 중국문학 예술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경향과 조류에 적응하면서 변혁을 실행하려는 두 경향의 충돌을 표면화하였다. 사람들의 신시조류에 대한 비난의 핵심은 이를테면 “음침함”, “퇴폐성”, “자아중심”, “예술몰락” 등과 같은 것으로, 바로 신시가 전통예술의 질서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 기반을 두고 생겨난 예술 사고의 실증이라는 것이었다. 중국사회의 개방을 돌이킬 수 없는 이상, 중국예술의 변혁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이킬 수 없었다. 신시조류는 이 시대의 합리적 산물이었다. 그것이 탄생하면서 내질렀던 첫 울음소리가 선고한 것은 신시였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 예술이 대 탈바꿈하는 시대의 도래였다.

五

전통시에서 신시조류에 까지, 다시 신시조류에서 후기신시조류에 까지, 사람들은 이런 숨가쁜 진보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시관(詩觀)에서 시예(詩藝)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과도한 도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술의 거대한 변화인 이 “삼단뛰기”가 모두 고작 몇 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정체되어 꼼짝도 았았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마술 신발을 신은 듯 멈추지 았고 빙빙 돌고 았었다. 예술에 대한 폼박은 의식에 대한 폼박에 비할 정도였으며, 이는 집수자로 하여금 곤혹감을 느끼게 하였다. 예술감상의 정취는 장기간에 걸쳐 심지어 “유전(遺傳)”되어져 배양되어졌다. 이러한 습관은 일단 형성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감상취미의 응고를 유도하고, 감상의 타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글을 읽는데 있어서 순간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며, 예술의 근본적 변이를 거부하게 된다. 이 현상은 중국의 이러한 문화환경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표현되어졌다. 역사 침전물의 풍부함은 예술을 위해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길 거절하였다.

문혁동란이 끝난 후 지금까지, 시가 일으킨 모든 변화는 거의 모두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것이었다. 그 사이의 상호 움직임과 유동 변화 그리고 계승의 관계는 너무도 복잡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대체적인 추세가 구분되면서 대략 그 이치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시에서 신시조류로 넘어 가면서 의 가장 선명한 변화는 의의를 중시하는 시에서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로의 변화로 개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괄은 전자는 단지 의의만을 표현하며, 후자는 의의를 표현하지도 았으며 심지어 의의라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한 의의가 시속에서 지닌 위치 및 의의를 표현·전달하는 방식의 독특성을 강조할 뿐이다.

확립에서 완성으로, 완성에서 다시 쇠퇴로 향해 가는 전통시의 과정은 사회, 정치와 같은 비시적(非詩的) 요인의 침투와 최후 점령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의 완성이 부여한 시의 사명은 아주 명확한 것으로 바로 시는 응당 충실하게 시대를 표현해야 하며, 응당 현실 생활에 개입하면서 정치투쟁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는 시시각각 자신이 맡은 계급투쟁의 수단과 도덕교화의 직책을 각인해야함을 요구하였다. 시는 이러한 명확한 의의를 표현하는 천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위 사회효과와 사명감 및 시대성, 인민성이라는 것 모두가 시가 사회에 대해 지고 있는 선전과 찬양의 의의를 지향한 것이었다.

시인은 더 이상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타인(他人), 타물(他物), 타사(他事)의 대변인이자 훈도자이며 선고자였다. 이것은 일찍이 명확한 의의를 위한 시의 제일(第一)품성으로 칭해졌다. 이러한 시는 또한 의의를 규정하는 전달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공통방식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전달은 반드시 직접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야 했다. 소위 직접적이라는 것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요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공유한 특성은 오히려 묘사, 서술, 토로, 상징, 비유 할 것 없이 모두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있었다. 예술, 예술방식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중심의 시가 요구하는 것은 의의 전달의 명확성과 직접성이었다.

명확한 묘사, 명확한 토로와 전의(轉義), 명확한 상징과 비유, 이것은 일종의 “읽자마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즉 읽으면 바로 그 의의를 알 수 있는 시이다. 사실 중심의 시는 직접적인 재현과정을 중시하였으며, 감정 중심의 시는 직접적인 토로와 기탁을 중시하였다. 비흥(比興) 중심의 시는 비체(比體)와 비유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시는 주제가 뚜렷하고 의의가 명백하며 오독(誤讀)의 일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전통시에서 신시조류에까지,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가 조성

한 시의 변이 이외에, 예술 그 자체적 요소 역시 변이를 야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람들이 예술 변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보편적으로 이미지화를 중시하였다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이것이다. 이미지화 현상 역시 영미(英美) 상징과 시의 영향을 받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주요한 것은 중국 자체 내에서의 원인이었다. 역사 타성에 대한 악감정은 예술 심리의 모반을 초래하였다. 간단하게 말해, 이것은 한눈에 들어오는 묘사에 대한 반항 및 그것의 전의였다. 북도의 한 글자로 구성된 〈생활生活〉이라는 시는 이미지 중심의 시의 의의 중심의 시에 대한 반역을 실현하고 있다.

이미지는 시인의 시의(詩意)를 감지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의(意)와 상(象)의 순간적 화합은 마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만들어낸 제 삼체(三體), 즉 하나의 새로운 생명과도 같았다. 이것은 이미지 중심의 시의 기본 단위이다. 그것은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의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며, 의의는 이미지의 등뒤에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읽기 습관을 방해하였다. 사람들은 원래 시는 모두 시인이 의의를 나타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의도를 명시하려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현묘(玄妙)한 것처럼 꾸미고”, 의의조차 모호한 작품을 만나게 된 것이다.

전통시는 여기에서 천적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정령은 마음껏 사람들의 감상 영역에서의 그러한 양보하려 하지 않는 의의의 방식을 공격하였다. 감상의 타성은 전통적 독자가 이러한 “기괴한” 침입자를 반격하도록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미지의 건설자는 소낙비처럼 내려치는 세상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그들의 신괴(神怪)의 전당을 공들여 짓고 있다. 시인은 고의로 감상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 모두가 수수께끼였으며, 전통시를 감상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들은 확실히 매우 새로운 예술 세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예

술세계는 고난을 겪어왔으며, 당시에 도 명확한 목표를 찾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던 시대에 얽매어 있었다. 이 예술세계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어왔고, 기쁨을 잃고 슬픔을 얻었으며, 자유를 획득하였으나, 여전히 자유에 목말랐고, 또 갈피를 명확히 잡을 수 없었던 수천 수만의 보통인간의 심령에 얽매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술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을 묵인하고 격려해 주었다. 설령, 반영론과 재현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하여도, 전통 문학관념과 비평원칙이 오히려 현재 출현한 몽롱성을 용인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편견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매우 심각하였다. 명확한 표현은 곧 일종의 질서였으며, 더욱이 마치 하나의 원칙과도 같았다. 이러하기에 의의의 명백한 전달을 중요하고 개변하고자 했던 기도라면 그 무엇이랴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단의 황당무계한 바램이었다.

그러나 이미지의 마법은 이전의 질서를 이미 명백히 바꾸어버린다. 이미지의 민첩한 조직, 교차와 중첩, 고정과 선회는 진정한 인생의 변화 무상함을 조성하였다. 매번 움직일 때마다 찬란하고 신기하며 환상적인 천공(天空)이 나타났다. 의의는 여기에서 그것의 고정성을 잃어가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것과 확실하게 가리키는 것이 없는 것은 평면적인 배치로 대체되어졌다. 고층으로 건축된 공간은 의의의 다의성을 조성하였다. 시인이 제공한 것은 단지 배열과 조항이었으며, 시인은 과거의 선고자와 해설자의 위치에서 커튼 뒤나 무대 아래로 물러나서, 그의 접수자가 거기에서 힘들게 고심하는 걸 보면서 미소지으며, 그들의 감지와 이해 — 이러한 것들은 아마 시인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시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발견과 보충에 의아해 하거나 심지어 매우 기뻐하기까지 하였다 — 를 듣고 있었다.

과거에 감상은 완전히 수동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한 탐험이 된다. 탐험가는 시인이 드문드문 흩어놓은 돌(이미지의 들로, 이것은 계몽적이고 연상적인 위치확립작용을 일으킨다)을 따라서, 표류

하는 수면을 밝고 지나 전진하는 직선과 호선을 그려낸다. 이러한 흠어진 점들이 그려낸 것은 다종(多種) 혹은 다층(多層)의 내포의미였고, 이러한 내포의미는 시인의 동의나 허락을 구할 필요도 또 그들의 권위적인 판단에 복종할 필요도 없었다.

창조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 듯, 감상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새장에 갇혀, 그 속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새가 일단 새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의 비애 또한 상당하여, 그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거나, 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새장을 잃어버린 정령은 끝도 보이지 않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무한한 자유를 원했다. 현재 그 자유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이다.

六

1980년대 중기,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는 “신생대 新生代”라 불려지는 신 시인들이 신시조류를 향해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의외의 사건이었다. 신시조류에 적용한 질서는 단지 금방 발생된 심지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일 뿐이었다. 복도와 서정 그리고 고성(顯城)은 마귀로부터 천사로 변했지만, 설령 이것이 이미 상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금방 발생한 변화일 뿐이었다. 이 때, 그들은 오히려 새로운 공격목표가 되었다.

이는 우리들이 신시조류와 전통시 사이에 실제로 존재하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철저히 뒤돌아보고, 탐측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예술 문제를 토론하는데 있어서, 가장 쉽게 오차가 나타나는 부분은 대부분 변혁의 사실과 그것과 역사와의 관련 일체를 명시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데 있다. 수많은 몽롱시 비판자들의 예술적 이해의 편견으로 나타난 자극과 흥분은 그들로 하여금 신시

조류 자체가 지닌 전통적 성향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신시조류의 “음침함”과 “불분명함”을 격렬히 비난하였으며, 그것이 전통시가의 낙관정신에 위배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이러한 침울함과 침중함을 거절하였고, 이러한 청년들의 인민정감에 대한 실책(失策)을 비난하였다. 이는 필시 앞 하나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사명감, 이상화, 영웅정신이라는 가장 감동적인 일치성을 잊고 있었다. 예술형식은 대변화를 일으켰지만 시질(詩質)은 오히려 변화가 없거나 그 변화가 매우 적었다. 매우 요원하지만 매우 확고한 유산은 반대자들로 하여금 피차 승인하게 하였으며, 또 그들에 의해서 승인되어졌다.

신시조류가 시작된 후의 예술변혁이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한 까닭은 후자가 표현해 낸 철저성에 있었다. 그것은 결코 국부적인 목표의 달성을 그것의 목표 — 신시조류에 있어서, 시 정감의 진실성 및 그것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시대와 사회 사명의 복원이었다 —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새롭고 더욱 철저한 변혁은 매우 중요한 역사 사명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일 먼저 소외되어진 혁명시 성질을 규정하고 우수한 전통을 복원하려 하였으며, 그 다음은 5·4 신시 혁명과의 연계를 이으려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이 그것과 서로 일치하는 시 예술의 2차 혁명을 시작하게 된다. 이 혁명의 성질은 한 반향으로만 발전하는 신시를 변화시키고, 특히 시가 정치에 들어붙어 나중에는 정치의 종속물이 되어버리는 사실에 대해 규정하는데 있었다. 시 성질 자체 및 시 자체가 가진 생존과 발전 상태에 복귀하게 한다.

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과 정치의 분리화 과정을 시작하였다. 분리화는 그리하여 후기신시조류의 기본 특징이 된다. 그것의 목표는 시와 정치의 교착상태를 철저히 변화시키고, 그것과 현실의 정치·사회의외와의 분리를 힘써 촉진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분리의 주요 지표는 사회 냉담화였다. 후기 신시조류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식의 중심급에 위치한 방면과 신시조류는 완전히 일치하

고 있으며, 그것들이 선, 후로 구별되는 까닭은 신시조류를 형성한 기본 예술경향에 있어서의 이미지화가 엄중한 질의(質疑)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지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의 표층 의의는 새로운 화려함이 야기한 지나치게 왜곡된 표현에 반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과 사람들의 실재적 생존상태와의 거리를 매우 멀게 느끼게 하였다. 이 도전의 실질은 여전히 예술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현실적 시에서 낭만적 시에까지, 상징적 시에서 이미지적 시에까지, 전과 다름없이 주조류가 교체된 선조적(線條的) 발전의 이 이치는 이미 예술의 본성에 위반되는 것임이 실증되어졌다. 이미지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적 변혁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재차 예술의 다른 봉쇄의 가능성을 타파되었다.

신시조류가 터져 나온 후,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유례 없는 기이한 예술 현상이었다. 한 줄기의 강물은 사라져 버리고, 수 천가지 물줄기들이 그물처럼 뒤엉켜 흐르는 상태가 도래하게 된다. 주요 조류를 잃어버린 시의 현실은 시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예시해주었다. 만약 예술의 이미지 반대 운동을 우연한 동기로 간주한다면, 이미지 운동이 조성한 선조적 상태를 끊어 버렸을 때 가장 예상할 수 없는 효과는 시 스스로가 보유한 생태(生態)의 진정한 개방일 것이다. 이 생태의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빠른 명확한 증거는 바로 『심천청년보(深圳青年報)』와 『시가보(詩歌報)』가 공동으로 창도한 “1986: 중국현대시 군체대전 (中國現代詩群體大展)”이다.

七

중국 신시 발전의 총체적인 역사적 고찰로부터, 신시조류의 가치는 명확히 드러난다. 그것은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혁명시운동에

중지부를 찍었으며, 또한 자신을 탐색함으로써 제 2차 시의(詩意)혁명에 중지부를 찍었다. 이 2차 혁명의 내부 추진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후기 신시조류 운동이다. 전통시 이후를 의의를 중시하는 시로부터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로의 변화로 개괄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시조류 이후의 개괄 또한 이미지를 중시하는 시로부터 생명을 중시하는 시로의 변화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시의 물결은 썰물 때를 만나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조수가 밀려나간 모래사장 위에서, 우리들은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비방을 듣지 않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여론은 보편적으로 시의 생명 본체에 대한 연결과 관조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현대시의 본질을 가리켜 인생의 복잡한 경험의 집합이라고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역사와 현실, 특히 생명 자체에 대한 투사와 조합을 거친 새로운 예술세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후기 신시조류의 시인들은 시대와의 이별을 명확히 고하였으며 — 설령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잠재된 연결고리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 그들은 시와 시대의 계약을 허락지 않았다. 그들은 복도, 서정의 시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논단임을 인정하긴 하였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일 뿐, 어떠한 인간도 대표하지 않으며, 또한 시대를 대표할 능력이 없거니와 그러한 일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도 않음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시인 자신의 생명의 창(窓)은 단지 자신만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아주 분명히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느끼고 있었기에 모든 감각과 판단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육체와 영혼에서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생명의 감수는 곧 시의 출발점이자 시의 귀착점이었다. 시의 생명에 대한 발견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내포의미는 무엇보다도 우선 보통인간이 전통적 초인을 대신하게 된 갑작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후광이 떨어져 나간 이후, 진실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전혀 꾸미지 않은 질박한 방식으로 당시 중국인의 생존 상태를 그려

내길 희망하였다. 이 생명의 체험은 풍자와 비유에 의존하면서 평범한 언어로 고통과 격분을 감추는 수많은 시를 넘쳐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중 일부분의 시는 여전히 현실로부터의 누적과 부담, 그리고 압력이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그것이 표현해 낸 “조금도 개의 치 않는 태도”는 사실, 생활의 고달픔과 비참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여기에서 전개된 생명의 두루마기 그림은 여전히 사회가 투영되고 굴절된 것이었다.

더욱 심층적인 생명체험은 내 안에 있는 우주(內宇宙)의 발견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사회기관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신을 하나의 완전한 세계로 간주하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태양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며, 자신이 곧 태양임을 확실히 인정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발견으로 인해 기뻐하였으며, 생명의 찬란함과 암담함을 발견함으로 인해 매우 놀랐다. 사람들은 이전에는 현실에 의해 무서움에 떨게 되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발견한 이 생명체에 의해 무서움에 떨게 되었다. 그들은 마귀와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하며, 더욱이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 신비지국(神秘之國)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였다.

이 내재정신 실체의 자체분열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빈궁하고 모호하며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전개되어갔다. 인간의 고도로 발달된 지혜는 그들로 하여금 생사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인간은 일단 죽음의 필연성을 인지하게 되면, 삶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게 된다. 게다가 이 과정에 가득 차 있는 황당함과 괴로움을 통찰하게 된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복잡한 체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시의 영토를 무한한 공간으로 확대시켜 주었다.

생명체험의 탐색에 종사하는 시는 개체 생명의 기본 특징이 생명의 영속(永續)과 충동임을 확실히 인정하였다.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생명의 욕구와 흐름은 시인에게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영원한 유혹이었다. 시인은 자신의 체험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신비감을 기반으로 시인 자신에 대한 애무와 고심을 거쳐서, 생명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내부로부터 생명현상을 통찰하여, 언어로는 전달할 방법이 없는 생명의 흐름 및 생명의 자체 상태를 파악하고 전달하게 되었다.

이 내재된 세계의 발견은 후기 신시조류에 매우 새로운 대륙을 제공해 주었다. 이 발견은 중국 현대시 운동과 중국 전통시학의 국한성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중국 신시로 하여금 “민족성”의 속박을 무너뜨리게 한 다음 전 인류의 시야 안에서 세계 현대시의 전반적 구성으로 진입하게 하였다. 중국 신시는 오직 이러한 경계를 획득하여야지 만, 세계적인 현대심령과의 교류와 공통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八

후기 신시조류가 내포한 규정성의 뚜렷한 특징은 현대인의 심리정서의 고독감이다. 이 고독감은 당연히 사회민족의 우환과 관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생명압박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대인의 이러한 고독감에서 벗어나서 현대시의 창작 동기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신시조류 역시 일찍부터 고독이라는 주제를 표현해왔다. 그러나 신시조류의 고독은 단지 일차적 고독일 뿐이었다. 그 고독감은 사회 대 동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꿈에서 깨어난 후의 고독과 적막은 주위 질서에 대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지음(知音)의 적막과 고독은 반항과 독립적 사고로 인해 마주치게 된 항력이 더해지면서, 침중한 비애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신시조류의 뒤를 이어 “2차 고독”이 일어나며, 이 고독의 특징은 후기 신시조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시기의 고독의 주제는 대체로 구분되어지는데, 전자가 과거

를 초월한 각성으로 인해 군체와 유리된 고독을 야기하였다면, 후자는 순수하게 개체에 근거한 원인에 속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는 인간 그 자체로 돌아왔고, 생명 그 자체로 돌아왔다. 그것은 자신을 생존적 곤경과 문화적 곤경 속에 가두어두고 세상과 격리시켰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비애는 별안간 나타났고,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러한 고독감은 사회의 것도 정감의 것도 아니며, 원래부터 생(生)과 함께 온 것이었다.

자아의식은 군체의식 중에서 제 1차 박리(剝離)를 진행하였다. 사람들은 그리하여 처음으로 강대한 인습이 엄청난 힘으로 억누르는 압박감 및 이해되어 질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통은 사회의 개인에 대한 경시와 압박, 그리고 공통성의 개별성에 대한 병탄과 손상으로 발생한 심령의 발버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신시조류 중에 나타난 고독감과 구체적인 사회원인과의 부조화는, 사람들을 인간 자체가 가진 잠재의식의 약탈에 더욱 심취하게 만든다.

당시 사람들이 사회 압박의 절곡에서 쟁탈하거나 인간이 이러한 쟁탈을 갈망할 때, 인간은 맨 먼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인간이 쟁탈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한 종류의 억압, 즉 과거로부터 사회에 종속되어온 상태이며,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지금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던 생명 그 자체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게 될 때, 인간은 다시 한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전통적 시관(詩觀)은 이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하였다. 시인의 독선적이고 지나치게 감상적인 태도가 맞바꾼 것은 사회와 독자의 심한 냉담함이었다. 점차 고립으로 향해 가는 이 과정은 대체로 사회집단의식에서부터 자아개성의 선전으로 향해갔으며, 일반적 인생쟁취로부터 인간의 생존상태와 생명체험으로 향해갔다. 어떤 시는 심지어 타인 및 심신 이외의 일체 것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것은 감각과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생명의 내재역정 및 인간의 자기 내심에 대한 접촉을 써냈다.

시인들은 흥미진진하게 혼란스런 외부세계에서 벗어나 내심으로 진입하면서 획득한 광대하고도 찬란한 또 하나의 우주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생명의 외재형태로부터 생명의 내재형태로 나아가고, 묘사로부터 심오한 사유로 향해가면서, 시의 최고경계는 마치 잠꼬대와 같았다. 그것의 “세계”와의 단절은 심각한 고통을 조성하였다. 시는 한껏 과장된 묘사와 토로에서 잠꼬대와 악담 같은 표현으로 향해갔으며, 여전히 전통적인 감상습관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것은 부족한 “지음”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자발적인 의지로 추구한 고독에서,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삼킨 쓰디쓴 열매에까지, 그것은 후기 신시조류가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두드러진 특성을 체현해 내었다.

신시조류는 상흔문학과 반사문학의 선도자이자, 또한 뿌리 찾기 문학의 선도자였다. 뿌리 찾기 문학은 박학하고 고아한 문학성취를 표현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서적에서 그릇에까지, 벽돌, 기와에서 건축에까지, 문화적 추억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며 궁극적으로 심리평형을 가져오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투입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옛 꿈에 현대인의 한탄을 기탁하였으며, 그러한 찬란한 문화전통에 앞드려 절하고, 그 발 밑에 머리를 조아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면한 것은 그 전통이 파괴되어진 후의 폐허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문화와 역사를 재건한다는 바람으로, 현존하는 질서에 대한 실망의 정서를 표시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고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멸하였다. 그들의 뜻은 파괴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고루한 꿈 속 세계를 타파하는 데 있었다. 한바탕의 합성은 그들의 파괴의 쾌감을 터트리기도 남았다. “당시 수많은 시인들이 선조의 토템을 여기 저기 찾아다니느라 바쁠 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도자기 가게에 잘못 들어간 한 마리 원숭이로 만들었다.”³⁾ 일부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을 때, 다른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지반을 파내고 있었다.

3) 朱大可 : 《문화의 적멸로부터 자아의 적멸에까지》

건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때에 단지 일종의 태도일 뿐이었지만, 그 태도는 전과 다름없이 진실하였다.

시의 아름답던 하늘은 무너져버렸다. 떠올라 온 것은 제멋 대로 인 그러한 미학 소동이었다. 이전에는 도덕교화와 심령수양을 담당했던 신선과 요괴 따위가 지금은 조롱과 조소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조금도 거리낌없는 용담 속에서 가장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한 것은 해와 달이 한 하늘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세계와 내가 항상 조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비애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아름답지 않은” 시는 정감에 대해 여과와 회석의 결과를 행하였으며, “낭만주의”의 범람에 철저히 반항하였다. 그것은 인생의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과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전통적 슬픔의 정감은 틈이 벌어지게 된다. 남겨진 것은 단지 차디찬 사념이었다. 이러한 시 중에는 당연히 개인정감과 연관된 것도 있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냉각처리”되어지며, 게다가 흔히 볼 수 있는 “후련함”과 조롱을 잊지 않고 덧붙였다. 비애가 변해서 조롱이 되어버린 그러한 정취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었으며, 그것은 바로 제 3대 시인들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태도로 전통미학의 토대에 반항하였다는 것이다.

후기 신시조류의 도전이 야기한 미학 폭동은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일종의 거짓된 신뢰에 대한 보복심리는 중국의 반 전통 시인으로 하여금 문화 모독을 그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에는 자아 모독을 야기하게 한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전통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 몰아내 버렸으며, 시에 절대로 쓰여질 수 없을 것 같은 것들로 난폭한 점령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문화비평의 토대 위에서 전개한 “추함”에 대한 승인이었다. 마땅히 당시 일부 사람들이 신뢰의 귀의와 굴착을 진행할 때, 다른 일부 사람들은 반대 방향의 추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호보완은 중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며,

그것은 오랫동안 쇠하지 않았던 자아도취에 대해 경각과 각성을 일으켜 당신으로 하여금 구역질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악몽에서 벗어났을 때의 아픔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생명의 체험으로부터 야기된 죽음이라는 가장 사람을 혐오하게 또 두렵게 만드는 영역에 대한 언급은 추함의 미(美)로 바싹 접근하게 하였다. 이러한 죽음과 추함의 결합은 시가창작에 있어서 전에 없던 반역이 되었다. 시는 황실의 궁전과 침향나무 정자 옆의 미녀와 좋은 술과 함께 하다가, 봉화가 피어오르는 전쟁터로 맹렬히 돌진하여, 용사·영웅과 함께 나라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흥건히 흘렸으며, 나중에는 당시의 정치상황의 협박에 못 이겨 올라미에 빠져들고 말며, 거기에서 사람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짓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오늘날 시는 미궁 즉 어지럽고 무질서한 세계 속에 빠져들었으며, 과거의 일치된 그리고 직선적인 방향감을 잃어버렸고, 최후에는 단순한 아름다움과 비장한 이별을 고하게 되었다. 사라진 것은 단지 단일한 정서와 정감이었으며, 단일한 풍부함과 이상이었고, 단일한 시였다. 당시 그것이 마지막 하나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 시 역시 이 때문에 더욱 많고 더욱 큰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그것의 약속 없는 “자유”를 과시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러한 자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황공하게 만들고 있었다.

九

마치 고대 그리스의 마법의 병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의 그러한 혼세(混世)에서 풀려난 정령은 그로부터 다시는 잡혀 갇히지 않았다. 우리들은 자기가 저지른 최악의 열매를 먹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열매는 비록 삼키긴 힘들어도, 금단의 열매는 결코 아니었다. 이 의념(意念)은 한바탕의 “재난”을 초래하였다. 이 국면을 통괄하고

정리하고자 했던 어떠한 사람도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무서운 잘못된 장소에 발을 내딛게 되어 버린다. 여기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모두 낯선 것들이었으며, 우리들은 자신의 부름에 호응하는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중국 신시조류의 흥기 및 후기 신시조류의 진자에 대한 연장의 성격은 전망(展望)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라는” 관성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문화, 문학, 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관념은 바로 중국의 기나긴 역사 진행과정 중의 침적의 농후와 교체의 연기(延期)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없는 것이 없고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는 복잡하게 뒤엉킨 상태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신·구 관념이 교착·병존하는 이 특수한 시대를 맞이하여 온갖 관념과 장식의 교차와 결탁의 복잡한 정세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래지게 하였다.

시는 맨 먼저 사실을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한 예술사조와 예술방식의 흥성이 반드시 다른 조류의 소멸의 대가는 아님을 알려준다. 오늘날 발생하고,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오늘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상 역시 이렇다. 시의 경우에 있어서, 신시혁명의 성공이 전통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당시의 그러한 험기왕성한 반역자는 오히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도 이와 같지 않았다.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한 것은 문언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것의 특유한 매력으로 계승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언시를 타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었던 당시의 적잖은 시인들이 열정이 시들해져버리자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자신의 대립물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중국시의 기본생태는 도태와 쇠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탐욕스런 적립이라고 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일종의 예술의 기이 현상을 보게 된 것이다. 함께 뒤엉켜 있는 결과는 중

국시를 가장 난잡하고도 가장 풍부한 시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중국의 이 매우 혼탁하며 흐르지 못하고 있는 “급류”에 대해 전통에 대한 관용을 논해서는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망각할 수 없는 중국의 장구함과 유구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전통을 변혁하는 두려움 없는 정신이다. 바로 이 점 위에서, 우리들은 신시조류의 품격과 신시조류의 정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이 대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며, 사실 우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통시는 확실히 이미 커다란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었다. 그것의 아직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예술경험은 결코 소멸 때문은 아니었다. 신시조류는 새 시대의 예술 조류를 대표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확실히 우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들과 한 곳에 공존하는 법을 습득해야만 했다. 한편으론 무엇과도 대체되어질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의식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생존과 발전을 거머쥔 권력을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대 예술사유의 기본특징은 경쟁이다. 존중과 이해 속에서 전면 다원화로 향해 가는 세계와 인생에 적응해야 한다. 신시조류 운동을 긍정하고 추진하는 것의 목표는 중국신시가 왜곡되는 구조를 바꾸어, 그것으로 하여금 필요한 확장과 보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의 방식을 대체시키길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대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대 예술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의 인류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식하고 있었으며, 예술 전체와 정치 전체가 똑같이 세계 조류에 위배되어 시의에 맞지 않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막론하고, 통일된 예술로 전체를 통솔하는 국면을 새로이 형성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예술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낡은 사회와 전통은 일종의 두려움의 타성을 생성하였다. 만약 강력한 압제가 없었다면, 그 오래되고 낡은 일체 것들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아주 곤란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가입과 확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몽롱시는 정상적인 예술현상으로써는, 상상외의 그렇게나 강렬하고 영속적인 감동 및 예술 이외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관여(關與)와 위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황토지의 심후함과 침체를 발굴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들은 당연히 수직적 계승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경 이러한 계승을 강조하고 지각시킬 필요는 없으며, 또한 관성의 압력으로 이를 추진할 필요도 없다. 계승은 무시되어질 수 없으며, 또한 영원히 망각되어질 수도 없다. “수평적 이식”(사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라고 해야할 것이다)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새로운 명제로써 그것은 중국의 어떠한 구석진 곳, 어떠한 시기에도 비난을 불러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술의 수평적 묘사와 현 경계의 글로벌 관념 추세의 일치성, 다시 말해 그들의 상호흡수와 상호보완은 단지 사회로 하여금 이롭고 상반되지 않는 장점들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예술은 세계성의 언어를 취득해야한다는 이 대 추세를 거역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어떻게 냉정하게 이 사회의 복잡성과 포용성에 대면한다든지, 어떻게 너그럽게 이 낡은 “박물관”을 대면한다든지 간에, 우리들 역시 예술을 타협·교환함으로써 세계로 통하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과 질서에 반항하면서 흥기하는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 성숙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요구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변혁이 안정되지 않고, 이 예술의 반항이 사람들에게 건설적인 계시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들의 있는 힘을 다해 행했던 이러한 쟁취는 무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이전

에 겪었던 혼란은 우리들이 불러들인 결과였다. 권력과 의지로 안배되었던 그러한 질서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는 진보한 것이며, 비예술적 운동으로 규정된 발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이러한 그물망 상태는 진보한 것이다. 마술의 병은 열려 버렸다. 요괴는 날아 도망가 버렸고 다시는 그 병 속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이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당신은 자신의 부름 속에서 적응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하는 한가지 사실은 신시조류에서부터 수문이 열리면서, 시 예술은 고삐 풀린 말처럼 광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엽, 시계(詩界)의 선언서는 눈송이처럼 공중에 흩날렸다. 즐비한 예술 유파는 너무 많아 다 못 볼 지경에 이르렀다. 그중 극단적이고 제멋 데로였던 적잖은 주장들은 우연히 일어난 언설(言說)로, 오늘날에는 이미 구름이나 연기처럼 금방 흩어져 버렸다. 그러나 당시의 그러한 걱정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생명력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다. 20여 년 전의 “기괴함”에 대해 내지른 한바탕 고탐소리가 오늘날에는 이미 그 자체가 “기괴”였음이 실증되어졌다. 전통적 심리태도와 사유습성은 놀라 내지른 고탐속에서 여지없이 폭로되어졌다. 현재, 그 일대 선행자들은 이미 저 멀리 가 버렸다. 이미 조수가 밀려 나가버린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것은 갈수록 지워져 가는 발자국이었다. 더욱 많은 후계자들이 우리들 앞에서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들은 더 이상 놀라 소리치지 않게 되었다. 당시 놀라 고탐를 내질렀던 그 사람들 역시 다시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약간만 이상해도 크게 놀라버리는 그들의 고질병을 서서히 고쳐나가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국은 확실히 진보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추진력으로 그 너무나도 무거운 포환으로 하여금 움직임의 갈구와 바램을 느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中国现代诗歌中的传统因子

蔣寅*

< 目 次 >

- 一. 现代诗歌与诗歌传统的关系
- 二. 现代诗歌中的传统因子
- 三. 徐志摩诗歌中的传统因子
- 四. 余论

一. 现代诗歌与诗歌传统的关系

这项研究的缘起，是我今年九月在东亚大学与几位研究现代诗歌的学者聊天，谈到我讲课中感觉到的现代诗歌与中国传统诗歌的关系，金龙云教授希望我就此题目谈点自己的看法。对这艰巨任务，我本来绝不敢接受，无奈盛情难却，只得勉力从事，浅陋之处还望专家指教。

本文的出发点是现代诗歌史研究对旧体诗创作和古典诗歌传统的漠视。我们知道，新文学运动在观念上造成的白话文学与文学传统的断裂，引发诗歌理论中的古今、新旧诗之争。新文学家的反传统主张比较单纯，以胡适的“三大主义”为代表：“曰推倒雕琢的阿谀的贵族文学，建设平易的抒情的国民文学；曰推倒陈腐的铺张的古典文学，建设新鲜的立诚的写实文学；曰推倒迂晦的艰涩的山林文学，建设明了的通俗的社会文学。”¹⁾ 这大家都清楚，毋须赘言，倒是反新诗者的议论，各有

*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员、研究生院博士研究生导师

各的见地。最常见的批评，是以不精炼为口实。如陈景寔《观尘因室诗话》举杜甫《咏怀古迹》“群山万壑赴荆门，生长明妃尚有村”一联，说若将此意写成新诗，必作：“这一大些山头和那些山涧沟子一齐都对荆门，路旁边有一个小村子里头有一位美貌的佳人。”这话虽说得俏皮，但以历经千百年磨炼的古典诗歌语言与“五四”初兴的新文学幼稚白话相较，实在不能说得公允。

新旧两派的争论和冲突，都有不同程度的偏激之处，由此产生了调停或者说超脱新旧之争的一派，他们更重视诗歌的本质问题，将论争引向深的层次。姚鹓雏在《也谈新体诗和旧体诗》一文中指出：“不管是新体诗还是旧体诗，重要的是本质，而不是形式。”“旧体诗好比是中国式的磁器碗，新体诗就好比是洋磁碗，形式上固然有新旧，好丑却不在形式，而在碗里的东西，讲究的是滋味。”因此他主张：“会做诗而又有新学术新思想的人，不放做做新体诗，万一他的新体诗做得好，受到欢迎，这不是新诗形式的功效。这是研究新学术新思想的功效。（中略）反之，思想学术果真新了，仍旧做做旧诗，也未尝不可。旧瓶装新酒，旧碗盛佳肴，我看滋味还是不错的。”²⁾ 1921年11月，由《时事新报·文学旬刊》第19号斯提的《骸骨之迷恋》一文，引发一场笔战，薛鸿猷提出：“我认文学（诗是一种）这种东西，是人生的奢侈品，应当由各人自由欣赏，不受外力的压迫，喜欢做文言，就用文言，喜欢做白话，就用白话，格律方面，自己须解放自己，但是愿受格律的拘束者听之。”基于这种折衷的诗歌主张，他提出：“我们当在文言诗中，做一番整理的和改革的工夫，在语体诗中，做一番建设的工夫，但文语两体中却无鸿沟之判。要在文言诗中做一番整理或改革的工夫，尤当认清各家的真面目，决不能因为是前人的作品，就鄙弃之，一笔抹煞，谓之毫无价值，而失学者研究精神。”³⁾ 这种说法代表了折衷派的观点，与当时“整理国故”的思潮出发点是相同的。

¹⁾陈独秀《文学革命论》引，载1917年2月《新青年》第2卷第6号。

²⁾原载1919年《晶报》85号《笔刺》，收入杨纪璋编《姚鹓雏剩墨》，社会科学文献出版社1994年版。

³⁾薛鸿猷《一条疯狗！》，1921年12月1日《时事新报·文学旬刊》第21号。

现代中国诗学原处在一个“西洋文化闯进中国文化的藩篱，一切固有艺术，也将到了一个总结的时期”的学术背景下⁴⁾，新、旧诗歌营垒的论争更激发了清点传统的意识，催生本世纪第一部现代形态的中国诗学研究著作——刘大白的《中诗外形声律说》。据自序说，此书是1919年开始酝酿的，作者做这一课题的基本想法是：

不论是想把自己所有的古董向人家夸耀的，不论是想指摘人家底古董尽是些碎铜烂铁，一钱不值的，不论是想采运了洋古董来抵制国货的，似乎都得先把这些古董查明一下，给它们开出一篇清单来。如果不做查账、结账的工夫，而只是胡乱地夸耀一下，指摘一下，抵制一下，这种新旧交哄，未免有点近乎瞎闹。

后来闻一多自述整理国故的动机也重复了同样的意思⁵⁾。闻一多1944年在给臧克家的信中说：“我比任何人还恨那故纸堆，正因为恨它，更不能不弄个明白。”。书中将诗的要素分析成音、步、停、组（联排）、均、协、节、篇、篇群，这九个要素经“差齐律”、“次第律”、“抑扬律”、“反复律”、“对叠律”五种结构方式的交互组合，就构成了古典诗歌变化多端的语言形式。他将这些有例可征的节奏、句法、章法、篇法与西洋诗歌进行比较，得出结论：中国诗的形式特征是由语言特征决定的，并具有内在的结构美。现在看来，他所概括出的形式原理和形式法则都是近代美学的老生常谈，而断言五七言的音步比例、五七绝的篇章形式都符合黄金律则显得牵强附会，但他的研究方式是具有现代学术色彩的，古典诗歌的形式特征在他的解析之下，与西方诗歌有了可比性。唐钺1924年撰《中国文体的分析》一文，以整（上下句长度相等）、丽（上下两句意思对偶）、叶（上下句声调相对）、韵（押韵）、谐（全篇字音有定格）、度（各句字数相同）六要素衡量古代文体，最后得出结论：散文与自由诗六要素俱缺，偈及部分佛经、公牒文有整，押韵自由诗、部分古诗、箴铭有韵，骈文有整、丽，大部分古诗、前期古赋有

⁴⁾朱右白《中国诗的新途径》第1页，商务印书1993年版。

⁵⁾刘大白《中诗外形声律说》序言1994年夏敬观铅印本。

整、韵，四六（律骈文）有整、俪、叶，后期古赋有整、俪、韵，词曲有韵、谐、度，律赋有整、俪、叶、韵，绝句有整、叶、韵、谐、度，惟律诗六要素俱全。是故律诗堪称集古代文体之全部特征⁶⁾。经过这些研究，古典诗歌的形式之美及其所具有的现代意义，以及其形式在表现现代生活和意识上的缺陷都清楚地呈现出来，人们对新、旧诗的价值和两者的关系从而有较理性的看法。后出的一些诗学通论著作，如杨鸿烈《中国诗学大纲》第九章结论，乃是“著者对于新诗人的罪言”，而蒋伯潜《诗》（世界书局，1948年）则专设一节论“旧诗之蔽”，无论它们以什么样的观点和立场来回应新、旧诗之争，其联系中国古典诗歌的传统来讨论问题的出发点是相同的。不难理解，中国现代诗歌创作和诗歌理论建设是从反抗和挑战古典诗歌传统开始的，可反抗和挑战引发的对古典诗歌传统的认真清理，反而使古典传统呈现得更为清晰和理性化，在给人压迫的同时更放射出迷人的魅力。

在那个以反传统为主流话语的历史语境中，很难想象诗人们会公开地表示对古典传统的倾倒和赞美，在学者和理论家们的热烈争论之中，诗人们默默地探索新诗的道路。不管是有意识还是无意识，多数诗人在写作中都利用了由教养获得的古典资源。现代诗歌史上的第一代、第二代诗人，由于启蒙教育受到古典文学的熏陶，写作中仍保留了古代诗歌特有的意象方式和追求意境的特征，他们所受外国思想和文学的影响，主要是在增强主体性（如冰心的泛神论、徐志摩的自由主义）、扩大取象范围（如陈梦家、何其芳）、增加密度（如李金发）和自由联想（如冯至）等方面。当然，具体到每个人的诗风，则有不同的选择。既有朱湘那样执着地学习古代民歌，尝试现代格律诗的诗人，也有戴望舒、冯至那样的欧化情调浓厚的诗人，还有冰心那种中国版的泰戈尔风格。他们的选择有时显得很执拗而出现相当有趣的现象，比如对古典文学造詣最深的闻一多，虽热心尝试格律诗，但艺术表现却最少古典气息，反而有浓厚的现代主义色彩；相反，对西洋诗歌有丰富知识、日后成为英语诗歌翻译家和研究者的卞之琳，却对古典哲学很有兴趣，诗中不时玩弄

⁶⁾唐钺《国故新探》，台湾商务印书馆1966年版。

一下古典情调和旧文人趣味；而现代诗歌史上象征主义的前驱李金发，同时也是诗歌语言文言色彩最浓重的诗人。这种复杂的个人化倾向给讨论现代诗歌中的传统因子增加了困难，因为我们很难根据一定标准或从某些原则出发确定讨论的对象，对现代诗歌史知识有限的笔者来说，这种困难更显得难以逾越。在参考文献缺乏和知识准备不足的双重困难下，我只能就管见所及蜻蜓点水似地举出一些例子，说明现代诗歌中传承的古典诗歌传统的因子。

二. 现代诗歌中的传统因子

讨论现代诗歌中的传统因子，人们常会举出现代诗歌与古典作品在意境上的相似，比如说戴望舒《雨巷》与李璟《浣溪沙》“青鸟不传云外信，丁香空结雨中愁”，或卞之琳《断章》“你站在桥上看风景，看风景人在楼上看你”和冯延巳《蝶恋花》“独立小桥风满袖，平林新月人归后”⁷⁾。我还可以举出更直接的因袭古典诗歌的例子，如卞之琳《旧元夜遐思》“是利刃，可是劈不开水涡”，脱胎于李白“抽刀断水水更流”一句，彭邦桢《月之故乡》整体化用李白诗意……实际上古今中外人的情感和心理是相通的，诗歌原理自也有共通之点。像冯至《十四行诗》（伽利树）那样模仿西洋诗歌形式的作品，精神上却是中国诗歌传统的咏物诗；而何其芳《预言》这样用传统的“比”体写成的恋歌，却充满了西洋童话式的景物和情调。因此我们必须透过纷繁的诗歌表象，找到真正属于中国古典诗歌传统的东西。

首先要指出的是现代诗歌中渗透着古典哲学及其语言表象。古人的思想通过经典流传下来并作为教养深入到后人的意识中，人们不一定经常思考这些道理，但却会在某个时候突然产生一种类似“悟”的印证。卞之琳《无题》（五）写道：

⁷⁾孙玉石主编《中国现代诗导读》第279页，北京大学出版社1990年版。

我在散步中感谢
襟眼是有用的，
因为是空的*，
因为可以簪一朵小花

我在簪花中恍然
世界是空的，
因为是有用的，
因为它容了你的款步。

自注：“古人有云：“无之以为用。”有人引庄子“社木”的典故来解此诗⁸⁾。这里实际是用《老子》第十一章，老子举车轮、陶器、门窗的功用都是通过“空”来实现的，所以说“有之以为利，无之以为用”。作者在散布时，偶然采一朵花插在襟眼里，因而想到老子说的“无之以为用”，插花时恍然悟及，世界从这个意义上说也是空的呀，因为它不也用么：“容了你的款步。”末句让人联想到成语“空谷足音”，但这里的“空”已由道家的虚实之辨延伸到佛家的有无之辨了。无论是作者的体悟也好，是发挥传统思想也好，总之其中看得出一种道家观念与佛家观念的融合。戴望舒《古神祠前》这样描写他的思绪：

它飞上去了，
这小小的蜉蝣，
不，是蝴蝶，它翩翩飞舞，
在芦苇间，在红蓼花上；
它高升上去了，
化作一只云雀，
把清音撒到地上……
现在它是鹏鸟了。
在浮动的白云间，
在苍茫的青天上，
它展开翼翅慢慢地，
作九万里的翱翔，

⁸⁾孙玉石主编《中国现代诗导读》第312页，北京大学出版社1990年版。

前生和来世的逍遥游。

这里除了云雀之外，都是古典中的物象，从《诗经》中朝生夕死的蜉蝣，到《庄子》中栩栩化生的蝴蝶，到抟扶摇而上九万里的鹏，最后发挥庄子《逍遥游》的意旨，表达对绝对自由境界的向往。这是从庄子到李白到苏东坡历代文人所企求的境界。

意象作为诗歌的基本构成单位，对诗歌本文确立和诗意的表达都起着非常关键的作用，意象的运用也是现代诗歌与诗歌传统联系最密切的地方。由于意象与名物有关，凡诗歌中涉及名物，往往与古典诗歌的意象发生关联，泛泛举证是不能说明问题的，也是缺乏说服力的。这里分别举一个常见的和不常见的意象，以见现代诗人在使用意象上对古典作品的因袭。何其芳《脚步》写道：

你的脚步常低响在我的记忆中，
在我深思的心上踏起甜蜜的波动，
有如虚阁悬琴，久失去了亲切的手指，
黄昏风过，弦弦犹颤着昔日的声息，
又如白杨的落叶飘在无言的荒郊，
片片互递的叹息犹似树上的萧萧。

这里的白杨飘零的意象本很寻常，但“萧萧”的叶声表明了它和汉代《古诗十九首》“白杨何萧萧，松柏夹广路”、“白杨多悲风，萧萧愁杀人”的关系，所以说这里白杨的意象不是出于独创性的构思，而是对古典诗歌的因袭。又如《预言》：

这一个心跳的日子终于来临！
你夜的叹息似的渐近的足音
我听得清不是林叶和夜风私语
麋鹿驰过苔径的细碎的蹄声！

在诗境虚构的森林场景中，麋鹿不能说是一个奇异的角色，但这里“驰过苔径的细碎的蹄声”就不一般了，它让人想起唐代钱起的诗句“幽

溪鹿过苔还静，深树云来鸟不知”（《山中酬杨补阙见过》），两者无论所描写的景物、所传达的感觉还是所表现的趣味，都有着同样清绝的韵致，其中“苔径”这一细节的相同大概不是巧合吧？

现代诗歌中的传统因子，更多的是在修辞技巧方面。这里随手举一些例子，看新诗修辞中的传统因子。首先是化用典故。典故作为古典诗歌的修辞方式和语言素材，在诗歌提供的不只是一种寓意，它包含的故事情节往往会浓缩为一个意象。像李金发“或一齐老死于沟壑，如落魄之豪士”（《夜之歌》）固然是用《孟子》“志士不忘在沟壑”之典，但更多的时候，意象只是局部和典故有关，经后代转运用，以至人们都忘却其中寓有的典故及其含意。且看冯雪峰《有水下山来》：

有水下山来，
道经你家田里；
它必留下浮来的红叶，
然后它流去。

这里的红叶作为山泉带来的礼物，当然寄托着一种情意，如果追索其构思的原型，应该与唐代红叶题诗的典故有关。唐代有宫女在红叶上题诗，放到御沟里顺流漂出。诗云：“流水何太急，深宫尽日闲。殷勤谢红叶，好去到人间。”诗被士子拾到，后宫女被放出宫（或言战乱），竟结成良缘。事见范摅《云溪友议》、孙光宪《北梦琐言》、孟棻《本事诗》、刘斧《青琐高议》等书记载，人物和情节略有出入，但红叶题诗传情的故事则一。冯雪峰诗中的红叶，正是从唐代御沟流来的带有诗意的红叶，所以读到这里能感到其中的诗意。比较起来，石评梅《心影》中的红叶用得较隐晦，虽然她直接点明了题诗，但脱离了流水的语境，反离典故更远了：

夜深了，
我想看天上散布的繁星。
忽然由树林里——飞出一只小鸟，
落到我的襟肩，

原来是秋风赠我的枫叶诗笺。

《诗经》使用的表现手法“兴”，即“先言他物以引起所咏之词也”（朱熹《诗集传》），到唐诗中就不太运用了，以后只残留在《信天游》之类的民歌中⁹⁾。但何其芳《花环》（放在一个小坟上）却是起首用“兴”的作品：

开落在幽谷里的花最香。
无人记忆的朝露最有光。
我说你是幸福的，小玲玲，
没有照过影子的小溪最清亮。

诗中写一个少女的天亡，先用幽谷之花和朝露暗喻她单纯而寂寞的生命，所谓“兴而比”即具有比喻意味的兴，以引出第三句对少女纯美生命的赞叹。这都是很平常的写法，奇特的诗的第四句又补充一句“没有照过影子的小溪最清亮”，实际上是将三句兴语错综出之，不仅意思奇巧，节奏声韵也更宛转浏亮。这是对传统表现手法加以改造和变化、推陈出新的出色例子。

谐音双关是带有民歌色彩的修辞手法，南朝小乐府中用得最多，如用莲代怜，藕代偶，用莲子的苦双关人心之苦，不一而足。《子夜歌》有“雾露隐芙蓉，见怜不分明”，《子夜四是歌》有“乘月采芙蓉，夜夜得莲子”；《读曲歌》有“湖燥芙蓉萎，莲汝藕欲死”。文人除仿民歌之作（如刘禹锡“东边日出西边雨，道是无情却有情”），一般很少使用。朱湘的《歌》正是仿民歌体的作品，其中用了传统的谐音双关的手法：

在绿肥的夏天，

⁹⁾清初诗论家叶矫然《龙性堂诗话》初集：“近人作诗，率多赋体，比者亦少，至兴体则绝不一见。不知兴体之妙，在于触物成声，冲喉成韵，如花未发而香先动，月欲上而影初来，不可以意义求者，国风、古乐府多有之。徐文长谓今之南北东西虽殊方，而妇女儿童、耕夫舟子，塞曲征吟，市歌巷引，无不皆然，默会自有妙处，知言哉！”

我想折一枝荷贈怜，
因为我们的情
同藕丝一样的缠绵，——
谁晓得莲子的心
尝到口这般苦辛？

这里“莲子的心”即双关上文的“怜”（情人），而藕丝缠绵的比拟也正是《读曲歌》“杀荷不断藕，莲心已复生”的意思。看得出，朱湘是深得民歌技巧之三味的。

互文亦称互辞，互文见义。《诗经·小雅·楚茨》我仓既盈，我庾维亿。郑玄笺：“仓言盈，庾言亿，亦互辞，喻多也。”庾，露积也。《仪礼·乡射礼》贾公彦疏：“凡言互文者，各举一事，一事自周，是互文。”杜甫七律《狂夫》有句云：“风含翠筱娟娟净，雨裊红蕖冉冉香。”宋代罗大经《鹤林玉露》卷七指出：“上句风中有雨，下句雨中有风，谓之互体。”这是古典诗文中常用的修辞手法，在文字简洁和双音节词多的古汉语中能够产生文约义丰的效果。我们在现代诗歌中也看到互文的运用，如应修人《晨课》有这样两句：

叶外是嫩霞浮，
枝梢有淡云钩：

两句去掉“是”和“有”，形式上便是五言诗句，其表现也是古诗典型的虚景实写，即类似拍风景照片的取景法，用一个具体的近景来衬托广阔的远景。“嫩霞浮”和“淡云钩”本是较虚的景，用“叶”“枝”加两个方位词将其具体和固定，同时完成了互文的修辞手法。徐志摩《月下雷峰影片》也用了互文的手法：

我送你一个雷峰塔影，
满天稠密的黑云与白云；
我送你一个雷峰塔顶，
明月泻影在眠熟的波心。

塔影和塔顶是互文的表现，“满天稠密的黑云与白云”是由塔顶所见，诗中用了塔影；而“眠熟的波心”是由湖中塔影所见，偏用了塔顶，形成塔顶实像和塔影虚像间的互文。

如果我们更细致地阅读和体会，还可以看到，现代诗人不仅在词汇上从古典诗歌中采撷了大量素材，如李金发诗中的“烟突”、“裙裾”、“勾留”、“户牖”、“颓委”、“缘登”，在声韵方面也汲取了古典诗歌传统的菁华。石评梅《高君字挽词》可以说是字字血、声声泪的哀歌，但声韵的运用却一丝不苟：

红花枯萎，宝剑葬埋，你的宇宙被马蹄儿踏碎。
只剩了这颗血泪淹浸的心，交付给谁？
只剩了这腔怨恨交织的琴，交付给谁？

“葬埋”一词从汉语习惯说并不自然，但若用埋葬就和枯萎平仄重叠，读起来不好听，作者显然是为保护诗歌的音乐性而对双音词的词素作了调整。同样的例子有冯至著名的《蛇》：

它是我忠诚的伙伴，
心里害着热烈的乡思：

“伙伴”习惯作“伴侣”，但侣、思都是细音，韵部接近而又不押韵，读起来反差不大，是古诗的忌讳。用去声“伴”对“思”，则对比明显，韵调有抑扬。

这些都是我阅读和讲课中随手记下的例子，如果仔细搜寻，类似的例证一定广而且多。

三. 徐志摩诗歌中的传统因子

徐志摩这位新月派的主将，从生活情调到待人接物的方式都给人全

盘西化的感觉，他的诗歌更是深受十九世纪英国浪漫派诗歌的影响，从题材到思想都充满异国情调。卞之琳说徐志摩和郭沫若一样，“都是从小受过旧词章的‘科班’训练，但是当时写起诗来，俨然和旧诗无缘，而深得西诗的神髓，完全实行了‘拿来主义’”。¹⁰⁾ 这种看法出于学生对老师的深切了解，当然值得倾听，但我读徐志摩诗集的结果，却发现徐志摩诗的洋装每每是用古典的针线缝纫起来的。

首先看1924年陪泰戈尔访问日本时所作的《沙扬娜拉一首》（赠日本女郎），这首著名的短诗是由一个古典诗歌的经典表现构成的：

最是那低头的温柔，
象一朵水莲花不胜凉风的娇羞，

用植物的风韵形容女子的神情，本是最普通的明喻，因其描述和比喻安排在一联中，让人油然想起白居易《长恨歌》的“玉容寂寞泪阑干，梨花一枝春带雨”。就艺术效果而言，两者难分伯仲，但从表现结构说，则徐句更复杂精巧，因为“水莲花不胜凉风的娇羞”本身包含了一个拟人修辞在里面，一种令人销魂的凄婉之美，更衬托出日本女郎含羞低头的神情，让人不胜爱怜。这一表现的成功，引来不断的模仿。戴望舒《山行》的“却似凝露的山花，我不禁地泪珠盈睫”，还只是《长恨歌》的翻版；郑愁予《错误》的“我打江南走过，那等在季节里的容颜如莲花的开落”，则是后出转精的杰作。在时间中消耗的生命被具体化为四季的循环，期待→失望的心情具体化为容颜的欢欣和惨淡，容颜的欢欣和惨淡更具象化为莲花的开放和凋落，而莲花的开放和凋落又具象化了季节的循环。精巧的结构富裕这一表现以无限的意蕴。

徐志摩的诗中时常可见对传统意象的因袭。以英国伦敦剑桥大学为题材的名作《再别康桥》便是很好的例子。诗的第二段写道：

那河畔的金柳，
是夕阳中的新娘，

¹⁰⁾卞之琳《徐志摩诗集》序，四川人民出版社1981年版。

波光里的艳影，
在我的心头荡漾。

将杨柳比作夕阳中的新娘应该说是很新颖的比喻，我不曾在古典诗歌中看到过，但如果考虑到这里的杨柳作为诗人热爱的对象之一，寄予了一种眷恋之情，那么杨柳意象就容易看出和《诗经》“昔我往矣，杨柳依依”的关系，用新娘离别新郎的眷恋来比喻杨柳的依依不舍，而那艳影在心头荡漾的正是与“潭里的水漾成无限的缠绵”（《春的投生》）同样的柔情。再看第三段：

软泥上的青荇，
油油的在水底招摇；
在康河的柔波里，
我甘心做一条水草。

“青荇”出《诗·周南·关雎》“参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油油”出《史记·宋微子世家》箕子朝周，过殷故墟，……其歌曰：“麦秀渐渐兮，禾黍油油。”《索引》曰：“油油者，禾黍之苗光悦貌。”作者用中国古老的词语来描绘异国同样的植物荇菜，意在以传统的比兴的方式引出自己对康桥的恋慕之情。这种表现方式与《诗·桧风·隰有萋楚》同一机杼：“隰有萋楚，猗傩其枝。夭之沃沃，乐子之无知。隰有萋楚，猗傩其华。夭之沃沃，乐子之无家。隰有萋楚，猗傩其实。夭之沃沃，乐子之无室。”昔日萋楚的欣欣生意和无知无识，反衬古人对生的迷惘和愁烦；而此刻青荇悠然自适之可羡慕，则强化了诗人徐志摩离别康桥的无奈和眷恋。

类似传统意象的因袭，在国际题材的作品中并非偶然出现。他在平生最倾倒的女性曼殊斐儿墓前写的《悼诗》有两句：

我昨夜梦入幽谷，
听子现在百合丛中泣血。

子规泣血用蜀望帝怨魂化作子规的故事。《十三州志》载：“望帝使鳖冷治水而淫其妻，冷还，帝惭，遂化为子规。杜宇死时，适二月，而子规鸣，故蜀人怜之。”这一典故在后人诗中被运用时，往往各取一意。志摩这里是取李商隐《锦瑟》“望帝春心托杜鹃”之意，表达无尽的憾恨。这从他的《杜鹃》也可印证：“多情的鹃鸟他终宵声诉，\是怨，是慕，他心头满是爱，\满是苦化成缠绵的新歌，\柔情在静夜的怀中颤动；\他唱，口滴着鲜血，斑斑的，\染红露盈盈的草尖，晨光。”《悼诗》又云：

谁能信你那仙姿灵态，
竟已似朝露似永别人间。

“朝露”出自汉代乐府中的挽歌《薤露》：“薤上露，何易晞。露晞明朝更复落，人死一去何时归？”《古诗十九首》有“浩浩阴阳移，年命如朝露。人生忽如寄，寿无金石固”的哀叹，曹操《短歌行》也有“对酒当歌，人生几何？譬如朝露，去日苦多”的慷慨悲歌。徐志摩笔下虽写的是外国人物、异域风景，但他的感觉却和艺术表现却带有浓厚的古典气息和传统印迹。这不仅显示在意象运用上，也表现于词汇使用中。

徐志摩诗中较少运用传统的修辞格，但一旦用就很出色。比如《再别康桥》用顶针格便是一例：

寻梦？撑一支长篙，
向青草更青处漫溯，
满载一船星辉，
在星辉斑斓里放歌。

但我不能放歌，
悄悄是别离的笙箫；
夏虫也为我沉默，
沉默是今晚的康桥！

顶针格也称连锁，郑隶朴《修辞学》说：“连锁，是上下句首尾如

连环相扣，语绝而意不绝的一种辞格。这不仅为呈巧而设，也是事之因果相关联者，有自然不容间断之势。（中略）用在言情方面，但觉悲欢之缱绻。”¹¹⁾ 古乐府《饮马长城窟行》有：“青青河边草，绵绵思远道。远道不可思，夙昔梦见之。梦见在我傍，忽觉在他乡。他乡终异县，展转不可见。”这种修辞在古典诗歌中多见于乐府或古诗，像唐代元稹《水上寄乐天诗》那样刻意模仿，殊类文字游戏：“眼前明月水，先入汉江流。汉水流江海，西江过庾楼。庾楼今夜月，君岂在楼头。万一楼头望，还应望我愁。”而徐志摩的运用则极为巧妙。“寻梦”承上节“沉淀着彩虹似的梦”而来，已有顶针的意味，“星辉”、“放歌”、“沉默”又接连三个顶针格，分别用正接、反接、并列的结构细腻地表现了诗人由高扬而压抑，由压抑而低徊的情绪变化，韵律说不出的美妙动人。其他诗中用顶针格的例子还有《一星弱火》、《我不知道风》、《云游》等。

徐志摩显然是古典作品读得很熟的，他能熟练地运用文言词语，当他押韵遇到麻烦时，文言词汇常成为救驾的快镞。比如上引“但我不能放歌，悄悄是别离的笙箫”两句中，典型的古典语词“笙箫”被用在外国题材的语境，一方面是为了押韵，另一方面也是要渲染一种传统色彩的别离气氛。与此相近的是《难得》：

在冰冷的冬夜，朋友，
人们方始珍重难得的炉薪；

诗前面写到“你添上几块煤，朋友，\一炉的红焰感念你的殷勤。”这里却用“炉薪”，看来是迁就韵脚，但很贴合全诗朴实淳厚的风格。《月下雷峰影片》写道：

我送你一个雷峰塔顶，
明月泻影在眠熟的波心。

¹¹⁾郑隶朴《修辞学》第119页，台湾正中书局1969年版。

这里的“波心”似可见姜夔《扬州慢》“二十四桥仍在，波心荡、冷月无声”的影子，都有一种冷清的况味。

四. 余论

从上文举例式的讨论可见，古典诗歌传统在现代诗歌的早期是一直渗透在诗人们的写作中的。不要说“新月”诗人没有忘记从传统诗歌汲取营养，或者说自觉不自觉地还沿用传统的表现手法写作，就是戴望舒、李金发、何其芳、卞之琳这些受西洋文学影响较深的诗人，也没有排斥古典诗歌的艺术传统，在观念、趣味、意象和词汇上或多或少都有取于古典诗歌。随着新诗写作经验的积累和白话文的日益成熟，诗人们逐渐疏远了古典传统，以至走到当代中国诗歌的对传统绝对陌生乃至拒斥的地步。

从诗人们的主观意识说，是什么时候开始彻底抛弃古典传统的呢？我不太清楚，学术界似乎也没现成的答案，甚至如此提问是否能成立都还是值得怀疑的。根据我有限的阅读，只能提出这样一个假说：以明确的态度自觉与传统诗歌决裂并付诸实践的，或许是“九叶诗人”这一群体。郑敏晚年著文论述现代文学思潮，曾对自己一代人过去对古典传统的忽视表示忏悔，我在中国社会科学院文学所举行的座谈会上也曾听她谈到这一问题。从“九叶诗人”的创作中，我们开始看到古典传统的淡出，诗歌的精神内容、语言风格和艺术表现都远离古典传统而走向全新的现代风格，我认为这是中国现代诗歌的成熟境地。虽然这批作者晚年颇为抛弃传统，未汲取古典传统的营养而感到遗憾。女诗人陈敬容晚年的写作甚至有意识地向古典诗歌的传统回归，如其名作《山和海》所表现的：

高飞
没有翅膀
远航

没有帆

小院外
一颗古槐
做了日夕相对的
敬亭山

作者自注，末句是用李白“相看两不厌，惟有敬亭山”的意思，这是古典诗歌最简单的用典方式，相当有味道。尽管如此，我仍认为他们是成功的，传统对当代的意义和功用是很复杂的，在不同的语境中有不同的结果。就中国现代诗歌而言，对古典诗歌艺术具有良好的修养，同时也有意识地发挥这方面的长处的诗人，像俞平伯、沈祖棻等人，并没取得太大的成就，而恰恰是强烈排斥古典传统的诗人，从“九叶诗人”到“今天派”，取得了二十世纪诗歌最大的成就，在艺术上达到了顶峰。这是值得我们深思的一个更复杂的问题，但它已超出了本文讨论的范围，只能留待专家们去探讨了。

“白洋淀 시 촌락”에 관한 小考

林 莽*

송하이첸(宋海泉)은 바이양띠엔(白洋淀) 당시를 회고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한 무리의 어린 남녀, 바이양띠엔에서 보충역〔插隊¹⁾〕으로 있던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가족을 떠나 멀리 타향,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수향(水鄉)에서 우연히 모였다가 해질 무렵이면 각자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다. 수향의 안개는 온 독에 자욱하다. “우리는 묵묵히 걷습니다. 온통 고요한데, 물 속의 달만 차랑차랑 솟구치며 맑은 물결 따라 조각조각 금빛이 됩니다. 문득 등 뒤에서 노래 소리 들립니다. 그녀가 우릴 배웅하는 거죠. 달빛 속 그녀의 그림자는 비치 않고.”²⁾

이러한 정경은 줄곧 나를 감동시킨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70년대 초기 화베이(華北) 수향에서의 나날은 우리에게 있어 고독과 탐색, 아픔과 이상이 병존하는 청춘시대였다. 시는 우리들 가슴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시대가 우리를 거대한 지경으로 던져 넣은 것이지만 이는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을지 모른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에 대해 논하려면 60년대 말로 돌아가야 한다. “文化大革命”이라는 특수한 시대를 겪은 일군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한 벽지로 추방당했다. 희망의 소멸, 영혼의 고통, 앞날의 막연함, 청춘의 동경, 내면의 항쟁과 생명의 활력이 한때 뒤섞인, 중국 시의 역사에 있어 우수한 시인들이 바로 이러한

* 詩刊社

1) 插隊: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농촌으로 내려가 人民公社의 生産隊에 들어가 노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일컫음

2) 송하이첸(宋海泉) 《바이양띠엔 잡기(白洋淀瑣記)》, 《詩探索》1994年第4期

정서 속에 자라난 것이다.

1968년 후반, 마오쩌둥(毛澤東)이 발동한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벌써 세 번째 해에 접어들고 있었다. 1966년 6월부터, 모든 대, 중고,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수업이 중단된 지 이미 삼 년을 넘어선 터라 수백만에 달하는 고등, 대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 중국의 커다란 문제였다. 이 때문에, 마오쩌둥은 “청년 지식인들은 농촌으로 가서 빈농들을 재교육하라”는 최고 지시를 내리게 된다.

1968년 후반을 우리는 끊임없는 송별 속에 지냈다.

나는 “문화대혁명”은 인류 역사상 지극히 특수한 시기로 훗날 사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아울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추하게 될 사건이라 믿는다. 물론, 이 글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주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배경 아래 배태된 문학 단체인 “바이양띠엔 시 촌락”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一. 바이양띠엔 시 촌락 생성의 사회적 배경

바이양띠엔은 화베이(華北) 평원의 저지대로서 고대에는 이 곳을 “주저(祖澤)”라 칭했으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곳은 戰國시대 징커(荊軻)가 친스황(秦始皇)을 치기 위해 떠난 지점으로, “바람 소슬하고 역수 물 차가운데, 한번 가버린 장사는 돌아오지 않네”라는 구절이 바로 이 바이양띠엔 남쪽에 있는, 지금의 안쩌우(安洲) 지경을 가리키며, 燕나라 태자 丹이 무리를 이끌고 역수의 남쪽에 이르렀던 곳이니 거기엔 “古秋風臺碑”라는 역사 전적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바이양띠엔은 화베이 평원의 유일한 수향으로, 베이징(北京)시와는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타이행(太行) 산맥 동

쪽으로 아홉 개의 하류가 이 곳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속칭 쥬허샤샤오(九河下瀾) 라고도 한다. 바이양띠엔은 수 십 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크고 작은 몇 십 개의 얇은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호수와 호수가 연이어 있고, 사방을 제방이 에워싸고 있는 데다 이러한 제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지역민들은 이를 ‘천리 독’ 이라 부른다. 얇은 호수에는 또 수 십 개의 자연 촌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갈대와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으며, 왕래를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달리 교통수단이 없다. 이 곳은 중국의 江南 일대의 수향과는 달리 겨울에는 얼음이 얼고, 봄과 가을에는 결빙기와 해동기가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다. 이 곳은 3, 40년대의 유명한 항일 근거지이기도 하다.

60년대 말, 바이양띠엔 일대 역시 중국의 전 지역과 다름없이 人民公社식으로 행정이 관리되었다. ‘문화대혁명’ 으로 인해 행정기구는 두 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한 부분은 현정부 소재지 [縣城] 에서 말고, 또 한 부분은 규모가 큰 촌전(村鎮)이 맡았다. 당시 바이양띠엔에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청년 지식인들이 이 곳에 와서 보충역으로 일하고자 하는 임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베이징의 대다수 중고생들은 산시(陝西), 헤이룽장(黑龍江), 네이멍구(內蒙古), 윈난(雲南) 등의 변두리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온 이들은 “농촌 각지의 동지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라는 마오저똥의 지시에 힘입어 자유로이 조직되고 자체적으로 연락되어 온 중고생들로 활달한 사상과 반항정신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양화(楊樺)는 그의 《바이양띠엔의 기억(白洋淀的回憶)》이라는 글의 한 단락인 “피난민들” 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군중에 의한 ‘독재’ 팔 개월 만인 1969년 초, 나는 매 주말에 한 번 집에 다녀올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한편,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산시(山西)로 급히 내려가 거기서 보충역으로 지내며 ‘지속적으로 군중의 독재를 받을 것’ 을 명 받았다……” 어느 주말 그는

친구 저우뚜어(周舵)와 조우하게 되는데, 저우뚜어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 “그는 내게 함께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가자고 제의했다. 우선, 학내 혁명 열성분자들과 함께 보충역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좋고, 둘째 어촌에서 의 생활은 그다지 고생스러울 것 같지 않은데다 베이징과도 가까워 좋다고 했다. 내게 있어 바이양띠엔으로 가는 것은 곧 군중의 독재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학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충역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나는 결국 바이양띠엔으로 향했다.” …… “1969년 3월 나는 베이징과 바이양띠엔을 세 차례 오가면서, 스무 명에 가까운 보충역의 수속을 밟아왔다. …… 손꼽아보면 나와 함께 정착한 친숙한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문혁’ 동안 수난을 겪은 가정의 아들딸이었다.” 3)

양화가 말한 바와 같이, 당시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있던 청년 지식인의 대부분은 문화대혁명 와중에 타격을 입은 간부나 지식인의 자녀였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가식적이고 공허한 정치 설교를 맹신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갖기 시작한 그들은 사회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식견과 예민한 사고를 지닌 청년들이었다.

바이양띠엔에서 보충역으로 지내던 중고등학생은 수 백 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톈진(天津)에서 농촌으로 온 청년 지식인들이었다. 베이징 학생의 대다수는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서로 연락을 취해 바이양띠엔에 온 것이므로 그들을 인솔하는 간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바이양띠엔의 베이징 청년들은 여타 지역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이 적었으며, 베이징과의 거리도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정보에 빨랐다. 게다가 이곳의 특수한 자연 환경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보충역 청년 지식인들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외딴 섬의

3) 양화(楊樺) 《바이양띠엔의 기억(白洋淀的回憶)》, 미발표

자그마한 단체가 아니며 상술한 바와 같이 베이징과 함께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계된 개방적인 체계를 갖춘 곳이었다.

쑹하이첸은 《바이양띠엔 잡기(白洋淀瑣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발생은 그 자체의 문화적인 전통과 어떤 필연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는 아마도 바이양띠엔의 이러한 비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한 문화에 대한 소원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상대적으로 봉쇄된 작은 생태계가 조성되었고, 이 작은 생태계에 힘입어 詩群이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뿌리는 베이징이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이라는 이 문화적 현상의 본질은 일종의 도시문화이다. 넓게 보자면 이는 5·4 이래 서양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시학을 세우고자 했던 노력을 계승한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의 불가피했던 도구주의적 경향은 감소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와 존재 상태의 궁극적인 관심이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범위를 좁혀 말한다면 이는 ‘10년대란’에 대한 곡절이자 강인한 항쟁이다. 이는 바이양띠엔 이라는 특수한 생태 환경의 원조 아래 자신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4)

바이양띠엔에서 보충역으로 있던 판징(潘婧)은 《심로역정 — ‘문혁’ 당시 네 통의 편지(心路歷程—‘文革’中的四封信)》에서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베이따황(北大荒)과 산시(陝西) 및 윈난(雲南)의 청년 지식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벌써 나와 있지만, 바이양띠엔에 대해 진지하게 써 낸 글은 한 편도 없는 것 같다. 바이양띠엔의 베이징 청년 지식인은 대략 수 십 명 정도로 대부분 지식인 가정의 자녀들이거나 영락한 간부의 아들딸이며, 이 자그마한 무리는 오히려 상술한 지역의 수 백 만 명과는 구별된다. 이들은 융통성 없는 지령과 배치를 거부하고 원래 있던 단체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을 찾으려했기 때문에 약속이나 한 듯 이 곳 바이양띠엔으로 오게 된 것이다. 바이양띠엔은 이

4) 주석2) 참조

상 속의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며, 詩와 같은 투명한 호수가 있는 곳이다. 처음에는 쑤리(孫犁)의 산문이 우리로 ‘화베이 야명주(華北明珠)’라고 불리는 이 곳을 떠올리게 했다. 후일 70년대에 일어난 ‘몽롱시(朦朧詩)’의 발원지가 바로 이 머나먼 낭만적인 호수이다. …… 마치 그 어떤 고난도 청년들의 낭만적인 정서를 꺼뜨릴 수 없을 듯 했다. 그러나 뒤따라온 겨울 우리는 잔혹하기까지 한 원시적인 물질 생활을 겪었다. 한동안은 정신과 물질, 이상과 현실 모두가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⁵⁾

요컨대. 바이양띠엔이라는 시 촌락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근거한다. 첫째, 예민한 사고와 독립적인 사상을 지닌 이들. 둘째,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환경,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 셋째, 베이징 근교라 통신이 편했고, 외계와의 교류가 용이했다는 점.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창작과 그와 관련된 독서 활동 등은 이어지는 글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二.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명칭과 범위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명칭은 정확하고도 명백하다. 1994년 중국 유일의 시가이론 간행물인 《시탐색(詩探索)》은 “바이양띠엔 시 촌락”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당시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있던 시인과 70년대 베이징의 문화 살롱 참여자들 및 시인·시 평론가 등 이 십 여명이 이에 참여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바이양띠엔 시 촌락”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시인 니우한(牛漢)선생은 이 명사 자체는 상당한 시의를 갖춘 것으로, 촌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아득함과 원시성, 불요불굴의 의지, 역센 생존의 감각, 그리고 당시 시인들의 처지 및 창작의 상

5) 판징(潘婧) 《심로역정 — ‘문혁’ 당시 네 통의 편지(心路歷程—‘文革’中的四封信)》, 《중국작가(中國作家)》1994年 第6期

태에 딱 부합함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몇몇 글에서는 이 문학 현상을 “바이양띠엔 시파”라고 칭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는 바이양띠엔의 시인들은 집단제도, 어떤 유파도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특수한 시기와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흩어져있던 시 창작자들이며, 그들에게도 한 유파로서의 공통점이 있긴 했지만, 시에 대한 견해 및 창작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통일된 사상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시 창작자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간단하게 지역적 개념으로 한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명칭은 더욱 광범위한 함의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바이양띠엔 시 촌락이 당시 베이징의 지하 살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인 뚜어뚜어(多多)는 《매장된 중국 시인(1972~1978) (被埋葬的中國詩人)》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70년 초겨울은 베이징 청년 정신에 있어서의 이른봄이었다. 당시 가장 유행했던 두 권의 책 《호밀밭의 과수꾼(麥田守望者)》과 《별 실은 기차표(戴星火的火車票)》는 베이징 청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곧 이어 《처녀계곡(娘子谷及其他)》, 사무엘 바케트의 《의자》, 사르트르의 《구토》 등과 같은 일단의 황서〔黃皮書〕들과 비루씨에(畢汝協)의 소설 《격랑(九級浪)》, 간휘리(甘恢理)의 소설 《부용화 필 무렵(當芙蓉花開放的時候)》 및 귀루성(郭路生)의 《미래를 믿으며(相信未來)》 등의 책들이 베이징 전역에 퍼져나갔다. 1972년 여름 베이징 국무원 숙소에는 자그마한 문화 살롱이 있었다. 쉬하오웬(徐浩淵)이 진행과 사회를 맡았는데 그녀는 인민대학 부속 고등학교 일학년 학생이자 “문화대혁명” 당시 인정받던 인물이었으며 초기 홍위병의 대표자로서, 《만강홍(滿江紅)》에서 장칭(江青)을 비꼬았다는 이유로 2년 간 옥에 갇혀 지냈다. 출옥 후에는 적극적으로 서양 문화를 소개하는 데 힘썼다. 다행히 나와 위에쥬(岳重)은 가수로 이

살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화가와 시인이었으며, 우리는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그림을 감상하며 도서를 회람하고, 생일 파티를 열고 여행을 다녔다. 우리(注: 망커(芒克), 위예쥬, 뚜어뚜어를 가리킨다)는 열 여섯 살 되던 해 함께 마차를 타고 이 곳 바이양띠엔으로 왔다. 바이양띠엔은 인재가 많은 곳으로 예부터 용맹스런 이들이 있어왔다. 나는 여기서 6년을, 위예쥬는 3년을, 망커는 7년을 보냈다. 우리는 이곳이 요람이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 바이양띠엔에는 송하이첸, 팡한(方畝)등과 같은 적잖은 시인들이 있었고, 이후 베이따오(北島), 장허(江河), 간티예성(甘鐵生) 등 많은 시인들이 이 곳을 유력했다.” 6)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있었던 쩌우뚜어는 《그 해 내 좋았던 친구(當年最好的朋友)》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70년대 초는 그야말로 ‘문혁’의 정점에서 합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시절이었다. 아마도 우리들 보충역처럼 직장도 없고, 타향에 거주하며, 노동자도 농민도 아닌데다 어떤 연고도 없는 사람들, 또는 집안 어른들 가운데 옥에 갇힐 사람은 옥에 갇히고, 귀양 갈 사람은 귀양 간 이들만이 군중 독재의 그 크고 촘촘한 그물 속에서 좁으나마 숨쉴 틈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7)

바이양띠엔은 베이징과 150Km 떨어져 있어서, 그 당시 기차를 타고 와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면 여섯 시간 내지 여덟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자전거로 12시간만에 바이양띠엔에서 베이징으로 돌아가던 보충역 청년 지식인도 있었다. 교통의 상대적인 편리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두 지역을 오갔고, 또한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청년 지식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베이징에서 자주 행해지던 호구 조사를 피해 바이양띠엔에 잠시 머물기

6) 뚜어뚜어(多多) 《매장된 중국 시인(1972—1978) (被埋藏的中國詩人)》, 《개척(開拓)》1989年 第1期

7) 쩌우뚜어(周舵) 《그 해 내 좋았던 친구(當年最好的朋友)》, 新疆少年出版社 1999年 4月版 《타락한 성전 — 중국 20세기 70년대 지하 시가 남긴 사진(沈淪的聖殿—中國20世紀70年代地下詩歌遺照)》

도 했으므로, 바이양띠엔 각 마을 청년들 사이의 교류 역시 빈번했다. 이렇게 해서 바이양띠엔은 베이징 지하 문학 살롱과 긴밀하게 관련된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헤이룽장(黑龍江)에서 보충역으로 있던 마자(馬佳)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詩界로 들어서게 한 가장 주요한 안내자가 바로 귀루성이다. 그의 작품은 그의 인생과 그의 불행과 함께 일체를 이룬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것처럼 진실하게 자신을 대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아는 시인 가운데 가장 진실한 사람이며,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일테다. 하기는, 너무도 성실했던 탓에 그는 미쳐버렸다. 당시 나는 귀루성과 바이양띠엔 공동체의 중간쯤, 그 틈새에 끼어있었다…… 바이양띠엔 당시(기실 바이양띠엔의 대다수의 보충역들은 모두 베이징에 머물렀다)의 나는 베이징에서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 권내에 들게 되었다…… 지방에 있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한데 모여 작은 공동체를 꾸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바이양띠엔을 어떻게 촌락이라 할 수 있는가?…… 나는 철새가 되어 남북을 오갈 뿐이었다…… 이렇듯 특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만 이러한 무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8)

이들 서술로부터 우리는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발생이 베이징의 당시 사회 문화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발발 이전 베이징의 교양을 갖춘 청년 가운데에는 당시의 소위 정통문화와 상충되는 저류를 갖기 시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장랑랑(張郎郎)을 대표로 하는 “태양종대(太陽縱隊)”로부터 귀루성의 문혁 초기 시에 이르기까지, 70년대 초에 흥기한 베이징 지하 문화 살롱에서부터 바이양띠엔 시 촌락에 이르기까지 이 문화적 저류는 10년 후 전국을 휩쓴 몽룡시의 견실한 기

8) 《마자 탐방록(馬佳訪談錄)》, 新疆少年出版社 1999年 4月版 《타락한 성전 — 중국 20세기 70년대 지하 시가 남긴 사진(沈淪的聖殿—中國20世紀70年代地下詩歌遺照)》

초를 다지게 된다.

우리는 또한 바이양띠엔 시 촌락이 당시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있던 시인을 주체로 하는 외에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몇몇 시인들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유기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바이양띠엔에는 詩作과 관계된 많은 이들이 있었으며, 그들 각자는 저마다의 취미와 전공을 갖고 있었다. 철학이나 사회학 또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회화를 좋아하며 또 다른 이는 음악을 연구하기도 했다. 요컨대 삶의 잔혹한 현실에 좌절되지 않은 뜻 있는 젊은이들이 서로 교체하고 격려하며, 여기다 각지에서 온 청년 지식인들과 베이징에서 온 학구적인 청년들이 합세했으니 이로써 바이양띠엔의 시인들은 사상적 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전에 어떤 글에서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이렇듯 몇몇 시를 쓰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합류하여 형성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문혁” 전에 중국 고전시사에 흥미를 느끼다 이후 마오저똥 시사에 영향을 받아 시를 짓기 시작한 청년들, “문혁” 전에 당시 유행하던 낭송시의 영향을 받아 시를 짓기 시작한 청년들, 서양과 러시아 문학에 감화되어 시를 쓰기 시작한 청년들, 이들 세 부류의 청년들이 1972년을 전후로 당시의 그 황량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회서 [灰皮書]”와 “황서 [黃皮書]”의 계도 하에 모더니즘시를 추구하는 작가 단체와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후일 80년대 초 일어난 “몽롱시(朦朧詩)”의 원류이다.

바이양띠엔 청년지식인 가운데 당시 시를 쓰던 이는 대략 2, 30명 선이었으며 후에 모더니즘을 추구하게 되는 이들도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었다. 비록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바이양띠엔 시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장허는 1969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바이양띠엔에서 일년 이상을 거주했다. 그의 첫 번째 시는 내가 보충역으로 있던

마을에서 쓴 것이다.

송하이첸은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縣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많은 동창들을 맞곤 했다. 하루 이틀 묵어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두 달 머물다 가는 이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간테성(甘鐵生)이나 천화이즈(陳淮子)는 아예 이 곳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짜이난(寨南)에서 최장 거주한 사람이라면 위요우저(於友澤)를 꼽아야 할 것이다. 요우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학적 풍토를 가져왔다. 그는 브라우닝의 《소네트시집》 전문을 베껴 쓰고, 르메르라티스의 연작시 《사람(人)》의 전문을 일일이 손으로 썼을 뿐 아니라 심지어 책 속의 목각 삽화를 본떠 그리기까지 했다. 또한 내부에서 출판된 《현대 자산 계급 문예론 선집(現代資產階級文論選)》을 가져왔는데 이 책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짜이난에서의 기간 동안 요우저는 아직 시를 쓰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시는 대략 1971년 베이허쥡(北河莊)(린망(林莽이 보충역으로 있던 마을)에서 쓰여진 것이다.” 9)

이 밖에 쑤캉(孫康)(=팡한(方畲))은 바이양띠엔에서 30Km 떨어진 쉬슈이씨엔(徐水縣) 칭마오잉촌(靑廟營村)의 보충역이었으며, 바이양띠엔 시인들과 빈번히 왕래하며 지냈다. 베이따오(北島), 귀루성, 웬자팡(袁家方), 스바오자(史保嘉)등의 시인 그리고 간훤리(甘恢理), 천카이거(陳凱歌), 간테성(甘鐵生)도 바이양띠엔에 있었다.

나는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지역적인 제한을 갖는 한편으로 개방적인 포용력을 지닌 특수한 연대의 특수한 문학현상으로서 바이양띠엔이라는 화베이의 수향을 근거지로 잠재적 성장력을 가진 시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9) 주석2) 참조

三. 바이양띠엔 시 촌락과 당시의 지하 독서 운동

쑹용이(宋永毅)는 《문혁 당시의 황서와 회서(文革中的黃皮書和灰皮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문혁 이전의 출판물 가운데 서양 이론서와 문학 작품은 대략 1041종이 었다……이들 도서는 당대 사람들과 세계를 교통시켜 준 유일한 소량의 사상 자원이었다. 각개 당사자들의 기억과 인터뷰를 통해 열거한 다음의 ‘내부 도서’는 문혁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⁰⁾ 쑹용이선생이 열거한 37종 가운데 내가 읽었던 책으로는 《인간·세월·생활(人·歲月·生活)》, 《해동(解凍)》, 《구토(厭惡及其他)》, 《호밀밭의 과수꾼(麥田守望者)》, 《길에서(在路上)》, 《처녀계곡(娘子谷及其他)》, 《별 실은 기차표(戴星星的火車票)》, 《눈 많은 겨울(多雪的冬天)》, 《로직(落角)》, 《하얀 증기선(白輪船)》 등 열 권이다. 그가 뽑아낸 사회나 정치 서적 외에도 사회 사상과 관계된 문선과 실존주의 서적 등도 청년들 사이에 유진되었다. 이와 함께 서양 현대 회화와 음악 또한 이 청년들 사이에 공감을 일으켰다.

판징은 당시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면적인 고난을 겪은 후 우리의 정신은 일종의 곤혹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십수년의 교육이 주입시킨 사고 방식을 타파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서 두 권의 공이 큰데 그 중 한 권이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被背叛了的革命)》……제드라스의 《신계급(新階級)》……당시 우리는 ‘문혁’ 이전에 출판된 회서와 황서를 미친 듯 찾아 다녔다. 중학 동창의 아버지께서 과거 문예부의 대표를 맡은 바 있는 명성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집에서 대량의 풍부한 황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나를 깨우쳐주었던 책으로는 에렌부르크의 《인간·세월·생활》과 예프투센코, 르메르라티스의 시집이 있으며, 나는 당시 우리 작은 권내에 유행했던 《길에서》와 《별 실은

10) 쑹용이(宋永毅) 《문혁중의 황서와 회서(文革中的黃皮書和灰皮書)》, 《21세기 격월간(二十一世紀雙月刊)》 1997年 8月號

기차표》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11)

쉬하오웬은 《나의 반사(我的反思)》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거울 농한기에 기차에 몰래 올라타고(돈이 없어서 무임승차했다) 베이징으로 돌아와 다른 지역의 농촌에서 돌아온 청년지식인 친구들을 찾아갔다.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 농촌은 왜 이다지도 가난한 것인가?’, ‘따자이(大寨)는 과연 유일한 正路인가?’, ‘중국의 계급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분 할 것인가?’ 문학, 예술, 음악, 철학 등 온갖 주제로 끊임없는 토론과 변론이 이어졌다.…… 이들 청년 지식인들의 지하 토론회와 후에 ‘지하 살롱’으로 불리게 되는 자발적인 문학, 예술의 연구와 창조는 한 즐거이 서광처럼 문혁 초기 마오저똥에 대한 종교적 숭배를 꿰뚫었다.” 12)

그 당시, 바이양떠옌의 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 자발적이고 계몽적인 독서와 창작 활동에 참여했다.

양화는 당시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맨 처음 짜이난촌(寨南村)에 왔을 때, 추이젠창(崔建强)과 송하이첸 등 그 곳에 보충역으로 있던 청년 지식인들을 알게 되었다.……그들의 책은 나를 탄복시켰다. 그들 네 사람은 책을 한테 모아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두꺼운 나무널빤지에 못을 박아 큰 상자를 만들었는데 상자의 길이는 일 미터가 넘었으며, 너비도 일 미터에 가까웠다. 방 안 가득 온통 책이었다. …… 나는 헤겔의 《논리학(小邏輯)》과 스탕달의 《적과흑(紅與黑)》, 사르트르의 《변증이성비판(辨證理性批判)》을 빌렸다.……” 13)

내 기억에 의하면 이러한 독서 운동은 보충역이 있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문혁의 시작과 함께 중고등 대학생들의 운동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었다. 노동선전대 [工宣隊¹⁴⁾]와 인민해방

11) 주석5) 참조

12) 쉬하오웬(徐浩淵) 《나의 반사(我的反思)》, 《세계일보(世界日報)》 1997年 3月 30日

13) 주석3) 참조

14) 문화대혁명 시기의 ‘工人毛澤東思想宣傳隊’의 약칭 — 역주

군 마오저똥사상 선전대 [軍宣隊] 가 학교로 들어와 학생들을 관리했다. 초기의 허다한 홍위병들은 그들의 부모로 인해 거센 비판을 받은 후 “개자식” 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후로 몇몇 청년들은 책 속으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당시 백 권이 넘는 동서고금의 소설과 시를 읽었는데, 이는 나의 창작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되었다.

“문학” 의 발발은 그 세대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과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작품은 생명과 내면 세계로 들어섰다. 그들은 문학예술의 근본을 헤아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기의 독서 운동은 일종의 촉진제가 되어 당대 사람들의 영혼이 빛을 발하게 했다.

四. 바이양띠엔 시 촌락과 관계된 시인들

좀 이르다싶은 “태양종대” 와 귀스잉(郭士英) 세대가 바이양띠엔 시 촌락과 좀 모호하다싶게 연계된 외에 후에 시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몇몇 시인들은 하나 같이 바이양띠엔의 시인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은 바로 귀루성 [食指], 마자(馬佳), 베이따오(北島)이다.

양화의 기억에 따르면 귀루성 [食指] 은 1969년 가을 바이양띠엔의 리좡즈(李莊子)에 왔었다. 당시 허치팡(何其芳)의 딸 허징제(何京頤)가 그 곳에 보충역으로 지내며, 청년지식인들과 왕래하는 외에 그 지역의 농민 시인 리용홍(李永鴻)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산시(山西)에서 바이양띠엔으로 오고자 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물론, 이런 소소한 것들은 중요치 않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귀루성이 그 시대의 개척자로 바이양띠엔 시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69년 장허는 내가 보충역으로 있던 바이양띠엔의 마을에 와서

거의 일 개월 가까이 지냈다. 그는 《미래를 믿으며》, 《연기(煙)》, 《술(酒)》 등 귀루성의 몇몇 단편 시를 가져왔고, 그 해, 나 역시 짧은 시 몇 편을 노트에 끄적였는데, 당시 귀루성의 시는 나를 몹시 자극시켰다. 후에 나는 또 송하이첸에게서 귀루성의 《바다 삼부곡(海洋三部曲)》과 《물고기때 삼부곡(魚群三部曲)》(발표할 당시에는 《물고기 삼부곡(魚兒三部曲)》으로 고침)을 배겼었다. 이 시들은 줄곧 우리와 함께 했고, 바이양띠엔에서의 나날 동안 우린 무수한 밤을 한데 모여 함께 낭송하거나 한 사람이 독송하곤 했다. 귀루성은 그 시대의 최전선에 선 시인으로서 그 세대 신인들의 성장에 기여했다.

마쟈는 헤이룽장의 보충역이었다가 후에 병 때문에 요양 차 베이징에 머물렀는데 그는 두어두어, 망커, 건즈(根子), 핑강(彭剛)등 열두어 명과 함께 살롱을 꾸렸다. 그의 시는 내가 바이양띠엔에 있을 때 읽어보았을 뿐 아니라 시 채록장에 그의 시구, 예를 들면 “나는 가을의 들얼매처럼 / 그렇듯 묵직해 / 나는 시월의 전부, 그 전부를 가졌네”, “술 외에 / 또 술 / 스무 살 이전엔 / 날마다 축제였지”와 같은 구절을 발췌해뒀었다. 마쟈는 비록 바이양띠엔의 보충역은 아니었지만 바이양띠엔의 시인과 꼭 같은 시 바탕을 갖고 있다. 그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귀루성에게 크나큰 영향을 받았다. “내게 진정 영향을 미친 이는 귀루성이다. 귀루성은 동갑 친구인 우리 누나와 매우 사이가 좋았다. 나는 줄곧 귀루성을 우리러 보았기 때문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들 시인과 외국시 및 황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 이들 시인과 황서들은 모두 귀루성이 소개해준 것이다.”¹⁵⁾ 마쟈는 귀루성과 바이양띠엔 시인들 간의 한 시인으로서, 바이양띠엔 시 촌락과 특별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장허는 고등학교 때의 동기동창으로 나와 매우 가까우며 특히 문혁 후기에 이르러 우리의 교제는 매우 빈번해졌다. 그는 몇 차례

15) 주석8) 참조

바이양띠엔에 와서도 대부분 내가 있던 곳에 머물다 갔다. 글 중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첫 번째 시는 내가 보충역으로 있던 곳에서 쓰여졌다. 그에게는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부모가 문혁 당시 수난을 당했어도 그는 베이징의 작은 동네 공장의 일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 그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당시 베이징 청년 시인 공동체에서 공인되는 사실이었다. 처음에 그는 바이양띠엔에서 쓴 시를 한 수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그의 작품들은 뛰어난 서정성을 보였으며 당시 시 공동체내에서도 꽤 널리 퍼졌다. 후에 그가 발표한 작품들은 모두 1978년 이후에 창작된 것이며, 이전의 풍격과는 크게 차이를 보인다. 장허와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관계는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들 외에, 기타 예술 부문의 사람이나 일들도 의심할 바 없이 시인들의 창작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초기와 후기에 바이양띠엔과 관계된 시인들 예컨대, 마자(馬佳), 두어두어(多多) 및 여타 시인들은 앞선 글 사이사이 언급되었지만, 이췌(依群), 스바오자(史保嘉), 위엔자팡(袁家方), 베이따오(北島), 평강(彭剛), 루연성(魯燕生), 루슈양친(魯雙琴), 장라오랴오(張廖廖), 후에 바이양띠엔과 활발한 연관을 맺게 되는 옌리(嚴力) 등은 이 글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五.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주요한 대표적 시인

시대의 변천을 따라 많은 사람들과 일들도 흐릿하고 까마득해졌다. 당시의 바이양띠엔, 그 처량한 호수에서 도대체 몇이나 되는 청년들이 펜을 들어 시를 썼는지 정확한 통계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타 문예 작품에 비하면 시는 오히려 운이 좋은 편이다. 시의 비직접성, 서정성, 전달의 용이함은 당시의 많은 작품들을 현재에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의 시인들은 하나갈

이 실망과 낙담 혹은 정치적인 박해로 인한 손상을 두려워하여 일부 작품을 유실했지만, 남겨진 작품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당대 시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송하이첸은 바이양띠엔의 최연장자이다. 1966년 그는 베이징 칭화(淸華)대학의 부속 고등학교 삼학년 학생이었으며 학업 성적 또한 우수했다. 사람됨이 선하며, “라오양(老羊)”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문혁 이후 베이징 사범대 화학과에 합격했으며 현재 두 편의 장편시 《해적선 노래(海盜船謠)》와 《유랑자의 노래(流浪漢之歌)》를 전한다. 앞의 시는 그가 그 해 바이양띠엔을 유력하던 짜오찌엔셴(趙振先)에게 써 주었고 20여 년 후 짜오찌엔셴은 이 원고를 나를 통해 송하이첸에게 전해주었다. 다른 한 편의 시는 나의 시 채록장에 남겨져 있다. 라오양의 작품은 고전적인 풍격과 사상적인 깊이, 구슬픈 정서가 읊조리는 시 사이에 넘쳐난다. 그의 집에도 베이징으로 돌아온 수많은 청년지식인들이 한때 머물며 사회인지와 예술적 사고를 교류하곤 했다. 당시, 자주 왕래했던 시인으로는 정이(鄭義), 간테성(甘鐵生), 장허(江河), 취췌창(崔健強), 류만창(劉滿強), 꾸이(顧益) 등이 있다. 나의 시와 당시 완성하지 못한 소설 한 편을 그의 집에서 낭독한 적이 있다. 라오양은 교제 권역이 무척 넓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을이 縣정부 소재지를 지나는 골목에 있었던 터라 지방의 많은 청년지식인들이 바이양띠엔에 오면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팡한(方畝의) 본명은 쑤캉(孫康)이며 베이징 제35중학교의 학생이었다. 앞선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는 바이양띠엔에서 30Km 떨어진 쉬슈이씨엔(徐水縣) 칭마오잉춘(靑廟營村)의 보충역으로 있었다. 바이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베이징에서도 그와 바이양띠엔의 시인들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의 집에도 집회를 하던 작은 단체가 있었고, 70년대 초, 나는 그의 집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번역가인 장평(江楓) 선생을 알게 되었다. 쑤캉은 문혁 당시 정치서정시로 유명해졌다. 후에 그의 루이스 레알 풍의 창작은 모두의 호

평을 받았다. 그 무렵 설날 그가 우리 집에 들렀을 때 나는 그에게 막 완성한 장편 시 두 편 《스물 여섯 음절의 회상 — 죽어버린 세월에 바침(二十六個音節的回想—獻給逝去的年歲)》과 《1974년을 애도하며(悼1974年)》를 선보였다. 이 시를 읽고 난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 것을 재삼 당부했고, 이 때문에 나는 번거로운 일을 피해갈 수 있었다. 후에, 그는 그 몇 해 동안의 친구들의 시를 엮은 시선집을 내기 위해 내가 쓴 시들도 가져갔으나 당시에는 그럴 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시집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 몇 해 동안 운명은 운통 불확실함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시를 쓰는 데 있어서만은 다들 성실했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세 검객” 망커, 꺾즈, 뚜어뚜어는 모두 베이징 제3중고등학교 중등 2학년 7반의 동기동창으로 같은 마차를 타고 함께 바이양띠엔에 온데다 한결같이 좋은 시들을 썼기 때문에 “세 검객”으로 불렸다. 그들은 당시의 詩作을 크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내가 가장 먼저 알게 된 시인은 뚜어뚜어이다. 우리는 베이징에서 이웃해서 살았지만 처음 그를 만난 것은 바이양띠엔 송하이첸 등이 있던 곳에서였다. 그밖에 타오뤄송(陶維誦)과 짜오징썩(趙京興)이 있는데 당시 짜오징썩은 막 베이징의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그들의 정황과 관련해서는 송하이첸의 《바이양띠엔 잠기(白洋淀瑣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날 그들은 서양 철학에서 맑스주의에 이르기까지, 감옥 생활에서 詩作에 이르기까지 밤을 꼬박 새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때, 뚜어뚜어는 이미 모더니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까지 그의 초기 시의 시구 예를 들면, “변소에 쪼그려 앉았는데 / 인민공사의 확성기는 꼭 밥그릇 같다”, “새벽 / 태양 떠올라 / 진리 그 별절게 해진 궁둥이를 비춘다”와 같은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 다년간의 탐구를 거친 뚜어뚜어는 시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 매우 연단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세월을 뚫은 빛(穿透歲月的光芒)》이라고 이름 붙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견즈의 작품은 현재 장편 시 세수와 분산된 몇 편의 글이 남겨져 있을 뿐 수량이 많지 않다. 그는 베이징 당시 베이징의 지하 시단에 의해 ‘시의 맹주’로 추앙되었으며, 그의 《삼월과 그믐(三月與末日)》은 당시 시인들의 큰 찬사를 받았다. 70년대 초 봄, 나 또한 그러한 시정으로 가득했는데, 견즈의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만 석연해졌다. 때문에 봄과 관계된 나의 일부 시 원고는 그대로 폐품이 되고 말았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내 작시 실력은 도무지 견즈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후에, 견즈는 중앙 악단의 바리톤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국외에서 일하고 있다. 생활상의 변화 혹은 어떤 염증으로 인해 이후 그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았고, 많은 벗들이 80년대 시단에서 활약했음에도 그는 줄곧 詩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시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¹⁶⁾ 나는 이 글에서 그의 시 《바이양띠엔(白洋淀)》을 언급하면서 내용에 있어 대체적으로 근접한 귀루성의 《바다삼부곡》과 비교했는데, 이 두 시 모두 희망이 깨어진 자의 정서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식지(食指)와 견즈는 네 살 차이가 나며 시의 창작 시간 또한 4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식지의 시속에 보이는 회구와 동경은 견즈의 시속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식지는 낭만주의 경향을 갖고 있지만, 견즈는 이미 모더니즘 방식의 시를 시도하고 있었다. 중국 근대시사에 대해 말하자면 1973년은 전환기이다. 그 해, 새로운 예술의 추구자들이 모더니즘의 깃발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다. 견즈는 전면에선 시인이었다.

나와 망커는 바이양띠엔에 있던 동안에는 만날 인연이 없었고, 70년대 말 《오늘(今天)》의 집회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시는 일찌감치 읽어본 터였다. 바이양띠엔에 있는 동안의 시 채

16) 린망(林莽) 《세월을 뚫은 빛(穿透歲月的光芒)》, 《신창작(新創作)》
2000年 第4期에 발표

록장에 그의 시 여러 구절을 옮겨 놓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빈번하게 왕래했다. 망커의 바이양띠엔 당시의 창작에서부터 80년대 말 《시간 없는 시간(沒有時間的時間)》에 이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시를 통해 우리들 이 한 세대인을 위한 영혼의 도감을 그려냈다. 그의 시는 비평가들로부터 좀더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망커는 예세닌과 같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시인으로 그의 시는 영성으로 충만하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에서 양화(楊樺)와 짜오저(趙哲)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양화의 본명은 닝룬핑(寧潤平)이며 문혁 중에 사상과 관련된 일로 비판 투쟁을 당해 교내에서 8개월 이상의 강제 노동을 하게 된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고친 그는, 바이양띠엔의 보충역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의 부친은 부대의 간부였기 때문에, 당시 전해지던 황서 가운데 일부는 그의 집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시에는 고상함이 묻어난다. 그는 시보다 철학을 좋아했고, 시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시는 더욱 적다.

짜오저는 집안의 외동딸로 문혁 중에 비판받은 부모와 할아버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학교 친구와 함께 바이양띠엔에 보충역으로 왔다. 그녀의 시는 자연주의 방식에 기본을 두고 있다.

그밖에 몇몇 시인들 예를 들면 망커와 같은 곳에 살던 바이칭(白靑)과 짜오쥘즈(趙莊子)의 쯔우츄이(周陟) 대해서는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시에 대해 아는 바가 적은 터라 잘못 기술 하게 될까 우려해서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글 사이사이 수 차례 언급했으므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다.

六.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 인식

1.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베이징을 근거로 하고, 바이양띠엔을 기점으로 하는 시 쓰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는 단지 지역적인 개념만은 아니며, 70년대 초 시작된 특수한 문화 현상이다.

2.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특정 시 유파가 아닌, 어느 정도 모더니즘 문화를 추구하던 청년 작가군의 집합이다. 그들은 자유로운作詩의 환경 하에 있었으며, 흩어져 있었으나 다방면에 걸쳐 서로 연계된 문화를 갖춘 청년들이다.

3. 바이양띠엔 시 촌락의 작가들은 문학과 보충역이라는 생활의 체험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의 표면적이고 거짓된 작법을 배제하고, 회의와 反思 속에 자기 생명의 진실한 체험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4. 독서 운동 및 회서, 황서의 계도와 영향으로 인해 그들은 봉쇄되었던 다년간의 문호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5·4 이래 서양문화와의 충돌과 교류에 맞물려 자각적으로 모더니즘 시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5. 當代문학사의 측면에서 볼 때, 장랑랑(張郎郎)을 필두로 하는 “태양 종대”로부터 귀루성에 이르는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노선에 있어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최대한도로 이 영역을 확장시켜 한 시대의 집회를 완성했다.

6.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朦朧詩”의 원류이며, 이들 시인은 10년의 노력을 거쳐 80년대 “몽롱시”가 전국을 휩쓰는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기초를 다졌으며, 시 예술의 탐색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바이양띠엔 시 촌락 연구에 내 작은 희망을 엮고자 한다. 바이양띠엔 시 촌락은 단지 그 몇 년간 중국 문혁 문화 중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이의 발굴과 연구는 전형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중국 당대시사 연구의 주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하며, 이와 관련된 진술과 연구는 작금의 문학사 지서를 적잖이 보강시킬 것으로 본다. 이 글 가운데 타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독자 여러분의 꺼림 없는 질정을 바란다.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연구 — 1949년 이후

許 宗 國*

<목 차>

- I 머리말
- II 중국에서의 민족동화에 대한 논의
- III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구비율의 변화
 - 1. 다양한 통계수치와 통계수치상의 편차
 - 2.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구비율의 변화
- IV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차지구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과정과 원인분석
 - 1. 신장에서의 한족인구증가에 대한 원인분석1
 - 2. 신장에서의 한족인구증가에 대한 원인분석2
 - 3. 신장에서의 한족인구증가에 대한 원인분석3
- V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산아제한정책 내용과 실천과정
- VI 맺음말

I. 머리말

1990년대 세인의 관심을 크게 끈 주요 이슈중의 하나는 세계체제

* 영산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의 변화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발생한 민족운동이었다. 이런 현상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 흔히 오늘날의 민족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에 기인하며,¹⁾ 56개 다민족국가로 구성된 중국에서 크고 작은 민족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독립'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1990년대 신장에서의 민족운동²⁾의 폭발적인 표출은 과거 그 어떤 시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었다.

세계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민족운동, 특히 국경너머 이슬람을 신봉하는 카자흐스탄(1991.12.16), 키르기스스탄(1991.12.16), 우즈베키스탄(1991.8.31), 타지키스탄(1991.9.9), 투르크메니스탄(1991.10.27)의 5개 가맹공화국의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은 신장지역의 민족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동시에 1989년 '천안문사건'과 같은 대내적인 사건의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제2의 유라시아육지교량'(Second Euro-Asian Continental Bridge, New Silk Road)³⁾건설과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망과 같은 국내적인 요인도 신장지역의 민족운동에 중요한 동기로 등장했다. 민족문제로 인한 신장에서의 이런 심각한 현상은 이미 티베트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국 중앙 정부로 하여금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북경당국은 한 지역

1) 1971년 일반적으로 민족국가로 간주되는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12개 국가(9.1%)만이 민족국가에 해당하며, (2)순수 민족의 정도가 90%이상을 초과한 국가는 25개 국가(18.9%)에 이르며, 그러나 이런 국가도 국내에 주요 소수민족(minority)을 포함하고 있으며, (3)순수정도가 75-89%에 달하는 국가는 25개(18.5%), (4)순수정도가 50-75%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는 31개로 23.5%를, 5)기타 39개 국가(29.5%)는 주체민족의 수치가 전국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Walker Connor, 1994. p.39)

2) 1990년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민족운동의 주요내용은 (Felix K. Chang, 1997, 401-425) 및 (www://uygurpeople.com/frame.htm)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 (Jeffrey Steinberg, 1997, 54-59)

에서의 민족분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중국 전체 사회를 불안하게 할 것이며, 심지어 이런 현상은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가붕괴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⁴⁾ 아울러 중앙정부는 국무원부총리 리란칭(李嵐清)등 고위급 관원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민족단결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강조하는 등 소위 회유정책을 취하는가 하면, 이와 동시에 1996년 봄부터는 '엄타'(嚴打, Hard Strike)라는 강경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억제하려고 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대외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서방국가들은 중앙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를 '민주'와 '인권'등의 현상과 연관시켜 많은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⁵⁾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정책의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⁶⁾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중의 하나는 일부 서방출판물에서 제시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대비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민족정책 혹은 '동화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이런 문장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산아제한정책(計劃生育政策)과 동화정책(강제 이주정책)을 실시해서 소수민족지역의 주체민족의 인구구성비율을 하락시키고, 민족주의 색채를 뿜게 만든다고 강한 비난을 했다.

두개의 문장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독일에서 발간된 《EIR전략연구》에서 브루다(Josep Brewda)는 “비록 1949년에, 신장의 인구

4) 장쩌민(江澤民)은 1993년 11월, 全國統戰工作會議에서 “민족, 종교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민족문제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로, 장기간 노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文精主編, 2001, 406)

5) 연쉬에통(閻學通) 교수에 의하면, 1989년 천안문 사건이후 중국과 서방의 일부 국가간에 '민주'문제에 대해 견해차이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감옥관리제도·신문출판제도와 산아제한정책뿐 아니라, 심지어 민족구역자치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평을 가한다고 지적했다.(閻學通, 1996, 196)

6) 예를 들면, 영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유라시아 육지교량건설'을 중국의 민족문제와 연관시켜 외교정책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Jeffrey Steinberg, 1997, 54-59)

는 대략 95%가 위구르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1,600백만 전체 자치구 인구의 약 절반은 중국 한족(漢族)이다.”⁷⁾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앙아시아와 소련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싱글레톤(William D. Shingleton)은 한 문장에서 “신장지역의 위구르인들을 同化(assimilate)시키기 위해, 북경은 종교자유 및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하게 억압했다. 중국인은 신장에서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를 실시했다. 1942년에 위구르인은 이 지역의 전체인구의 78%를 차지했으며, 오늘날에는 48%로 떨어졌다. 이런 대량의 인구변화는 억압적인 중국의 정책의 결과다. 첫째,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정화(purge)는 수많은 위구르인을 죽게 했으며, 놀랍게도 20,000명의 위구르인들이 더 큰 자유를 제공하고 있는 소련으로 이주했다. 게다가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위구르여인들의 불임화(sterilization)현상을 초래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 한족을 이곳으로 대량으로 이동시켜 이곳의 족군 구성대비(ethnic mix)와 위구르 민족주의 색채를 묶게 하고 있다.”⁸⁾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과연 서방의 이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오늘날 중국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의 실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서방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연구실적은 신랄한 비판에 비해 체계적이고 충분하지 못하다.⁹⁾ 티베트의 상황¹⁰⁾은 그나마 나

7) (Joseph Brewda, 1997, 59)

8) (William D. Shingleton, 1997, 1-2)

9) 1990년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민족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서방자료는 극히 드물며 Felix. Chang의 문장하나 정도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나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출판물조차 매우 제한적이고 일상적인 논술만 전개하고 있다.

10) 티베트의 경우, 티베트 문제가 1960년 유엔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이곳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티베트에 대한 연구는 역사나 정치등과 같은 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된 것이 많으며, 경제적인 분야나 기타 문화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

은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 국내에서 출판되는 수많은 신장위구르관련 출판물에서 정작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구문제, 특히 한족의 인구증가수치와 비율, 혹은 한족인구 증가의 원인 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논문이나 서적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민족문제는 중국에서 일종의 ‘금지구역’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본고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한족인구수와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한족인구수의 증가과정과 원인, 나아가 이런 변화가 동화정책의 산물(產物)인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중국에서 ‘민족동화’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신장에서의 동화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둘째, 1949-1990년까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한족과 위구르족의 인구수치와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셋째, 한족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살펴볼 것이며, 넷째,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산아제한정책의 내용과 실천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II. 중국에서의 민족동화에 대한 논의

민족동화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논의들은 사실 중국에서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족하다. 중국 국내에서도 티베트 분야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인구관련분야에서 북경대학 사회학인류학연구소에서 체계적인 책 한권이 출판되었다. 단지 이 서적은 1950년대 민족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한 이래 거의 4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판된 대표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馬戎, 1996年)

의 민족관을 민족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으며, 특히 레닌이 제시한 민족관은 중국의 민족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958년부터 전개된 ‘대약진’운동이후 전국을 석권한 소위 ‘공산풍’(共產風)과 더불어 ‘민족융합풍’(民族融合風)이 전국의 소수민족지역을 석권했으며, 아울러 1960년대 이후 크게 논의되기 시작한 민족동화와 민족융합문제는 이후 중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저작물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논의들은 주로 민족동화와 민족융합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먼저 ‘동화’의 어원을 살펴보면, 명사 ‘동화’는 영어 불어 독일어에서 모두 assimilation으로 표현되며, 라틴어의 similis에서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라틴어의 ‘유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관사 as와 비슷하게 쓰인다. 동화와 비슷한 뜻을 가진 ‘융합’(融合)이란 단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에서 모두 amalgamation으로 표현되며, 라틴어의 amalgama에서 변해온 것이다. 원래의 뜻은 일종의 금속과 물의 혼합물이란 뜻이다. amalgama란 단어의 내원(來源)에는 2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아랍어에서 온 것이며, 원래의 뜻은 ‘혼인에 의한 결합’이며, 다른 한 가지 설은 그리스어에서 아랍어로 변한 것으로, 원래의 뜻은 ‘비벼 반죽하다’라는 뜻이다.¹¹⁾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동화(민족동화) 혹은 융합(민족융합)은 서로 다른 존재물들이 유사한 상태로 되거나 혹은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이 양자사이에 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슌시웬(熊錫元)과 같은 학자는 “지금까지 인류사회에 출현한 것은 주로 민족동화이며, 민족융합은 민족동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현상이다. 계급사회에서, 단지 민족동화만 있을 뿐이지, 엄격한 의미에서의 민족융합이란 있을 수 없다.”¹²⁾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민족융합은 민족동화와는 아주 다른 사회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11) (翦伯贊, 1982, 125.)

12) (熊錫元, 1989, 51.)

데, 양자간의 차이에 대해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적인 면에서, 상술한 인용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동화는 단지 “계급사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반면 민족융합은 “최근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반면 계급이 소멸하고 국가가 소멸한 후에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¹³⁾ 즉 민족동화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나 민족융합이란 계급이 완전히 소멸하고, 세계의 민족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서, 민족이란 하나의 역사현상으로 이미 사라진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족융합이란 소위 ‘공산주의’가 실현될 이후에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양자의 발생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족동화는 일부분의 민족이 다른 일부분의 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즉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이 민족이 또 다른 한 민족에게 동화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화는 단지 개별 혹은 어떤 민족의 소실(消失)일 뿐이며, 그러나 각 민족간의 차별은 여전히 소실되지 않은 상태이며, 민족이란 이 역사범주도 여전히 존재한다.”¹⁴⁾ “민족동화는 부분적인 민족의 소실을 말하며, 즉 다른 민족에게 동화된 그런 민족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¹⁵⁾ 그러나 민족융합의 범위는 민족동화보다 더욱 광범위한데, “소위 민족융합이란, 바로 모든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바로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¹⁶⁾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발생범위측면에서의 민족동화란 부분적인 민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반면 민족융합은 세계적으로 민족이 존재치 않은 상태를 말하며, 민족간의 차별도 사라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3) (民族理論和民族政策編寫組, 1985, 46)

14) (熊錫元, 1989, 52)

15) (民族理論和民族政策編寫組, 1985, 46)

16) (民族理論和民族政策編寫組, 1985, 46)

양자간의 발생방식과 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다. 첫째, 민족동화는 '강제동화'와 '자연동화'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강제동화'는 정치폭력과 민족특권을 이용해서 동화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자연동화'는 서로 다른 민족이 장기간의 공존을 통해, 낙후된 민족이 선진민족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민족특성을 점차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¹⁷⁾ 둘째, '민족융합'은 일반적으로 이는 장기적인 역사발전과정에서 일어나며, 강제와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 "각 민족간에 경제와 문화교류 그리고 공동의 투쟁과정에서, 선진의 우수한 것은 모든 이에게 부단히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며, 아울러 계속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낙후되고 저열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도태되며, 나아가 각 민족간에 동일한 요인들은 갈수로 많아진다."¹⁸⁾

양자간의 성질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레닌의 말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동화란 "족 민족특성을 상실해서,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변화는 문제다." 아울러 동화란 "민족압박의 산물이며, 또한 민족압박의 하나의 표현형식이다." "통치민족, 박탈계급이 신봉하는 것은 이런 강압적인 동화정책이며, 민족간에 장벽과 대항 그리고 충돌을 야기하며, 민족간의 접근을 저해하며, 역사발전을 저해한다."¹⁹⁾ 반면 "자연동화는 역사발전에서 하나의 진보적인 현상이며, 강제동화는 피동화민족의 고통위에 세워진 것으로, 피동화민족의 뜻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민족융합'은 "각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학습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충해서 동일한 요인들이 점차 많아지며, 반면 기존의 개별적인 특성은 점차 적어져서 차이점이 완전히 사라진 결과물이다."²⁰⁾

민족동화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학자들은 가능한 한 민족동

17) (徐杰舜, 1988, 61)

18) (民族理論和民族政策編寫組, 1985, 46)

19) (熊錫元, 1989, 52)

20) (民族理論和民族政策編寫組, 1985, 45)

화란 단어의 사용은 자제하고, 민족융합이란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떤 저서에서는 심지어 “민족이 불평등한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족융합문제를 쉽게 언급해서는 안된다.”²¹⁾라고 언급하고, 민족융합을 쉽게 강조하는 이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점도 발견된다.

한편 중국의 역사학자 옹두지엔(翁獨健)은 중국에서의 이런 논쟁점에 대해 매우 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민족관계에서 볼 때, 역사상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으로 합해지는 경우는 2가지 상황과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 합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경제 문화적 작용을 통해 한 민족이 자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한 민족에게 합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상황과 방식은 어떤 명칭으로 표현하든 간에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전자를 동화라 하고, 후자를 융합이라 한다. 이런 단어의 존재는 이런 사실들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양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타당하고 과학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상 단지 융합만 있고 동화가 없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단지 동화만 있고 융합은 없었다는 것도 반대한다. 마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2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민족동화 혹은 민족융합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²²⁾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결코 민족융합이란 단어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신장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동화현상이 강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인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이며, 아울러 ‘민족동화’자체와 ‘민족동화정책’의 추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 (梁劍韜, 陳啓新, 楊鶴書, 1985, 367)

22) (翁獨健主編, 1990, 13-14)

‘민족동화’와 ‘민족동화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북경대학 닝샤오(寧騷)교수는 “민족동화란 민족이 발전하는 과정이며, 또한 하나의 민족정책이다. 설사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반동화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민족이 잡거하거나 혼재해서 거주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민족동화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소위 민족동화정책이란 정부가 법률과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피통치민족 혹은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그 민족고유의 특징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 통치민족 혹은 주체민족에게 흡수되거나 합병되는 경우를 말한다.”²³⁾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통치민족에 의해서만 민족동화가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²⁴⁾

여기서 우리는 ‘민족동화’와 ‘민족동화정책’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민족동화’는 무엇보다 각 민족의 문화가 서로 접촉하고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출해내는 과정 혹은 결과, 즉 일종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에 반해 민족동화정책이란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어떤 ‘정책’이나 ‘법률’ 혹은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소수민족 혹은 피통치민족 고유의 문화적인 특징을 상실케 하는 일종의 ‘행위’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동화정책’은 강제성 혹은 구속의 여부에 따라 강제동화와 자연동화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민족동화정책’은 무엇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다.

이런 ‘의도적인 행위’는 전시(戰時)에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물론 평화적인 시기에도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의도적인 행위’의 주요 수단으로는 강제적인 ‘종교전파’나 ‘민족통혼’ 혹은 ‘강제적인 이주’나 혹은 기타 범주의 많은 수단이 동원되어 실시될 수

23) (寧騷, 1995, 386-387)

24) 예를 들면 만주족은 한족에 동화되었으며, 이는 최소한 청조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결코 민족동화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寧騷, 1995, 386)

있다.²⁵⁾

Ⅲ.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구비율의 변화

1. 다양한 통계수치와 통계수치상의 편차

상술한 문장에서 브루다(Josep Brewda)는 1949년에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정도이며, 오늘날에는 1,600만 전체 자치구인구의 약 절반은 한족이라고 했다. 문제는 그가 제시한 이 수치는 중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수치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필자로 하여금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민족통계연감》과 같은 권위서적에서 위구르인 혹은 한족(漢族)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얼마를 차지하며, 비율은 어떻게 되며, 이들의 인구수치나 비율이 연도마다 어떻게 증감되었으며, 혹은 남녀 구성비율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민족통계연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수치들은 단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전체 소수민족의 인구수와 이들이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수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수치상의 이런 차이는 심지어 동일 연도의 출판물에서도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표1>과 <표2>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같은 국가

25) (劉戈, 1997, 15-17.)

기관에서 출판한 서적일지라도 각 연도별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표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성적에서조차 통계수치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중국민족통계연감:1995》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²⁶⁾

<표 1>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총 인구수와 비율

연도	(*1)			(*2)		
	자치구내 소수민족 총 인구수 및 비율			자치구내 소수민족총인구수 및 비율		
	소수민족 총인구수	소수민족의 비율(%)	한족의 비율(%)	소수민족 총인구수(%)	소수민족의 비율(%)	한족의 비율(%)
1953	4,451,482	93.06	6.94	4,449,017	93.01	6.99
1964	4,948,851	68.07	31.93	4,948,619	68.07	31.93
1982	7,797,567	59.61	40.39	7,797,344	59.61	40.39
1990	9,460,152	62.42	37.58	9,961,202	62.42	37.58

자료:

(*1)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년》, 제43-44쪽.

(*2) 《중국 민족 통계연감:1995년》, 제207-208쪽; 《중국 민족 통계연감:2000년》, 제433-434쪽.

설명: <표1>은 세권의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며, 도표상의 “한족의 비율(한족이 자치구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필자가 직접 계산해 낸 수치임.

26) 이 서적 제140쪽에서는 1994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총인구수가 1,632.7만명이며, 그중 소수민족인구수는 1,016.66만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13쪽의 통계표상에서는 1994년 신장의 총인구수가 1,605.22만명이며, 소수민족총인구수는 1,016.22만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표 2>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총인구에 대한 동일 서적상의 통계수치의 차이

연도	제43-44쪽	제383쪽
1953	4.451.482	
1964	4.948.851	
1982	7.797.567	783.57만
1990	9.460.152	934.10만

자료: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년》.

뿐만 아니라 과거 지도자들이 언급한 수치나 중국 대내외에서 나오는 각종 출판물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는 매우 다양하다. 통계수치상의 이런 편차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의 인구문제를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매우 복잡하게 한다. <표4>는 각종 자료에 근거해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수치와 비율의 변화를 직접 정리한 내용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 중국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된 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의 수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특히 이 지역에서의 한족과 위구르족의 인구수치와 비율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²⁷⁾

2.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구비율의 변화

1) 1949년의 인구대비 및 비율

먼저, 1949년의 경우를 보자. 브루다(Jesep Brewda)는 1949년 이 지역에서 위구르족이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오늘날에는 절반이

27) <표4>에서 ①-④는 중국에서 나온 자료로,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통계자료라고 생각한다.

한족(漢族)이라고 했다. 이 수치는 《중국민족통계연감》이나 신장민족사무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반지쑤·치文理(班吉蘇·齊文禮: 이하 '반지쑤'라 칭함)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지쑤는 “1949년 신장의 소수민족 인구는 404만 명으로, 당시의 위구르인은 329만명이었다.”²⁸⁾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치구내 전체인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위구르인이 이곳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년》에서는 1949년 '자치구연말총인구수'가 433.34만명이며, '소수민족인구수'가 404.24만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표5>참고), 소수민족인구수치에서는 반지쑤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비슷하다. <표5>에서는 1949년 당시 이곳에 거주하는 한족인구수는 29.1만명이었다. 그러나 만약 반지쑤가 제시한 수치를 근거로 계산을 해 보면, 당시 '소수민족전체인구'가 자치구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2%(404/433.34)이며, 329만 '위구르인'이 자치구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5.92%(329/433.34)이며, 아울러 한족은 당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6.8%(100-93.2)를 차지했으며, 동시에 29.34만명(433.34-404)의 한족이 이곳에 거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 3> 194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수치

민족	인구수		민족	인구수	
	1949년	1990년		1949년	1990년
위구르족(維吾爾族)	329	719	타지크족(塔吉克族)	1.3	3.3
카자흐족(哈薩克族)	44.3	110	만주족(滿族)	0.1	1.8
회족(回族)	12.2	68.15	우즈베크족(烏孜別克族)	1.2	1.4

28) (班吉蘇·齊文禮, 1996, 48-53)

키르키즈족(柯爾克孜族)	6.6	13.9	러시아족(俄羅斯族)	1.9	0.8
몽고족(蒙古族)	5.2	13.7	다우얼족(達斡爾族)	0.18	0.5
시버족(錫伯族)	1.17	3.3	타타르족(塔塔爾族)	0.59	0.48

단위:만명

자료: (班吉蘇·齊文禮, 1996, 48-53)

설명: <표3>은 반지쭈의 문장내용을 근거로 필자가 정리한 것임.

아울러 반지쭈(班吉蘇)는 <표3>에서와 같이 1949년 신장위구르자치구내의 각 민족의 인구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12개 민족을 합치면 403.74만 명에 이른다(현재 신장에서는 47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참고로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수치를 살펴보면, 싱글레톤(W.D.Shingleton)은 1942년도에 위구르인이 78%를 차지했으며, 오늘날에는 48%를 차지하고 있다.²⁹⁾ 한국의 조정남 교수는 건국초기, 즉 50년 이전에 이 지역에서는 한족이 거의 없었으며, 10만 명 내외에 이르렀다.³⁰⁾ Chang은 해방 후 인민해방군 병력이 이곳에 처음 도착한 1950년에 한족은 20만 명이었다.³¹⁾ 1957년에 발표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중요한 문장에서는 “……왜냐면 위구르족은 신장에서 주체민족이기 때문이며,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³²⁾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연도나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29) (William D. Shingleton, 1997)

30) (조정남, 1988, 231)

31) (Felix K. Chang, 1997.413)

32) (周恩來, 1994, 175)

2) 1964년의 인구대비 및 비율

1964년도에 비록 제2차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나, 1964년도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찾을 수 없다. 단지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에는 1964년 자치구총인구수가 4,948,851명이며,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07%라고 기술해놓고 있다.³³⁾ 이 수치에 근거해보면 이 시기 한족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미 31.93%를 점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표1>참고). 아울러 1964년에 이르러 한족의 인구수는 크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1964년도의 인구수치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후 비슷한 시기를 보면, 1962년에는 이곳에서 한족인구수는 207.84만명에 이르며, 1965년에는 275.84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5>참고)

3) 1982년의 인구대비 및 비율

제3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982년에 이르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감소했으며, 반면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에는 1982년 신장지역의 소수민족총인구수가 7,797,567명이며, 소수민족전체인구가 자치구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61%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⁴⁾ 이 수치에 의하면 한족은 이때 40.39%를 점하는 셈이 된다. 한편 동일한 서적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1982년 자치구의 연말 총인구가 1315.90만명이며, 소수민족인구는 783.57만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수치에 근거해보면, 이때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59.55%이며, 한족은 532.33만명으로 40.45%를 점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위구르인이 총인구에서

33) (國家民會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1991, 43)

34) (國家民會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1991, 44)

얼마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비율은 찾을 수 없고, 단지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표5〉참고할 것.)

다만 중국에서 출판된 몇 권의 권위서적에서 당시 위구르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정법사(國家民委政法司)에서 펴낸 《中國民族指南》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거주민에 대한 설명에서, 위구르족은 주로 신장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천산(天山) 이남(以南)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소수만이 후난성(湖南省)의 타오위엔(桃源)과 창더(常德) 등의 현(縣)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신장지역의 총인구수는 1308만 여명이며, 그중 위구르족은 595만 여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⁵⁾ 이 수치를 계산하면, 당시 위구르인은 약 45.49%정도를 점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 외에 《중국 대백과사전: 민족》에서도 위구르족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주요거주지를 비슷하게 설명한 다음, “인구수는 5,957,112명(1982)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⁶⁾ 만약 이 수치를 《중국민족통계:1949-1990》에서 제시하는 자치구총인구수 1315.9만명(〈표5참고〉)과 대비시켜보면 위구르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7%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외에 권위서적 중의 하나로 알려진 《民族知識手策》(1988년 초판)도 위구르족에 대한 설명에서 “위구르족, 인구는 5,975,112명이며, 신장 총인구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천산(天山) 이남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리(伊犁)등 북강(北疆)의 각지에도 산거(散居)하고 있다.”³⁷⁾고 기술하고 있다. 이 서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구르족 총인구수는 《中國民族指南》과 《중국 대백과사전: 민족》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위구르족이 신장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라고 표시했는데, 이 수치는 60%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는 틀린

35) (國家民委政法司編著, 1990, 23 & 196)

36)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民族》編輯委員會, 1986, 448)

37) (《民族知識手冊》編寫組, 1988, 122)

것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위구르인 597.5만명을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말 총인구 1315.9만명(<표5>참고)과 대비시켜보면 단지 45.4%밖에 나오지 않으며, 이 문장에서 말하는 3/5이란 소수민족총인구수를 자치구 전체총인구와 대비시킨 비율을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당시 자치구내의 소수민족총인구수 783.57만명을 자치구전체인구 1315.9명과 대비시켜보면 3/5(60%)와 근접한 59.5%라는 결론이 나온다(<표5>참고).

4)1990년의 인구대비 및 비율

제4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990년의 통계수치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다. 상술한 반지쑤의 문장에서는, 1990년 신장의 위구르족 총인구수는 719만 명이라고 제시했다.³⁸⁾ 그가 제시한 719만 명을 《중국민족통계:1949-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1990년의 신장위구르 전체인구수 1498.72만명과 대비시켜보면, 위구르족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97%에 이른다.

38) (班吉蘇·齊文禮,1996,48-53)

<표 4>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대비 및 비율

연도	지역총인구	소수민족총 인구	위구르족		한족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1942				⑫약78		
1949	①433.34만 ⑤433.3만	①404.24만	④329만	⑩95	①29.1만	①6.72
1952	①465.17만	①432.57만			①32.6만	①7.01
1953		②4,451,482 ⑧4,449,017				
1957	①558.10만	①475.86만		⑦70%이상	①82.15만	①14.73
1962	①698.97만	①491.25만			①207.72만	①29.72
1964		②4,948,851 ⑧4,948,619				
1982	①1,315.90만 ⑥1,308만	①783.57만 ②7,797,567 ⑧7,797,344	⑥595만 ③5,957,112 ⑩5,975,112	⑩신장총인구 의 3/5차지	①532.33만	①40.45
1990	①1,498.72만 ⑤1515.5만	①934.10만 ②9,460,152 ⑧9,961,202	④719만		①564.62만	①37.67
1992	⑬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은 한족, 그 다음이 위구르인.					
1994	⑨1,605.30만	⑨1016.22만			②589.08만	②36.7
1997	⑰오늘날 절반이 한족. ⑱오늘날 위구르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8%.					
1999	⑭1, 775.00 만	⑭1087.72만			⑭687.28	⑭38.72

자료:

- ① 《中國民族統計年鑒:1949-1990》, 1991, 383.
- ② 《中國民族統計年鑒:1949-1990》, 1991, 43-44.
- ③ 《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 448.
- ④ 班吉蘇·齊文禮, 1996, 48.
- ⑤ 楊策, 《新疆縱橫》, 1991, 144-147.
- ⑥ 國家民委政法司編著, 《中國民族指南》, 1990, 196.
- ⑦ 周恩來, 1994, 175.

- ⑧ 《中國民族統計年鑒:1995》, 1995, 207-208.
- ⑨ 《中國民族統計年鑒:1995》, 1995, 213.
- ⑩ 《民族知識手冊》編寫組, 1988, 123.
- ⑪ Josep Brewda, 1997, 59-61.
- ⑫ William D. Shingleton, 1997, 1-2.
- ⑬ 謝劍, “從蘇聯崩潰來看的中國民族問題(上)”, 《中國時報》(臺灣), 1992.1.30.
- ⑭ 《中國民族統計年鑒:2000》2000, 439.

설명:1. 한족'인구수'와 한족의 '비율'에서 ①은 참고자료 ①에 근거해서 산출해낸 수치다.

2. 한족'인구수'와 한족의 '비율'에서의 ②는 참고자료 ⑨에 근거해서 산출해낸 수치다.

3. 한족'인구수'와 한족의 '비율'에서의 ④는 참고자료⑭에 근거해서 산출해낸 수치다.

이 수치는 싱글레톤(W.D.Shingleton)이 제시한 48%란 수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브루다(Josep Brewda)가 말한 오늘날 이 지역에서 한족인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면 《중국민족통계:1949-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에서 보면 1990년 현재 한족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67%에 이르며, 브루다가 제시한 수치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5>참고). 참고로 《중국민족통계연감:1995》에서는 1990년 이 지역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2.42%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치인 37.58%가 한족이 거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표1>참고).

5)1990년 이후의 인구대비 및 비율

《중국민족통계연감:1995》에서 민족자치지방 연말총인구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1994년 말 신장지역은 전체인구가 1,605.30만명이며, 그중 소수민족은 1,016.22만명(63.3%)에 이른다.³⁹⁾ 이 수치에 근거

39) (國家民委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1995, 213)

해보면, 1994년 말 한족은 이곳에서 36.63%(589.08만명)를 차지한다. 아울러 《중국민족통계연감: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 1999년 신장의 총 인구수는 1,775.72만명이며, 그중 소수민족인구수는 1,087만명(61.28%)에 이른다.⁴⁰⁾ 이 수치에 근거해보면, 한족은 687.28만명(38.72%)으로, 1994년에 비해 98.2만명이 증가한 셈이 된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1949년에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소수민족은 거의 9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족은 극히 적은 수치를 점하고 있었다. 즉 1949년에 한족은 약 29만여명이 이곳에 거주했으며, 약 6.7-6.8%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반면 위구르족은 당시 329만명 정도가 거주했으며, 이는 75.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편 이후 한족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서 1990년에는 38%에 가까운(565만여명) 비율을 점하게 되었다. 반면 위구르족 인구수는 48%(719만여명) 정도를 점하게 되어, 194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오늘날 비록 한족이 이곳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나, 그러나 오늘날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의 절반이 한족이라는 브루다(Josep Brewda)의 말은 다소 수긍이 가지 않는다.

IV.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과정과 원인분석

상술한 분석에서 우리는 오늘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한족인구수와 비율이 1949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족인구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급속도로

40) (國家民委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2000, 439)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한족인구의 증가는 과연 정부나 행정적인 수단으로 혹은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나타난 결과인가? 한족인구의 이런 증가는 소수민족의 문화말살을 위한 의도적이고 계산된 결과인가?

1. 신장에서의 한족인구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141)

1)역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구증가추이

서역(西域)과 중원과의 관계는 서한(西漢)왕조 때 신장에 서역도호부(西域都護部)가 설치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서한후기에 신장 남북의 40국 및 신장 경내(境內)의 오손(烏孫)등과 같은 국가를 포함하여 총 인구는 40여만명에 달했다. 1759년 청정부가 신장을 통일한 후, 당시 통계수치는 위구르족이 26.2만명이었으며, 청말에 이르러 신장의 총인구는 208.5만명에 이르렀다. 신해혁명(1911)이후 신장의 인구는 다시 증가되었는데, 이때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신장으로 이민 온 자들이 많았으며, 이후 카자흐스탄등에서도 신장으로 이주하는 자들이 많았다. 동시에 중국의 간수(甘肅)와 산시(陝西)등지의 동부 성(省)에서도 신장으로 이주하는 자들이 많았다. 1928년에 신장의 총 인구는 530,910戶의 2,551,741명에 달했다. 신해혁명 이후 순수하게 증가한 수치가 45만명에 달했다.

군벌이 할거했던 1931-1933년간의 혼란기에는 신장지역의 인구발전은 정체되었으며, 심지어 감소하기도 했다. 1942년 봄에 이르러, 허난성(河南省)등지로부터 이재민들이 신장으로 이주해왔으며, 간수(甘肅)와 같은 성에서도 이재민들이 신장으로 몰려들었다. 1944년

41)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문은 3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한족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극히 부족한 것이 첫째 이유이며, 둘째는 연도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당 당군정(黨軍政) 인원들이 신장에 들어온 후 이곳의 인구는 다시 증가했다. 1949년 신장의 인구는 433.3만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1911년에 비해 2배로 증가된 수치다.⁴²⁾

2) 1949년 이후 신장에서의 인구증가추이

신장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적 《신장종횡》(新疆縱橫)은 개략적이나마 1949년 이후의 신장지역의 인구증가발전과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서적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신장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으며, 1949년-1990년의 41년 동안 신장의 전체 인구는 433.3만명에서 1,515.5만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3.5배가 증가한 수치다. 매년 평균 순수 증가 인구수는 26.4만명이며, 이는 평균 3.1%의 순 증가율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신장지역의 인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⁴³⁾ 그러나 이 서적은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 1949-1955년 말. 이 시기는 인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회복과 발전, 그리고 의료와 위생조건이 크게 개선된 시기다.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으며, 사망률로 낮아졌다. 이때 신장지역의 전체인구는 점진적인 발전추세를 보였다.

(2) 1955년 말-1960년 말. 이 시기는 신장의 전체인구수가 크게 증가한 고조기였으며, 총인구수는 중국 내지로부터 온 청년들이 변경지역의 대규모개발과 건설을 지원하고, 신장지역으로 자발적으로(자연적으로) 들어온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대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시기다.

(3) 1960년 말-1963년 말. 기초건설규모의 축소, 도시 노동자(職工) 인원의 간소화(精簡), 부분적인 한족노동자들의 내지 원적(原籍)으

42) (楊策主編, 1991, 144-146)

43) (楊策主編, 1991, 144-146)

로의 회귀, 신장의 이리(伊犁)와 다칭(塔城)지역에서 주변국가로 대규모 외류(外流)하는 사건 등으로 인해, 신장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완만했으며, 연 평균 진출입(進出入) 인원은 50여만명에 이른다.

(4)1963년 말-1976년 말: 이 시기는 신장 총인구가 다시 급증한 두 번째 고조기였다. 60년대 중반, 신장지역의 경제발전은 고조기에 속했으며, 경제형세가 비교적 좋은 시기여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문화대혁명시기에는 산아제한정책이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산아제한정책업무도 거의 그 통제력을 상실한 시기였다.

(5)1976년-현재. 신장지역의 총인구증가의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시기로, 인구가 급증하던 추세는 통제되기 시작했으며, 산아제한정책도 보편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율도 하락하게 된 시기다. 동시에 인구의 진출입 현상도 점차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인구이주의 증가폭도 하락하게 되었다.

2. 신장에서 한족인구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2

이상은 《新疆縱橫》에 소개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증감추세에 대한 개략적인 논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설명은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유용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곳에서의 한족인구증가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민족통계연감:1949-1990》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연말 총인구에 대한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단지 이 통계서적에서는 '자치구연말총인구수'와 소수민족 '인구수(절대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수치는 필자가 이를 근거로 계산해낸 수치다.

<표 5> 신장위구르자치구 연말 총인구 및 구성

단위:만 명

연도	자치구 연말 총인구 수	소수민족인구수		한족인구수(*1)		전년대비인구증감수(*2)			
		절대치	비율(%)	절대치	비율(%)	소수민족인구 증가수		한족인구 증가수	
						전년대비 증가수	연평균 증가수	전년대비 증가수	연평균 증가수
1949	433.34	404.24	93.28	29.1	6.72	0		0	
1952	465.17	432.57	92.99	32.6	7.01	28.33	9.44	3.5	1.17
1957	558.01	475.86	85.27	82.15	14.73	43.29	8.66	49.55	9.9
1962	698.97	491.25	70.28	207.72	29.72	15.39	3.08	125	25
1965	789.10	513.26	65.04	275.84	34.96	22.01	7.34	68.12	22.7
1970	976.58	590.46	60.46	386.12	39.54	77.2	15.44	110.28	22
1975	1154.53	676.52	58.60	478.01	41.40	86.06	17.21	91.89	18.3
1978	1233.01	720.11	58.40	512.9	41.60	43.59	14.53	34.18	11.39
1979	1255.97	734.21	58.46	521.76	41.54	14.1		9.57	
1980	1283.24	752.21	58.62	531.03	41.38	18		9.27	
1981	1303.05	768.06	58.94	534.99	41.06	15.85		3.96	
1982	1315.90	783.57	59.55	532.33	40.45	15.51		-2.66	
1983	1333.30	796.16	59.71	537.14	40.29	12.59		4.81	
1984	1344.08	809.45	60.22	534.63	39.78	13.29		-3	
1985	1361.14	826.22	60.70	534.92	39.30	16.77		0.29	
1986	1383.64	845.01	61.07	538.63	38.93	18.79		3.71	
1987	1406.33	863.35	61.39	542.98	38.61	18.34		4.35	
1988	1426.42	879.41	61.65	547.01	38.35	16.06		4.03	
1989	1454.16	901.00	61.96	553.16	38.04	21.59		6.15	
1990	1498.72	934.10	62.33	564.62	37.67	33.1		11.46	

자료: 1919-1990년 통계연감, 제383쪽.

설명: (*1)과 (*2)의 소수민족인구증가율과 한족인구수 및 한족인구증가율은 필자가 표의 수치에 근거해서 계산해 낸 수치다. 즉 한족 총 인구수 = 자치구연말총인구수 - 소수민족총인구수에서 계산한 수치다.

<표5>를 활용하면서 우선 1978년 이전시기와 이후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 사망이전을 하나의 시기로 잡을 수 있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을 시작한 1978년을 하나의 시기로 잡을 수 있다.

먼저 마오쩌둥시기(1959-1976)를 살펴보자. 마오쩌둥 시기에는 3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로 통계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4단계 발전단계에 의한 엄격한 대조는 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단계(1949-1955년)에서는 신장자치구에서의 전체인구는 점진적인 발전을 했다고 언급했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1952년까지는 한족의 인구증가폭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52년에 불과 3.5만명에 불과하던 한족인구는 5년 후인 1957년에 이르러 82.15만명으로 급증했으며, 1957년부터 1962년 5년 기간에는 신장에서 한족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이 발견된다. <표5>에서 1957-1962년의 5년 시기는 신장에서의 순수 한족인구수의 증가수가 125만명으로, 연평균 25만명이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시기(1955년 말-1960년 말)에는 내지청년들의 대규모 개발과 건설, 그리고 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한족인구의 이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의 시대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국초기 중국은 소위 '스탈린 모델'에 의해 중공업우선의 경제발전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아울러 생산구조의 분포(지역안배)에 대한 사상은 소련의 '사회주의 생산분포이론(社會主義生產布局理論)'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특히 이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균형분포론(均衡布局論)'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공업분포에 대

한 대대적인 조정을 하게 만들었다. 1950년대 초기 중국의 중공업과 경공업의 분포는 약 70%가 연해안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내륙에 위치해 있는 것은 30%정도에 불과했다. 지역적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이 이론은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의 거시적인 지역정책의 핵심이자 기초를 이루었으며, 공업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내지의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구중국(舊中國)이 남겨놓은 공업구조의 지역적 편중이라는 현상을 벗어나서 공업구조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당시의 이런 사상은 마오쩌둥의 ‘십대관계론(論十大關係)’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⁴⁴⁾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이후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이 정책은 1958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시기부터는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⁴⁵⁾

신장지역에서는 1953년부터 대규모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즉 “중앙의 의견에 근거해서, 유관부서 및 지방은 소수민족 지구의 각 항목의 건설사업계획을 제정했다. 1953년, 중국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실시와 더불어, 일부분 민족지역의 경제개발도 첫 번째 고조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내이멍꾸(內蒙古), 신장, 닝시아(寧夏) 등 민족지구에서 약간의 중점항목의 건설이 실시되었다.……신장의 커라마의(克拉瑪依) 유전은 국가중점공정(工程)으로, 시종 국가 지도자들의 고도의 중시를 받았다.”⁴⁶⁾

아울러 1958년 ‘대약진’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내지의 청년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점도 발견된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사회주의 건설의 필요에 의해, 당과 국가는 대량의 한족청년을 동원해서 신장지역의 개발과 건설을 지원했으며, 공농업(工農業)과 기타 분야에서의 생산에 종사했다.”⁴⁷⁾ “소수민족지역의 ‘대약진’도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농지수리(農田水利)건설과 지방공업의

44) (毛澤東, 1977, 269-271)

45) (國家計委國土地區所著, 2000, 40-44)

46) (文精主編, 2001, 260)

47) (胡文康, 2000, 150)

발전을 촉진했다. ‘대약진’기간, 소수민족지역은 ‘가축을 위주로, 소형을 위주로, 인민공사의 경영을 위주로’(以蓄爲主, 以小型爲主, 以社辦爲主)라는 방침하에, 농지수리건설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신장 전 자치구의 관개면적은 1949년에 16.2만 무(畝)에서 1959년에는 3,700만 무(畝)로 확대되었다. 이 기간 소수민족자치구의 공업건설에서도 큰 발전을 이룩했다. 여러 지방에 강철, 기계, 석유, 경공업, 방직 및 교통운수, 삼림공업 등의 중소형 공업항목이 건설되었다.”⁴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균형분포론’은 당시 한족의 신장으로의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족 개인의 자발적(사적)인 이유로 신장지역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3번째 단계(1960 말-1963년 말)에서, 한족인구의 내지로의 이동과 소수민족의 소련으로의 외류(外流) 현상들이 발생해서, 신장지역의 인구증가폭이 이전보다는 하락했다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1958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대약진’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에 중국은 1961년 1월 14-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8기 9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조정, 공고, 충실, 제고’(調整, 鞏固, 充實, 提高)란 8자방침(八字方針)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국민경제에 대한 조정정책이 실시되었다.⁴⁹⁾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이런 조정정책은 이른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자(職工)의 대대적인 간소화(精簡)와 도시 인구의 감소. 둘째, 기본건설규모의 감소. 셋째, 공업전선(戰線)의 단축. 소위 “관(關), 정(停), 병(併), 전(轉)”을 말하며, 기업의 폐쇄, 정지, 합병 혹은 이전과 같은 정책의 추진을 의미한다. 넷째, 농업전선(戰線)에서의 지원과 강화.⁵⁰⁾ 앞에서 언급한 세 번째 단계, 즉 1960-1963년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며, 신장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으

48) (文精主編, 2001, 263)

49) (胡繩主編, 1991, 381-397)

50) (胡繩主編, 1991, 393-396)

며, 도시 노동자와 한족인구의 내지로의 회귀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약진운동기간 소수민족지역에서도 ‘계급투쟁’의 논리에 의해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또한 반우파투쟁으로 확대되어 소수민족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낳았다⁵¹⁾. 1958년과 1959년에는 신장에서 대약진과 반우파투쟁을 반대하는 소규모의 분규가 있었으며, 1962년에는 대규모 반란으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련으로 외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⁵²⁾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타성(塔城), 위민(裕民), 후위청(霍城) 3현(縣)의 거주민 6만여명이, 소련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영사관을 통한 장기적인 책동에 의해 소련으로 도망갔다.”⁵³⁾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상술한 3번째 단계(1960년 말-1963년 말)에서는 한족인구의 내지로의 이동, 그리고 소수민족 특히 위구르족 인구들의 외류현상으로 인해 인구증가수치가 감소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5>에서 1962-1965년 시기는 전후(前後) 시기에 비해 인구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상술한 4번째 단계인 1963년 말부터 1976년 사이는 최소한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즉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1966년을 기점으로 나누어야 한다. 1966년 이전시기를 먼저 살펴보면, 1962년부터 중국의 경제는 8자방침에 의한 조정정책에 의해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었다.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 식량생산도 크게 증가되었으며, 국가재정과 시장상품도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⁵⁴⁾ <표5>에서 1962년부터 1965년 3년의 기간은, 비록 이전시기(‘대약진’ 시기도 포함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족인구는 연평균 22.7만명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51) (허중국, 2001, 47-93)

52) Chang은 당시의 신장에서의 소수민족들의 외류현상이 ‘기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Felix. F. Chang, 1997, 406)

53) (《当代中國的民族工作》編輯部, 1989, 161)

54) (胡繩主編, 1991, 394-397)

했다. 이 수치는 결코 다른 시기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없는 데, 만약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1963년도까지 한족인구의 증가가 둔화된 시기라면, 최소한 1964년부터는 한족인구가 다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중국 전역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지역도 극한 긴장상태를 야기했다. 1966년 말 홍위병이 야기한 과격한 파괴행위에 이어, 1967년 1월 들어 문화대혁명은 '전면적인 탈권'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각 소수민족지역도 마찬가지로 '전면내전'의 열기에 휩싸이며, 군중성 무장투쟁사건과 함께 발생한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⁵⁵⁾ Chang에 의하면, "문화대혁명은 홍위병의 모스크와 이슬람의 전통문화에 대한 파괴적인 행위에 의해 심각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 많은 위구르인들이 아커쑤(阿克蘇)부근을 통해 소련국경을 넘었다."⁵⁶⁾고 말하고 있다.

<표5>에서 1965년부터 1970년 5년 시기('문화대혁명'이 포함된 시기)는 한족이 무려 110.23만명(연평균 22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이후 5년 시기(1970-1975년)도 연평균 18.3만명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49년부터 1975년 시기의 소수민족의 인구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대약진 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시기는 인구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957-1962년 5년동안 연평균 3.08만명으로 인구증가추세가 다른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1962-1965년의 3년간의 시기에도 연평균 7.34만명의 증가세를 보이며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술에서, 그리고 <표5>에서 잘 나타나듯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는 주로 마오쩌둥 집권시기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업분포에서의 '균형분포론'의 영향으로 '대약진 운동'

55) (허중국, 2001, 47-93)

56) (Felix. k. Chang, 1997, 406-407)

이후 대대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와 더불어 1960-1963년 시기에 한족인구수가 내지로 회귀하는 등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마오쩌둥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덩샤오핑이 집권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시기는 마오쩌둥 시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평균 10만명 이내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해도 있다<표5참고>.

3. 신장에서의 한족인구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3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원인으로 내용별 분류로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자발적으로 이주한 농민. 북경대학 사회학인류학연구소의 마롱(馬戎)교수는 티베트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서적에서, “티베트로 전입한 한족인구는 네이멍꾸(內蒙古)보다 적을 뿐 아니라, 신장보다도 적다. 이 현상이 설명하는 한 가지 정책방면의 요소는, 중앙은 신장에서 조직적으로 농지개간 병단(兵團)을 건립했으며, 아울러 내지의 한족과 지식청년들을 동원해서 신장으로 가게 했다. 그러나 병단의 인구가 신장 한족인구에서 차지하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며, 신장으로 대량으로 이주한 한족은 스스로 이주해 간 농민들이다.”⁵⁷⁾ 그의 설명에 의하면, 한족의 소수민족지역(티베트)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 주요원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소수민족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체제개혁, 특히 인민공사(人民公司)의 보편적인 건립으로 사회제도, 정치체제, 경제체제방면에서 내지(內地)와의 차별이 사라진 것에 큰 원인이 있다. 아울러 이런 변화와 더불어 종교적인 영향도 크게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다. 소수민족지역에서

57) (馬戎, 1996, 217)

진행된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한족의 소수민족지역으로의 이동가능성을 높였으며, 특히 체제가 내지와 더욱 비슷하나 전통문화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지역으로의 이민가능성을 높였다. 티베트자치구의 경우, 이런 사실들로 인해 이주민의 전입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 많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문화대혁명'기간에는 더욱 그러했다.⁵⁸⁾

둘째, '기계적인 성장'. 소위 '기계적인 성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현상과 반대의 의미를 지닌 개념을 말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1958년 대약진 운동과 더불어 내지의 청년들이 대거 동원되어 신장지역의 각종 개발과 건설사업을 지원했으며, 농업과 공업 및 기타분야에서의 생산에 참여했다. 따라서 신장에서 한족의 인구성장은(특히 마오쩌둥 시기에) 이런 기계적인 성장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5>에서 잘 나타나듯이, 1957년 이후 연평균 20만명 이상의 순수 한족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에 의한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수치다. 이러한 '기계적인 성장'에는 각종 개발과 건설에 동원된 대학 졸업생, 제대군인 혹은 지식청년 등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오늘날 신장에는 소위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產建設兵團)'이란 특수조직이 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현재 중국에서 유일한 당정군기(党政軍企) 연합의 특수조직이며, 중국최대의 한족위주의 대형 농공상(農工商) 연합기업이다.⁵⁹⁾ 병단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첫째 10개의 농

58) (馬戎, 1996, 76-77)

59) 후원강(胡文康)에 의하면, 이 생산건설병단은 한족위주의 농공상(農工商) 연합기업이며, 현재 남강(南疆)과 북강(北疆)에 모두 10개의 개간지구가 있으며, 남강지역에는 많지 않은 한족인구중에서 절대다수는 병단 농목장에 있는 한족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胡文康, 2000, 150-151). 그 외한 인터넷 자료에서는, 2001년 6월 '신장생산건설병단통계국'은 처음으로 이 병단에 대한 인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병단 총 인구는 248.05만명으로, 1954년 병단 설립 때의 인구수에 비해 230만명이 증가했다. 아울러 이들 병단 인구는 주로 신장의 5대 自治州 경내에 거주하고

업사(農業師), 3개의 농장관리국(農場管理局), 1개의 공정건축사(工程建築師)가 있으며, 둘째 174개의 농목단장(農牧團場)(그중 소수민족이 30%이상을 차지하는 농목단장은 33개)과 58개의 변경단장(邊境團場)이 있으며, 셋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업교통건설상업기업(工交建商企業)이 543개가 있으며, 넷째, 독립된 문교위생(文教衛生), 과학연구설계(科研設計), 금융보험 등 사업단위가 1,667개가 있다. 1999년 말 현재, 신장건설병단에는 모두 242.09만명이 있으며, 그중 소수민족인구는 27.79만명으로, 병단 총 인구의 11.48%를 차지하고 있다.⁶⁰⁾ 신장에서의 병단의 총 인구수가 242.09만명이라면, 1999년 말 신장에서의 한족의 총 인구수가 687.28만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병단의 한족인구수가 이곳에서의 전체 한족에서 점하는 비율은 35%를 상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셋째,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율에 의한 증가. 마롱(馬戎)교수는 한족의 티베트로의 인구 이주문제를 설명하면서, 신장과 네이멍꾸(內蒙古)와 같은 소수민족지역에는 일찍이 한족이 대량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신장은 중국의 2대 소수민족지역의 하나로, 1949년에 30만명의 한족이 있었으나, 1990년에는 570만명의 한족이 거주하게 되었다. 네이멍꾸(內蒙古)자치구는 1949년에 520만명이 있었으나, 1990년에는 1,730만명으로 증가했다. 한족인구가 이들 두 자치구에서의 성장은 상당부분(네이멍꾸에서는 약 1/3이) 출생에서 오는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며, 그러나 인구의 기계적인 증가(이주)도 한족인구가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다."⁶¹⁾ 그의 설명에 의하면, 경제적인 요인 혹은 기타 요인에 의해 한족의 신장으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들 이주민들에 의한 출생

있으며, 그중 농목단장(農牧團場)의 인구는 병단 전체인구의 74.71%(185.31만명)를 차지하며, 식수(植樹), 목축 및 농업관련 농산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www.cpirc.org.cn/5cendata41.htm)

60) (國家民委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2000, 236)

61) (馬戎, 1996, 77)

으로 인한 한족의 인구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장에서 한족에 대한 산아제한정책은 1975년 도시거주 한족에게 먼저 실시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⁶²⁾ 따라서 최소한 1975년 이전시기에는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이 방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산율에 의한 자연증가수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다.

넷째, '삼선'(三線)건설로 인한 한족인구의 증가. 중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전쟁준비의 필요성에 의해 삼선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중서부 지역은 한족위주의 도시가 생겨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지역에서의 한족의 인구증가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공중앙은 전쟁준비의 필요에 의해 전국을 일선(一線)과 이선(二線) 및 삼선(三線)으로 구분했으며, 즉 연해 및 전쟁발생 후 최초로 피해를 받을 지역을 일선으로 하고, 이런 지역과 멀리 떨어진 내지를 삼선(혹은 '大三線'이라고도 함)으로 하며, 중간지역을 이선이라 했다. 또한 각 성(省)도 일선과 이선 및 삼선으로 구분했으며, 성내의 삼선을 '소삼선(小三線)'이라 했다. 대삼선과 소삼선에 건설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이를 '삼선건설(三線建設)'이라 한다. 이는 일찍이 중국경제건설의 중심과 가장 중요한 임무로 간주되었으며,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도 광대하며, 지속된 시간도 길며, 이런 일들은 중국역사상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삼선건설을 강화할 때, 전쟁준비의 필요에 의해, 또한 공업분포의 합리화를 위해, 가공공업은 원료산지와 더욱 가깝게 배치했으며, 중앙은 기존에 연해지역에 있던 일부분 군수공업 및 기타 중요한 기업을 삼선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이후 새로 건설되는 기업도 삼선지역에 적당히 배치했다. 일부 소수민족지역도 삼선에 위치해있었기 때

62) (班吉蘇·齊文禮, 1996, 52)

문에, 그곳의 공업과 교통의 발전에도 큰 몫을 했다. 신장의 경우, 석유와 유색금속공업이 국가로부터 주목을 받은 부분인데, 신장 하미(哈密)현대화 대형 노천(露天)탄광, 키라마이(克拉瑪依)-우루무치(烏魯木齊) 석유수송관 건설이 이루어졌다.⁶³⁾ 단지 이런 ‘삼선건설’은 전쟁준비의 필요에 의해 주로 ‘산(散), 산(山), 동(洞)’이란 방침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즉 공장은 산 주변지역으로 분산시켜 건설했으며, 무기는 동굴속에 숨겼다. 이런 기업들은 주로 군수공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소수민족과는 무관한 것들이었으며, 소수민족들의 노동력도 흡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다수 내지로부터 온 한족이 담당해야만 했다.⁶⁴⁾ 이런 사실에서 삼선건설 또한 한족인구가 증가하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에서 실시한 ‘민족식별(民族識別)’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신의 민족명을 틀리게 등기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1978년 중국공산당의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당의 민족정책에 의해 각지에서 소수민족에 대해 일자리, 입학, 출생 등 여러 방면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이전에 민족성분을 속인 사람들이 원래의 민족성분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1978-1990년 사이 순수하게 증가한 소수민족인구중에, 민족성분을 회복하거나 고친 이가 약 50-60%에 달하며, 약 2,000여만 명에 달한다.”⁶⁵⁾ 이 또한 과거 한족인구가 증가하게 된 변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신장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민족명을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63) (文精主編, 2001, 265-266)

64) (費孝通, 1996, 107-112)

65) (續西發, 1994, 84)

V.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산아제한정책 내용과 실천과정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중국의 민족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방인사들에게는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장지역에서의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장지역을 포함한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한족의 경우 197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반면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1975년까지 중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성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닌 인구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1949-1974년 시기. 이 시기는 소위 ‘사람과 가축의 번성(人畜兩旺)’이란 구호아래 인구성장이 고조기에 달했던 시기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몇 년간은 신장지역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양호했다. 당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정부는 이 지역 소수민족인구의 높은 사망률(20.82%)과 노동인력의 필요에 의해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人多是好事)’이라는 지도사상의 영향으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농업과 목축업 생산을 도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장의 각 소수민족인구의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사망율을 하락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로 인해 이곳의 인구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1974년에 이르러 신장의 총 인구는 659.48만명으로 건국이전에 비해 1.6배가 증가했다. 1954년과 비교해서 소수민족인구의 출산율은 31%에서 39%로 증가되었으며, 사망률은 16%에서 8%로 하락했으며, 자연증가율은 15%에서 31%로 증가했다. 이로써 소수민족 인구는 저 출생, 고 사망, 저 성장 유형에서 고 출생, 저 사망, 고

성장 유형으로 변하게 되었다.⁶⁶⁾

둘째, 1975-1982년 시기. 소위 ‘차별대우’(區別對待)는 소수민족인구의 성장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 중국정부는 인구성장지표를 국민경제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이후 인구문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피임과 만혼(晩婚)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인구성장을 억제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소수민족인구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었다. 이유는 무엇보다 소수민족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⁶⁷⁾과, 그리고 소수민족지역은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들이 고려되었다. 1975년부터 중국은 전국적으로 산아제한정책(計劃生育政策)이 실시되었으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한족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시와 생산건설병단의 농목단장(農牧團場)에 대해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다. 1981년 4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정부는 “산아제한(계획생육)공작에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임시규정(關於計劃生育工作若干問題的暫行規定)”을 통과시키고, 한족에 대한 산아제한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실시했다.⁶⁸⁾

이 정책이 실시된 이후 한족의 출산율과 자연증가율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1975년의 30%와 26%에서 1982년에는 12.92%와 10.21%로 하락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는 비율도 40% 정도에서 12.03%로 떨어졌다. 1978년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는 “민족성분의 회복 혹은 변경에 대한 규정(關於恢復或改正本民族成份的規定)”을 발표했는데, 과거 민족성분을 정확하게 올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민족명을 회복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만약 일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혹은 그 명칭을 소수민족으로 바꿔서 신고

66) (毛文中, 1993, 26)

67) 소수민족이 중국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3년은 6.06%, 1964년 5.78%, 1982년 6.68%였다. (國家民會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1991, 43-44)

68) (毛文中, 1993, 26)

했다면, 소수민족인구의 성장에 어느 정도의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1983-1987년 시기. 소위 ‘시범인도’(示范引導)시기로, 전반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다. 전국적으로 소수민족지역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정식으로 전개한 시기는 1982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982년 2월, 중공중앙 및 국무원은 “산아제한(계획생육)공작에 대한 지시(關於進一步做好計劃生育工作的指示)”라는 문건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산아제한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적당히 완화해줄 것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1984년 4월, 중공중앙은 국가계획 생육 위원회의 “산아제한공작상황에 대한 회보(關於計劃生育工作情況的匯報)”중에서, “소수민족의 산아제한정책에 있어서, 인구가 1천만명 이하인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1부부가 2명 자녀의 출산을 허락하며, 개별적으로는 3자녀의 출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4자녀는 허가치 않는다.”⁶⁹⁾고 발표했다. 한편, 신장에서는 1983년 9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집행에 대한 보충규정(新疆維吾爾自治區執行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的補充規定)”을 통과시켰으며, 당 규정 제9조에서 “소수민족에게도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추진시킨다.”라고 규정을 변경했다.⁷⁰⁾ 그러나 1987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정책의 추진은 매우 느슨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산아제한정책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1988-현재 시기. 1988년 4월,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수민족 산아제한 임시규정(新疆維吾爾自治區少數民族計劃生育暫行規定)”을 발표하고, 1989년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서의 주요 내용은 1부부가 2자녀를 가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규정된 조건에 근거해서 비준을 거쳐 3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69) (續西發, 1994, 80)

70) (毛文中, 1993, 27)

농촌과 목축지에서는 3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만약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고, 비준을 거치면 4자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⁷¹⁾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장에서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은 한족에 비해 늦은 시기에 실시되었으며, 즉 1989년부터 엄격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장지역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속도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통계에 의하면, 1949년 신장 소수민족인구는 404만명으로, 1990년 제4차 전국인구조사결과에서는 이미 94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949년에 비해 1.34배 증가한 수치이며, 동일기간 전국 인구성장 1.09배보다 0.25배가 높다. 1990년은 1982년과 비교해보면, 전국 인구성장율은 12.45%이며, 반면 신장의 소수민족인구증가율은 21.36%로, 전국평균보다 8.91%가 높다.”⁷²⁾ 아울러 위구르족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20.93%의 인구성장율을 기록해서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8.48%가 높다.⁷³⁾

신장지역의 소수민족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에 그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신장소수민족인구는 946만명이며, 그중 이슬람을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인구는 920만명에 달하며, 전체 소수민족인구의 97%이상을 차지한다. 이슬람을 믿는 이들은 ‘자녀를 얼마를 가지는 가는 알라신이 결정하는 것으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⁴⁾ 또한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인한 ‘초혼’(初婚)의 연령이 낮은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위구르족이 집거하고 있는 신장의 머위현(墨玉縣)에서는, 부녀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1945년에는 14.4세, 1965년에는 14.9세, 1984년에는 17세다. 현재 이슬람을 믿는 중

71) (班吉蘇·齊文禮, 1996, 52)

72) (班吉蘇·齊文禮, 1996, 48)

73) (班吉蘇·齊文禮, 1996, 48)

74) (班吉蘇·齊文禮, 1996, 51)

국의 소수민족은 모두 10개 민족으로, 1990년 제4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10개 민족의 총 인구수는 1759.73만명으로, 전국 소수민족 총인구수의 19.3%를 차지하며, 서북(西北)의 5개 省에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인구는 전국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인구의 75%를 차지한다. 반면 신장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인구는 전국 이슬람 신봉 인구수의 52.4%를 차지한다. 건국 후, 전국의 이슬람 신봉 인구수는 제1차 인구조사(1953)때의 800.6만명에서 제4차 인구조사가 실시된 1990년에는 1759.7만명으로, 119.8%가 증가했으며, 동일기간 전국의 인구성장은 83.3%였다.⁷⁵⁾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장에서 엄격하게 산아제한정책이 실시된 것은 1989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한족보다는 늦게 시작되었다. 또한 신장에서의 출산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단지 이런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선 단위에서의 획일적이고 강경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일찍이 민족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업무종사자들이 중앙의 지시에 근거해서 획일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는 많다.⁷⁶⁾ 이런 사례들은 중국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서방의 비판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싱글레톤이 제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실제 중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단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단일한 시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즉 중국의 인구문제를 국가적인 차원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해의 정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 제5차 인구조사가 끝났을 즈음, 중국의 인구는 거의 13억에 육박했다.⁷⁷⁾ 중국에서 인구문제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⁷⁸⁾ 덩샤오핑은 중국의

75) (續西發, 1994, 82).

76) (허중국, 2000, 70-95)

77) (www.cpirc.org.cn/5cendata12.htm)

78) (許明主編, 1997, 156-179)

인구문제를 “중국의 모든 ‘번거로움’의 총 근원”이라고 여겼다.⁷⁹⁾ 또한 인구문제는 “인구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야기할 수 있는 식량부족, 자원고갈,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과 더불어 오늘날 5대 세계적인 위기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⁸⁰⁾ 한 서방학자는 중국의 방대한 인구가 세계적인 식량부족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가 과연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다.⁸¹⁾

사정은 비록 그러하지만, 민족문제는 여전히 중국이 안고 있는 난제(難題)중의 하나로, 소수민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1949년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한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1949년에 한족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약 6.7-6.8%(약 29-30여만명) 정도를 차지했지만, 1990년에는 약 38%(565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는 40%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반면 이곳의 주체민족인 위구르족들은 1949년에 약 76%정도를 차지했으나, 1990년에는 48%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감소했다.

신장에서 이러한 한족인구의 대대적인 증가는 무엇보다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개혁과 개발에 의한 부산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50년대 초반부터 신장지역에서 각종 개혁과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한족의 신장지역으로의 인구이동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족인구의 신장지역으로의

79) (金鑫主編, 2002, 427)

80) (金鑫主編, 2002, 427)

81) (張問敏等編, 1997, 355-356).

이런 이동은 특히 소수민족지역에서도 단행된 대약진 운동의 전개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지의 한족청년들이 신장의 개발과 건설에 투입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기계적인 성장(증가)'은 신장지역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수민족지역과 마찬가지로 신장지역에서도 전개된 각종 개혁, 특히 '인민공사'의 설립과 운영등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방면에서의 차이의 감소는 한족인구의 신장으로의 인구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에 의한 높은 출산율도 이곳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중기이후에는 전쟁준비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소위 '삼선건설'도 이곳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신장에서 한족의 인구증가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중의 하나는 마오쩌둥 집권시기에 한족인구의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며, 그러나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에는 신장에서 한족의 인구증가추세는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의 한족의 이동은 주로 경제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신장에서 한족인구의 대대적인 증가(특히 마오쩌둥 집권시기)는 정부주도하에 진행된 각종 개혁과 개발에 의해 나타난 부산물로서 '결과론적' 혹은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화정책'의 색채가 농후하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에서 한족의 인구증가는 결코 단순히 '동화정책'의 산물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신장에서 한족인구의 증가는 그 의도가 결코 소수민족의 문화말살을 의도했거나, 한족인구의 대량이주에 의해 인구구성비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행된 결과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처럼, 당시의 이런 '기계적인 증가'는 공업분포에서의 조정과 중서부지역의 개발이란 의도에서 나타난 부산물이며, 또한 소수민족 단일지역 혹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단일지역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선건설' 또한 소수민족지역의 문화말살을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소수민족 지도자 인사들이 죄명 아닌 죄명으로 고통을 치러야 했으며, 모스크는 폐쇄되었고, 많은 문화유산도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 시기였다. 단지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덩샤오핑이 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대혁명'시기에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박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현상은 우리가 소수민족을 차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때 박해를 받은 이들은 소수민족뿐 아니라, 최대로 박해를 받은 이들은 바로 한족이다. 대다수 노(老) 혁명가들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이런 피해를 본 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족이 아닌가, 물론 나까지 포함해서."⁸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지역에서 한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소수민족에게는 현실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실 티베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점은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이 취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정책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해 각종 우대와 특혜정책을 베풀고 있으며, 이런 내용들은 헌법이나 '민족구역자치법'과 같은 중요한 문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소수민족달래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족분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이를 억제하려고

82) (鄧小平.1993.246)

하고 있다.

단지 소수민족의 민족정서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민족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방의 학자들에게는 과거 중국이 장기간 시행해왔던 '계급논리'에 의한 민족문제의 해결이라는 방식이 낡은 결과나 영향이 뿌리깊게 인식되어 있는 듯 하다. 특히 중국 민족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마르크스 사상, 특히 무신론과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에 의한 파괴적인 문화말살과 같은 아픈 상처들은 중국의 민족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방인사들의 시각과 인식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점들이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한족의 신장위구르자치구로의 인구이동과 증가는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00년 들어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은 한족의 소수민족지역으로의 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국방과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서부대개발에 있어서 핵심지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서부대개발이 실시된 이후 이미 한족위주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족의 신장을 비롯한 소수민족지역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이동은 소수민족지역에서의 인구비율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과연 '경제적인 충족'으로 소수민족지역의 정서를 달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소수민족지역에서의 한족인구의 증가(인구문제)가 한족과 소수민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중국의 사회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지대한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1. 《当代中國民族工作》編輯部. 1989. 《当代中國民族工作大事記:1949-1988》. 北京:民族出版社.
2. 費孝通. 1996. 《學術自述与反思:費孝通學術文集》. 北京:生活, 讀書, 新知三聯出版社.
3. 國家民會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1991. 《中國民族統計:1949-1990》. 北京:中國統計出版社.
4. 國家民委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1995. 《中國民族統計年鑒:1995》. 北京:民族出版社.
5. 國家民委經濟司, 國家統計局綜合司編. 2000. 《中國民族統計年鑒:2000》. 北京:民族出版社.
6. 國家民委政法司編著. 1990. 《中國民族指南》. 北京:海洋出版社.
7. 胡文康主編. 2000. 《中國西部 新疆手冊》. 北京:新疆人民出版社.
8. 胡繩主編. 1991. 《中國共產党的七十年》. 北京:中共党史出版社.
9. 翦伯贊. 1982. “關於處理中國史上的民族關係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上集). 北京:民族出版社.
10. 金鑫主編. 2002. 《世界問題報告》.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 梁釗韜, 陳啓新, 楊鶴書. 1985. 《中國民族學概論》. 北京:云南人民出版社.
12. 馬戎. 1996. 《西藏的人口与社會》. 北京:同心出版社.
13. 民族理論和民族政策編寫組. 1985. 《民族理論和民族政策》. 北京:民族出版社.
14. 《民族知識手冊》編寫組. 1988. 《民族知識手冊》. 北京:民族出版社.
15. 宁騷. 1995. 《民族与國家:民族關係与民族政策的國際比較》.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6. 翁獨健主編. 1990. 《中國民族關係史綱要》.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院出版社.

17. 文精主編. 2001.《團結進步的偉大旗幟:中國共產黨80年民族工作歷史回顧》.北京:民族出版社.
18. 熊錫元. 1989.《民族理論基礎》.北京:民族出版社.
19. 徐杰舜. 1988.《民族理論政策簡明教程》.北京:广西教育出版社.
20. 許明主編. 1997.《關鍵時刻:當代中國亟待解決的27個問題》.北京:今日中國出版社.
21. 閻學通. 1996.《中國國家利益分析》.北京:天津人民出版社.
22. 楊策. 1991.《新疆縱橫》.北京:中央民族學院出版社.
23.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民族》編輯委員會. 1986.《中國大百科全書:民族》.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4. 周恩來. 1994. “關於我國民族政策的幾個問題”. 國家民族事務委員會政策研究室編.《中國共產黨主要領導人論民族問題》.北京:民族出版社.
25. 張問敏等編. 1997.《中國經濟大論戰》.北京:經濟管理出版社.
26. 劉戈. 1997. “關於民族同化,民族融合問題的幾點思考”.「民族研究」. 1997年 第1期.
27. 班吉蘇·齊文禮. 1996. “民族傳統與民族人口”.「人口與經濟」. 1996年 第1期.
28. 續西發. 1994. “我國少數民族人口政策芻議”.「新疆社會經濟」. 1994年 第6期.
29. 毛文中. 1993. “現階段新疆少數民族人口增長的政策動因”.「中國人口科學」. 1993年 第2期.
30. 謝劍,“從蘇聯崩潰來看的中國民族問題(上)”,「中國時報」(臺灣),1992.1.30.
31. 허종국. 2000. “모택동시기 중국 민족정책의 주요내용과 실천과정 연구(1949-1976)(상)”. 영산논총 제6집. 제70-95쪽.
32. 허종국. 2001. “모택동시기 중국민족정책의 주요내용과 실천과정 연구(1949-1976)(하)”. 영산논총: 제7집. 제47-93쪽.

33. 조정남. 1988. 《중국의 민족문제》. 교육사.
34. Felix K. Chang. 1997. "Fresh Perspectives on East Asia's Future: China's Central Asian Power and Problems". Orbis. Summer 1997. pp.401-425.
35. Walker Connor. 1994. "A Nation is a Nation, is a State, is an Ethnic Group, is a ...".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6. Josep Brewda. 1997. "'Uighur card' used to break up China". EIR Strategic Studies. March 28. pp.59-61.
37. William D. Shingleton. "In Xinjiang, China's Consolidation Isn't Solid", Christian Science Monitor, Aug.27, 1997. pp.1-2.
38. Jeffrey Steinberg, "Britain escalates attacks on China and United States", in EIR Strategic Studies, March 28, 1997, pp.54-59.

[www.cpirc.org.cn /5cendata41.htm](http://www.cpirc.org.cn/5cendata41.htm)

www://uygurpeople.com/frame.htm

www.cpirc.org.cn/5cendata12.htm

<中文提要>

對於中國新疆維吾爾自治區內漢族人口的增加 和同化政策的相關性研究

本論文主要分析對中國新疆維吾爾自治區內漢族人口的增加原因和漢族人口的這種增加是否是由中國政府主導的強制性的同化政策的產物。

根據本論文的研究結果，1949年維吾爾族人口在新疆所占的比率為76%，到1990年減少到48%左右，而1949年漢族在新疆所占的人口比率為6.7-6.8%，但到了1990年增加到38%左右。漢族人口在新疆大幅度增加，主要是在毛澤東時期增加的，增加的有以下几点原因：第一，‘自然的增加’和由這些人而來的較高的出生率。在少數民族地區進行的體制改革，使漢族人口遷移到新疆的客觀可能性提高，也由這些人而來的較高的自然出生率也是重要一個因素。第二，‘機械性的成長’。大躍進運動展開後，由政府主導的內地青年動員到少數民族地區的開發和建設，也是在新疆漢族人口增加的另一個重要原因。第三，1960年代中期以後，在中西部地區所展開的，所謂‘三線建設’，也是一個主要方面。

這些‘機械性的成長’，是因為由中央政府主導的，半強制性的政策，所以，按這種角度來看，在新疆毛澤東時期漢族人口的大量的增加是一種‘同化政策’的產物，但儘管如此，其意圖並不是針對少數民族的文化抹殺而進行的。所以，今天在新疆漢族人口的大量的增加不能簡單的說是同化政策的產物。今後，因為‘西部大開發’，而在新疆的漢族人口還會增加，因此，新疆的漢族人口比率還會變化的可能性很大。

大韓中國學會 會員 住所錄

< ㄱ >

- 강경구 동의대 교수 / (051)890-1257 / kkkang59@yahoo.co.kr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 동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전공
부산시 진구 가야1동 55 가야 화신타운 102-505 / (051)898-4815
- 강명상 경남대 교수 / (055)249-2142 / mensai@kyungnam.ac.kr
kamaensa@hananet.net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449
경남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2-21 한양@ 23-805 / (02)545-6008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19 리버뷰 오피스텔 1406호
중국문제연구소 / (02)545-3982
- 강병관 부산대 석사수료 / jiang@thrunet.com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3-46 / (051)504-4625, (017)564-4625
- 강병철 경성대 강사
포항시 북구 항구동13 우방비치타운 109-1203
(051)231-2151, 017-811-2001
- 강석렬 경남대 석사과정
경남 창원시 대원동 경남@ 102동 405호
(055)273-3744, 017-283-3745
- 강식진 부산대 교수 / (051)510-2014 / sjkang@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103동 2101호
(051)929-9898, 019-526-6666
- 강신웅 경상대 교수 / (055)751-5894 / kangsin@nongae.gsnu.ac.kr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러시아중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경남 진주시 평거동 한보@ 102동 1405호
(055)747-3557, 018-588-3557
- 강영매 이화여대 강사 / (02)3277-3186 / lingmei56@hotmail.com
서울시 도봉구 창1동 주공 아파트 317-401
(02)907-9962, 011-9755-9962

- 강유진 마산대 강사
017-204-7539
- 강유진 부산대 석사과정 / yantai560@hanmail.net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65-30 24/3
(055)248-1276, 016-596-1276
- 강태권 국민대 교수 / (02)910-4396 / kang-tai@hanmail.net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후곡마을 태영A 1704-703
(031)916-2278, 011-737-4131
- 강현경 대전대 교수 / (042)280-2231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전시 서구 도마 1동 92-42 / (042)533-6514
- 강현정 울산대 석사과정 / wazg@netian.com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엘지 아파트 108호 303호
(051)989-3859, 011-9535-3859
- 강현희 경성대 석사과정 / 016-9607-3322
부산시 진구 가야1동 유림@ 101동 208호
- 강혜근 충남대 교수 / (042)821-5369 / hkkang@cuvic.cnu.ac.kr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전시 서구 삼천동 가람 APT 7동 708호
(042)486-1405, 011-9801-5360
- 계근호 신라대 교환교수 / guigh66@yahoo.co.kr 016-573-5456
- 고애주 경남대 강사 / chil-ree@hanmail.net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702동 2호 현대산업개발 202-2003
(055)294-2556, 011-860-7279
- 고영근 부산외대 교수 / (051)640-3099 / kohyk@taejo.pufs.ac.kr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부산시 남구 광안4동 오양 평구@ 1-206
(051)751-2480, 019-502-2480
- 고인덕 연세대 강사 / (02)361-2285 / idko7@hanmail.net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28-5 / (02)864-6845
- 고팔미 동의대 교수 / (051)890-1253 / pmko@dongeui.ac.kr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 동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남구 LG메트로시티 103동 2101호
(051)626-7383, 011-583-7383
- 고찬경 동아대 석사 과정 / 017-544-6837 / haojing@hanmail.net

- 孔慶信 영남대 교수 / (053)810-2165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459-17 / (053)621-0422
- 고혜림 부산대 석사과정 / 016-569-8035 / huilin@lycos.co.kr
 부산시 진구 개금3동 반도보라@103동 1806호
 (051)892-8035, (055)353-4345
- 공봉진 부산외대 강사 / taekugzang@hanmail.net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9-73 / (051)523-0762, 011-9527-5945
- 곽리부 제주대 교수 / (064)754-2821
 제주도 제주시 아라 1동 산1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제주도 제주시 아라 1동 2826 / (064)702-8970
- 곽수경 동아대 국제관광학 전공 초빙교수
 부산시 중구 동광동5가 169-2 / 016-566-3487
- 구희경 대만 문화대 박사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8-3 제일@ D동 305호 / (051)555-3917
- 권수전 한국외대 박사과정 수료 sjkwon01@hanmail.net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3가 현대@ 203-201
 (02)6334-2634, 011-256-9354
- 권웅상 대구대 교수 / (053)850-6054
 경북 경산시 진량면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동
 경북 경산시 옥산동 884-2 청구@ 106-507 / (053)813-1049
- 권호중 경상대 교수 / (055)751-5896 / ikwon@nongae.gsnu.ac.kr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러시아중어중문학군 중어중문학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 72번지 현대산업@104동1401호
 (043)647-4827
- 길발향 창원대 교환교수 / (055)279-8525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 기숙사 사림관 A-1109호
- 고운선 고려대 박사과정 / pink1208@hanmail.net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76 주공@ 112동 806호
 (051)731-3989, 016-860-1208
- 곽동순 경성대 석사과정 / (051)631-4727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65-1 신동아@ 102-507 / (051)514-1755
- 구선지 울산대 석사과정 / koosunjee@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벽산 하이츠타운 102동 414호
 (051)206-3740, 018-556-1732
- 김경아 부산대 석사졸업 / tawhry@hanmail.net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4가 184-37번지 10/4
 (051)416-8769, 016-577-8769

- 김경희 부산대 석사졸업 동아대 강사 / kkhi@hitel.net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481-1 20/5
(051)581-3574, 016-559-3574
- 김광영 광주대 교수 / (062)670-2447
광주시 서구 진월동 592-1 광주대학교 중문학과
광주시 서구 봉선동 금호@ 204-402 / (062)674-2602
- 김광조 인재대 교수 / (055)320-3177 / jungzhao@ijnj.ac.kr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18-3 인재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경남 김해시 어방동 499번지 대우 유토피아@ 102동 1406호
(055)321-1131, 019-357-3959
- 김교빈 호서대 교수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호서대학교 철학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1331 두산@ 104-1403 / (02)231-9958
- 김난영 부산대강사 / nykim518@hanmir.com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삼해대림타운 106-103
(051)526-2739, 017-564-2739
- 김남희 부산외대 교수 / (051)640-3102 / nhkim@taejo.pufs.ac.kr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부산시 남구 남천1동 44-29 / (051)626-7424.011-9325-7424
- 김덕환 경상대 강사
진주시 창봉서동 환인@ 150동1505호
(055)742-8987, 016-854-8986
- 김도인 부산대 석사과정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협성 피닉스타운 106동 701호
(051)809-0412, 016-846-0412
- 김말숙 경남 마산시 회성동 457-31 / (055)256-6343
- 김명구 대만사범대 박사졸업 / mingqiu@hanmail.net / 017-550-129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656-6 조양@ 9동 405 / (051)405-1291
- 김영석 인재대 강사 / shakim@hanmail.net
016-562-6150
- 김명자 부산대 박사졸업 / chiaxing@korea.com
부산시 사상구 영궁동 683-3 한신@2차 208-1104
(051)328-1271, 016-560-1278
- 김명학 충남대 교수 / (042)821-5368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전시 동구 윤운동 윤운고층 A 206-1009 / (042)282-3888

- 김미영 경성대 석사과정 / aying0417@hanmail.net
부산시 서구 초장동 129번지 15/3
(051)257-0710, 016-840-3811
- 김미정 부산대 석사수료 / meizheng@hanmail.net / 019-9170-3663
경남 밀양시 교동 874-9번지 4/3 / (055)354-4863
- 김미진 부산대 석사과정 / meizhen76@hanmail.net / 018-502-2313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80-4 21/2 (051)554-2289
- 김민정 경성대 석사과정 / pcach14@star.kr.ac.kr / 011-845-9957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25-7 12/1
- 김선영 부산대 석사과정 / (051)747-2392 / soulsky@unitel.co.kr
부산 해운대구 우1동 경남마리나아파트 106-306호 / 011-597-2392
- 김선자 연세대 강사 / (02)361-2285 / shanzi@chollian.net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2-16 / (02)334-0233, 011-9784-5521
- 김성문 진주보건대 교수 / (055)759-2819 / smoon@chc.ac.kr
진주시 상봉서동 1142번지 진주보건대학 관광통역학과 중국어반
진주시 칠암동 525-8번지 / (055)740-1873, 018-510-2819
- 김성민 서경대 교수 / (02)940-7164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16-1 서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08-21 / (031)242-8750
- 김성민 경성대 석사졸업 / vin112@hanmail.net
부산시 남구 대연3동 76-5 현대오피스텔 803호
(051)625-2563, 016-550-3280
- 김성수 경성대 석사과정
부산시 남구 대연동 1203-191번지 3/3
(051)625-3759, 011-9515-3759
- 김세환 부산대 교수 / (051)510-2015 / kimshwan@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금정 LG@ 101동 410호
(051)513-9439, 011-9505-2015
- 김소중 배재대 교수 / (042)520-5356
대전시 서구 도마동 439-6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대전시 서구 도마2동 복음로알@ A-309 / (042)526-1056
- 김소현 동아대 교수 / 011-9509-7617 / menglong2@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럭키무지개타운 1동 903호 / (051)204-6545
- 김소정 북경 사회과학원 박사과정 / suzhenj@hanmail.net
부산시 동구 범일2동 한양@ 1동 1210호
(051)632-7147, 011-9544-3300

- 김숙자 경남대 석사과정
부산시 사하구 다대 1동 948 1동 103호
(051)264-1397, 011-855-1395
- 김승심 안동대 교수 / (0571)850-5364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경북 안동시 용상동 주공2차@ 5-102 / (0571)821-8925
- 김애영 안양대 교수 / (031)467-0962 / aykim@aycc.anyang.ac.kr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안양대학교 중국어학과
인천시 남동구 만수 6동 1037 현대@ 105-506
(032)467-3164, 019-359-0962
- 김언하 동서대 교수 (051)320-1640 / haihuo@hanafos.com
부산시 남구 대연5동 태백빌라 801호
(051)623-5381, 019-624-5381
- 김영기 동서대 교수 / (051)320-1664 / moondate@dongseo.ac.kr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69-1번지 동서대 외국어학부 중어중문전공
부산시 진구 개금3동 신개금LG@ 213-2402
(051)898-0057, 019-590-0057
- 김영경 yggkim@dongeui.ac.kr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544-10번지 3/3
(051)752-4314, 016-578-4314
- 김영림 부산대 석사과정 / may24@hanmail.net
(051)636-9087, 016-569-4656
- 김영순 울산대 석사과정 / zhenbang2000@yahoo.co.kr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부곡 대우@ 104동 2306호
(051)582-1416, 011-9340-1972
- 김영옥 부산대 박사과정 / kyingyu@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698-10 2/3
(051)292-1069, 019-525-1069
- 김영호 영산대교수 / kyho906@mail.yzu.ac.kr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46-1 새진흥@ 302-601
(055)383-0750, (055)380-9233
- 김용운 동아대 교수 / yukimx@hanmail.net
(051)200-7129, 011-9545-7129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동아대 인문대학 중국일본학부 중국어전공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강변신익2차 201-502 / (051)292-7472
- 김용표 한신대 교수 / (0339)370-6655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중문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주공@ 201-101 / (031)212-2560

- 김우석 경산대 교수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 경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뉴서울@ 201-1503 / (032)525-0344
- 김우연 북경대 박사과정/ veryfine@hanmail.net
- 김원중 건양대 교수 / (041)30-5158 / wonjoong@konyang.ac.kr
충남 논산시 내동 산30 건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신동아@ 304-808 / (042)482-5020
- 김유경 부산대 석사과정 / youjing@hanmir.com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137 경남아파트 2동 405호
(051)751-9116, 017-571-6191
- 김윤경 신라대 교수 / (051)309-5044 / kimyk@silla.ac.kr
부산시 사상구 꾀법동 산1-1 신라대학교 중국학과
부산시 사상구 덕포2동 오양힐 101동 1405호 / (051)304-7126
- 김윤정 동의대학교 석사과정
부산시 진구 개금2동 778번지 20통 4반
(051)894-6465, 017-840-7723
- 김은아 순천대 교수 / (0661)750-3442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순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남 순천시 매곡동 매곡 2단지 @ 109동 307호 / (02)997-1384
- 김은희 부산대석사과정 동주대관광학과 교수
(02)666-1869 / 019-209-186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9번지 개화@ 102동 205호
- 김의진 가톨릭대 교수 / (032)340-321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431-1 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송파구 문정 2동 올림픽훼밀리@ 108-1001 / (02)401-6652
- 김인선 울산대 석사과정 / seon110@chollian.net
울산시 남구 신정5동 161-3 동서원룸 705호
(052)227-3272, 011-561-3425
- 김인호 동의대 교수 / (051)890-1255 / ihkim@dongeui.ac.kr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 동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북구 화명동 2290번지 코오롱 하늘채아파트 109동 803호
(051)364-0690
- 김장환 연세대 교수 / (02)2123-2294 / jhk2294@yonsei.ac.kr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큰마을 현대@ 122-1602
(031)915-1478

- 김재승 전남대 교수 / (062)530-3202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광주시 북구 두암1동 904-30 / (062)263-1855
- 김정민 부산대 석사과정 / (055)294-5970 / miniya-77@hanmail.net
 마산시 석전2동 주영하이츠@1904호 / 011-9516-5970
- 김정숙 동의대 석사과정 / siguland@hanmail.net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419-27번지 4/4
 (051)754-9426, 016-847-9426
- 김정심 부산대 석사과정 / wuaixin@yahoo.com
 016-9360-4695
- 김정옥 경성대 석사과정 / jayou902@chollian.net
 부산시 남구 감만2동 자유4차@ 902호
 (051)644-3274, 016-590-7484
- 김정옥 경남대 교수 / (055)249-2141 / kimjr@kyungnam.ac.kr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449 경남대 국제언어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동아 2차@ 201-502
 (055)244-2214, 017-560-2214
- 김정필 동의대 부경대 강사 / jpkim21@hananet.net
 경남 김해시 외동 702-8번지
 (055)333-2430, 011-9531-2430
- 김정희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96 / 016-559-3574
- 김종윤 전주대 교수 / (0652)220-232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사학과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하나@ 107-707 / (042)862-5431
- 김중현 동아대 교수 / (051)200-7131 / jhkim@hotmail.net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동아대 인문대학 중국일본학부 중국어전공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552 대우@ 102-1404 / (051)266-6329
- 김준연 인제대 교수 / (055)320-3553 / bolin97@lycos.co.kr
- 김진영 부산외대 교수 / (051)640-3101 / jykim529@hanmail.net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삼호가든 5-606
 (051)746-7819, 011-9538-3020
- 김창경 부경대 교수 / (051)620-6698 / cgkim@pknu.ac.kr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부산시 금정구 서4동 302 상가@ 304호
 (051)523-0334, 011-579-1334

- 김태관 동의대 교수 / (051)890-1254/3000 / tkkim@dongeui.ac.kr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 동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벽산 1차 @ 106동 1501호 / (051)703-5439
-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 (051)410-4691 / ktm21@kmaritime.ac.kr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051)403-3043, 011-848-3015
- 김태형 경남대 석사 과정 / kty2737@hanmail.net
- 김하림 조선대 교수 / (062)230-6899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중국어과
 광주시 북구 두암 1동 대주빌라 16-203 / (062)268-8324
- 김하정 경성대 석사과정 / ting@star.ks.ac.kr / 011-843-0786
 부산시 남구 대연3동 대승타워 2401호
- 김학수 경성대 석사과정 / hskim2k@yahoo.co.kr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20-1 다대현대@ 107동 1505호
 (051)261-6940, 016-547-6940
- 김해명 연세대 교수 / (02)2123-2290 / kimhm@yonsei.ac.kr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3동 93-8 성지연희빌라 B-301
 (02)325-9231
- 김현정 부산대 강사 / 011-9519-8973 / jane8973@yahoo.co.kr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3동 504-114 14/2 / (051)802-8973
- 김홍수 영산대 교수 / khsoo@mail.ysu.ac.kr
 019-588-1117
- 김홍지 신라대 강사 / 016-9212-8426 / hongjikim@hanmir.com
- 김효영 북경대 박사과정 / (051)752-1207
- 김현주 경성대 석사과정 / munulia@yahoo.co.kr
 부산시 남구 문현1동 125-15번지 30/4
 (051)632-2605, 016-564-7049
- 김현철 연세대 교수 / cheolsan@chollian.net / cheolsan@sinology.org
 서울시 신촌동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9 올림픽선수촌@ 328-301 / (02)3402-3349
- 김혜경 대전산업대 교수 / (042)630-0565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05-3 대전산업대학교 중국어과
 대전시 중구 대충2동 326-58 관사 9호 / (042)255-9075
- 김형진 경남대 석사과정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동 625-24 / (055)246-7167

- 김화영 동의대 석사과정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1번지 삼창 맨션 1동 157호
(051)515-9357, 017-590-1679
- 김회준 부산대 교수 / (051)510-2088 / dodami@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SK@ 101동 504호
(051)516-5870, 011-9506-2088
- 김희경 마산시 회원구 양미2동 151-30번지 광림빌라 402호
(055)294-2556, 011-9523-5553

<ㄴ>

- 나현미 부산대 박사과정 / mahaja@lycos.co.kr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남선@ 1306호
(055)583-9688, 017-569-9631
- 남덕현 부산대 교수 / (051)510-2092 / dhnam@hyowon.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남구 용호동 LG 에트로시티 107동 1803호
(051)612-0526, 016-543-2092
- 남상미 영남대 석사과정
경북 상주군 합천읍 신흥리 940 / (054)-541-3680
- 노경아 부산대 석사졸업 / neehao@empal.com
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상계리 현대@ 102-506호
(055)231-5319, 016-645-5319
- 노계설 동서대 강사 / jaguang@thrunet.com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7-7번지 11/6
(051)558-3815, 019-525-3815
- 노지연 부산대 석사수료
경남 창원시 용호동 23-16 / (055)284-2346
- 노현정 (055)222-1102, 011-9547-2889

<ㄹ>

- 류경남 경남대 석사졸업 / 016-846-1179
- 류명희 부산대 교수 / 051-510-2016 / annryou@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로얄맨션 2차 1동 412호 / (051)503-2652

- 류영표 경성대 교수 / (051)620-4260 / l2448@star.kyungsung.ac.kr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02번지 동신@ 102-1703 / (051)916-2448
- 류응구 경상대 교수 / (055)751-3913 / eungkoo@nongae.gsnu.ac.kr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러시아중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진주시 하대동 현대@ 104동 2502호 / (055)751-5893
- 류종욱 서울대 교수 / (02)880-607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1095 한신@ 12동 2001호 / (02)898-0985
- 류지현 경성대 석사과정 졸업
 부산시 남구 광안1동 광원@103-101
 (051)757-5727, 016-567-5727

< 〇 >

- 마전리 부산대 석사과정 / (052)227-1245, 011-867-2180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신정현대홈타운301-908
- 문정빈 양산대학 강사 / (055)386-1006(代) / abin1217@orgio.net
 경남 양산시 명곡동 922-2번지 양산대학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148 삼익비치 215-1109
 (051)623-9700, 016-546-4763
- 苗延昌 대구대 교수 / (053)850-6053
 경북 경산시 진량면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보성타운@ 202-1407 / (053)631-1279
- 문병도 광주교대 교수 / (062)520-4102 / bdm@mudeung.kwangju-e.ac.kr
 광주 북구 풍향동 1-1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광주시 북구 문흥1동 983-1 301호 / (062)267-3102
- 문예진 부산시 남구 용호2동 495-1 6/4 / (051)622-9236, 016-570-4903
- 문정진 인재대 강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대우동삼@ 104-1102 / 016-543-1207
- 문지성 대전대 교수 / (042)280-2232 / jsmoon@dragon.taejon.ac.kr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전시 서구 탄방동 689 한양 산호@ 105-1001 / (042)385-0182
- 민경배 경남 진해시 안골동 568-2 / 016-852-5914
- 민관동 경희대 교수 / (031)201-2262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중어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2 무지개마을 12단지 1209-1002
 (032)717-6384

- 민병삼 강남대 교수 / (031)280-382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산6-2 강남대학교 중국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서동 서안@ 110-10 / (032)718-0738
- 민석기 울산대 석사과정 / min-mountain@hanmail.net
울산 중구 북산1동 제일아파트 A동 501호
(052)244-9161, 011-598-9161
- 민 송 부산대 석사졸업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535-20 금강빌라 201호
(051)505-8816, 017-550-8816
- 민혜정 부산대 강사 / shafei20@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현대@ ·112-2303
(051)261-0315, 016-847-0315
- < ㅅ >
- 박건영 청주대 교수 / (043)229-8334 / gypark@chongju.ac.kr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현대 2차@ 11-1103
(043)212-5704, 019-288-3088
- 박경희 숙명여대 교수 / (02)710-9374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임광@ 12동 306호 / (02)525-3360
- 박경송 영산대 교수 / (051)540-7175 / qingsong@ysu.ac.kr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49번지 영산대학교 국제학부 중어학전공
016-260-1018
- 박경실 울산대 교수 / (052)259-2549 / gspark@uou.ulsan.ac.kr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번지 장미 3차@ 2동 106호 / (02)418-9693
- 박난미 부산대 석사과정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10 화목@ 102동 901호 / (051)702-0189
- 박노중 부산대 강사
부산시 사하구 과정4동 698-10번지 29통 5반
(051)292-1069, 019-595-0001
- 박노현 상지전문대 교수 / (0371)730-087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전문대학교 관광중국어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09-105 진양@ 가-302 / (032)695-4852

- 박덕준 가톨릭대 교수 / (032)340-321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431-1 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032)695-4852
- 박림은 부산대 석사과정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54-67번지 부원@ 11층 9호
(051)517-3488, 016-580-5570
- 박명주 울산대 석사과정 / pilro@hanmail.net
울산시 남구 선암동 680-1 우주그린가든 107호
(052)272-4850, 016-507-4650
- 박미견 부산대 석사수료 / mejian@hanmail.net
경남 남해군 청선면 연곡 67 / (051)244-0285, 019-595-9712
- 박민경 북경사범대학 박사과정 / skyandyou@hanmail.net
- 박민웅 서경대 교수 / (02)940-7242 / minwoong@wisenet.co.kr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16-1 서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신@ 201-1001
(031)706-1279, 011-832-7651
- 박민희 부산대 석사과정 / 016-581-7967 / inerise@hanmail.net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401-8 효원연립4층
- 박병선 군산대 교수 / (063)469-4362 / parkbs@kunsan.ac.kr
전북 군산시 미룡동1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동아@ 102-504
(063)242-3456, 011-681-4362
- 박부열 진주보건대 교수 / (055)740-1871 / pbyeoul@chc.ac.kr
진주시 상봉서동 1142번지 진주보건대학 관광통역학과 중국어반
진주시 주약동 407-1 금호석류마을 108동 104호
(055)755-9097, 018-646-9097
- 박상수 울산대 교수 / (052)259-2551 / sspark@uou.ulsan.ac.kr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울산시 중구 태화동 200-7 동덕현대@ A동 1003호 / (052)245-2028
- 박성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02)740-4573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8-9 신동아@ 1601호 / (02)878-8245
- 박세욱 인제대 강사 / psw040@hananet.net
011-549-9843
- 박소연 울산대 석사과정 / champa107@hanmail.net
부산 동구 수정 3동 751-6번지 12/4
(051)466-5885, 011-578-5056

- 박소영 부산외대 강사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 385 선경1차@ 103-1307
(052)324-7996, 019-346-0921
- 박수경 경성대 석사과정 졸업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95번지 / (052)261-7036
- 박숙경 동서대 교수 / skpark@dongseo.ac.kr
(051)320-1479, 019-586-5678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69-1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중어중문전공
부산시 사상구 영궁동 코오롱@ 112동 806호 / (051)311-1128
- 박수정 부산대 석사과정 / chastity/k@hanmail.net
016-847-3668
- 박신영 부산대 석사과정 / (055)-353-4345 / oskal25@hanmail.net
밀양시 삼문동 15-1번지 청구 아파트 202동 302호
- 박안수 경남대 강사 / ainipas@hanmail.net
창원시 대방동 벽산2차@ 207-1503
(055)287-6793, 016-585-6793
- 박애화 경남대 강사 / piaoah@hanmail.net
- 박인성 순천향대 교수 / (041)530-1136 / hipys5@asan.ac.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53-1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현대@ 101동 1706호 / (02)545-5679
- 박인호 경남정보대 강사 / 016-9514-1404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167 경남정보대학교 관광외국학부 중국어과
부산시 온천3동 1462-27 28/4
- 박재연 선문대 교수 / (041)530-2469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선문대학교 중국어과
충남 천안시 다가동 376-11 화인아트빌라 B-301 / (041)551-9435
- 박정순 경성대 석사과정
부산시 해운대구1337번지 현대아파트 105-303 / (051)746-8378,
011-889-0828
- 박정희 부산대 강사 barkxin@hanmail.net
016-203-0518
- 박용래 부산경상대학 교수 / (051)850-1235 / piaorl@baesan.psk.ac.kr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경상대학 중국어과
부산시 진구 범천1동 대원@ 2동 1405호
(051)646-3411, 016-244-3411
- 박은정 부산대 석사과정 / 95265699@hanmail.net
019-9745-0052

- 박정도 한국교원대 교수 / (031)60-3528
서울시 송파구 문정2동 헤밀리@ 303-905 / (02)407-4685
- 박종한 가톨릭대 교수 / (032)340-321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431-1 가톨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 927동 1006호
(02)643-9277
- 박주리 부산대 석사과정 / garam78@dreamwiz.com
016-392-3972
- 박진철 경성대 경남대 강사 / dee15e@yahoo.co.kr
019-264-7314
- 박추현 경상대 교수 / chpark@nongae.gsnu.ac.kr
(055)751-5897, 016-594-5897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러시아중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경남 사천시정동면 송실파안빌@203동 1004호
- 박형률 전남 여수시 공회동 1293-1 4통 4반
(062)662-2675, 017-704-0607
- 방수경 울산대 석사과정 / shuijing12@yahoo.co.kr
울산시 남구 심산동 172-1 세양청구마을 112동 1701
(052)268-1508, 018-557-1508
- 방영인 경남정보대 교수 / bangyi@nengjung.kit.ac.kr
(051)320-1454 / 011-550-1454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167 경남정보대학교 관광외국학부 중국어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구덕우성@101동605호
(051)313-8449, 011-550-1454
- 배재석 경희대 교수 / (031)201-2265 / jsbae@khu.ac.kr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중국어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61-4 3층
(031)905-4130, 017-215-4130
- 배진영 부산대 석사수료 / chinapei@dreamwiz.com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럭키@ 12-101호/
(051)552-5217, 017-849-7970
- 배형조 동의대 석사과정
포항 북 기북면 울산1리 890번지 / 017-2525-3614
- 백윤목 경성대 교수 / (051)620-4282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부산시 남구 용호3동 경동@ 104-13 / (051)627-5615

변인석 아주대 교수 / (031)219-284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현대@ 17동 301호 / (031)213-0020
변우룡 울산대 석사과정 / chinagun@hanmail.net
부산 진구 연지동 청구아파트 101동 1203호/
(051)817-0028, 017-540-0027

<스>

상설미 부산외대 강사 / lsm828@yahoo.co.kr
(051)627-7143, 017-585-7143
서남주 부산대 박사과정
창원시 대방동 동성@ 102동 2007호
(055)284-9020, 017-579-3330
서동화 부산대 석사과정
부산시 남구 용당동 564-3 한신@ 102동 303호
(051)623-6173, 016-564-7142
서봉성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 (064)54-0391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 제주산업정보대 관광중국어과
제주시 노형동 1064-6 세기 1차@ 509호 / (064)747-9505
서영진 울산대 석사과정 / heiren2@hanmail.net
경북 경산시 압량면 궁구리 11-8 / (053)817-3239, 016-527-3239
서의영 경희대 교수 / (031)201-222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 중문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성보@ C동 102호 / (02)553-9014
서재선 부산외대 강사 / seohjaesun@hanmail.net
(052)324-7996, 011-9505-7996
부산시 사상구 확장동 금강@ 102-1307
서정화 울산대 강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37 / (052)287-8526
서정희 부산대 교수 / (051)510-2017 / chsuh@pusan.ac.kr
부산시 금정구 산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우성@ 7동 701호 / (051)512-0722
서채희 인제대 강사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707번지 럭키@ 15-1403 / 011-853-4075

- 성옥례 고려대 박사수료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595번지 럭키@ 10-1105
(051)324-7601, 016-439-4284
- 성지정 동의대 석사과정
부산시 연제구 거제 4동 원송빌라 101호
(051)502-9946, 018-856-2704
- 손말순 부산대 석사수료 / chinasul@hanmail.net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2가 36-10번지 12/3
(051)415-0533, 011-9327-0533
- 손희주 부산대 강사 / kds0728@chollian.net
부산시 동구 수정1동 1069 14/4 / (051)464-6729, 011-813-6729
- 송상미 경상대 강사 / songsm21@hanmail.net
(055)244-8812, 016-9640-8881
- 송민영 건양대 교수 / min@konyang.ac.kr
(041)730-5368
충남 논산시 내동 산 30 건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송영실 경남정보대 강사 / 011-9344-0162
경남 김해시 봉황로 백조@301호
- 송영정 계명대 교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중문과 / (053)580-5051
대구시 남구 봉덕2동 효성타운 102-1108 / (053)473-0346
- 송영주 강원대 교수 / (0361)250-8183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33-21 합동빌라 4-206 / (02)695-7406
- 송주란 부산대 석사과정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28-6
(055)256-5280, 016-410-0098
- 송정미 부산대 석사과정 / wjdal1107@hanmail.net
부산시 남구 용호4동 삼성@ 1-114
(051)625-1653, 016-577-1653
- 손지영 부산대 석사과정 / bullim97@hotmail.com
016-598-8216
- 송희경 울산대 석사과정 / jijing@hanmail.net
대구 중구 남산3동 송림맨션 102동 105호
(053)255-1484, 011-9569-5272
- 신부영 울산대 석사과정 / shin258@korea.com
울산시 남구 신정1동 700-1 동희@ 505호
(052)258-9202, 018-584-9202

- 신영대 부산대 박사과정
제주 제주시 용당1동 2817-2 / 017-691-2796
- 신재희 부산대 석사과정 / graceag@hanmail.net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롯데아파트 12동 1205호
(051)917-5997, 011-9308-5997
- 신홍철 동아대 교수 / (051)200-7130 / shc53@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중국어전공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80-1 코오롱@ 108-1803
(051)311-2168, 016-555-7130
- 심규호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 (064)754-0390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2235 제주산업정보대 관광중국어통역과
제주도 제주시 아라 1동 영광@ 1동 208호 / (064)702-8044
- 심보영 경남대 강사 부산대 박사과정 / sby6290@hanmail.net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뢰리 678-21
(055)342-3003, 018-589-5112
- 심소희 이화여대 교수 / (02)3277-3567 / xiaoxi@netsgo.com
<http://users.sinology.org/xiaoxi>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60-18 / (02)548-3838
- 심우영 상명대 교수 / (0417)550-5358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상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충남 천안시 신방동 870번지 신동아@ 103-1408
(0417)572-8975
- 심형철 신라대 교수 / (051)309-5614 / hcshym@silla.ac.kr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산1-1 신라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775 가락타운 201동 404호
(051)206-6750, 011-575-2076
- 심 홍 부산대 박사과정 / shenhong23@yahoo.com / 011-858-7237
- <○>
- 안기섭 전남대 교수 / (062)530-3205 / ksahn@chonnam.chonnam.ac.kr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 중문과
광주시 서구 백운동 대주@ 102-601 / (062)672-3317
- 안병국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02)3668-4575 / bkahn@av9500.knou.ac.kr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중문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원 현대@ 103-1704 / (02)395-1645

- 안승웅 부산대 동의대 강사 / xiong21@kornet.net
부산시 북구 화영동 886번지 보경그린맨션 1107호
(051)362-1901, 016-636-4518
- 안연주 부산대 석사졸업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삼정그린코아@ 105-701
(051)501-2088, 016-755-2088
- 안옥향 부산대 석사과정 / 016-812-9091 / ooh0811@hanmail.net
- 안일환 경성대 석사과정 / tolba@orgio.net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222-8번지 5/3
(051)516-8694, 011-586-8694
- 안정현 부산대 석사과정 / bfajh@yahoo.co.kr
016-542-8984
- 안재철 제주대 교수 / (064)754-2822 / ahn2822@cheju.cheju.ac.kr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산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문학과
광주시 남구 봉선1동 라인하이츠@ 108-907 / (062)652-9749
- 안재철 서울교대 교수 / (0431)61-210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0 서울교육대학교 중국어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 503동 1104호 / (02)572-3958
- 양미숙 부산대 석사졸업 교육부 평가관리과 연구사 / (02)720-4825
bayue@moe.go.kr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 신주공@ 208-202호
(051)897-3592, 017-558-3592
- 양세영 (051) 891-0216
- 양희석 전남대 교수 / (062)530-3204 / hoisyang@chonnam.chonnam.ac.kr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 중문과
광주시 동구 동명동 68-6 / (062)227-5689
- 영선녀 부산대 석사수료 / xingyun@hanmail.net
부산시 북구 덕천1동 365-6 정남맨션 다동 301호
(051)338-1569, 016-852-5188
- 영익상 숙명여대 교수 / (02)710-9807 / ieom@sookmyung.ac.kr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숙명여자대학교 중문학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5 진흥@ 6동 1306호
(02)549-4124, 011-9976-4114
- 오경제 경성대 교수 / (051)620-4261 / w777@star.kyungsung.ac.kr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205동 909호 / (051)628-7747
- 오소연 부산대 석사수료 / 018-229-9989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233-9 11/1 / (051)514-9255

- 오수경 한양대 교수 / (02)290-077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양천구 목 1동 925 목동@ 701-203 / (02)645-8094
- 오수형 동의대 석사과정
 부산시 영도구 동상1동 323-217 / (051)405-9708, 016-875-1286
- 오순방 송실대 교수 / (02)820-0392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송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 송파구 신원동 11 장미 3차@ 2-106 / (02)418-9693
- 오정순 부산대 석사과정 / jeez_sooni@hanmail.net
 017-548-4065
- 오태석 동국대 교수 / (02)260-3797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중문과
 경기도 고양시 주엽 2동 문춘대원@ 1802-301 / (0344)916-5072
- 오창화 경성대 교수 / (051)620-4263 / o1129@star.kyungsung.ac.kr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삼환@ 104-1708
 (051)915-5290, 017-850-5290
- 오현정 중국 서안대 석사졸업
 부산시 남구 민락동 181-37 6/5 / (051)757-1871
- 왕옥지 동명대 교수 / (051)620-3671 / yuzhi@yahoo.com
 부산시 남구 용당동 550 동명대학교 중국어정보처리과
 부산시 남구 용호4동 481-8 동방파크맨션 3동 508호
 (051)621-0317, 016-596-0361
- 왕충의 부산외대 교수 / (051)640-3100 / wjy@pufs.ac.kr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마마빌라 1303호
 (051)744-0130, 019-430-8885
- 우준호 충남대 교수 / (042)821-5365
 대전시 유성구 공동 220 충남대학교 중문과
 대전시 서구 월평 2동 무지개@ 105-906 / (042)489-2872
- 원소윤 동아대 석사과정 / atomyun@hanmail.net / 016-233-4218
- 원호영 상해 화동사범대 박사과정/ whycomeon@hanmail.net
 부산시 남구 대연6동 1802-1 23/4 / (051)631-2180
- 유경조 해전대 교수 / (041)630-5289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16 해전대학교 중국어과
 대전시 서구 삼천동 1187번지 3층 / (042)486-6483

- 유권중 중앙대 교수 / (02)820-5135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철학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한라@ 14-301 / (02)430-1547
- 劉麗雅 명지대 교수 / (02)300-1516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중문과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 111번지 그랜드빌라 208동 102호
(031)715-4845
- 유미경 부산대 강사 / chinamky@yahoo.co.kr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상해대림타운 105-704호
(051)522-0411, 011-9713-8273
- 劉複春 동아대 교환교수 / (051)200-7133
- 유병태 인제대 교수 / (055)320-3180 / jungbtae@ijnc.inje.ac.kr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18-3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경남 김해시 상방동 한일@ 6-1005호 / (055)321-1131
- 유영림 동아대 강사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중앙@ 1203동 306호 / (02)663-8336
- 유중하 연세대 교수 / (02)2123-229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중문과
서울시 성북구 성북1동 178-59 / (02)762-2481
- 윤석례 진주보건대 교수 / (061)40-1870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
경남 진주시 신안동 22-16 한주파크맨션 1-1102 / (055)746-3029
- 윤승희 경남대 석사과정 / ysh2822@hanmail.net
- 윤우진 경성대 석사과정 졸업 / wjyun@yongma.tmc.ac.kr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92번지 8/5
(051)463-5836, 017-559-5837
- 윤수영 강원대 교수 / (0361)250-8181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강원대학교 중문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금호@ 202-808 / (0361)262-8858
- 윤 순 청주대 교수 / (041)229-83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중문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현대 3차@ 304-1404
- 윤정분 덕성여대 교수 / (02)901-8244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대 사학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한신@ 3-608 / (02)935-1602
- 윤취정 부산대 석사수료, 부산대대외협력실 / hoihoi420@hanmail.net
부산시 남구 감만동 현대@105동 505호
(051)512-5225, 017-544-5288

- 은무일 전북대 교수 / (0652)270-32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전북대학교 중문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우성@ 105-703 / (0652)221-1011
- 이강범 중앙대 교수 / (031)670-3178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산40-1 중앙대학교 중국어과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2-16 / (02)334-0233, 011-743-0239
- 이경규 강원대 교수 / (033)250-8182 / kklee@cc.kangwon.ac.kr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중문과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20 퇴계 주공@ 305-1401 / (033)262-3780
- 이경림 부산대 석사수료
울산시 북구 연암동 성원@ 1동 808호
(052)288-7750, 016-524-8130
- 이광철 한양대 교수 / (02)2290-0773 / ligzh@hanyang.ac.kr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중문과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38-23 대천빌라 401호 / (02)3785-0778
- 이규갑 연세대 교수 / (02)2123-2293 / kklee@yonsei.ac.kr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강변@ 104-1104
(042)488-3888, 017-336-2293
- 이근주 (055)288-5145, 016-553-2922
- 이근효 경성대 교수 / (051)620-4262 / l0623@star.kyungsung.ac.kr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1031-29번지 16/2 / (051)754-06231
- 이기연 경남정보대 교수 / leekiyon@nengjung.kit.ac.kr
(051)320-1452, 011-9303-1452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167 경남정보대학교 관광외국학부 중국어과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8844-39 17/3 / (051)758-6649
- 이난희 부산대 석사과정 / nanhe119@hanmail.net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285-3 9동 2반 / 011-852-4808
- 이동연 전남대 교수 / (062)530-3206 / leedy@chonnam.ac.kr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문학과
광주시 북구 문흥동 호반@ 120-601
(062)263-8157, 011-9606-8157
- 이문혁 세명대 교수 / (0443)649-1222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대학교 중문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 두진백로@ 201-1201 / (0443)644-8362
- 이미경 경성대 석사과정 졸업
부산시 수영구 광안1동 1046 대륙빌라 302호

- 이민경 부산대 석사과정 / 011-843-4338 / chinamin@hanmail.net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962번지 화목아파트105동805호
(051)927-4338
- 이민숙 울산대 강사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255-115번지 / (02)964-3720
- 이병관 공주대 교수 / (041)850-8385 / bkleee@kongju.ac.kr
충남 공주시 신관동 9-6 공주대학교 중국어과
대전시 중구 오류동 삼성@ 5동 902호
(042)534-8356, 011-455-8356
- 이상규 영산대 교수 / (051)540-7108 / lsg2409@sungsim.ac.kr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249 영산대학교 호텔관광학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 2차@ 202동 1401호
(051)554-2431, 011-9504-9701
- 이상도 울산대 교수 / (052)259-2550 / leesd@uou.ulsan.ac.kr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 청구@ 101-502호
(052)211-8241
- 이상엽 경남정보대 강사
부산시 남구 대연6동 정원 원룸오피스텔 701호
(051)633-6829, 017-552-6814
- 이상원 부산대 석사과정 / swlee2022@hotmail.com
011-831-2022
- 이상철 경원대 교수 / (031)750-5158 / sclee@mail.kyungwon.ac.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경원대학교 중문학과
송파구 문정동 72-3 건영@ 104-1002 / (02)409-3252
- 이성란 부산대·동서대 강사 / qizi99@hanafos.com
부산시 진구 개금3동 주공@202동203호
(051)891-0216, 011-554-0859
- 이소은 대만 정치대 석사과정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우성 베스토피아 3동 201호 / (051)554-0711
- 이수임 부산대 석사과정
부산시 남구 우암1동 뉴서울@ 104-704
(051)647-7858, 017-543-7857
- 이수진 부산대 박사과정 / qingquan@hanmail.net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790번지
(052)264-9805, 019-525-9805

- 이수희 울산대 석사과정 / liuxing@lycos.co.kr
 울산시 남구 목동 157-5 현대대륙 1차@ 101동 601호
 (052)272-8724, 016-592-8724
- 이용성 부산외대 강사 / muchak0@hanmail.net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203-308
 (051)622-7052, 016-592-7052
- 이우정 원광대 교수 / (063)850-6442 / leewj@wonnms.wonkwang.ac.kr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대전시 서구 삼천동 가람@ 13동 404
 (042)482-7885, 011-435-6442
- 이웅길 동서대 교수 / (051)320-1665 / woong@dongseo.ac.kr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산69-1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중어중문전공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삼협아파트 1404호
 (051)503-9312, 019-523-9312
- 이윤희 부산대 석사수료
 부산시 남구 광안1동 113-21 / (051)753-4042
- 이은경 경성대 석사졸업
 부산시 진구 개금1동 540-92번지 15/4
 (051)895-0845, 016-578-6793
- 이은진 울산대 석사과정 / woaini22@yahoo.co.kr
 울산시 동구 전하 1동 301-5 현대3단지@ 6동 208호
 (052)233-7847, 016-576-7847
- 이의활 대구효성가톨릭대 교수 / (054)850-316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중문학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청구타운 105-1406 / (053)582-0963
- 이인택 울산대 교수 / (052)259-2552 / itlee@uou.ulsan.ac.kr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울산시 무거 2동 옥현주공 3단지 302동 604호
 (052)223-8582, 016-810-8582
- 이재승 경남대 교수 / jaeseung@kyungnam.ac.kr zaishengli@hanmail.net
 (055)249-2144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449 경남대 국제언어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경남 창원시 반림동 현대@ 110-1204호
 (055)287-9609, 018-566-9609
- 이재하 경성대 교수 / (051)620-4264 / l2228@star.kyungso.ac.kr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202동 106호 / (051)945-7478

- 이정교 동아대 강사
양산시 웅산읍 유평신리 봉우@ 208동 1009호 / 017-571-7106
- 이정목 경성대 석사과정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의타워 6동 1501호
(051)624-5578, 011-9304-9081
- 이정애 울산대 석사과정 / lly-1979@hanmail.net
부산시 사상구 모라2동 1341번지 24동5반 협성아파트 2동 508호
(051)311-2950, 018-683-2960
- 이정화 경성대 석사과정 졸업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364-15 현대@ 101동 207호
(051)514-0615, 011-848-5708
- 이주호 인제대 교수 / (055)320-3179 / jungjino@ijnc.inje.ac.kr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18-3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전북 전주 완산구 서신2차 동아@ 202-1301호 / (063)2744-2062
- 이중희 인제대 박사과정 / (051)334-1239
- 이지영 울산대 석사과정 / ginny71@hanmail.net
부산 북구 덕천 2동 325-7번지 21/6
(051)332-1434, 019-514-1434
- 이지선 부산대 석사과정 / (051)612-9482 / sunny9482@hotmail.net
부산시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14동 904호 / 017-559-9482
- 이지예 부산대 석사과정 / gawai701@korea.com
018-444-0701
- 이창숙 인제대 교수 / (055)320-3176 / jungsook@ijnc.inje.ac.kr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18-3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3동 1-53 금호빌라 103호 / (02)365-2152
- 이창익 동의대학교 석사과정
경남 양산시 웅산읍 주남리 413 / (055)382-1293, 018-577-1813
- 이철리 경남대 교수 / (055)249-2143 / chulri@kyungnam.ac.kr
경남 마산시 합포구월영동449 경남대 국제언어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마산시 해운동 50두산아파트 203동 1304호 / (055) 603-5858
- 이철수 신라대 강사 / 011-560-1680 / xingfu21@hanmail.net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삼한2차@ 201-801
(051)542-8828, 011-843-7107
- 이철호 부산외대 강사 / chlee20@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현대@ 112-2303
(051)261-0315, 011-889-7179

- 이치한 창원대 교수 / hanige@sarim.changwon.ac.kr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관 중국학과
 (055)279-7333, 011-9008-5187
- 이현숙 경북대 강사 / aming7@hananet.net / 019-575-3258
- 이 현 대구효성가톨릭대 강사 / leehyun70@hanmail.net
 경남 김해시 외동 서광@ 202동 708호
 (055)323-0082, 011-9347-7971
- 이현주 경남대 강사 부산대 박사과정 / smart1026@yahoo.co.kr
 김해지 장유면 상문리 60-3 부영11차@ 104동 1103호
 (055)311-3609
- 이 호 licx@nongae.gsnu.ac.kr
 진주시 상대동 198-3 원룸@ 102호 / (055)752-9822
- 이화범 양산대 교수 / 016-252-1887
 경남 양산시 웅상을 평산리 선우4차@ 406-403
 whabum@ysu.ac.kr
- 이희옥 한신대 교수 / (031)370-6722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104-402 / (031)772-7303
- 이희원 마산대 교수 / jeil64@hanmail.net / (055)230-1360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100
 (055)245-1769 / 019-282-8285
- 임동석 건국대 교수 / (02)450-3374 / dslim@kkucc.konkuk.ac.kr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중문학과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우성@ 201-1303
 (02)447-2359, 011-349-3324
- 임동춘 제주대 교수 / (064)754-2823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산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문학과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교수@ A-206 / (064)755-1776
- 임수암 경남정보대 교수 / (051)320-1451 / salim@nengjung.kit.ac.kr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167 경남정보대학교 관광외국학부 중국어과
 부산시 영궁동1-10 삼성타워@ 101동 1303호
 (051)326-9393, 017-554-7481
- 임승배 원광대 교수 / (063)850-6445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원광대학교 중문학과
 전북 익산시 주현동 쌍방울 한양@ 104-803 / (063)855-1044
- 임춘영 동아대 강사 / 016-553-2072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5-126 1/1 / (051)646-2072

- 任曉禮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상봉@ 1동 303호
(055)746-4228, (055)740-1888
- 임효섭 동아대 교수 / (051)200-7132 / hyosublim@hanmail.net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중국어전공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현대아파트 109동1502호
(051)262-6531, 016-558-7132
- <ㅈ>
- 장성미 경성대 강사 / jsm828@yahoo.co.kr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207동 221호
(051)627-7143, 017-585-7143
- 장세호 경성대 교수 / (051)622-5331
부산시 남구 대연3동 110-1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민윤리과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경남마리나@ 105-1006 / (051)741-4098
- 장숙현 부산대 박사과정 / 018-553-1258 / zhshx2001@cn.yahoo.com
- 장연호 신라대 교수 / 011-9542-9807
- 장영백 건국대 교수 / (02)450-3376 / ybchang@kkucc.konkuk.ac.kr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중문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셋별마을 삼부@409-2001
(031)707-2934, 011-413-3376
- 장진광 울산대 석사과정 / jkjang@tit.ac.kr
부산 서구 부민동3가 8번지 12/1
(051)629-7220, 011-872-8883
- 장태진 울산시 남구 옥동 1403-29 / (052)269-7396
- 장혜영 마산대 석사과정 / (055)230-1339 / arangnw1979@hanmail.net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번지
(055)252-7593 / 018-559-7358
- 장호득 단국대 교수 / (02)2296-2539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26-1번지 2F
(02)709-2339, 017-575-2534
- 장효만 부산대 박사과정 / (051)620-3609
- 전광진 성균관대 교수 / (02)760-0290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중문학과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상용아트빌라 나동 301호 / (02)539-209
- 전 금 부산대 석사과정 / suijing2@hanmail.net
부산시금정구 구서2동 우성아파트 12동 403호
(051)513-5188, 016-569-5188

- 전남윤 부산대 석사과정 / (051)531-0652 / chinadal@hanmai.net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신동타워101동 1205호 / 016-649-0656
- 전보옥 광운대 교수 / (02)940-5481 / junbook@daisy.kwangwoon.ac.kr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447-1 광운대학교 중문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2동 명수대 현대@ 108-504
(02)812-0695, 017-254-9111
- 전승연 부산대 석사 졸업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삼성 미도@ 1동 1306호
(034)395-4684, 019-584-0329
- 전윤자 울산대 석사과정 / runzi@hanmail.net
대구시 서구 원대동 3가 1294-3 덕화빌라 402호
(053)353-4359, 016-528-2819
- 전재주 마산대 교수 / (055)230-1341 / yuanzhu@hanmail.net
경남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번지 마산대학교 관광통역계열
(055)230-1341 / 017-574-6900
- 전홍 신라대 강사 / 011-9018-8488 / hong@snakorea.com
- 정귀화 창원대 교수 / (055)279-7332 / guihwoa@sarim.changwon.ac.kr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군 중국학과
경남 김해시 동상동 동상토지지구 21-2 태화빌라 B-102
(055)333-3306
- 정상봉 건국대 교수 / (02)450-3390
서울시 성동구 모진동 93-1 건국대학교 철학과
서울시 광진구 자양 3동 한라@ 102-106 / (02)457-5575
- 정상홍 성균관대 교수 / (02)760-028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경기도 의정부시 가농1동 주공@ 15-405 / (031)876-4019
- 정여정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39-6 / (055)246-0083
- 정옥근 동의대 교수 / (051)890-1258 / ogjeong@dongeui.ac.kr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 동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19 두산 2차@ 209동 2002호
(051)701-0461, 016-590-0461
- 정용민 부산대 석사과정 / jackiss@hanmail.net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화목@ 110-1506 / 016-853-0850
- 정우광 협성대 교수 / (031)2990-761 / queen88@unitel.co.kr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상리 8-1 협성대학교 중국어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1동 구현대@ 11-1202 / (02)543-2451
- 정우열 동의대 강사 / wooyolj@yahoo.co.kr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340번지 현대@ 1703호
(051)743-4813, 011-780-1063

- 정 원 경성대 강사 / 019-543-6277 / oliveone@hanmail.net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56 오양 평구@ 1동 206호
(051)751-2480
- 정원호 인제대 강사 / sanbbo61@hanmail.net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한양타워 102동 701호
(051)862-5519, 017-543-5518
- 정원지 전북대 교수 / (063)270-3218 / chongwj@moak.chonbuk.ac.kr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전북대학교 중문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7-204
(063)225-3498, 018-619-3498
- 정은진 서울대 석사과정 / 016-259-0082 / hual706@hanmail.net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108-7 206호 / (02)871-6957
- 정 일 목포대 교수 / (0636)272-8153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목포대학교 중문학과
전남 목포시 용당1동 1199-1 종원골든하이츠 308
(0631)273-1512
- 정주연 산동대 석사과정 / dermut@hanmail.net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장우빌라 B동 203호
(051)333-2445, 016-805-2445
- 정지수 부산대 석사과정 / anita520@hanmail.net / 017-846-7082
- 정지영 경남대 석사과정 / twobbeng@hanmail.net
- 정진경 부산대 박사과정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교사 / jgnara@hanmail.net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 한양@ 3동 305호
(051)502-4338, 017-553-4330
- 정진배 연세대 교수 / (02)2123-2291 / cjby@yonsei.ac.kr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서울 양천구 신정7동 목동 신시가지@ 1115-301 / (02)2646-9133
- 정차근 창원대 교수 / (055)279-7331 / jungchgo@sarim.changwon.ac.kr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사회과학군 중국학과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67-1 현대맨션 402호
(02)693-8347, 019-393-8347
- 정태업 부산외대 교수 / (051)640-3419 / jungteup@hanmail.net
부산시 남구 대연5동 1281-1 2/3 / (051)624-2426, 019-831-2426
- 정해용 신라대 교수 / (051)309-5692 / sillajhy@hanmail.net
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산1-1 신라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 정현철 경상대 교수 / (055)751-5895 / chungghch@nongae.gsnu.ac.kr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러시아중문학부 중어중문학과
진주시 신안동 33-16 한주파크맨션 1동 1102호

- (055)746-3029, 011-867-1188
제나미 울산대 석사과정 / daum5109@hanmail.net
부산 사하구 신평1동 82-13번지 19통 2반
(051)202-5109, 016-846-5109
- 제영미 동의대 석사과정 / ying-mei@hanmail.net
경남 남해 이동 용소리 656번지
(051)890-3280, 011-9530-5089
- 조관희 상명대 교수 / (041)550-5132 / trotzdem@sinology.org
http://users.sinology.org/troztzdem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20 상명대학교 중문과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76-1 연신빌라 206호
(02)356-7794, 019-407-7794
- 조광수 영산대 교수 / (055)380-9210 / chobag@chollian.net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산150 영산대학교 국제학부 중국어전공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6-4 / (051)758-6098
- 조가희 울산대 석사과정 / janett@hanmail.net
울산시 남구 달동 삼산선경@ 1동 1807호/
(052)274-1675, 016-858-1675
- 조미정 경상대 강사 / mjcho0310@hanmail.net
진주시 칠암동 492-10 / (055)752-4548, 011-585-9748
- 조수영 부산대 석사졸업 / yongyuan01@hanmail.net
울산시 남구 무거2동 571-13번지 31/4
(052)277-2768, 016-597-2768
- 조성환 서라벌대 교수 / 011-506-3052 / chosh@sorabol.ac.kr
경주시 충효동 산165 서라벌대학 관관중국어통역과/ (054)770-3620
- 조윤경 부산대 강사 / chnyk67@hanmail.net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삼호가든 11-706
(051)747-3057, 019-521-3367
- 조윤수 동서대 강사 / cwj007@chollian.net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우성@ 7-701 / (051)512-0722
- 조하나 부산대 석사과정 / aiyao@hanmail.net
부산시 북구 금곡동 56-1 금곡 한솔@ 101-1401
(051)362-2292, 011-9558-5884
- 조현주 부산대 석사과정 수료
부산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26-1 2층
(02)2296-2539, 017-574-2534

- 周翠蘭 경희대 교수 / (031)201-2223 / clchoo@nms.kyunghee.ac.kr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중국어과
서울시 개포동 7단지 주공@ 702-601
(02)2226-5680, 011-9117-5680
- 주학태 동의대 강사
경북 영천시 야4동 유성타운 408호
(054)332-6544, 019-517-2287
- 지현희 부산대 석사과정 졸업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75 동보빌라 A동 301호
(051)582-3605
- 진광호 부산외대 교수 / (051)640-3103 / jkh@taejo.pufs.ac.kr
부산시 남구 우암동 55-1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경동@ 108-703
(051)743-6467, 016-577-1813

< ㄹ >

- 차경은 부산대 석사과정 / (051)752-0747 / sexy11@lycos.co.kr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411-4 남원빌라 501호 018-762-7614
- 차혜은 동의대 석사과정
부산시 동래구 영장1동 449-6번지 45/4
(051)527-5310, 017-853-5310
- 초화숙 부산시 북구 덕천3동 422-19 부전주택 2동 203호
(051)338-9287, 019-501-9287
- 叢成義 성신여대 교수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4 현대@ 103-204
- 최경영 부산시 남구 운현1동 한양@1-401 / (051)646-1012, 011-847-2012
- 최경옥 경성대 사학과 강사 / gyongoak@hanmail.net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307-12 / (051)552-1803, 017-857-5890
- 최경희 부산대 석사과정 / (051)513-3483 / new2630@hotmail.com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25-59번지 한신빌라 B동 302호
018-761-7655
- 최낙민 부산대 해양대 강사 / nacksu@hotmail.com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5동408호 / (051)312-5345
- 최성경 경남정보대 교수 / (051)320-1453 / choisk@nengjung.kit.ac.kr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167 경남정보대학교 관광외국학부 중국어과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398 대림@ 118동 1002호
(051)702-0090, 017-587-0090

- 최성석 진주시 평거동 들말 한보@ 107동 803호 / (055)741-5372
- 최애정 경성대 석사과정 졸업
포항시 만구 오천읍 구정리 우방 신세계@ 205동 510호
(056)292-8914
- 최영모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7-40 / (02)717-5987, 011-9749-5987
- 최영제 부산대 석사수료 / lingqi@pusan.ac.kr
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 163-5 14/1
(051)752-8881, 017-849-7907
- 최유득 울산대 석사과정 / daocaoren@hanmail.net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654-2번지
(052)268-2608, 016-9898-6094
- 최정옥 고려대 박사수료
부산시 금정구 서2동 297-300 28/4 / (051)525-5777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9-8호 22/7 / (02)921-2685
- 최천모 창원대 강사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중동 162번지 / (031)847-7869
- 최형록 부산대 석사수료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790번지 / (052)264-9805
- 최혜정 울산대 석사과정 / huijing3@hanmail.net
울산시 중구 학산동 9-21번지 오색빌라 302호
(052)297-3102, 018-684-9946
- 최 환 영남대 교수 / (053)810-2161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중문학과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1329-1 대덕M 2차 207-607
(053)472-4934

< >

- 하경심 연세대 강사 / hah-ks@hanmail.net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26-17 우성@ 501-1911
(02)586-4834, 019-586-4384
- 하영삼 경성대 교수 / (051)620-4266 / ysha@star.kyungsoo.ac.kr
부산시 남구 대연동 110-1 경성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부산시 진구 연지동 198-1 로얄맨션 1동 206호 / (051)807-6738
- 하윤정 울산대 석사과정 / faiji@hanmail.net
울산시 남구 목동 한라 빌리지 505호
(052)273-5540, 018-576-5540
- 한상덕 진주경상전문대

- 진주시 주약동 한주럭키@ 8동 403호
(055)757-5394 / 016-832-5499
- 하지윤 부산대 석사과정 / cute2314@hanmail.net
011-9519-2534
- 한선규 부산대 석사과정 / shuai0201@hotmail.com
018-521-0201
- 한중호 동의대 강사 / mugong4@dreamwiz.com
부산시 북구 덕천3동 421-17 7/2 / (051)331-7055, 019-506-9727
- 한지숙 부산대 석사과정 / hearty13@hanmail.net
부산시 진구 개금1동 태림@ 3-402
(051)894-8050, 011-9762-8050
- 許庚寅 단국대 교수 / (041)550-3174 / ken21c@yahoo.com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331 현대@ 105-403 / (02)391-7239
- 허귀순 동의대 석사과정
부산시 북구 덕천1동 도개공@ 106-505호
(051)331-1109, 018-586-0106
- 허종국 hurjk@mail.yzu.ac.kr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481-103번지 11/5 / (051)582-5771
- 호재영 부산외대 강사 / pia0117@hanmail.net
(051)646-3411, 016-506-1598
- 홍성희 울산대 석사과정 / hsh0129@orgio.net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337번지 연립 34호
(052)238-8207, 016-853-6207
- 홍순호 충남대 교수 / (042)821-5363 / shong@hanbit.chungnam.ac.kr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전시 서구 과정동 13-1 / (042)523-3004
- 화소영 동의대 교환교수 / (051)890-3273
부산시 진구 가야동 산24번지 동의대학교 효민생활관 1003호
- 황선복 부산대 박사과정 /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 hsb754@hanmail.net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망미 주공@ 112-1507
(051)754-2136, 016-835-2137
- 황선주 서원대 교수 / (031)261-65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 서원대학교 중국어과
충북 청주시 수곡 2동 두진 백로@ 105-202 / (041)291-0681
- 황승연 부산외고 교사 / 018-582-2520 / biyinia@empas.com
- 황연희 부산대 석사과정 / (051)722-0928 / 017-559-9482
부산대 해운대구 좌동 주공2단지1282번지201동1506호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약칭 KACS)

會 則

第 1 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年 2回 이상의 論文集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 2 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 1) 正會員: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義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 4) 名譽會員: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 3 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幹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명·運營委員 약간명·監事 2인은 總會에

서 選出하며 幹事 약간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の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總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的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幹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 4 章 會 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運營會員·幹事に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 및 議決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幹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年 2회 이상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 출판을 위한 編輯 업무를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論文集은 2회 발간의 경우 8월·12월, 3회 발간의 경우 3월·8월·12월, 4회 발간의 경우 3월·6월·9월·12월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編輯委員會는 編輯幹事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9명 內외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고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정한다.

第 5 章 財 政

第23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
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基
金은 別途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第24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 6 章 附 則

第25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
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6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7條 本會는 本會勅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
의 分料를 둘 수 있다.

第28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29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1984년 10월 23일 제정

2000년 2월 26일 제1차 개정

2001년 8월 20일 제2차 개정

論文審査 細則

제1조 《中國學》의 게재용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어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정한다.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재의 적합성(20%)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3) 이론의 참신성(20%)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3)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게재 유보, (4) 게재 불가 등으로 나눈다.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대상에 우선 포함되고,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근거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반영 후 게재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5인의 홀수 인원으로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편집위원회는 심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논문심사위원회에 원고를 제시하고 게재여부의 심사를 요구한다.
- 11)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4)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6) 원고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 17)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발표 당시 토론자에게 최종 사독을 위촉하여 토론 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18)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9)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20)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21)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투고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간격	정렬 방식	글꼴	장평	자간	글자 크기
본문	0	0	韓 2 中 4	150	양쪽 혼합	신명조	95	0	10
인용문	3	2	0	140	양쪽 혼합	신명조	95	0	9
각주	2	0	-2	120	양쪽 혼합	신명조	95	0	9
참고문헌	5	0	-5	150	양쪽 혼합	신명조	95	0	9
제목 크기	논문제목	-	-	120	가운데	견명조	95	0	17
	장제목	-	-	2	왼쪽	중고딕	95	0	14
	절제목	-	-	2	왼쪽	중고딕	95	0	12
	소절 제목	-	-	2	120	왼쪽	중고딕	95	0
편집용지	용지 종류	용지 방향	여백주기						
	A4용지	보통	위·아래	원·오른쪽	머릿말				
			위 60 아래 60	왼쪽 50 오른쪽 50	10				

1. 논문 제출마감은 매년 12월말, 6월말까지로 한다.
2. 한글 워드는 한글 97판 이상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편집자 임의로 코드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3. 논문 제출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영문이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벽자나 기호를 써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력본에 기재한 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논문 제출시 반드시 참고문헌을 부기하고, 중국어나 영어로 된

초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논문 제출자는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6.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최대분량이 200매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분량이 과다한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판보조비를 받습니다.
7.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5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8. 디스켓과 출력본 4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디스켓에 필자의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명은 “『 』”(키보드에 있는 겹낫표)”, 논문과 작품명 및 편명은 “「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半年刊 中國學 第19輯

2002년 12월 15일 인쇄

2002년 12월 20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長：柳明熙

發行處：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609-735)

TEL : 051) 510-1508

FAX : 051) 514-1780

H. P : <http://home.pusan.ac.kr/~zhongwen>

印刷處：中文出版社(053-424-9977)
